「'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2013.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KMAC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3

KMAC 대표 김종립

연 구 총 괄 : 이 립(경영전략본부장)
연구책임자 : 송광호(경영전략본부팀장)
박성훈(치프 컨설턴트)
이용기(시니어 컨설턴트)
장은주(시니어 컨설턴트)
백송이(컨설턴트)

목 차

I. 평가개요 ····· 1

1. 기금사업 평가개요 ····· 1
2. 기금사업 평가방법 ····· 5
3. 기금사업 평가절차 ····· 8
4. 기금사업 추진체계 ····· 10

II. 평가결과 요약 ····· 12

1. 최종점수 및 등급 ····· 13
2. 전략평가 부문 ····· 19
3. 사업평가 부문 ····· 21
4. 주요이슈 분석 ····· 38

III. 개선과제 ····· 72

1. 전략평가 부문 ····· 73
2. 사업평가 부문 ····· 74

IV. 단위사업 및 세부·기초사업 평가결과 ····· 92

1. 전략평가 부문 ····· 93
2. 사업평가 부문 ····· 116
   1) 1분과[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 117
   2) 2분과[문화예술공간운영] ····· 331
   3) 3분과[생활속의예술활성화] ····· 399
   4) 4분과[지역문화예술진흥] ····· 425
   5) 5분과[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 474

Ⅰ 평가개요

1. 기금사업 평가개요
2. 기금사업 평가방법
3. 기금사업 평가절차
4. 기금사업 추진체계

1. 기금사업 평가개요

□ 배 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기금으로써 문화예술지원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수익금 중의 일부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의한 평가, 위원회의 자체평가제도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내부평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한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위주로 진행되어 위원회의 지원프로그램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외부의 평가는 주로 기관운영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성과의 평가

○ 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출범함에 따라 자율성 신장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06년부터 실시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 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사업 평가의의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에 대응한 책임성 강화 및 기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의 성과와 재원의 적정 배분 체계 마련

□ ’11년도 기금사업 평가 대비 개선사항

항목	개선 의견	개선 방안
평가지표 및 기준	▪ 사업 중복성·모니터링(성과분석) 평가 강화 ▪ 사업특성에 기반 한 지표 설계 ▪ 자율지표의 적정성 및 효과성 강화 ▪ 평가결과 환류 중심의 대상사업 재정립	▪ 사업 중복성·모니터링(성과분석) 측정기준·배점 강화 ※ 중복성’(5→5, 재평:3), ‘모니터링’(10→15), ‘성과’(10→25) ‘모니터링’·‘성과’ 측정기준 : 기준충족형→등급화 ▪ 기관 임의로 설정하는 자율지표를 ‘평가단 제안 성과지표’를 참조하여 ‘특성화지표’ 설정·평가 ▪ 기초사업 중심으로 평가대상사업 재정립
평가절차 및 방법	▪ 사업 이해도 제고를 현장방문 필요 ▪ 측정기준·평가방법의 사전 이해증진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평가점수 반영, 실사시간 및 회수 강화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중심의 사전 현장방문 시행 ▪ 평가단 설명회 및 사전 평가정보 제공 ▪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감점

□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 평가대상 : 기금운용 전략,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기초사업

[기금사업평가 대상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기초사업	예산비중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관리부서
[100]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01] 문학창작지원	2.2%	2,350	예술지원부
	[102]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0.5%	500	
	[103] 공연창작지원	2.1%	2,250	
	[104] 창작매체 · 소통지원[1]	1.0%	1,070	
	[105]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2.6%	2,830	
	[106] 예술행사지원	4.2%	4,600	
	[107]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AYAF)지원	0.9%	972	
	[108]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6%	2,800	국제교류부
	[109]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5%	1,584	
	[110]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0.5%	589	
[200] 문화예술 공간운영	[201] 아르코미술관운영	0.8%	849	아르코미술관
	[20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3%	1,423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
[300]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301]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52.8%	57,400	문화복지부
[400] 지역문화 예술진흥	[401] 지역문화예술진흥	18.6%	20,250	예술지원부
[500]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5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0.7%	767	정책기획부(홍보) 사업평가부(발간)
	[5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0.5%	520	정책기획부
	[5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2]	6.4%	6,975	예술나눔부 문화복지부
	[504] 공공미술기반사업	0.9%	1,000	아르코미술관
5개	**18개**	**100%**	**108,729**	

※ 세부사업 내 기초사업 구성 현황

- **문학창작지원** : 문학창작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사이버문학광장운영
-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 **예술행사지원** : 공연예술행사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 **창작매체·소통지원** :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예술가소통공간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특집행사지원
-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 해외예술교류거점개발운영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공연예술인큐베이팅프로그램지원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 문화예술홍보, 문화예술간행물발간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예술나눔기부활성화(기부금사업 포함),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1) 예술지원정보서비스/예술가소통공간지원(미술관),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예술지원부)

2) 예술나눔기부활성화/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예술나눔부), 원로문예인복지지원(문화복지부)

○ 평가체계 : 기금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Driver인 ‘전략평가’와 사업 운영의 Result인 ‘사업평가’로 구성

- 평가부문의 체계적 구성을 통한 **성과 창출 활동의 연계성 확보**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외부평가지표 연계·활용을 통한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평 가 부 문	평 가 내 용
전 략 평 가 (Driver)	• 비전, 목표, 전략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중 ‘비전·전략’ 평가지표 활용**
사 업 평 가 (Result)	• 5개 단위사업 및 18개 사업에 대한 계획-집행-성과의 연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고객만족도 등 사업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활용**

□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및 배점

○ 전략평가

평가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전략평가	비전 및 전략개발	45
	주요사업 추진계획	45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10
합계		100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상의 해당 평가지표별 가중치 배분율에 따름

○ 사업평가

- 평가대상인 단위사업 및 기초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이며, 기타 사업실적 작성을 위한 항목
- 사업별 특성화 지표는 계획된 성과지표 외에 해당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량 또는 비계량 지표 2개를 설정

※「특성화 지표」는 기금사업의 질적평가 및 사업특성 반영,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 총괄반 및 평가단의 개선요구에 따라 마련됨

['1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사업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계획 (25)	사업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성과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5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0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사업 효과성 관련 특성화 지표 ※사업별 평가단 제안 특성화 지표(안) 참조	5
		② 사업 효과성 관련 특성화 지표 ※사업별 평가단 제안 특성화 지표(안) 참조	5
전체합계			100

※ • 밑줄 친 내용은 '11년 대비 변동된 평가지표 사항
• 사업별 특성화지표는 평가단에서 제안한 특성화지표(안)을 참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2. 기금사업 평가방법

□ 전략평가

○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전략평가는 <표1>의 3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별로 평가하고, 평점은 <표2>와 같은 6등급 기준으로 부여한다.

○ 지표별 평가등급에 대응하는 <표3>의 '등급별 환산점수'가 해당지표의 평점이 된다.

<표1> 전략평가의 평가관점

평가관점	정의	평가관점별 세부 내용
관리 방법	▪ 평가지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방법	▪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리방법 ▪ 사용하는 관리방법과 지표 요구사항 및 조직 환경과의 적합성 ▪ 기관의 관리방법 사용의 효과성 ▪ 관리방법이 반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와 신뢰성 있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는 정도
실행	▪ 평가지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관리방법이 적용되는 정도	▪ 관리방법이 기관에 적합하고 중요한 평가지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된 정도 ▪ 기관의 관리방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된 정도 ▪ 기관의 관리방법이 모든 적절한 작업단위에서 적용된 정도
학습	▪ 평가, 연구, 경험, 혁신 등을 통해 획득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 조직과 개인 수준의 학습을 모두 포함	▪ 평가—개선 사이클을 통한 관리방법의 개선 정도 ▪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정도 ▪ 개선 및 혁신 결과를 조직 내 관련 작업 단위 및 프로세스와 공유하는 정도

<표2> 전략평가 평가지표의 평가등급

구분	E	D	C	B	A	S
관리 방법	관리방법 부재 (임의적 접근)	가장 기본적인 관리방법 적용 시작 특정 영역에서만 기본적인 관리방법 적용	지표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체계적·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미약	지표에서 요구되는 일부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일부 영역에서 체계적·효과적이라는 증거 존재	지표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체계적·효과적이라는 증거 존재	지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방법 적용 이 방법이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효과적이라는 증거 존재
실행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실행 하고 있다는 증거 없음	관리방법의 체계적 실행 시작 단계 특정 영역에서만 관리방법의 체계적 실행 시작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비교적·체계적으로 실행 실행의 효과 없음	일부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잘 실행 일부 영역에서 실행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남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큰 차이 없이 체계적으로 잘 실행 대부분의 영역에서 실행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남	모든 영역에서 관리방법을 문제 없이 체계적으로 잘 실행 실행의 실질적 효과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남
학습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만 대응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의 초기단계 개선지향적 체계로 변화하는 초기 단계	실행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지표관리를 위해 핵심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작	핵심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를 통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법 실행 개선의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	평가를 통한 개선과 성과의 공유를 통한 조직학습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요한 경영툴이 됨 공유와 학습의 결과로서 개선과 혁신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증거 존재	평가를 통한 개선과 성과의 공유를 통한 조직학습이 모든 조직 단위에 걸쳐 주요한 경영툴이 됨 전사차원의 공유와 학습의 결과로서 개선과 혁신이 모든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표3> 비계량지표 평가등급별 점수표

등급	E	D	C	B	A	S
등급별 환산점수	30점	45점	60점	75점	90점	100점

□ 사업평가

○ 평가지표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준충족형’ 또는 ‘등급’ 평가 병행

※ ▪기준충족형 평가 :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준별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의견 기술

▪등급 평가 :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을 등급화하고 등급별 점수를 반영

□ 평가결과 등급화

○ (최종점수) 단위사업의 성과는 해당 세부사업별 성과의 합으로 창출되므로 평가점수는 해당 세부사업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산식

- 전략평가 : (전략평가점수×0.9)+(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 사업평가 : 단위사업 평가지표별 점수 = (∑해당지표의 세부사업별 점수)/세부사업 수

・기금사업평가 최종점수 = (전략평가점수 + ∑세부·기초사업(18개)점수)/19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가중치 적용시 조정점수 부여

○ (등급화) 단위사업・세부사업별 평가점수 결과를 토대로 절대등급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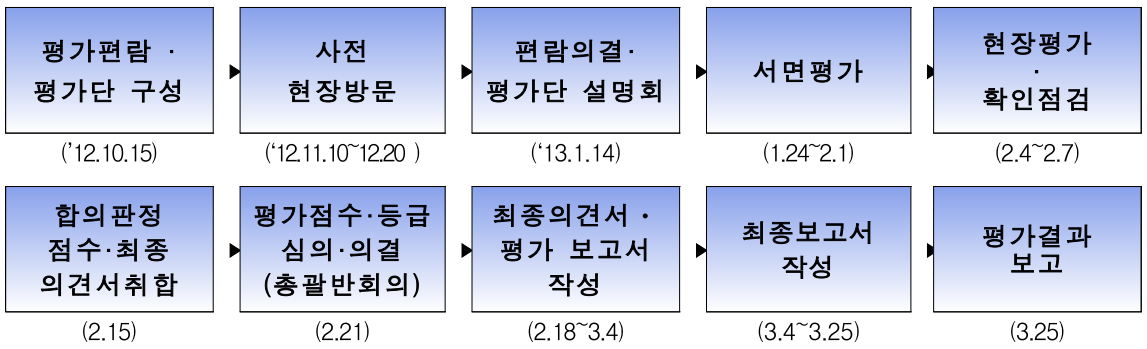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별 점수	90점 이상	80～90점 미만	60～80점 미만	50～60점 미만	50점 미만

※기재부「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상의 등급화 기준 적용

3. 기금사업 평가절차

□ 평가절차

【 평가 추진절차 및 일정 】



① 평가편람 · 평가단 구성

- 평가체계 현실화 및 평가단 전문성 제고
- 사업별 특성화지표 설정을 통해 평가지표의 사업특성을 반영하고, 전년도 개선과제 충실성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의 효과성을 제고
-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평가와 함께 실천력이 담보된 환류를 위해 문화예술 각 장르·경영·행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한 평가·피드백을 위해 사업별 복수평가를 실시하고 소위원장 체제 운영으로 평가의 책임성을 제고

※ 산출물 : '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평가편람, 평가단 구성표

② 사전 현장방문

-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평가의 적실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 사업집행 현장을 방문

※ 산출물 : 현장방문 의견서

③ 편람의결 · 평가단 설명회

- ' 12년도 평가편람에 대한 총괄반 의결, 평가기준·평가방법 공유

※ 산출물 : '12년도 평가편람·평가단 구성에 대한 총괄반 의결서, 설명회 자료집

④ 서면평가

- 평가부문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항목에 1차 점수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시 확인·점검 사항을 기술

※ 산출물 :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서면평가), 현장실사시 점검사항

⑤ 현장평가

- 문예위, 아르코미술관, 예술인력개발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확인·점검 및 2차 점수를 부여

⑥ 합의판정・최종의견서 취합

- 서면평가・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장 주도의 합의판정**을 실시하고 **평가위원별 최종의견서**를 작성

※ 산출물 : 합의판정 의결서, 분과별 합의판정 집계표, 평가위원별 최종의견서

⑦ 평가점수 등급 심의 의결

- 총괄반에서 분과별 합의판정점수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세부사업별 최종 평가점수 등급 심의 의결하여 확정

※ 산출물 : '12년도 총괄반운영위원회 확정 의결서

⑧ 평가결과 종합

- **(평가등급 산정)** 단위사업별 최종 점수 집계 및 평가등급 산정

※평가등급: 세부사업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보고서 작성)** 기금운영 사업평가 총괄 보고서, 단위사업별 평가보고서, 세부・기초사업별 평가보고서

⑨ 최종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별 평가보고서 취합・평가의견 보완, 세부・기초사업별 개선과제 우선순위 의견수렴 등 최종보고서 작성

⑩ 평가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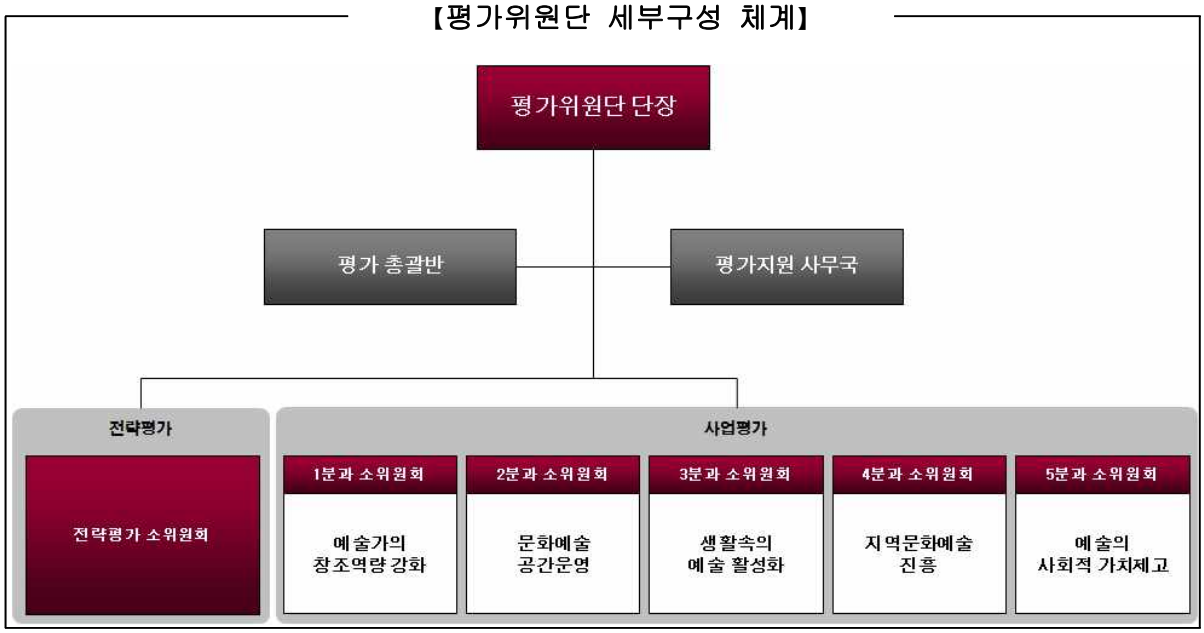
- '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고

4. 기금사업 추진체계

□ 평가단 구성방식 및 주요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기금사업평가를 총괄하고, 전략평가,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공간 운영,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진흥, 예술의 사회적 제고 등 6개 소위원회 운영

【평가위원단 세부구성 체계】



○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 세부 추진체계는 6개의 소위원회별로 **심의조정(위원장), 세부점검(평가위원), 실무지원(간사)** 등의 역할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

- **심의조정**은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결과(안)를 심의·조정하는 역할
- **세부점검**은 실적보고서 확인·점검, 근거자료 확인 및 1·2차 점수 부여, 세부사업 점검
- **실무지원**은 사무국 소속으로 평가권이 없으며, 소위원회별 진행상황 총괄 및 현장실사 지원

※ · 소위원회별 주요 산출물 :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최종 점수 및 보고서
· 기금사업평가 총괄보고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1차 작성책임을 가지며, 필요시 소위원회 내 타 평가위원에게 위임 가능

□ 평가단 구성현황

분 과	평 가 위 원			
평가단	평가단장		강석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략	총괄반	소위원장	정철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위원		이 립	KMAC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1-1분과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총괄반	소위원장	김세훈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소위원		이창기	강동아트센터 관장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2분과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총괄반	소위원장	권준원	동아방송예술대학 엔터테인먼트경영과 교수
	소위원		현경석	KMAC 마케팅본부 치프 컨설턴트
2분과 문화예술 공간운영	총괄반	소위원장	안치운	호서대학교 연극과 교수
	소위원		서정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분과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총괄반	소위원장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위원		유성용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분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총괄반	소위원장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소위원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5분과 예술의사회적가 치제고	총괄반	소위원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소위원		김종현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당연직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송광호	KMAC 경영전략본부 팀장

II 평가결과 요약

1. 최종점수 및 등급
2. 전략평가 부문
3. 사업평가 부문
4. 주요이슈 분석

1. 최종점수 및 등급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평가등급 결과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매뉴얼」상의 등급화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결과를 절대등급화 한 결과, 2012년도 19개 사업의 전체 평균은 80.2점이며, 평가등급은 ‘우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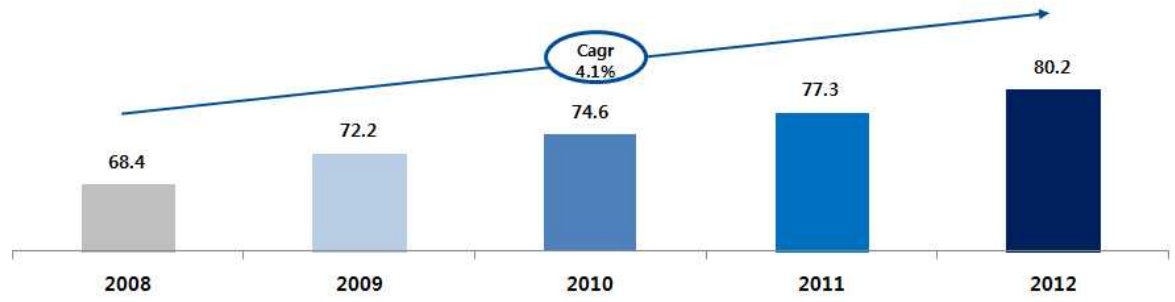
※전략 분과를 세부·기초사업으로 반영하여 총 19개 세부·기초사업으로 산정함

○ 이는 전년(77.3점) 대비 2.9점 상승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균점수가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2012년도 단위사업 등급분포는 ‘우수’등급 3개, ‘보통’등급 3개로 나타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점수 추이]

[연도별 기금평가 종합점수]



[연도별 단위사업 등급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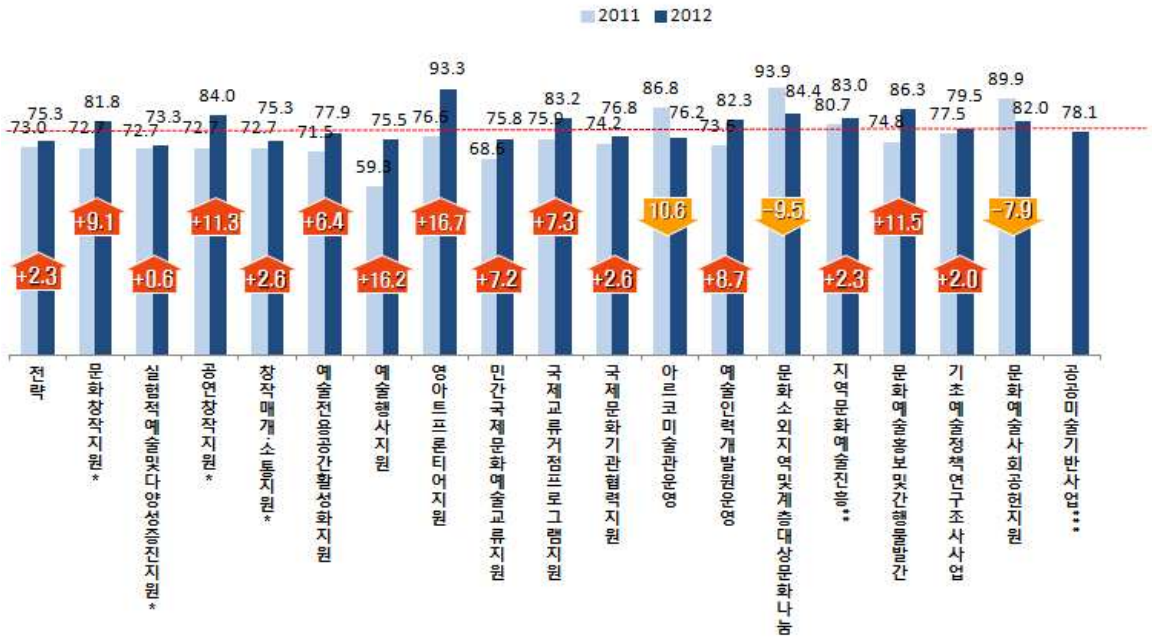
[2012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점수 및 등급]

분과	단위사업명	평가점수	등급
전략 분과	전략 평가	75.3	보통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79.7	보통
2분과	문화예술공간운영	79.3	보통
3분과	생활속의예술활성화	84.4	우수
4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83.0	우수
5분과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81.5	우수

분과 및 단위사업	세부·기초사업	취득점수	평가등급
전략 분과	전략평가	75.3	보통
[1분과]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문학창작지원	81.8	우수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73.3	보통
	공연창작지원	84.0	우수
	창작매체·소통지원	75.3	보통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77.9	보통
	예술행사지원	75.5	보통
	영아트프론티어지원	93.3	매우우수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75.8	보통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83.2	우수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76.8	보통
[2분과] 문화예술 공간운영	아르코미술관운영	76.2	보통
	예술인력개발원운영	82.3	우수
[3분과]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84.4	우수
[4분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83.0	우수
[5분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86.3	우수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79.5	보통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82.0	우수
	공공미술기반사업	78.1	보통
최종 평가점수		80.2	

[세부·기초사업별 환산점수]

(단위: 점)



*주1)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 '창작매체·소통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도 '예술창작지원' 1개 사업의 평가 결과와 비교함

**주2)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2개 사업으로 평가되어 2012년도에는 두 사업의 평가결과의 평균과 비교함

***주3) '공공미술기반사업'의 경우 2012년도 신규 사업

○ 전략 부문은 '보통'으로 평가되었고, 사업평가 부문의 18개 세부·기초사업 평가결과 '매우우수' 사업이 1개, '우수' 사업이 8개, '보통' 사업이 9개로 평가됨

○ 세부·기초사업별 환산점수 결과는 '영아트프론티어지원' 사업이 9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사업이 7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전년('11년)대비 평가점수가 증가한 사업은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16.7점)', '예술행사지원(+16.2점)',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11.5점)', '공연창작지원(+11.3점)', '문학창작지원(+9.1점)', '예술인력개발원운영(+8.7점)',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7.3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7.2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6.4점)', '창작매체·소통지원'과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2.6점)', '전략(+2.3점)', '지역문화예술진흥(+2.3점)',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2.0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0.6점)'으로 나타남

○ 전년('11년)대비 평가점수가 감소한 사업은 '아르코미술관운영(-10.6점)',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9.5점)',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7.9점)'으로 나타남

□ 주요 결과 요약

1) 평점 80.2로 우수등급을 받음

O 전년도에 비해 일부 단위사업에서 등급점수가 하락한 일면은 있으나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사업 중 공연장 창작지원 등 일부 세부사업의 평점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평점 77.3점보다 2.9점 상승한 80.2점을 받음

O 이것은 기존의 평가지표를 보완한 사업별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년도에 개선과제로 지적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조처를 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작업을 충실히 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업평가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실적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2) 사업별 특성화지표 개발 및 활용강화

O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평가지표는 대부분 수혜자 만족도, 평균 창작 작품 수 및 평균 관객 수 등 계량적 지표를 기본지표로 하고 있음. 사업에 따라서는 이러한 평가지표로도 결과를 판단할 수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어 자율지표(2011), 특성화지표(2012)를 개발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특성화지표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일면도 있음. 매해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적합한 특성화 지표 개발이 필요함

O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 성과지표 중 공연장 평균가동률이 지역문화예술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역 공연장의 창작품 발표사업 활성화 정도가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지역 문화예술역량을 높여 공연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인데 공연장 가동률과 공연고객 만족도는 재정지원만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음. 사회적 환경요인과 공연물의 질적 수준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실제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연장 평균가동률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3) 예술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체계 확립

O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연장 현업에 종사하는 무대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용규모가 부족하여, 신청자의 30% 정도만 수용하고 있는 형편임. 교육시설 확충이 어려운 시점에서 전년도(2011) 개선방안으로 지적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조속정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4) 동일 사안 중복지원 지양

O 중복지원, 지원 대상 선정 시 공정성 확보, 효율적 평가방안 등이 매년 개선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혜단체의 제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일면이 있음. 중복지원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임

O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국제교류재단 등 타 부처 산하기관과의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지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2011년 국내단체 해외공연의 경우 예술위원회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이 각각 전체지원액의 39%, 35%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5) 국제교류 활성화

O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 강화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국내단체의 해외공연, 해외단체의 국내공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교류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O 매년 신청건수에 비해 약 30%정도 지원이 결정되는 경쟁분야로 예술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2012년 '아르코-팸스 협력사업 지원'을 신설, 서울아트마켓(PAMS)에서 우수작품으로 기 선정된 우수작품의 해외진출공연을 지원을 함으로써 양 기관간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인 것은 긍정적인 사업성과로 판단됨

O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의 현장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집행실적이 높고, 해외사업 현장 모니터링, 해외개최사업 파트너 기관 VOC조사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건수와 횟수로 성과를 평가하는 한계가 상존함. 사업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방안에 대한 지속적 탐구와 현실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

6) 정산 및 결산관리체제 확립

O 생활 속의 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예산이 문예진흥기금 전체예산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 지원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제적 집행은 각 사업주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 및 결산관리에 치밀한 점검이 필요함.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 및 단체들의 만족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집행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O 보조금 정산 절차에 대한 불만이 예술위원회 고객만족도 저하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정산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기금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산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2. 전략평가 부문

□「전략 부문」평가지표별 점수 현황

○ 전략부문 최종점수는 75.3점이며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

○ 「전략평가」의 평가지표는 ‘비전 및 전략개발 영역’, ‘주요사업 추진체계 영역’,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이며, 환산점수 기준으로 각각 78.8점, 70.0점, 83.3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전략 부문 평가점수 현황]

평가부문	평가지표	획득점수	환산점수	평가등급
전략평가	비전 및 전략개발(45점)	35.4	78.8	보통
	주요사업 추진계획(45점)	31.5	70.0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10점)	8.3	83.3	
최종점수		75.3	-	

※ 최종점수 산식 : (전략평가점수×0.9) +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 주요 결과 요약

○ 미션·비전·핵심가치·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의 비전 하우스 체계가 내·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직을 체계화하여 구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한 점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기관의 특성상 문화예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충분한 재고(再考)가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인 경영기법을 시도하고 적용하는 것에 더 숙고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들이나 자원분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은 기관의 운용을 위해서도 개선해 나아갈 부분이라고 판단됨

- **(비전 및 전략개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의 비전 하우스 체계가 내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롤링하고 있으며,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시스템 구축을 위해 To-be Committee, 중장기전략소위원회, 미래전략포럼준비소위원회, 비전 Committee 등의 조직을 체계화 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바람직 함. 또한 이해관계자 유형을 가치의 흐름에 따라 가치생산형, 영향형, 구매형, 전달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따른 공유 노력이 인정됨. 사업효과성 및 조직역량에 근거한 주요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우선순위를 진행하여 사업확대, 역량전환, 잠재업무, 사업검토 등으로 유형화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반면, 핵심가치가 조직문화로 체화되어 과제나 프로그램으로의 연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언적인 수준에서 멈추고 있으며, 비전공유도 제고방안은 좋으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계획이 부족함

- **(주요사업 추진계획)** 기관의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사업성과와 정부정책 등 환경 분석 등을 종합하여 전략체계에 기반한 주요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도출함. 핵심 사업에 기반 하여 재무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함.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아웃컴 중심의 성과지표 발굴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반면, 사업실행계획의 구체적 내용 부족하며, 각 핵심 사업별 세부사업의 내용이 결여됨. 현재는 사업방향과는 별도의 인력조직 계획이 세워져 있어 중장기사업전략 또는 사업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인력/조직, 예산재무 등의 계획이 연계되어야 함

3. 사업평가 부문

□「사업평가부문」 세부·기초사업별 점수 현황

○ 18개 세부·기초사업 평균 점수는 80.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 세부·기초사업별 평가등급 분포로는 **매우우수 1개**(영아트프론티어지원 93.3점), **우수 8개**(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86.3점,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84.4점, 공연창작지원 84.0점,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83.2점, 지역문화예술진흥 83.0점, 예술인력개발원운영 82.3점,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82.0점, 문학창작지원 81.8점), **보통 9개**(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79.5점, 공공미술기반사업 78.1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77.9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76.8점, 아르코미술관운영 76.2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75.8점, 예술행사지원 75.5점, 창작매체·소통지원 75.3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73.3점)로 평가됨

[세부·기초사업별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현황]

분과 및 단위사업	세부·기초사업	계획(35점)				집행 (30점)		성과 (45점)		총점	평가 등급
		사업계획 (15점)		성과계획 (10점)							
		득점	환산	득점	환산	득점	환산	득점	환산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문학창작지원	12.0	80.0	6.0	60.0	25.0	83.3	38.8	86.1	81.8	우수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8.0	53.3	4.0	40.0	25.0	83.3	36.3	80.6	73.3	보통
	공연창작지원	14.0	93.3	6.0	60.0	25.0	83.3	39.0	86.7	84.0	우수
	창작매체·소통지원	10.0	66.7	8.0	80.0	20.0	66.7	37.3	82.9	75.3	보통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11.0	73.3	6.0	60.0	25.0	83.3	35.9	79.7	77.9	보통
	예술행사지원	10.0	66.7	6.0	60.0	25.0	83.3	34.5	76.7	75.5	보통
	영아트프론티어지원	12.0	80.0	8.0	80.0	30.0	100.0	43.3	96.3	93.3	매우우수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9.0	60.0	6.0	60.0	25.0	83.3	35.8	79.6	75.8	보통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0.0	66.7	6.0	60.0	30.0	100.0	37.2	82.7	83.2	우수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11.0	73.3	6.0	60.0	25.0	83.3	34.8	77.2	76.8	보통
문화예술 공간운영	아르코미술관운영	12.0	80.0	6.0	60.0	20.0	66.7	38.2	84.9	76.2	보통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2.0	80.0	10.0	100.0	20.0	66.7	40.3	89.6	82.3	우수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13.0	86.7	8.0	80.0	25.0	83.3	38.4	85.3	84.4	우수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13.0	86.7	8.0	80.0	25.0	83.3	37.0	82.2	83.0	우수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14.0	93.3	6.0	60.0	30.0	100.0	36.3	80.6	86.3	우수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14.0	93.3	2.0	20.0	25.0	83.3	38.5	85.6	79.5	보통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12.0	80.0	10.0	100.0	25.0	83.3	35.0	77.8	82.0	우수
	공공미술기반사업	15.0	100.0	6.0	60.0	25.0	83.3	32.1	71.4	78.1	보통
평균		**11.8**	**78.5**	**6.6**	**65.6**	**25.0**	**83.3**	**37.1**	**82.5**	**80.5**	**우수**

[세부・기초사업별 평가등급 분포]

등급	점수구간	세부·기초사업명	개수
매우우수	90점 이상	[107]영아트프론티어지원	1
우수	80점 ~ 90점 미만	[501]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301]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103]공연창작지원 [109]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401]지역문화예술진흥 [202]예술인력개발원운영 [503]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101]문학창작지원	8
보통	60점 ~ 80점 미만	[502]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504]공공미술기반사업 [105]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110]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201]아르코미술관운영 [108]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06]예술행사지원 [104]창작매체·소통지원 [102]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9
미흡	50점~ 60점 미만	-	0
매우미흡	50점 미만	-	0

□「사업평가」 항목별 평가의견

○ 평가의견 종합

○(사업계획) 전략체계 검토 및 사업목적을 반영하는 성과목표 설정과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통합이 필요함
○(성과계획) 전략목표에 부응하고 사업목적을 포괄하는 성과지표개발과 세부 프로그램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강화가 필요함
○(집행) 분기별 예산 집행률 제고, 모니터링활동 강화를 통해 포기사업 조기 발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전체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활동 확대가 필요함
○(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성과측정, 사업별 특성화 지표의 성과계획 반영이 필요함

○ 사업계획

(단위: 점)



*주1)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 '창작매체·소통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도 '예술창작지원' 1개 사업의 평가 결과와 비교함

**주2)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2개 사업으로 평가되어 2012년도에는 두 사업의 평가결과의 평균과 비교함

***주3) '공공미술기반사업'의 경우 2012년도 신규 사업

- 각 분과별 사업계획 평균점수는 78.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2.0점 감소함
- 이 중 '공공미술기반사업'이 100.0점(+21.5점)으로 평균점수 대비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이 53.3점(-25.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증가한 사업은 공연창작지원으로 35.8점 증가하였으며, 예술행사지원(26.6점), 문학창작지원(+22.5점), 영아트프론티어지원(+20.7점), 창작매개·소통지원(+9.2점),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7.8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5.2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4.0점), 지역문화예술진흥(+1.2점)도 증가함
- 반면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감소한 사업은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으로 19.6점 감소했으며,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18.6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17.9점), 아르코미술관운영(-13.4점),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10.2점), 기술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6.7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4.2점), 예술인력개발원운영(-2.8점)도 감소함
- 평균점수(78.5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창작매개·소통지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예술행사지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으로 나타남
-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사업 목적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으며, 기관간 MOU 등 사업 중복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부 자체 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의 적정성이 높게 나타남
- 각 사업의 성과목표는 보다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개발에서 사업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표를 발굴하여 세부사업 전반의 성과지표가 유사해지는 경향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성과계획

(단위: 점)



*주1)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 '창작매체·소통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도 '예술창작지원' 1개 사업의 평가 결과와 비교함

**주2)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2개 사업으로 평가되어 2012년도에는 두 사업의 평가결과의 평균과 비교함

***주3) '공공미술기반사업'의 경우 2012년도 신규 사업

- 각 분과별 사업계획 평균점수는 65.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4.0점 감소함
- 이 중 예술인력개발원운영과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이 100.0점(+34.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이 20.0점(-45.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증가한 사업은 예술인력개발원운영으로 43.7점 상승하였으며, 창작매개·소통지원(+10.5점), 지역문화예술진흥(+8.5점), 영아트프론티어지원(+8.2점),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7.2점), 예술행사지원(+6.9점),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3.5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2.9점)도 증가함
- 반면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감소한 사업은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으로 40.4점 하락했으며,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29.5점),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25.8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25.0점), 아르코미술관운영(-13.7점), 문학창작지원과 공연창작지원(-9.5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9.3점),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4.6점)도 감소함
- 평균점수(65.6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예술행사지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아르코미술관운영,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공공미술기반사업으로 나타남
- 사업별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각 분과별로 성과지표를 결과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며,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의 명확성과 합리성,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업의 성과목표치 설정 시, 타 조사에서 준용되는 기준의 일괄적 적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과거 실적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집행

(단위: 점)



*주1)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 '창작매체·소통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도 '예술창작지원' 1개 사업의 평가 결과와 비교함

**주2)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2개 사업으로 평가되어 2012년도에는 두 사업의 평가결과의 평균과 비교함

***주3) '공공미술기반사업'의 경우 2012년도 신규 사업

- 각 분과별 집행항목 평균점수는 83.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9.8점 증가되어 큰 차이가 남
- 이 중 영아트프론티어지원과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 발간이 100.0점(+16.7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창작매체·소통지원, 아르코미술관운영, 예술인력개발원운영이 66.7점(-16.7점)으로 집행항목 평균 점수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음
-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증가한 사업은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으로 44.4점 상승하였으며,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39.4점),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 발간(+34.5점),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33.9점), 예술행사지원(+23.2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20.0점), 영아트프론티어지원(+10.9점), 지역문화예술 진흥(+4.7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2.0점), 문학창작지원과 실험적예술및다양성 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1.8점)도 증가함
- 반면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감소한 사업은 아르코미술관운영으로 20.3점 하락했으며,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15.5점), 창작매개·소통지원(-14.8점), 문화 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13.6점), 예술인력개발원운영(-12.3점)도 감소함
- 재원이 당초 계획된 주체에게 명확하게 집행되었으며, 사업의 개선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한 점 등이 긍정적임
- 일부 사업의 실제적 집행은 각 사업주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 및 결산관리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아울러,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 및 단체들의 만족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집행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성과

(단위: 점)



*주1)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 '창작매체·소통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도 '예술창작지원' 1개 사업의 평가 결과와 비교함

**주2)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2개 사업으로 평가되어 2012년도에는 두 사업의 평가결과의 평균과 비교함

***주3) '공공미술기반사업'의 경우 2012년도 신규 사업

- 각 분과별 성과항목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0.1점 증가되어 점수의 큰 변동이 없음
- 이 중 영아트프론티어지원이 96.3점(+13.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공공미술기반사업이 71.4점(-11.1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증가한 사업은 영아트프론티어지원으로 30.7점 상승하였으며, 예술인력개발원운영(+16.6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9.2점), 공연창작지원(+6.4점), 문학창작지원(+5.8점),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4.4점), 창작매개·소통지원(+2.6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0.3점)도 증가함
- 반면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가장 감소한 사업은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으로 9.8점 하락하였으며,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9.7점),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8.0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7.5점),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6.8점), 아르코미술관운영(-5.0점), 지역문화예술진흥(-2.5점), 예술행사지원(-2.0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1.8점)도 감소함
- 평균점수(82.5점)보다 낮게 평가된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과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예술행사지원으로 나타남
- 각 분야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이 매년 성장 추이를 보이고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도가 향상되는 등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 프로세스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특성화지표를 통해 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한 객관화된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특성화지표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점도 있어,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적합한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1분과 :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사업은 총 10개의 세부·기초사업으로 구성됨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 [101] 문학창작지원, [102]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103] 공연창작지원, [104] 창작매체·소통지원, [105]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106] 예술행사지원, [107] 영아트프론티어지원

※ 국제교류 : [108]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09]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10]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 1분과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보통 ' 등급을 받음. 전년도 사업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던 영아트프론티어지원 사업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고, '미흡' 판정을 받았던 예술행사지원 사업이 한 등급 상승된 '보통' 판정을 받음

○ 예년의 예술창작지원사업을 문학창작, 실험예술, 공연창작, 창작매체·소통지원으로 분화해서 각각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전년도 보다 향상된 평점을 받았고, 영아트프론티어지원 사업은 단순 신청건수 대신 수요예측 분석을 강화하고, 단순 관람객 수 대신 평균 창작활동 및 타 분야 협업 활동 유발도를 특성화 지표로 개발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예술행사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공연 및 전시예술행사의 통합목표치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됨

○ 세부사업 공통적으로 시·도 문화재단 등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 지원 대상 선정 시 공정성 확보, 지원결과에 따른 효율적 평가방안 등이 매년 개선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세부사업별로 특성화지표의 개발, 중복지원 배제, 수용예측 방안 개발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일면이 있음. 이를 보완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국제교류]

O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과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사업과는 달리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한 급 높아진 '우수' 등급을 받았음. 전년도 지적되었던 예산집행부분을 개선하고 성과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판단됨

O 민간국제교류지원 사업은 매년 신청건수에 비해 약 30%정도 지원이 결정되는 경쟁분야로 사업의 목적이 국제교류를 통한 창조역량 강화인 만큼 예술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2012년 '아르코-팸스 협력사업 지원'을 신설, 서울아트마켓(PAMS)에서 우수작품으로 기 선정된 우수작품의 해외진출공연을 지원을 함으로써 양 기관간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인 것은 긍정적인 사업성과로 판단됨

O 집행실적이 높고, 해외사업 현장 모니터링, 해외개최사업 파트너 기관 VOC 조사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건수와 횟수로 성과를 평가하는 한계가 상존함. 사업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방안에 대한 지속적 탐구와 현실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

O 국제교류재단 등 타 부처 산하기관과의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지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2011년 국내단체 해외공연의 경우 예술위원회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이 각각 전체지원액의 39%, 35%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사업계획

- 중장기 목표인 ‘창작활동 10%성장’ 과 전략목표인 ‘예술창작역량 강화’ 및 14대 전략과제를 통해 체계적인 창작지원 정책체계를 갖춰 사업목적에 적합한 당위성 확보에 긍정적 노력이 엿보임. 특히 영아트프론티어지원사업은 신진 예술가 지원육성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합목적성면에서도 최적의 지원사업으로 성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제반 성과지표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의 표준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진의 각고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인 사업이라 평가함
- 반면,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시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사, 중복지원 및 특정장르 편중지원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성과계획

- 여전히 각 사업의 성과목표는 보다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개발에서 사업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표를 발굴하여 현재와 같이 세부사업 전반의 성과지표가 유사해지는 경향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성과 목표치 설정도 마찬가지로 타 조사에서 준용되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사업이 전년실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집행

-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와 환류 시스템 개선 등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행 노력으로 평가됨
- 반면, 모니터링이 지원 사업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활동방식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마다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사업의 목적에 조응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성과

- 각 분야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도 매해 성장 추이를 보이는 등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 프로세스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특성화지표를 통해 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한 객관화된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2분과 : 「문화예술공간운영」

O 2분과 「문화예술공간운영」 사업은 총 2개의 세부·기초사업으로 구성됨

※ [201] 아르코미술관운영, [20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O 미술관 운영평가는 전년도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반해 올해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인력개발원의 경우 전년도의 ‘보통’ 등급에서 올해에는 한 단계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아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 미술관의 경우에는 계획부분과 집행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인력개발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점수가 낮았던 성과계획과 집행부분에서 지적된 개선사항 등을 충실히 개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받았음

O 이러한 상반된 평가결과는 미술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못한 것에 있음. 미술관 특성화 지표로 설정한 전문가 만족도 및 기획프로그램 예술창작여건개선 지표의 지속적인 보완 및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O 예술인력개발원은 교육기관임. 따라서 단순히 교육생 만족도 향상이란 양적인 목표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 예술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지, 예술창작 여건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O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연장 현업에 종사하는 무대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용규모가 부족하여, 신청자의 30% 정도만 수용하고 있는 형편임. 전년도(2011) 개선방안으로 지적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조속 정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O 사업계획

- 공공미술관으로서 전시, 교육, 연구의 기능을 골고루 수행하려는 의지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으며 인사미술공간운영에 있어서도, 그 목적인 신진예술가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 반면 차별화 포인트와 아르코미술관의 가치 간 관련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함. 인력개발원의 사업은 분명한 편이나, 공연예술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O 성과계획

-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미술관 이용자 수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것임. 인력개발원의 경우, 지표와 사업 내용이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성과지표와 목적이 분명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시각 예술의 전문성에 일반 관객의 수와 만족도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있음. 결과지표에 있어서, 결과의 내용(시민의 예술이해력, 심미적 향상에 관한 지표는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며, 인력개발원의 경우, 측정 산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만족도라는 것만으로는 성과지표의 명확성을 규정하기 어려우며 교육효과의 파급내용,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집행

- 미술관운영 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인력개발원의 경우, 재원 집행률이 96.4%이나 미집행금액은 집행과정에서 운영비를 절약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술관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다각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반면, 인력개발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특성상, 모니터링의 결과를 교육내용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흡한 편임

O 성과

- 미술관의 경우, 목표치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인력개발원의 경우도, 2012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 반면, 두 가지 성과지표는 매우 한정된 지표라고 할 수 있고, 미술관 전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성과지표가 단순한 편으로 미술관 사업의 다양성에 비하여 협소한 편이고, 결과적으로 미술관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인력개발원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는 지금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함

(3) 3분과 : 「생활속의예술활성화」

○ 3분과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구성됨

※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문화나눔(문화바우처/343억원, 소외계층 문화순회/80억, 사랑티켓/24억, 전통나눔,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48억, 문학나눔, 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창작 표현활동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총 예산 574억 원으로 구성됨)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분과별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음. 실제적으로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국민 평균 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를 1.2배로 줄이는 데 일조하였으며, 사업별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강화하여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사업운영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지방문예회관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목적이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된 복권기금의 사용목적과 불일치한 일면이 있음. 지역민에게도 수도권의 우수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으로는 논리가 부족함. 합당한 논리개발이 필요함

○ 사업예산이 문예진흥기금 전체예산의 약 반을 차지할 만큼 대규모 지원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제적 집행은 각 사업주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 및 결산관리에 치밀한 점검이 필요함.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 및 단체들의 만족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집행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O 사업계획

- 사업목적이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 대상자의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한 조직과의 협약 노력하고 있음. 성과측정을 위한 논리모델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목표달성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민간단체의 지원사업들과의 중복가능성 높으며, 운영주체의 다양성에 따른 통제 및 평가도 복잡함

O 성과계획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논리모델이 체계적이며, 논리모델에서 추구하고 있는 산출지표를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있음
- 예술사업의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면 측정지표의 설정은 매우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지표임
- 다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기타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향유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인 측면의 고려가 미흡함

O 집행

- 배분사업 특성상 집행률 99.6%수준은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함.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체계가 매우 훌륭함.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는 미온적임

O 성과

-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획된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수혜자의 만족도도 높음. 개선과제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하였음. 사업별 특성화 지표설정도 타당성이 높음. 그러나 조사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4분과 : 「지역문화예술진흥」

O 4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구성됨

※ 지역문화예술진흥(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시도기획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지역문화협의체 지원)

O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예술 역량을 높이는 것을 사업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성과계획, 예산 집행률 및 성과실적이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향상된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에 이어 '우수' 등급을 유지함

O 지역문화예술의 균형과 성장이라는 이원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형 사업(지역문예활동 지원)과 특화형 지원(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에 차별화 된 기금배분 원칙을 정해 이를 사업수행에 적용하는 등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역의 지방비 매칭 비율을 사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O 한지협의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전국 3대 권역(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별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체제 운영,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기관 에 위탁 평가를 추진하는 등 문제점 개선 및 사후결과 환류 과정을 활발히 수행한 것은 매우 고무적임

O 성과지표(고객만족도, 관람객수,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 중 공연장 평균 가동률이 지역문화예술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역 공연장의 창작품 발표사업 활성화 정도가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지역 문화예술역량을 높여 공연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인데 공연장 가동률과 공연고객 만족도는 재정지원만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음. 사회적 환경요인과 공연물의 질적 수준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실제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연장 평균가동률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경영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O 일반적으로 평가보고서의 양식이 복잡하고 제출시기가 빨라 해당 지역단체 및 기관에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보고서 형식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 16개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의 기금 배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단체 역량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성과계획

- 가장 중요한 재원 배분 등에 있어, 여전히 지역배분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지역격차 우선 또는 성과우선에 따라 세부사업별 성취도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사업목적과 과제의 연결 합리성 제고 및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을 보임

○ 집행

- 지역협력관 제도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지표를 연동한 성과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이 쌓아짐과 아울러, 사업 개선을 위해 지역 문예진흥 중기전략 등 T/F 구성 운영 등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성과

-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충분히 초과달성하였는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통해서도 관람객수의 경우, 수도권은 103.3%, 비수도권은 131.8%, 공연장가동률의 경우 수도권은 102.2%, 비수도권은 133.6%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으로써, 당초 사업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모습을 보임
- 효율적 재정 집행과 성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재편과 우수 사례에 대한 홍보강화 등과 함께, 성과위주의 효율적 지원체계의 검토(예. 사후지원방식 등),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성과측정 등이 더 보강된다면, 더 많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5분과 :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 5분과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사업은 총 4개의 세부·기초사업으로 구성됨

※ [5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5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5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504] 공공미술기반사업

○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사업은 지원 사업이 아닌 예술위원회의 직접사업으로 예년에 비해 사업목적 설정이 명료하고 예산 집행률이 기준을 충족하였고, 모니터링 체계 운영도 충실하여 전년 대비 향상된 평가를 받음. 이것은 사업평가에 대한 실적보고서의 작성이 충실하여 성실하게 평가에 임함으로써 실적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국예술해외소개 간행물 발간 및 배포사업은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외국어 출판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단순한 예술서적의 발간이라는 차원을 우리 문화예술의 적극적 해외홍보란 측면에서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연구조사사업의 경우 사업목적과 추진방식이 명확함에도 성과목표가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지표의 구성이 여전히 건수 위주로 되어있어 성과목표치 설정에 적정성이 부족한 일면이 있음

○ 사업계획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은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의 명료성, 사업 중복성이 없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추진 과정의 적정성도 높게 나타남

○ 성과계획

- 성과 계획에 있어서는 성과 목표가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이 약하고, 성과 목표치 수준이 낮거나 산출방식이 단순히 전년 대비 실적으로 제시하거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집행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은 사업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 높아서 기준을 충족하였고, 모니터링 체계 운영도 충실하여 80점 이상의 양호한 평가를 받음

○ 성과

-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성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 부족으로 인해 성과 결과의 평가에서도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 ‘성과 목표 및 목표치 설정’의 개선이 필요함

4. 주요이슈 분석

(1)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성과지표의 사업내용 포괄여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 설정여부, 정의 및 측정산식의 명확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함

- 총 18개 세부사업 중「공연창작지원」,「예술인력개발원운영」,「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지역문화예술진흥」,「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의 5개 사업 성과지표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외 13개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전략목표에 부응하고 사업목적을 포괄하는 성과지표개발과 세부프로그램별 목표설정의 타당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내용(부정의견 및 개선제안)]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평가내용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문학창작지원	▪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자 수는 결과지표이기는 하지만 창작과 향유의 양측면에 걸친 특성을 가짐으로써 '창작'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사업 중에 작고문인선집 발간지원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량적 근거 제시 미흡함 ▪ **사이버문학광장 및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관련 성과지표가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곧, 사이버문학광장이나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사업은 문학창작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이 강조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	▪ 성과지표는 예술 활동 및 작품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는 실험성과 다양성과는 관련성이 낮은 지표로 구성됨 ▪ 지원 대상 만족도나 평균창작작품 수, 평균 관람객수 등은 문학창작지원 사업의 지표와 대동소이하여 본 사업의 지원 취지를 명확히 살리고 있지 못함 ▪ 특히, 평균 관람객수와 같은 성과지표는 작품의 실험성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 대중성에 대한 지표로 더 가까워 사업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지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에 맞게 대체,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연창작지원	▪ 공연창작지원사업의 목적이 '우수'창작물 지원에 초점이 있는지, '창작기회'조성에 초점이 있는지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창작물에 대한 지원이라면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나, 위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며, 개발된 지표는 주로 일반적인 창작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의 공연창작지원 사업 성과지표에 가까움 ▪ 현 성과지표에서는 '평균관람객수'를 지원대상자의 예술적 완성도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람객수가 작품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계량적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이 우수한 창작초연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면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시에 사업목적에서도 창작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주요평가내용
	창작 매체 · 소통 지원	▪ 성과지표가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사이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예술가의 집 이용자 수나 예술가의집 이용 만족도는 예술가의 창작을 매개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지 않고, 단순한 공간이용과 관련된 측면의 지표로 '사업목적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마찬가지로 평균창작품 수는 예술가의 집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창작품 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평소 창작활동을 많이 하는 예술가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평균창작품 수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부적절함 ▪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매개하고 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공간운영이나 온라인정보서비스 제공, 발간물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이 어떻게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매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예술 전용 공간 활성화 지원	▪ 장르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각 이질적 장르들의(문학, 시각, 연극, 무용 등) 공간가동률 일률 적용으로 인한 부적합성으로 성과평가 기준의 모순이 도출될 우려가 있어 성과지표의 보다 정교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문학의 경우 공간가동률의 의미가 다른 예술장르와 달라 직접적 비교가 어렵고 이를 다른 장르에 실적 합산할 시 산출정보의 왜곡현상이 우려되어 보다 적절한 지표설정이 요구됨 ▪ **공간가동률 기준의 차별화 적용(문학창작공간과 공연장 가동률 상이)과 평균관람객 기준의 모호함, 수혜대상 기관에서 통보된 실적위주의 과다산정 방지책 강구 등을 포함한 합리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예술 행사 지원	▪ 축제의 경우 일반적인 예술문화공간 및 예술인 지원의 형태와 같이 많은 창작물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창작품 생산이 47개 사업에 2,544건이라는 많은 수치가 말해주듯 지역축제의 행사성 레퍼토리 공연은 그 자체가 예술단의 고유작품으로 창작의 의미도 있을 것이나, 통상적 개념의 무대창작 활동이라 평가받기는 어려워 생산수치를 인정하기 곤란함. 이러한 것을 시각분야와 동일한 관점에서 측정하여 오류가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어 보다 정교한 지표측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특성과 기능적 차이가 반영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	▪ 1인당 창작 작품 수만으로 지표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다작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1개의 단일 작품이라도 킬러 콘텐츠 여부에도 큰 비중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표설정이 보강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지원 취지상 창작 작품 수 양 적인 요소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적 평가요소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
	민간 국제 문화 예술 교류 지원	▪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가 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인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를 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할 경우 여타 기관의 국제교류사업과의 차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임 ▪ 사업의 목적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작 작품의 수나 평균관람객수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람객의 수가 예술작품의 질적 평가 기준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지표 정의 및 측정 산식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 지표 산식에 있어서 전체 지원 사업 건수로 분모를 설정하여 지원 단체 별 창작여건 개선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작품의 품질 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한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 ▪ **국제적 경쟁력 강화 여부에 대한 성과 지표 보완이 필요함**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평가내용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 해외 교류 파트너의 만족도(또는 평가) 및 파견 예술가의 해외 체류기간 중의 예술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듯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산식에서 제시된 국제교류연계사업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측정 산식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국제 교류 연계 사업 건수는 2년을 해당 기간으로 하고 국제교류 지원 사업 건수는 1년만을 해당기간으로 함에 따라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움 ▪ **파견 예술가의 해외 체류기간 중의 예술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산식의 명확화가 필요함**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 문화예술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조직)의 글로벌 창작역량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교류협력 국가수와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가 증가할수록 협력사업 추진 건수도 그에 상당하게 증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구조를 비율구조 〔협력사업 추진 건수 / (교류협력국가 수 + 교류협력국제기구 수)〕 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과 지표 측정 산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명확화가 필요함**
문화예술 공간운영	아르코미술관운영	▪ 문제는 시각 예술의 전문성에 일반 관객의 수와 만족도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있음. 이용자 만족도에 있어서,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부족한 편임 ▪ 결과지표에 있어서, 결과의 내용(시민의 예술이해력, 심미적 향상)에 관한 지표는 구체적이지 않은 편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이 우선시 됨.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그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지표의 내용, 그러니까 모든 모니터링 실적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예술인력개발원운영	▪ 성과지표의 내용이 이용자 만족도만을 계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 ▪ **인력개발원의 경우, 측정 산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만족도라는 것만으로는 성과지표의 명확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예컨대 교육효과의 파급내용,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표가 필요함. 인과성 부분에서 개선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현재 내용은 매우 모호한 편임**
생활속의예술활성화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기타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향유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인 측면의 고려 미흡함 ▪ **문화여가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 필요함** ▪ **직면한 사회 환경 변화(예: 고실업, 고령화)에 대응하여 문화여가 지원 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함**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뚜렷한 성과목표 및 달성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찾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평가지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평가지표가 투입대비 결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의 경우, 상대적인 목표치 없이 지난 3년간 추세치 평균 실적으로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자체 목표 설정에 대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러한 연유로 사업목적에 대한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주요평가내용
		▪ 평균 가동률의 경우, 연도별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특징에 따라 가동률 자체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역의 요인들 이외에 수요조건의 다양한 변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는 결과 지표로써 계량지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도별 변화정도나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성과지표로서의 대표성을 갖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관람객 수와 공연장 평균 가동률의 경우, 공공지원의 영향으로 인해 성과지표가 영향을 받는 비중이 시기별, 공연의 특성별, 수도권, 비수도권 특징별, 세대별 특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조사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표지표와 부가지표 등을 개발하고, 영향력 지수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평가지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지표 등을 개발하고, 지난 실적 대비 증가율 등 계산후의 목표치를 객관적으로 마련하여, 자체 목표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평균 가동률의 경우, 연도별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특징, 지역별, 세대별, 방문수요별 특징 등에 따라 수요조사를 한 후, 다양한 변인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에, 추세치 목표 설정이 아닌, 사업목적에 맞는 개선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책정과 달성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문화예술 홍보및 간행물 발간	▪ 목표부여 표준편차 평가방법 적용 시 과거 실적치가 2-1 지표에서는 3년(2009~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2-2 지표에서는 5년(2007~2011년)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함 ▪ 성과지표가 단순 건수로 측정되고 있어 언론매체 혹은 미디어의 파급효과를 고려지 못하고 있음 ▪ 성과 측정 주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되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짐 ▪ **홍보사업의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인지도'를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외부 기관(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는 것'과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므로 평가보고서 작성 시 개념과 표현을 명확하게 하길 바람**
	기초예술 정책연구 조사사업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및 성과목적의 핵심내용 일부분만 반영하고 있음. 즉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은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성과지표(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지표로는 501 사업의 사업 목적인 '예술 지원 정책 연구 활성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토론회 등의 개최 실적은 조사연구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 실적이지 연구과제 성과 확산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없음 ▪ **예술 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확산 노력이 요구되겠으나, 경영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영활동에의 연구결과 활용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혹은 수정·보완)이 요구됨** ▪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연구사업 및 보고서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실제 수행된 조사연구 과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 등에 제한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평가내용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매칭펀드 기업 지원금액의 결과지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함.(투입과 결과가 직접 연동되어 있음)
	공공미술기반사업	▪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의 경우 기반사업 중 전문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부 내역사업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음 ▪ 또한 표본이 전문가 교육생 26명으로 조사방법에 객관성이 부족함 ▪ 공공미술 기금 조성액은 외부 재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투입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사업 내용과 성과목표를 포괄하면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 공공미술 DB 구축(2012년 13,500여 건), 공공미술 사업 관련 언론보도 건수(2012년 63건), 도시공원예술로 사업 워크숍 및 전시 참가자 수(2012년 1,973명) 등**

(2) 계량지표 목표달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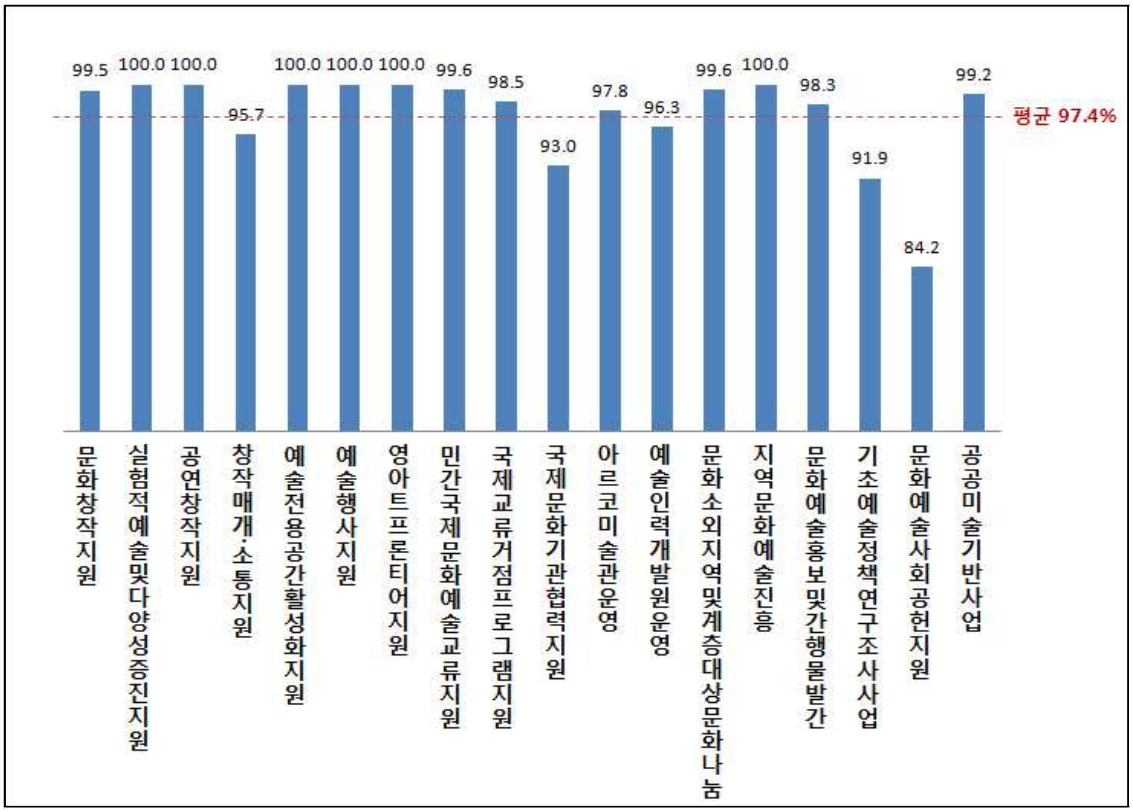
1) 예산집행률

○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대상 18개 세부사업의 ‘예산집행률’ 평균은 97.4%로 전년(95.4%)대비 2%p 상승함

- 세부사업별로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공연창작지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예술행사지원’,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지원’, ‘지역문화예술진흥’의 6개 사업이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도 90%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 반면,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은 집행률 84.2%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기부금 사업의 재원이 민간영역으로부터 기부에 의해 조성, 집행되어 기부금 수입이 적을 경우 예산 집행액도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현황]



2) 목표달성도 :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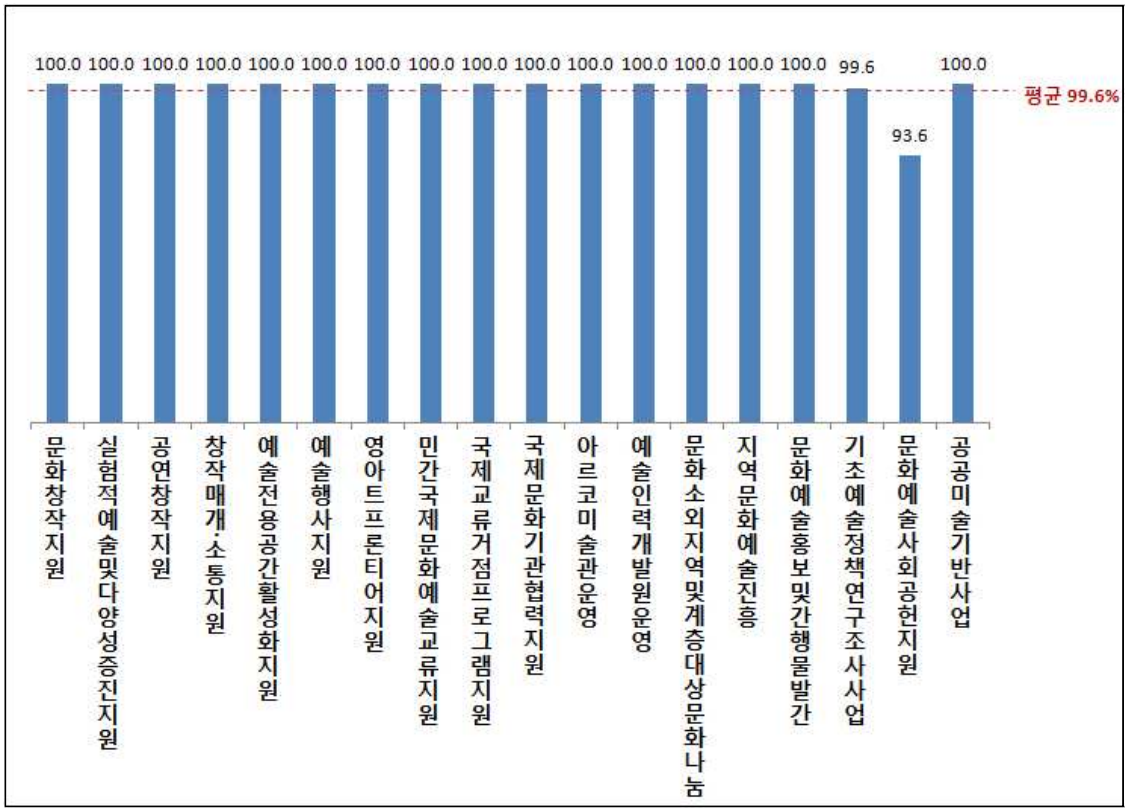
○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대상 18개 세부사업의 ‘목표달성도’ 평균은 99.6%*로 전년(97.1%)대비 2.5%p 상승함

* 목표달성도 99.6%는 18개 세부사업 각각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목표달성도 100%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0%로 설정하여 계산함

- 세부사업별로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93.6%)’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목표달성도 100%를 초과 달성함

- 특히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134.4%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성과지표 중 ‘비수도권 관람객수’ 목표달성률 180%라는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달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현황]



* 그림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는 세부사업 각각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를 단순히 산술평균한 값임

(3) 사업별 성과분석

○ 목 적 : 세부·기초사업별 성과지표의 시계열 성과분석 및 국가차원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함

○ 평가방법

- 단위·세부사업별 성과분석
-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 국가단위 성과지표 비교분석

○ 평가항목 및 성과지표

평 가 방 법	평 가 내 용
단위·세부사업별 성과분석	▪ 18개 세부사업 성과분석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단위사업 성과분석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국제교류)」 단위사업 성과분석 ▪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 성과분석 ▪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단위사업 성과분석 ▪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성과분석 ▪ 「예술의 사회적가치제고」단위사업 성과분석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 만족도 성과분석 ▪ 관람객수 성과분석 ▪ 평균 창작 작품 수 성과분석 ▪ 공연장(공간) 가동률 성과분석
국가단위 성과지표 비교분석	▪ 공연장(공간) 가동률 국가대비 성과지표 비교분석 ▪ 관람객수(이용자수) 국가대비 성과지표 비교분석 ▪ 기부금유치실적 국가대비 성과지표 비교분석

1) 단위·세부사업 성과분석

① 18개 단위·세부사업 성과분석

○ 18개 세부사업 성과지표의 연평균 성장률 전체 평균은 17.1%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평균은 21.8%로 고무적인 증가율은 나타냄

○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의 '평균 관람객수'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1.5%의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사업의 '국제교류파생사업효과'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66.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의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 48.8%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의 '비수도권 관람객수'로 116.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일사업의 '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102.0%,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54.3%의 증가율을 나타냄. 또한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사업의 '협력사업추진건수'59.1%,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사업의 '평균 관람객 수' 56.6%,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사업 '이용자 수' 49.5%, 「예술행사지원」 사업의 '평균창작작품수'49.1%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예술행사지원」 사업의 '평균 관람객수'로 -20.2%를 나타냈으며,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의 '평균 관람객수'도 -10.5%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사업은 「예술행사지원」 사업의 '평균 관람객수'로 -42.4%를 나타냈으며,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기부금 유치실적(-7.2%)'과 「창작매체·소통지원」 사업의 '평균 창작 작품 수(-7.1%)'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8개 단위·세부사업 성과분석]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률
문학 창작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82	84	88	4.9%	4.5%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수(명)	36,270	44,389	49,566	57,052	64,607	15.5%	13.2%
	평균창작작품수(건)	205	191	200	258	305	10.5%	18.5%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지원	수혜자만족도(점)		77	73	69	79	1.2%	14.9%
	평균창작작품수(건)	177	108	193	185	236	7.5%	27.8%
	평균관람객수(명)	9,915	8,325	9,091	9,567	10,810	2.2%	13.0%
공연 창작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75	80	88	4.9%	9.8%
	평균창작작품수(건)				1.6	2.2		37.6%
	평균관람객수(명)				1,182	1,575		33.2%
창작 매체 · 소통 지원	예술가의집 만족도(점)				88	93		5.7%
	평균 창작품수(건)			3.72	4.91	4.56	10.7%	*-7.1%*
	예술가의집이용자수(명)				37,521	45,405		21.0%
예술전용 공간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83	69	77	80	-1.1%	4.0%
	평균창작작품수(건)		120	122	197	208	20.2%	5.7%
	평균관람객수(명)			6,139	11,535	18,061	71.5%	56.6%
	공간가동률(%)		66	69	81	87	9.4%	7.3%
예술 행사 지원	고객만족도(점)			81	77	86	3.2%	11.8%
	평균창작작품수(건)			12.92	14.96	22.30	31.4%	49.1%
	평균관람객수(명)			35,765	39,570	22,784	-20.2%	*-42.4%*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	수혜자만족도(점)	76	80	79	78	89	3.7%	13.6%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		0	0	0	1	74.1%	38.1%
	1인당 평균 창작작품수(건)	10	4	8	11	12	5.7%	5.3%
민간국제 문화예술 교류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82	76	81	86	2.8%	6.2%
	평균창작작품수(건)	10	18	11	15	18	15.5%	22.4%
	평균관람객수(명)	7,241	3,419	1,596	4,077	4,637	-10.5%	13.7%
국제교류 거점프로 그램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82	76	81	86	2.8%	6.2%
	해외창작거점공간수(개)	4	4	5	15	20	49.5%	33.3%
	국제교류파생사업효과(%)			38	95	105	66.2%	10.5%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률
국제문화 기관협력 지원	교류협력국가수(개)	8	8	8	17	21	27.3%	23.5%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개)			2	4	5	58.1%	25.0%
	협력사업 추진건수(개)	10	12	12	22	35	36.8%	59.1%
아르코 미술관 운영	이용자수(명)	57,092	25,693	37,435	51,779	67,332	4.2%	30.0%
	이용자만족도(점)	73	72	80	82	85	3.6%	3.7%
예술인력 개발원 운영	이용자수(명)	419	380	604	953	1,425	35.8%	49.5%
	이용자만족도(점)	80	81	85	84	87	2.1%	3.7%
문화소외 지역계층 대상문화 나눔	수혜자만족도(점)	83	86	85	87	88	1.5%	1.3%
	수혜자수(명)	1,447,689	1,666,024	2,717,565	3,026,957	3,350,678	23.3%	10.7%
지역문화 예술진흥	고객만족도(점)	75	72	84	88	94	5.8%	6.9%
	관람객수(수도권)				100,329	142,592		42.1%
	관람객수(비수도권)				198,151	428,378		116.2%
	공연장가동률_수도권(%)		55	55	31	62	4.0%	102.0%
	공연장가동률_비수도권(%)		33	35	38	58	20.8%	54.3%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언론보도기사건수(건)	2,559	2,853	2,609	3,205	3,850	10.8%	20.1%
	미디어노출건수(건)	19	26	30	38	50	27.4%	31.6%
	웹진구독자수(명)			40,876	44,020	54,790	15.8%	24.5%
기초예술 정책연구 조사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건)		17	30	45	56	48.8%	24.4%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건)				3,152	3,770		19.6%
문화예술 사회공헌 지원	기부금사업 행정서비스 만족도(점)			78	79	81	2.3%	2.9%
	기부금 유치실적(백만원)	9,948	10,236	13,435	14,903	13,823	8.6%	*-7.2%*
	매칭펀드 기업 지원금액(백만원)	684	690	905	1,104	1,240	16.0%	12.3%
공공미술 기반사업	공공미술기금 출연액(억원)					10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87		
전체평균							**17.1%**	**21.8%**

②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성과분석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성과지표 연평균 성장률 전체평균은 14.2%로 대부분의 사업성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평균은 15.5%로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부문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의 ‘평균 관람객수’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1.5%의 성장률을 나타냄. 반면, 「예술행사지원」 사업 ‘평균 관람객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로 나타남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부문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 또한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의 ‘평균 관람객수’로 전년대비 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냄. 반면, 「예술행사지원」 사업 ‘평균 관람객수’는 전년대비 42.4% 감소함

- 「예술행사지원사업」의 ‘평균 관람객수’ 감소 원인은 ‘양평환경미술제’ 등 대형 사업 지원금 축소에 따른 옥외 행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문학 창작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82	84	88	4.9%	4.5%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수(명)	36,270	44,389	49,566	57,052	64,607	15.5%	13.2%
	평균창작작품수(건)	205	191	200	258	305	10.5%	18.5%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	수혜자만족도(점)		77	73	69	79	1.2%	14.9%
	평균창작작품수(건)	177	108	193	185	236	7.5%	27.8%
	평균관람객수(명)	9,915	8,325	9,091	9,567	10,810	2.2%	13.0%
공연 창작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75	80	88	4.9%	9.8%
	평균창작작품수(건)				1.6	2.2		37.6%
	평균관람객수(명)				1,182	1,575		33.2%
창작 매체 · 소통 지원	예술가의집 만족도(점)				88	93		5.7%
	평균 창작품수(건)			3.72	4.91	4.56	10.7%	*-7.1%*
	예술가의집이용자수(명)				37,521	45,405		21.0%
예술 전용공간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83	69	77	80	-1.1%	4.0%
	평균창작작품수(건)		120	122	197	208	20.2%	5.7%
	평균관람객수(명)			6,139	11,535	18,061	71.5%	56.6%
	공간가동률(%)		66	69	81	87	9.4%	7.3%
예술 행사 지원	고객만족도(점)			81	77	86	3.2%	11.8%
	평균창작작품수(건)			12.92	14.96	22.30	31.4%	49.1%
	평균관람객수(명)			35,765	39,570	22,784	-20.2%	*-42.4%*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	수혜자만족도(점)	76	80	79	78	89	3.7%	13.6%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		0	0	0	1	74.1%	38.1%
	1인당 평균 창작작품수(건)	10	4	8	11	12	5.7%	5.3%
전체평균							**14.2%**	**15.5%**

③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국제교류)」 단위사업 성과분석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국제교류) 성과지표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평균 27.6%로 대부분의 사업성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평균 22.2%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국제교류) 부문의 사업성과 모두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국제교류) 부문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사업의 '국제교류파생사업효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6.2%의 성장률을 나타냄. 반면,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의 '평균관람객수' 2008년 대비 연평균 -1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국제교류) 부문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사업의 '협력사업 추진건수'로 전년대비 5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국제교류) 단위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민간 국제 문화예술 교류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82	76	81	86	2.8%	6.2%
	평균창작작품수(건)	10	18	11	15	18	15.5%	22.4%
	평균관람객수(명)	7,241	3,419	1,596	4,077	4,637	-10.5%	13.7%
국제 교류거점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7	82	76	81	86	2.8%	6.2%
	해외창작거점공간수(개)	4	4	5	15	20	49.5%	33.3%
	국제교류파생사업효과(%)			38	95	105	66.2%	10.5%
국제 문화기관 협력지원	교류협력국가수(개)	8	8	8	17	21	27.3%	23.5%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개)			2	4	5	58.1%	25.0%
	협력사업 추진건수(개)	10	12	12	22	35	36.8%	59.1%
전체평균							27.6%	22.2%

④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 성과분석

○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 성과지표 연평균 성장률 전체평균은 11.4%로 모든 성과지표의 실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체평균 21.7%로 문화예술 공간운영 부문의 모든 사업성과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공간운영 부문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성과지표는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사업의 '이용자 수'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5.8%의 성장률을 나타냄

○ 문화예술 공간운영 부문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성과지표 역시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사업의 '이용자 수'로 전년대비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아르코 미술관 운영	이용자수(명)	57,092	25,693	37,435	51,779	67,332	4.2%	30.0%
	이용자만족도(점)	73	72	80	82	85	3.6%	3.7%
예술인력 개발원 운영	이용자수(명)	419	380	604	953	1,425	35.8%	49.5%
	이용자만족도(점)	80	81	85	84	87	2.1%	3.7%
전체평균							**11.4%**	**21.7**

⑤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단위사업 성과분석

○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 12.4%로 ‘수혜자 만족도’와 ‘수혜자 수’ 모두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전년대비 증가율은 평균 6.0%로 ‘수혜자 만족도’와 ‘수혜자 수’ 모두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단위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문화 소외지역 계층대상 문화나눔	수혜자만족도(점)	83	86	85	87	88	1.5%	1.3%
	수혜자수(명)	1,447,689	1,666,024	2,717,565	3,026,957	3,350,678	23.3%	10.7%
전체평균							**12.4%**	**6.0%**

⑥ 「지역문화 예술진흥」 단위사업 성과분석

○ 지역문화 예술진흥 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 10.2%로 ‘고객만족도’와 ‘공연장 가동률’ 모두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전년대비 증가율은 평균 64.3%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수도권 관람객수’가 전년대비 116.2%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지역문화 예술진흥 단위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지역 문화 예술 진흥	고객만족도(점)	75	72	84	88	94	5.8%	6.9%
	관람객수(수도권)				100,329	142,592		42.1%
	관람객수(비수도권)				198,151	428,378		116.2%
	공연장가동률_수도권(%)		55	55	31	62	4.0%	102.0%
	공연장가동률_비수도권(%)		33	35	38	58	20.8%	54.3%
전체평균							**10.2%**	**64.3%**

⑦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단위사업 성과분석

○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부문 성과지표의 연평균 성장률 전체평균은 18.5%로 사업성과 모두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체평균 16.0%로 대부분의 사업성과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부문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성과지표는 「기초예술 정책연구조사」 사업의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8.8%의 성장률을 나타냄

○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부문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성과지표는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반간」 사업의 '미디어 노출건수'로 전년대비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기부금 유치실적'은 전년대비 7.2% 감소함

- '기부금 유치실적' 감소 원인은 국내외 대규모 행사(2012 런던올림픽(7.28~8.13), 2012 여수세계박람회(5.12~8.12), 제18대 대통령선거(12.19))에 따른 기부금의 분산과 경기불안에 따른 기업 기부금 예산 축소가 이에 대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단위사업성과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문화예술 홍보및 간행물 발간	언론보도기사건수(건)	2,559	2,853	2,609	3,205	3,850	10.8%	20.1%
	미디어노출건수(건)	19	26	30	38	50	27.4%	31.6%
	웹진구독자수(명)			40,876	44,020	54,790	15.8%	24.5%
기초 예술 정책 연구조사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건)		17	30	45	56	48.8%	24.4%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건)				3,152	3,770		19.6%
문화 예술 사회공헌 지원	기부금사업 행정서비스 만족도(점)			78	79	81	2.3%	2.9%
	기부금 유치실적(백만원)	9,948	10,236	13,435	14,903	13,823	8.6%	*-7.2%*
공공 미술 기반사업	매칭펀드 기업 지원금액(백만원)	684	690	905	1,104	1,240	16.0%	12.3%
	공공미술기금 출연액(억원)					10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87		
전체평균							**18.5%**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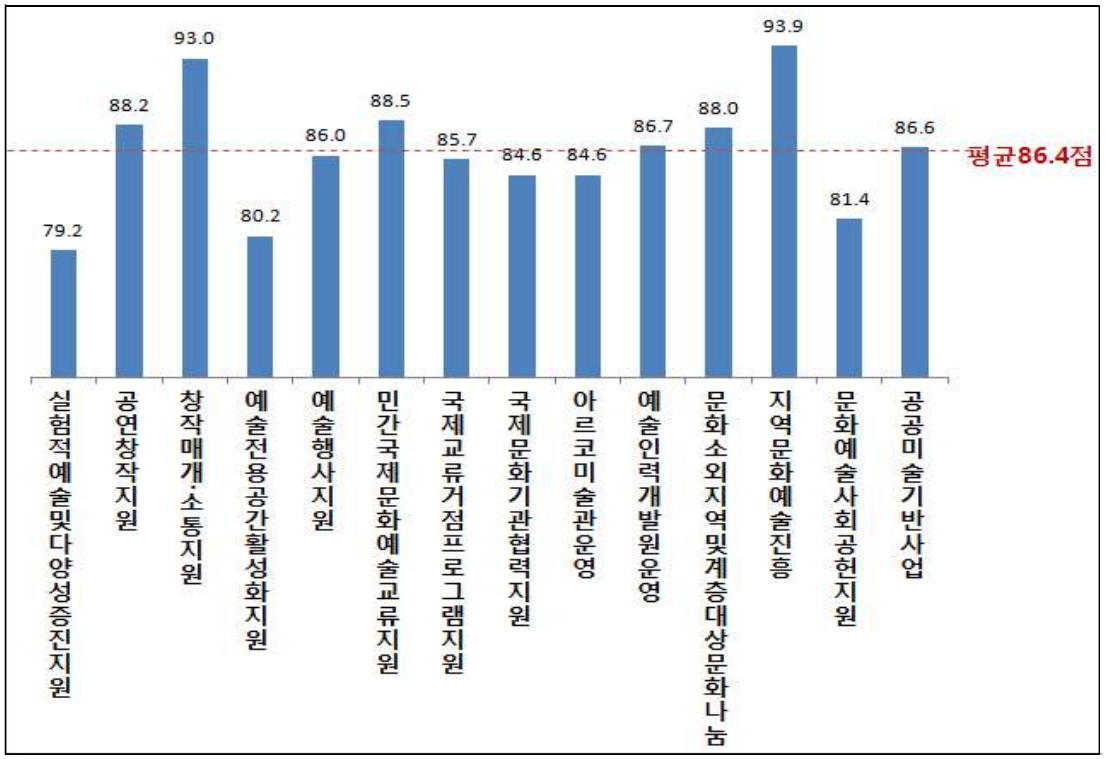
2)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① 만족도 성과분석

○ 2012년도 만족도 전체평균은 86.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81.3점) 대비 5.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이 9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작매체·소통지원(93.0점),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지원(88.5점), 문학창작지원·공연창작지원(88.2점),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88.0점), 예술인력개발원운영(86.7점), 공공미술기반사업(86.6점)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예술행사지원(86.0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85.7점), 아르코미술관운영(84.6점),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81.4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80.2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79.2점) 사업은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2012년도 세부사업별 만족도 현황]



○ 만족도 지표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평균 2.9%로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성장률은 전체 평균 6.8%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은 2009년 대비 매년 1.1%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가율은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지원' 사업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 연평균 성장률 · 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문학창작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6.5	82	84.4	88.2	4.9%	4.5%
실험적예술및다양성 증진지원	수혜자만족도(점)		76.5	72.7	68.9	79.2	1.2%	14.9%
공연창작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6.5	75.3	80.3	88.2	4.9%	9.8%
창작매체 · 소통지원	예술가의집 만족도(점)				88	93.0		5.7%
예술전용공간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82.9	68.5	77.1	80.2	-1.1%	4.0%
예술행사지원	고객만족도(점)			80.8	76.9	86.0	3.2%	11.8%
아르코영아트 프론티어(AYAF)지원	수혜자만족도(점)	76.4	79.6	79.1	77.9	88.5	3.7%	13.6%
민간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6.7	81.6	76.4	80.7	85.7	2.8%	6.2%
국제교류거점프로 그램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76.7	81.6	76.4	80.7	85.7	2.8%	6.2%
아르코미술관운영	이용자만족도(점)	73.3	72.3	80.2	81.6	84.6	3.6%	3.7%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이용자만족도(점)	79.7	80.7	84.5	83.6	86.7	2.1%	3.7%
문화소외지역및계 층대상문화나눔	수혜자만족도(점)	82.9	85.5	85.2	86.9	88.0	1.5%	1.3%
지역문화예술진흥	고객만족도(점)	75.0	72.1	84.2	87.8	93.9	5.8%	6.9%
문화예술사회 공헌지원	기부금사업 행정 서비스 만족도(점)			77.8	79.1	81.4	2.3%	2.9%
공공미술기반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86.6		
전체평균							**2.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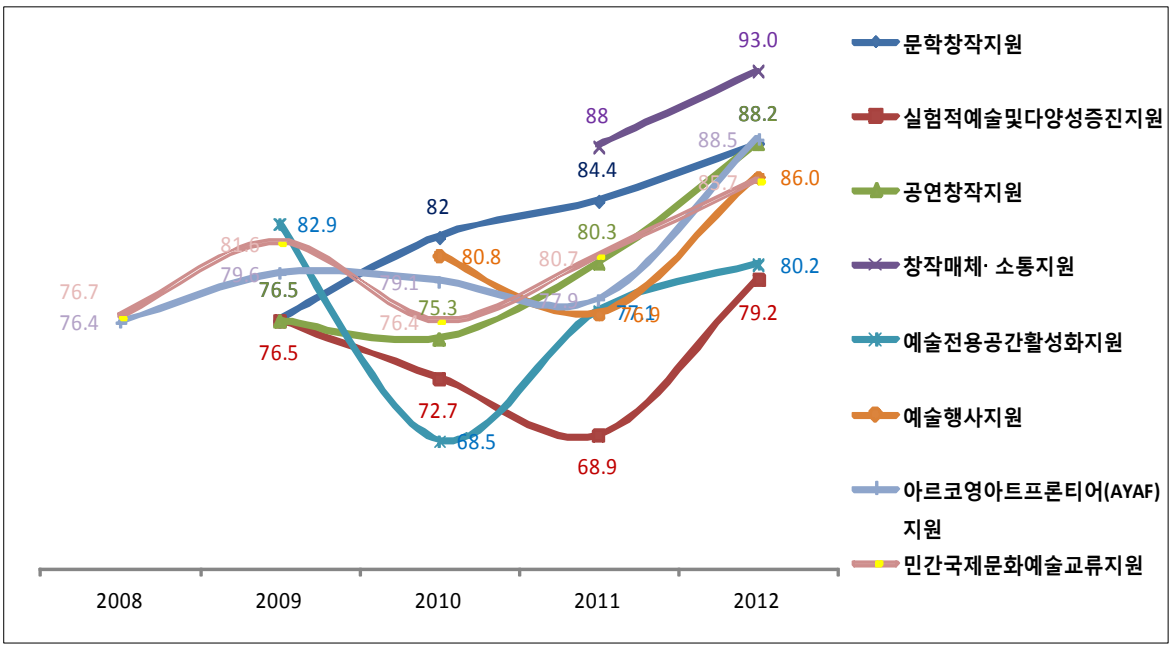
가.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만족도

○ 2012년도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만족도 평균은 86.1점으로 '09년(78.9점) 대비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으며, 전년(79.3점)대비 8.6% 증가함

○ 최근 4년간(2009~2012)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업은 문학창작지원·공연창작지원 사업으로 연평균 4.9%씩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업은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함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세부사업별·연도별 만족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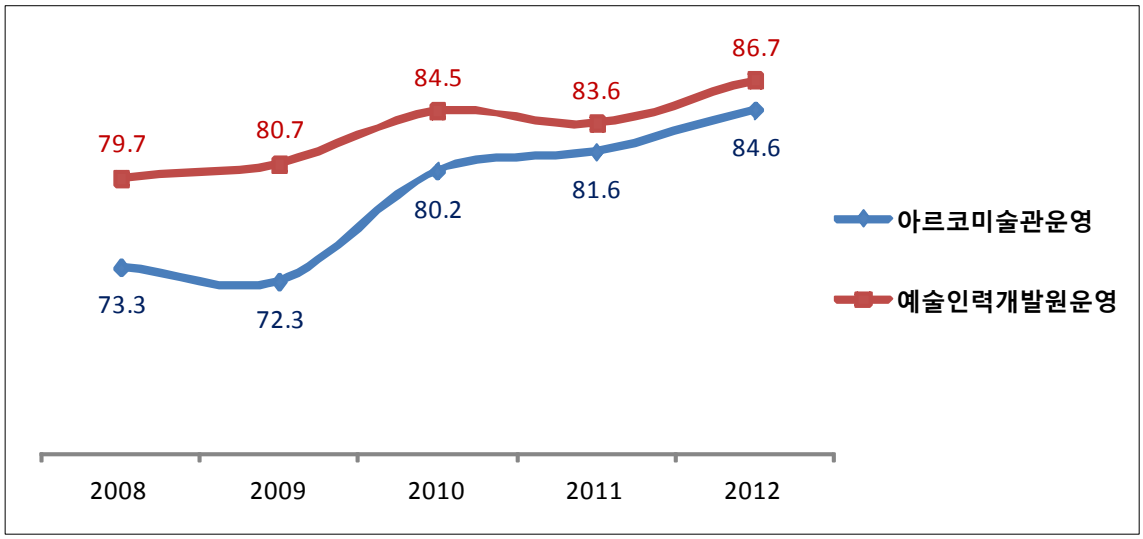


나.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 만족도

○ 2012년도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 만족도 평균은 85.7점으로 '08년(76.5점) 대비 연평균 2.9%씩 증가하였으며, 전년(82.6점)대비 3.8% 증가함

○ 최근 5년간(2008~2012) 아르코미술관 사업 만족도는 연평균 3.6%, 예술인력 개발원 사업 만족도는 연평균 2.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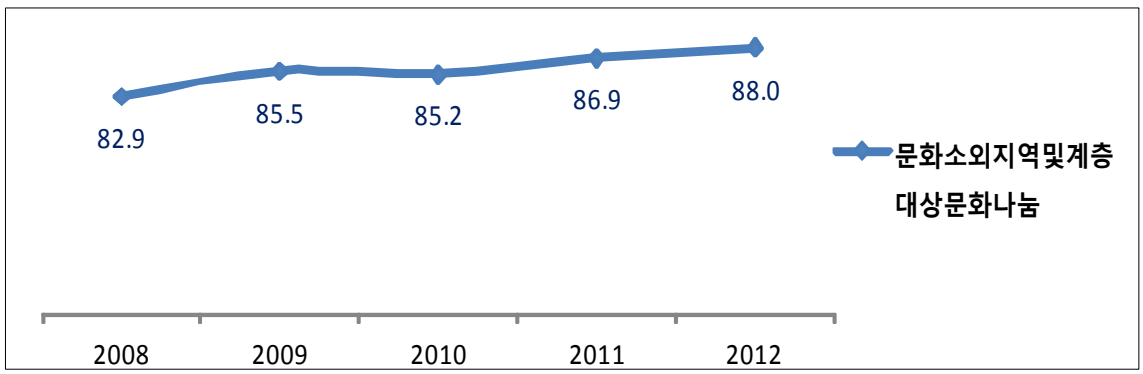
[문화예술 공간운영 세부사업별·연도별 만족도 점수]



다.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만족도

○ 2012년도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사업의 만족도는 88.0점으로 '08년(82.9점) 대비 연평균 1.5%씩 증가하였으며, 전년(86.9점)대비 1.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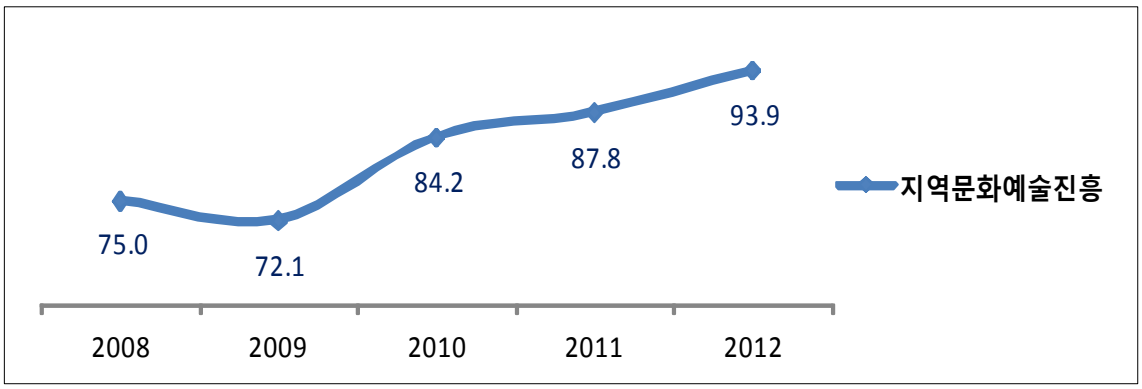
[생활속의 예술활성화사업 연도별 만족도 점수]



라.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만족도

○ 2012년도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만족도는 93.9점으로 '08년(75.0점) 대비 연평균 5.8%씩 증가하였으며, 전년(87.8점)대비 6.9% 증가함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연도별 만족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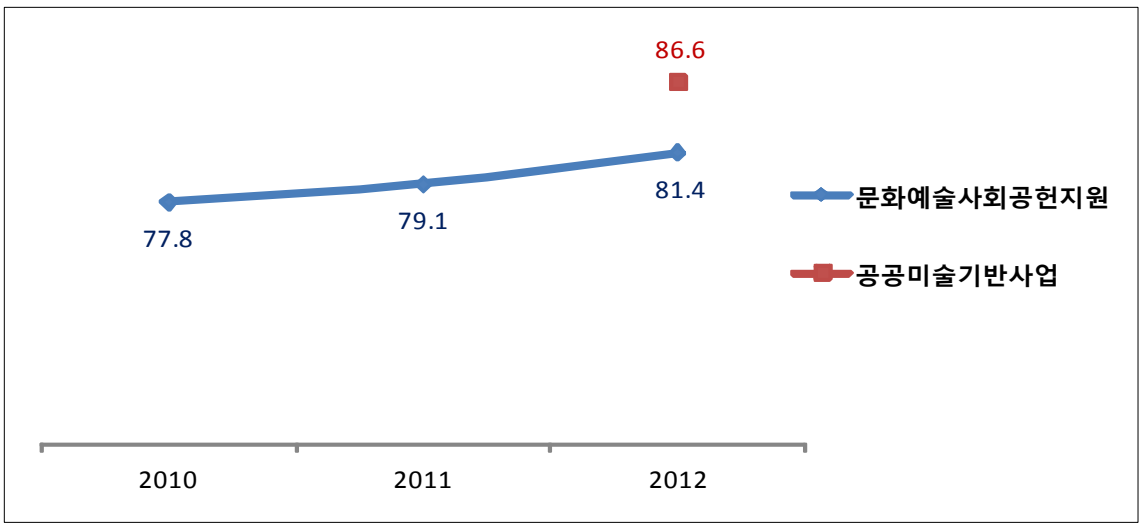


마.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단위사업 만족도

○ 2012년도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81.4점으로 '10년(77.8점) 대비 연평균 2.3%씩 증가하였으며, 전년(79.1점)대비 2.9% 증가함

○ 한편, 공공미술기반사업은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족도 86.6점으로 나타남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사업별·연도별 만족도 점수]



② 관람객수 성과분석

○ 관람객수 지표의 연평균 성장률 전체평균은 15.2%로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성장률 전체 평균은 29.7%로 나타남

○ 연평균 성장률은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이 2010년도 대비 매년 71.5%라는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예술행사지원' 사업과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이 116.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예술행사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2.4% 감소함

[관람객수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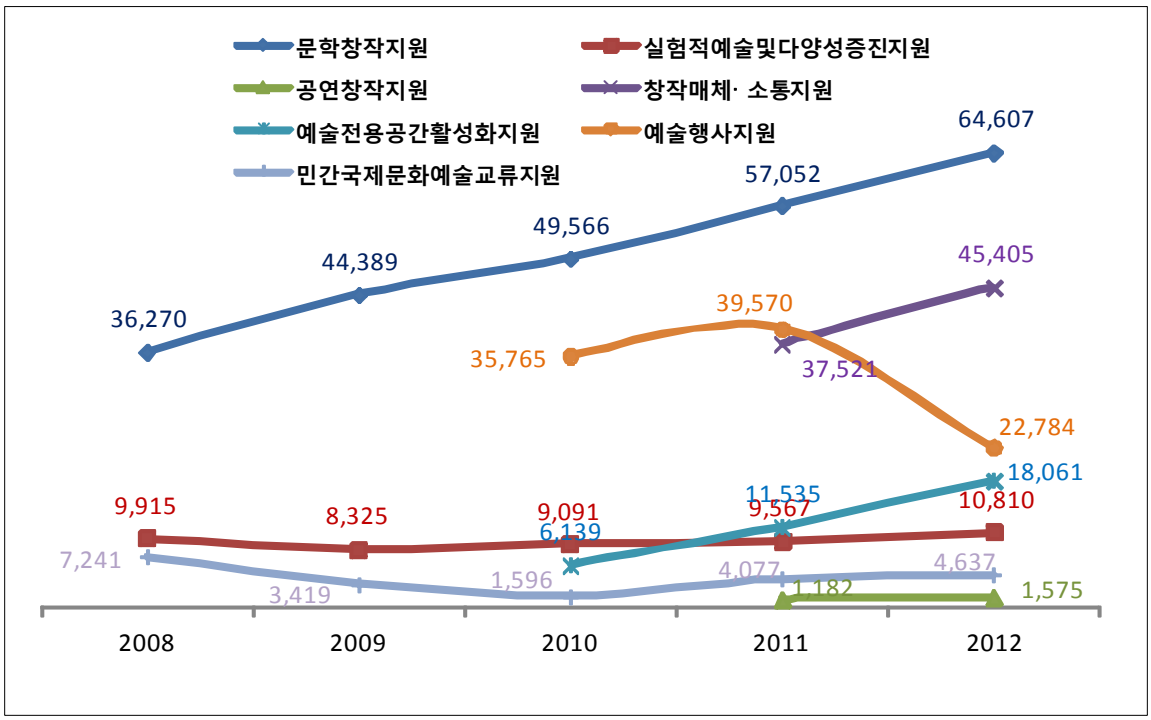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문학창작지원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수(명)	36,270	44,389	49,566	57,052	64,607	15.5%	13.2%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지원	평균관람객수(명)	9,915	8,325	9,091	9,567	10,810	2.2%	13.0%
공연창작지원	평균관람객수(명)				1,182	1,575		33.2%
창작매체·소통지원	예술가의집 이용자수(명)				37,521	45,405		21.0%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평균관람객수(명)			6,139	11,535	18,061	71.5%	56.6%
예술행사지원	전시건당관람객수(명)			35,765	39,570	22,784	-20.2%	*-42.4%*
민간국제문화 예술교류지원	평균관람객수(명)	7,241	3,419	1,596	4,077	4,637	-10.5%	13.7%
아르코미술관운영	이용자수(명)	57,092	25,693	37,435	51,779	67,332	4.2%	30.0%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이용자수(명)	419	380	604	953	1,425	35.8%	49.5%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대상 문화나눔	수혜자수(명)	1,447,689	1,666,024	2,717,565	3,026,957	3,350,678	23.3%	10.7%
지역문화예술진흥	관람객수(수도권)				100,329.0	142,592		42.1%
	관람객수(비수도권)				198,151.0	428,378		116.2%
전체평균							**15.2%**	**29.7%**

가.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관람객 수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은 관람객수가 매년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예술행사지원’,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감소하는 추세임

○ ‘예술행사지원’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관람객수가 전년대비 증가됨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세부사업별·연도별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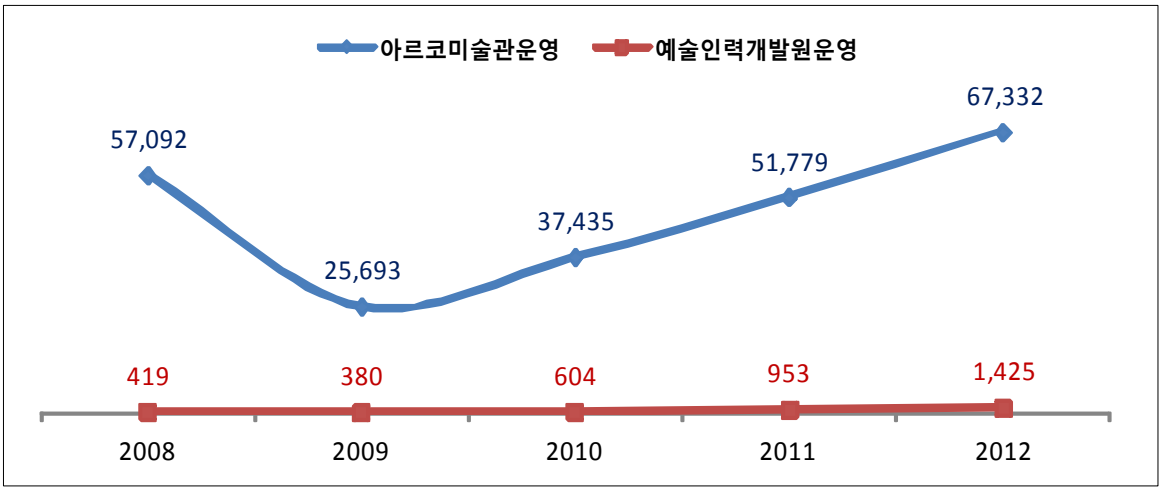


나.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 관람객 수

○ 문화예술 공간운영 사업의 관람객수는 '아르코미술관운영' 연평균 4.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연평균 35.8%씩 매년 증가되고 있음

○ '아르코미술관'의 경우 전년대비 30.0%, '예술인력개발원운영'은 전년대비 49.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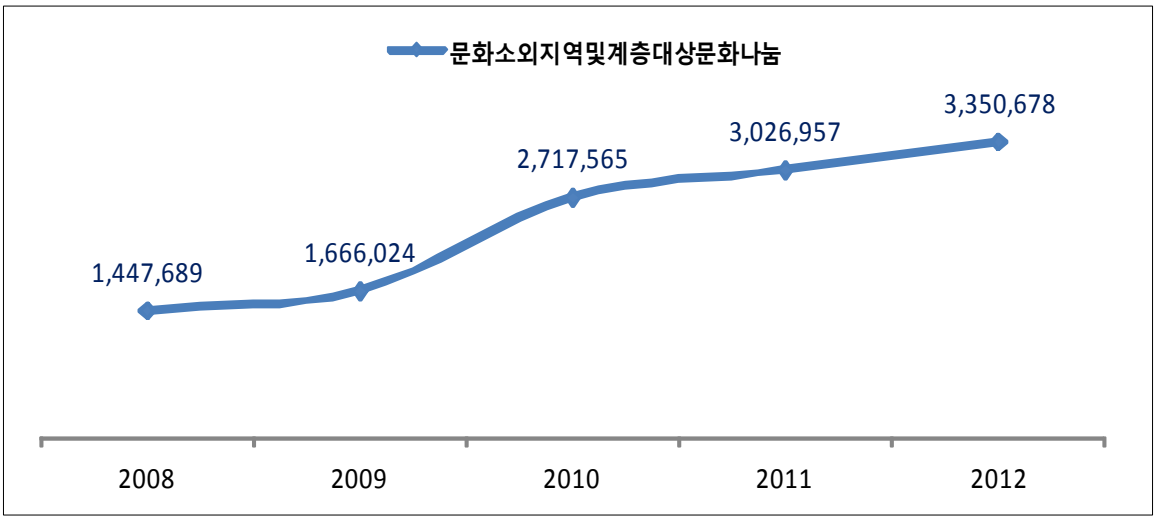
[문화예술 공간운영 세부사업별·연도별 관람객 수]



다.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단위사업 관람객 수

○ 2012년도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사업의 관람객수는 3,350,678명으로 '08년(1,447,689명) 대비 연평균 23.3%씩 증가하였으며, 전년(3,026,957명)대비 10.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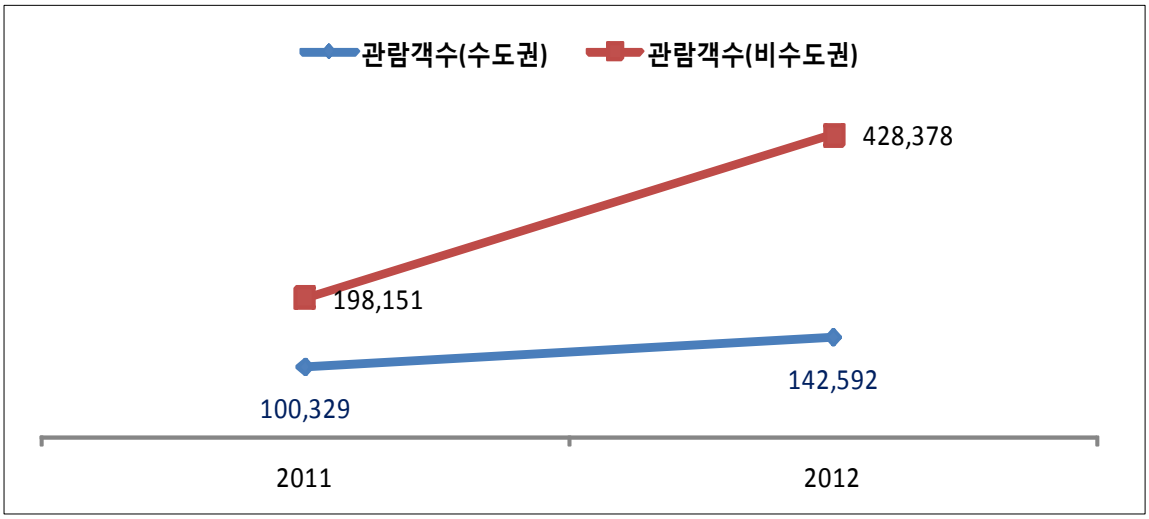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세부사업별·연도별 관람객 수]



라.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관람객 수

○ 2012년도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수도권 관람객수는 142,592명으로 전년(100,329명)대비 42.1%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관람객수는 428,378명으로 전년(198,151명)대비 116.2% 증가함

[지역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별·연도별 관람객 수]



③ 평균 창작작품수 성과분석

○ 평균 창작작품수의 연평균 성장률 전체평균은 14.5%로 모든 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년대비 성장률 전체 평균은 19.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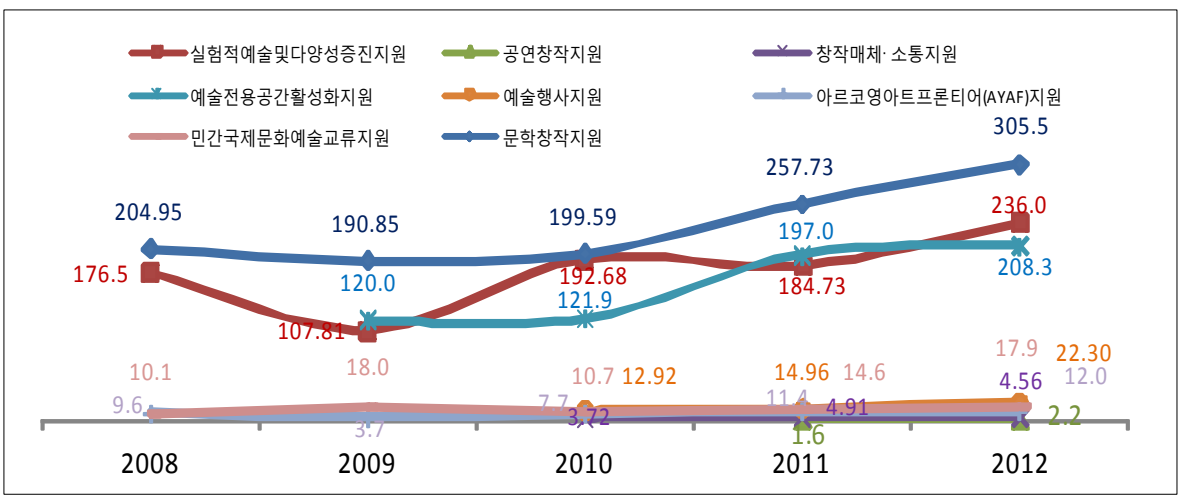
○ '예술행사지원' 사업의 평균 창작작품수 연평균 성장률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모든 사업의 평균 창작작품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전년대비 증가율 또한 '예술행사지원' 사업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사업의 평균 창작 작품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창작매체·소통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함

[평균 창작작품수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문학창작지원	평균창작작품수(건)	204.95	190.85	199.59	257.73	305.5	10.5%	18.5%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지원	평균창작작품수(건)	176.5	107.81	192.68	184.73	236.0	7.5%	27.8%
공연창작지원	평균창작작품수(건)				1.6	2.2		37.6%
창작매체·소통지원	평균 창작품수(건)			3.72	4.91	4.56	10.7%	*-7.1%*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평균창작작품수(건)		120.0	121.9	197.0	208.3	20.2%	5.7%
예술행사지원	평균창작작품수(건)			12.92	14.96	22.30	31.4%	49.1%
아르코영아트 프론티어(AYAF) 지원	1인당 평균 창작작품수(건)	9.6	3.7	7.7	11.4	12.0	5.7%	5.3%
민간국제문화 예술교류지원	평균창작작품수(건)	10.1	18.0	10.7	14.6	17.9	15.5%	22.4%
전체평균							**14.5%**	**19.9%**

[평균 창작작품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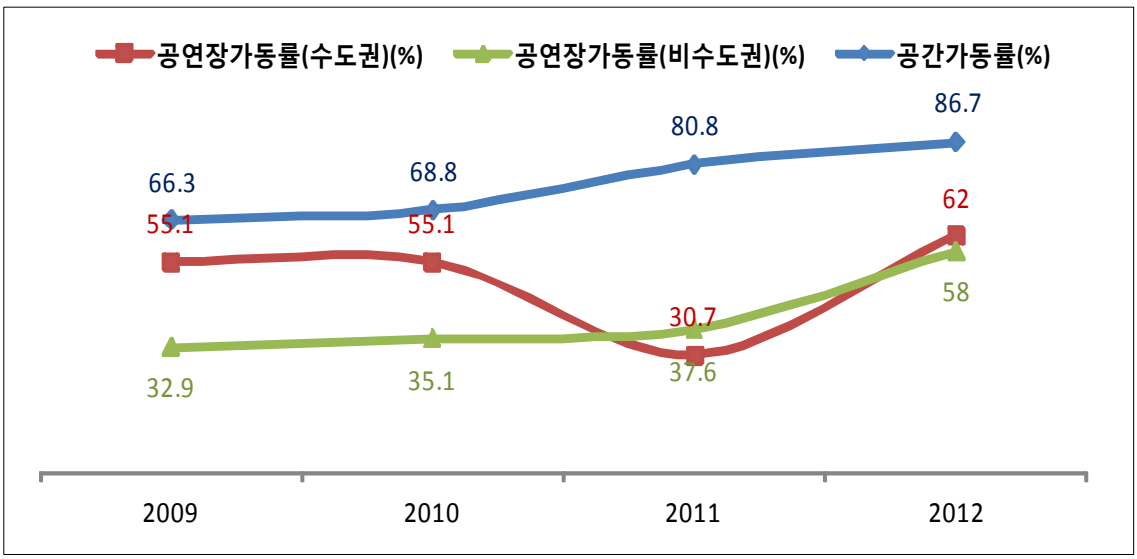
④ 공연장(공간) 가동률 성과분석

○ 공연장(공간) 가동률 연평균 성장률 전체평균은 11.4%로 모든 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성장률 전체 평균은 54.4%로 나타남

[공연장(공간) 가동률 연평균 성장률·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사업명	지표명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년대비 증가율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공간가동률(%)	66.3	68.8	80.8	86.7	9.4%	7.3%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장가동률 수도권(%)	55.1	55.1	30.7	62	4.0%	102.0%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장가동률 비수도권(%)	32.9	35.1	37.6	58	20.8%	54.3%
전체평균						**11.4%**	**54.5%**

[공연장(공간) 가동률 현황]



3) 국가단위 성과지표 비교분석

① 공연장 가동률 비교분석

○ 전국 공연장 가동률 연평균 성장률은 2009년 기준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전용공간활성화’ 사업이 매년 9.4%의 증가한 반면, ‘국가단위 공연장’ 가동률은 매년 5.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연평균 성장률은 2009년 기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이 매년 4.0%의 증가한 반면, ‘국가단위 수도권공연장’ 가동률은 매년 11.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연평균 성장률은 2009년 기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이 매년 20.8%의 증가하였으며, ‘국가단위 비수도권공연장’ 가동률은 매년 3.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공연장 가동률 국가단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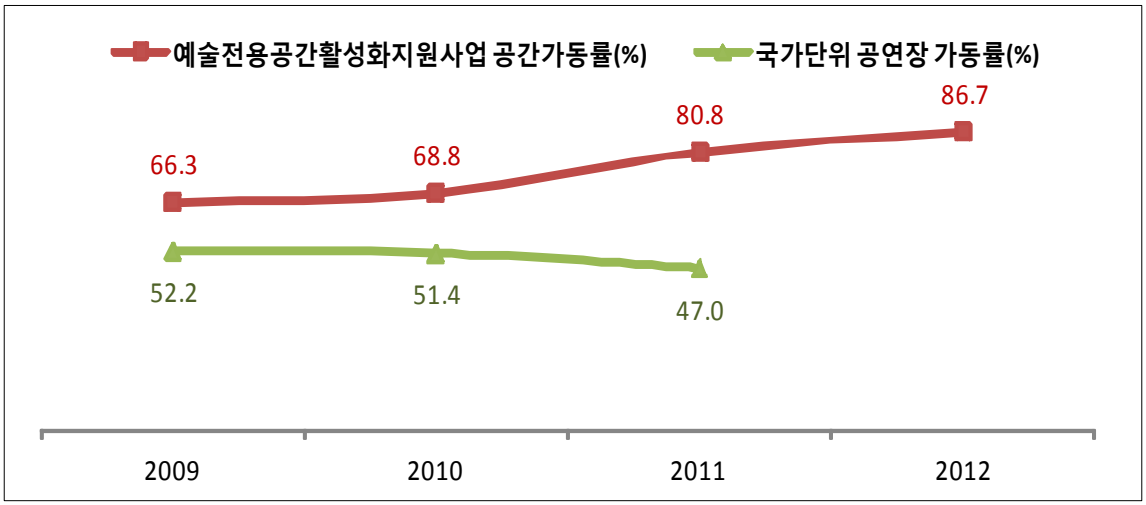
구분	지표명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전국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사업 공간가동률(%)	66.3	68.8	80.8	86.7	9.4%
	국가단위 공연장 가동률(%)	52.2	51.4	47.0	-	-5.1%
수도권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공연장가동률_수도권(%)	55.1	55.1	30.7	62.0	4.0%
	국가단위 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74.4	69.8	57.8	-	-11.9%
비수도권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공연장가동률_비수도권(%)	32.9	35.1	37.6	58.0	20.8%
	국가단위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32.5	35.7	35.1	-	3.9%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연예술 실태조사, 공연장 가동현황

*가동률은 중앙정부/문예회관/대학로/기타(공공·민간)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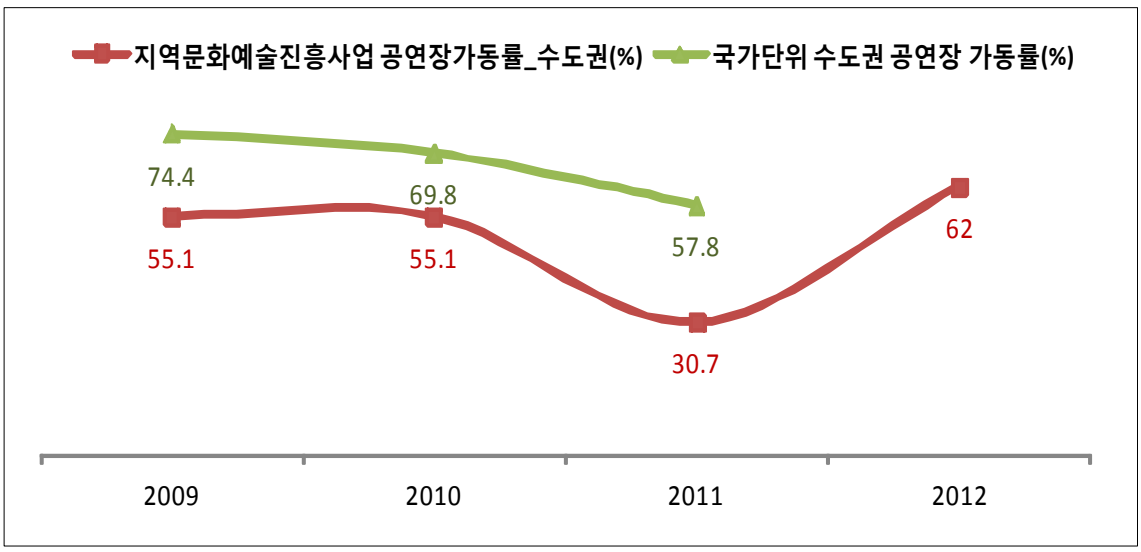
○ 2011년도 전국 공연장 가동률은 '국가단위'가 47.0%,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이 80.8%로 국가단위 공연장 가동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전국 공연장 가동률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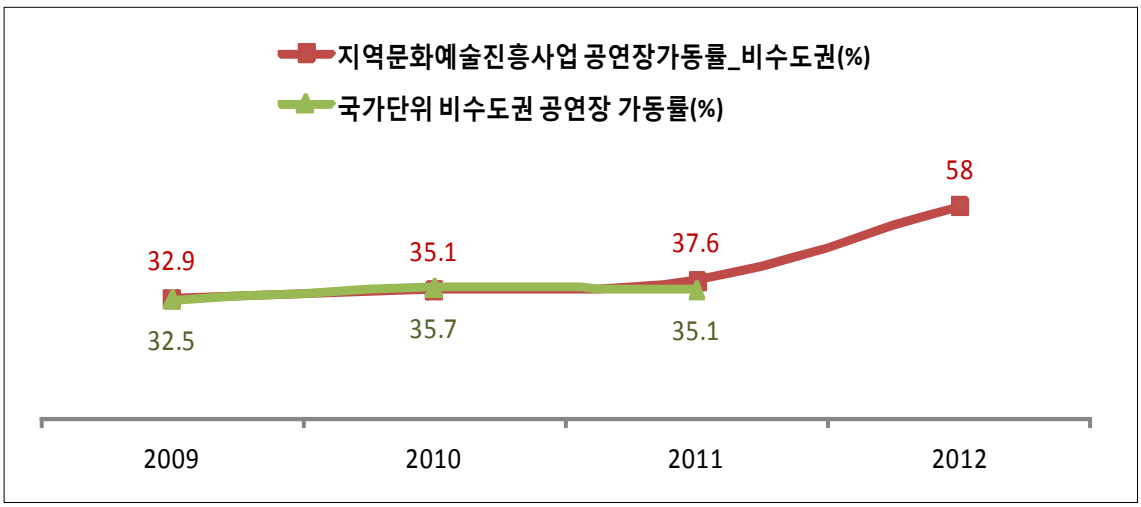
○ 2011년도 수도권 공연장 가동률은 '국가단위'가 57.8%,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이 30.7%로, 국가단위 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비교분석]



○ 2011년도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은 ‘국가단위’가 35.1%,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이 37.6%로, 국가단위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수도권 공연장 가동률 비교분석]



② 이용자수 비교분석

○ 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미술관’ 이용자 수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38.3% 증가한 반면, ‘국가단위 미술관’ 이용자 수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 기준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이용자 수가 매년 35.8%씩 증가하는 반면, ‘한국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이용자수는 매년 13.4%씩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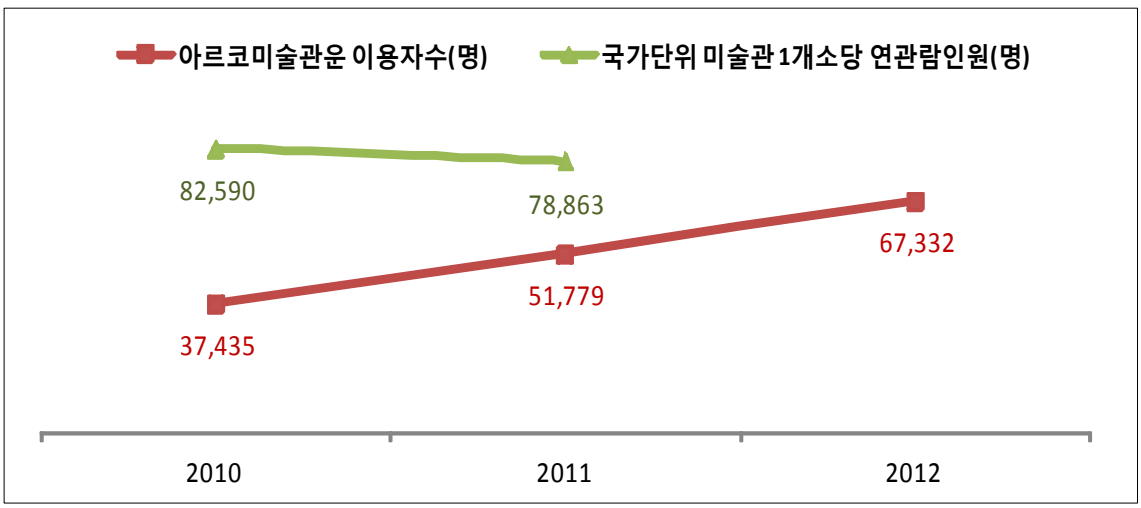
[이용자수 국가단위 비교분석]

구분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미술관	아르코미술관운 이용자수(명)			37,435	51,779	67,332	
	국가단위 미술관 1개소당 연 관람인원(명)			82,590	78,863		
인력 개발원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이용자수(명)	419	380	604	953	1,425	35.8%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이용자수(명)	270,287	331,863	339,561	369,245	7,828	-13.4%

※ 출처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자체통계

○ 2011년도 국가단위 미술관 1개소 당 연 관람인원 78,863명, 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미술관’ 이용자수 51,779명으로 국가단위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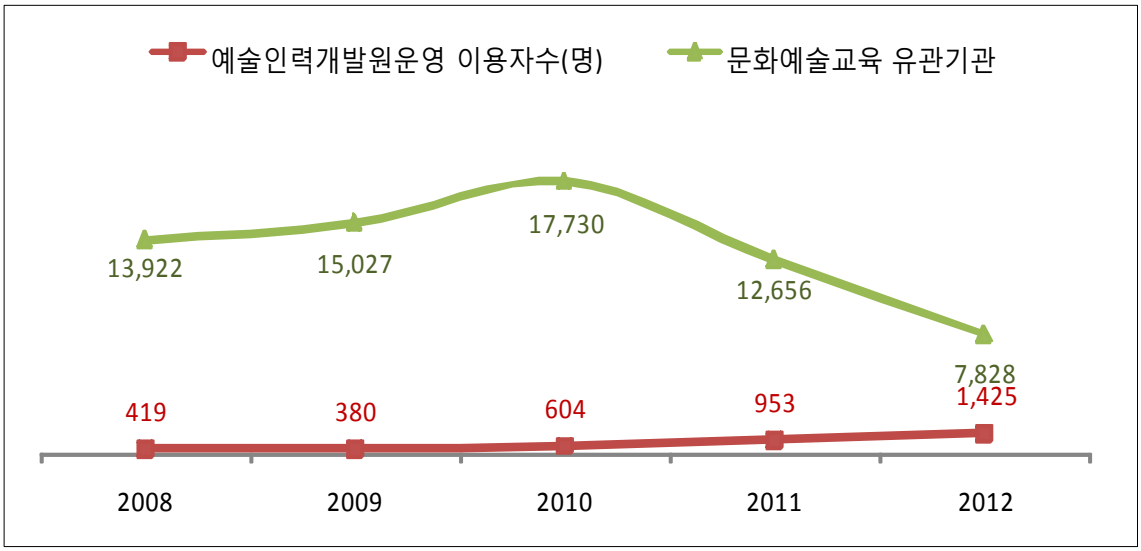
[미술관 이용자수비교분석]



○ 2012년도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의 이용자수는 7,828명으로 2008년 대비 연평균 13.4%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이용자수는 2012년 1,425명으로 2008년 대비 연평균 35.8%씩 증가하고 있음

○ 2012년도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이용자수는 7,828명이며, 예술인력개발원 이용자수는 1,425명으로, 문화예술교육기관 이용자수의 18.2%에 해당하는 수준임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대비 비중은 3.0%(‘08), 2.5%(’09), 3.4%(‘10), 7.5%(’11)로 매년 56.8%p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문화예술교육 이용자수 현황]



③ 기부금유치실적 비교분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가단위 모금실적'은 2008년 대비 매년 11.0%씩 성장하고 있는 한편,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의 기부금 유치 실적도 매년 8.6%씩 증가하고 있음

[기부금유치실적 가동률 국가단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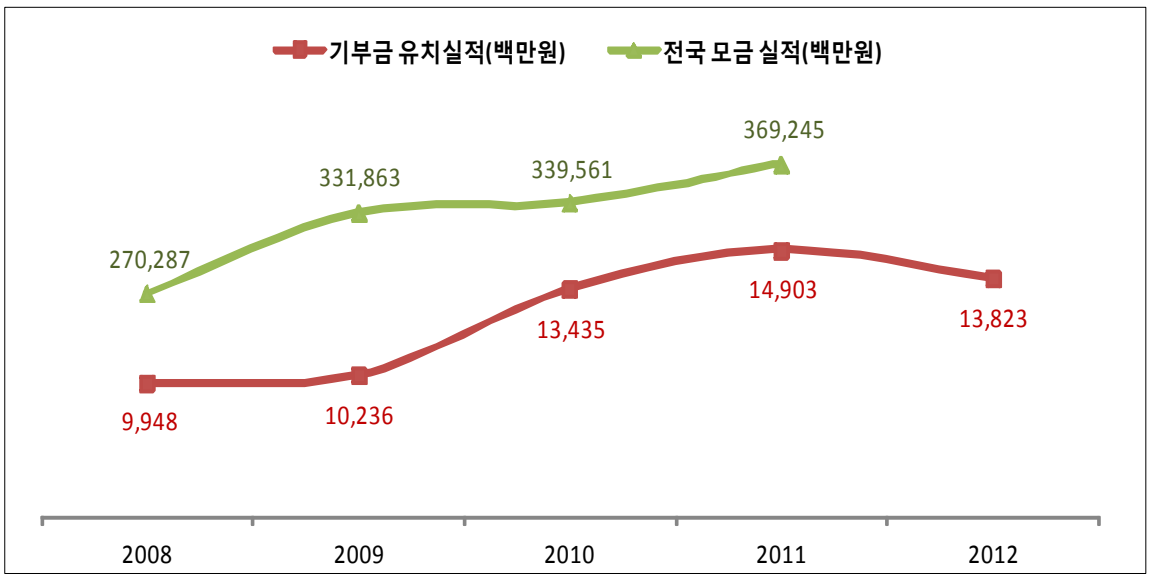
지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사업 기부금유치실적(백만원)	9,948	10,236	13,435	14,903	13,823	8.6%
전국 모금 실적(백만원)	270,287	331,863	339,561	369,245		11.0%

※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 사회복지공동모금연간보고서

○ 2011년도 국가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 유치실적은 369,245백만원이며,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유치실적은 14,903백만원으로, 국가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 전체의 4.04%에 해당하는 수준임

- 사회복지공동모금액 대비 비중은 3.7%('08), 3.1%('09), 4.0%('10), 4.0%('11)로 매년 3.0%p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기부금 유치실적 비교분석]



III 개선 과제

1. 전략평가 부문
2. 사업평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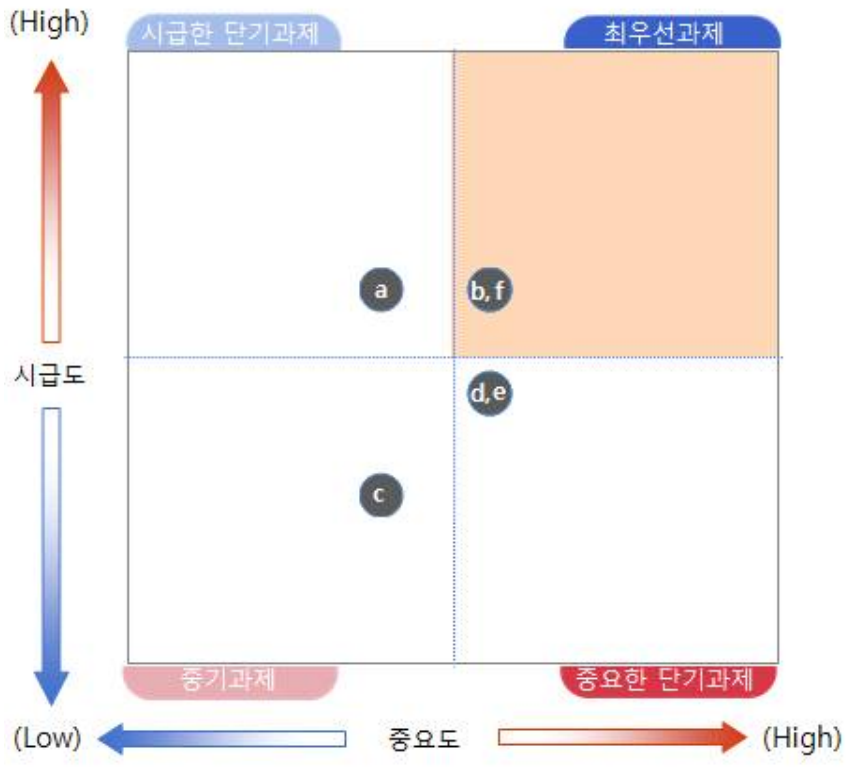
1. 전략평가 부문

□ 개선과제

○ 전략평가의 개선과제 리스트

- '비전 및 전략개발'지표에서는 '전략개발을 위한 기관 특성 파악'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 '주요사업 추진계획'지표에서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의 성과지표 근거 마련'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전략평가부문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비전 및 전략 개발	a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판단기준 마련		●	3
	b	**기관 특성 파악을 통한 전략개발**	●	●	1
	c	AVS 3.0 개발 근거 마련		●	6
주요사업 추진계획	d	미래사업의 청사진 마련	●	●	3
	e	중장기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배분계획 마련		●	3
	f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의 성과지표 근거마련**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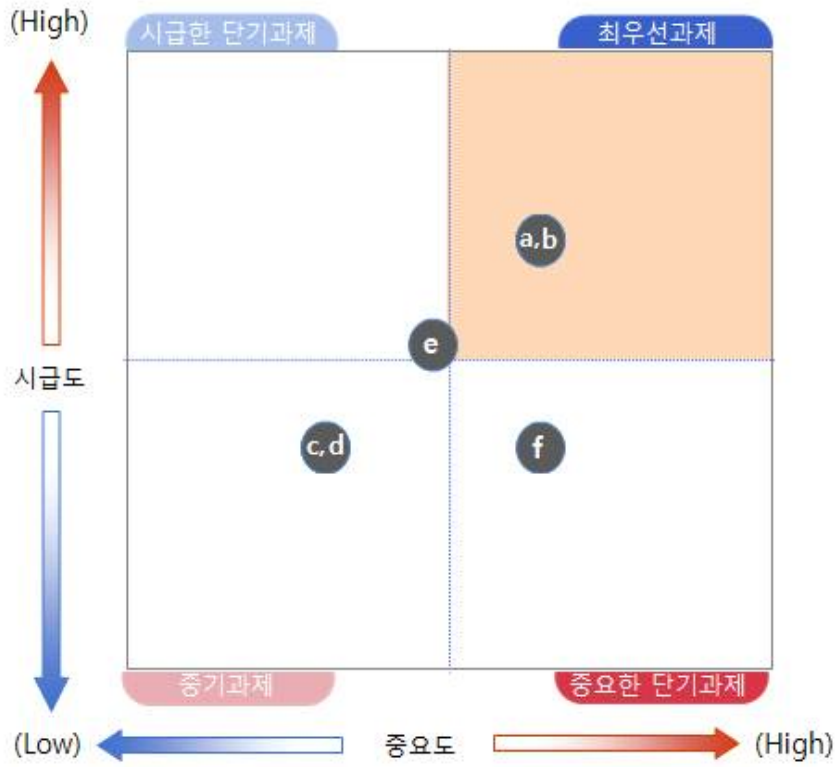
2. 사업평가 부문

□ 개선과제

○ 1분과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세부·기초사업별 개선과제

- 「101. 문학창작지원」사업은 총 6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창작지원중심의 사업목적 명확화'와 '개인창작지원의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강화'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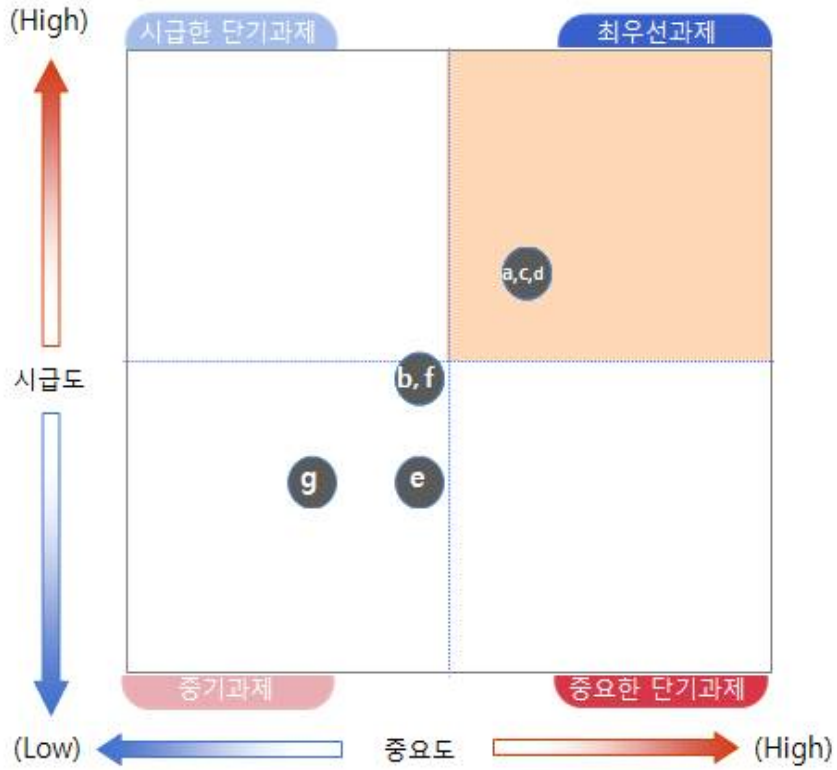
[1분과 - 문학창작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2011	2012	우선순위
계획	a	**창작지원중심의 사업목적 명확화**		●	1
계획	b	**개인창작지원의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1
계획	c	성과지표 재구성 및 추가개발	●	●	5
집행	d	분기별 예산집행률 개선		●	5
집행	e	모니터링 활동 확대	●	●	3
성과	f	적극적 성과지표 발굴		●	3

- 「**102.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총 7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 '성과지표 재조정',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제고'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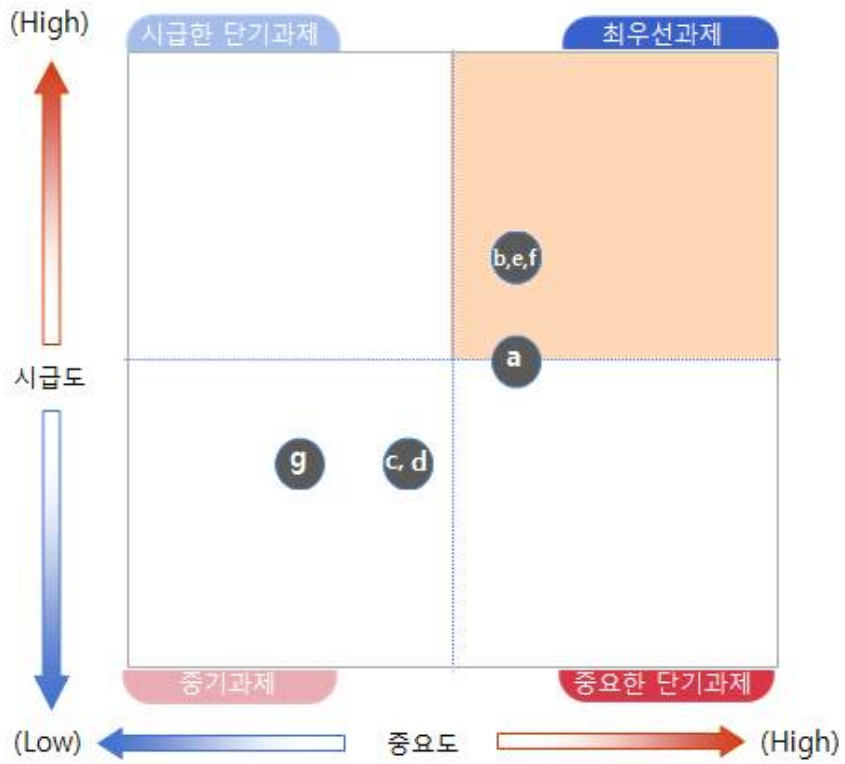
[1분과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 영역	연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	●	●	1
계획	b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4
계획	c	**성과지표 재조정**	●	●	1
계획	d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제고**		●	1
집행	e	예산 집행률 제고		●	6
집행	f	사업진행 중 모니터링의 피드백 과정 강화	●	●	4
성과	g	특성화 지표 개선		●	7

- 「**103. 공연창작지원**」사업은 총 7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영역의 '실제지원과 성과평가 시점과의 시차 개선'과 집행영역의 '사후지원과 연관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 성과영역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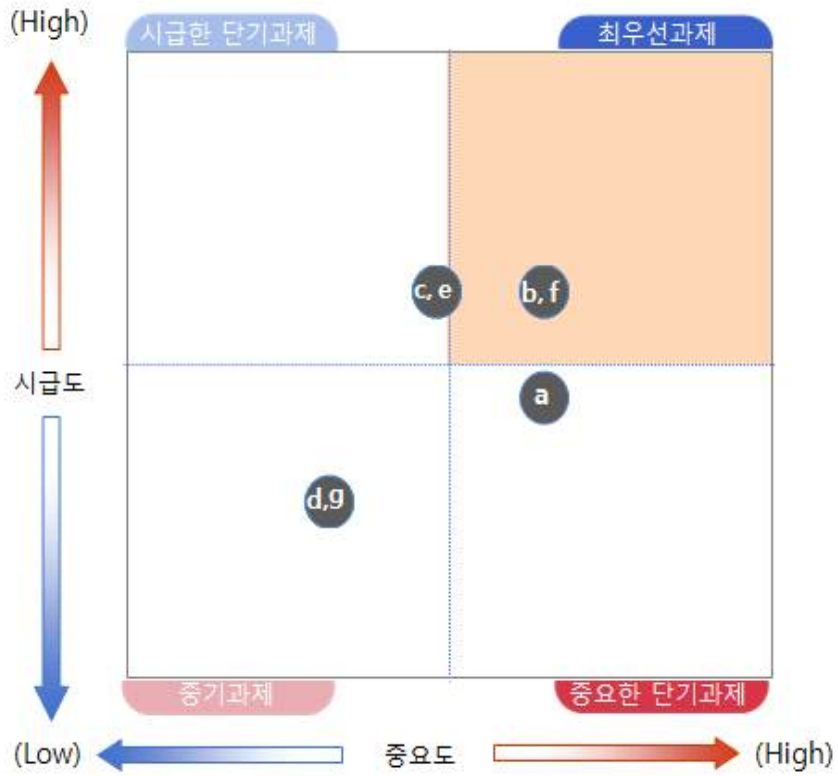
[1분과 - 공연창작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2011	2012	우선순위
계획	a	성과목표의 명확화	●	●	4
계획	b	**실제지원과 성과평가 시점과의 시차 개선**		●	1
계획	c	성과지표 보완	●	●	5
계획	d	취약장르에 대한 균형지원 노력 강화		●	5
집행	e	**사후지원과 연관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	●	●	1
성과	f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	1
성과	g	특성화 지표 보완		●	7

- 「**104. 창작매체·소통지원**」사업은 총 7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지역 및 타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와 성과영역의 '목표치설정의 합리적 근거확보 노력 강화'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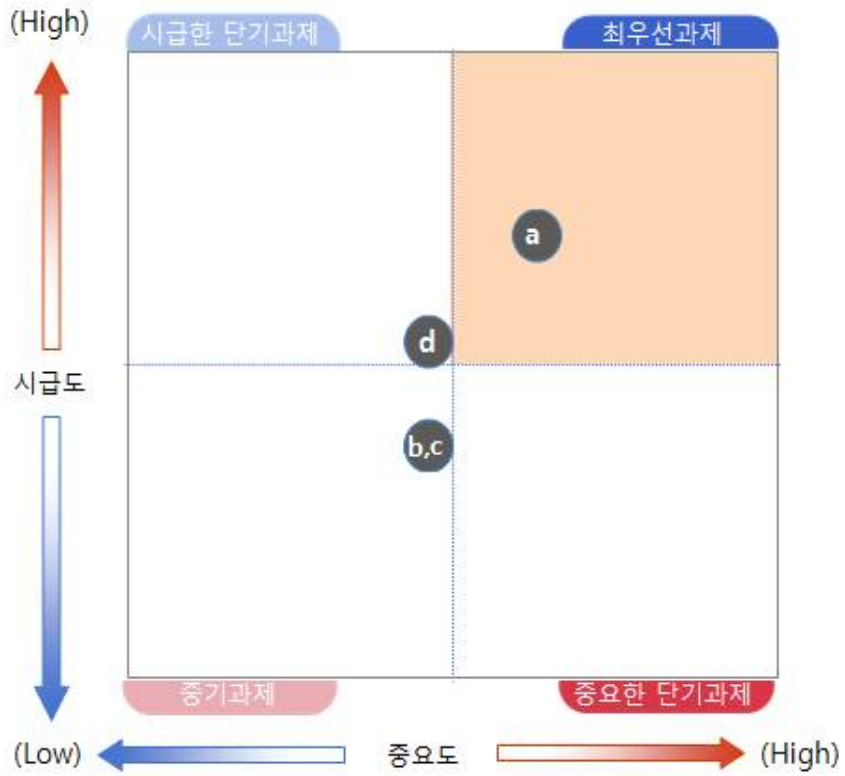
[1분과 - 창작매체·소통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 영역	연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사업목적과 세부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	●	3
계획	b	**지역 및 타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	1
계획	c	성과지표 재조정	●	●	3
집행	d	예산집행률 제고노력 강화		●	6
집행	e	모니터링 체계 개선		●	3
성과	f	**목표치설정의 합리적 근거확보 노력 강화**		●	1
성과	g	특성화지표를 기본 성과지표 전환		●	6

- 「**105.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은 총 4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다양한 사례별로 중복지원 허용(체계적인 기준 재설정)'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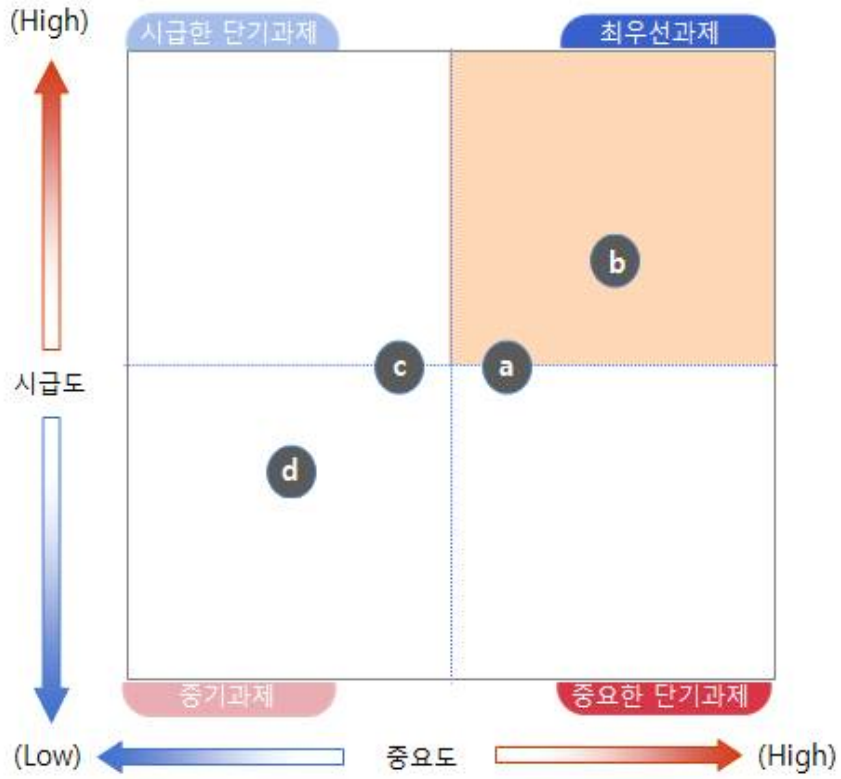
[1분과 -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다양한 사례별로 중복지원 허용(체계적인 기준 재설정)**	●	●	1
계 획	b	평가 기준 명확화	●	●	3
집 행	c	모니터링 활동 개선 (불특정 수혜 대상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추가)		●	3
성 과	d	지표성격에 부합하는 업무영역 설정		●	2

- 「106. 예술행사지원」사업은 총 4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지원심사 기준의 내실화'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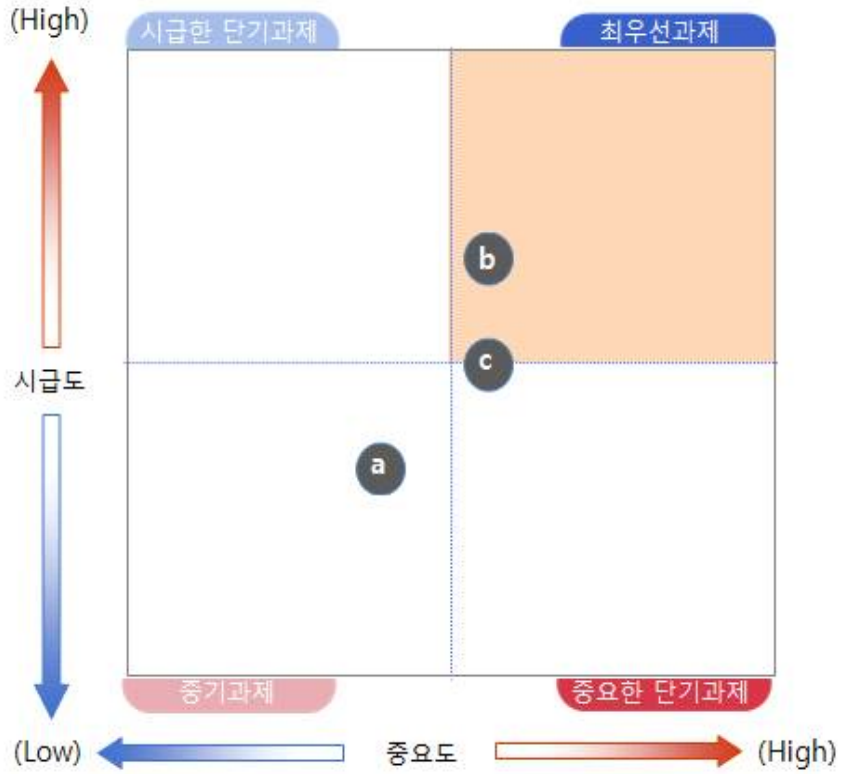
[1분과 - 예술행사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 영역	연번	개선과제	2011	2012	우선순위
계획	a	실효성있는 평가지표 개발	●	●	2
계획	**b**	**지원심사 기준의 내실화**		●	1
계획	c	성과지표 구체화 (행사 지원기준 구체화 및 상이한 운영체계를 반영한)		●	3
집행	d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모니터링 분리	●	●	4

- 「**107. 영아트프론티어지원**」사업은 총 3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창작 작품의 질적 평가요소 평행 보완'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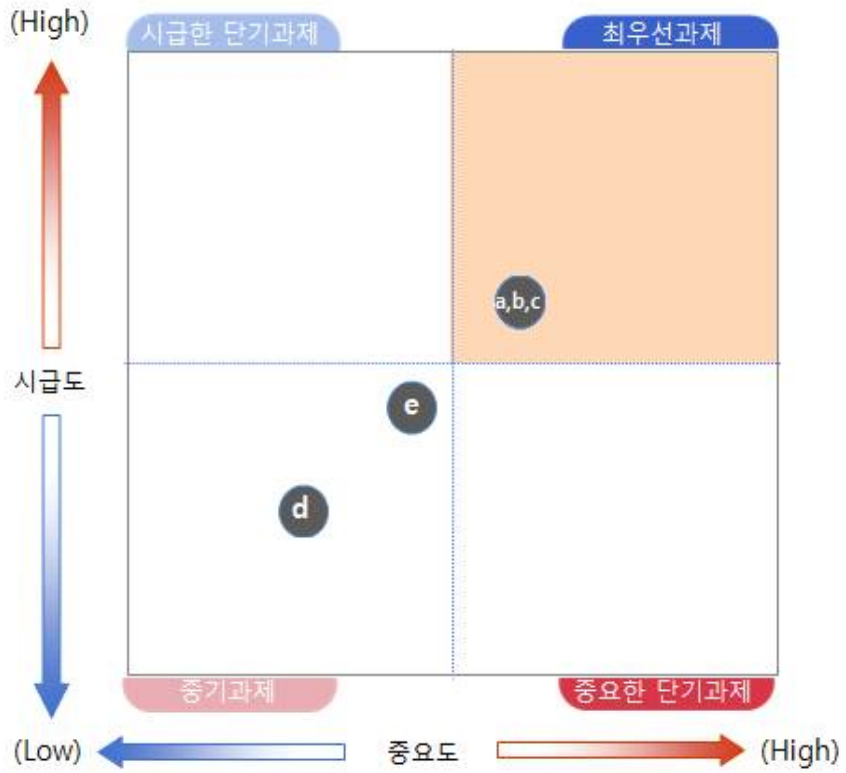
[1분과 - 영아트프론티어지원사업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자기설계방식의 자율 평가지표 보완		●	3
계획	b	**창작 작품의 질적 평가 요소 평행 보완**		●	1
집행	c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공간 매칭 사업 활성화		●	2

- 「**108.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총 5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전략체계 검토 및 성과목표 재수립'와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프로그래밍', 집행영역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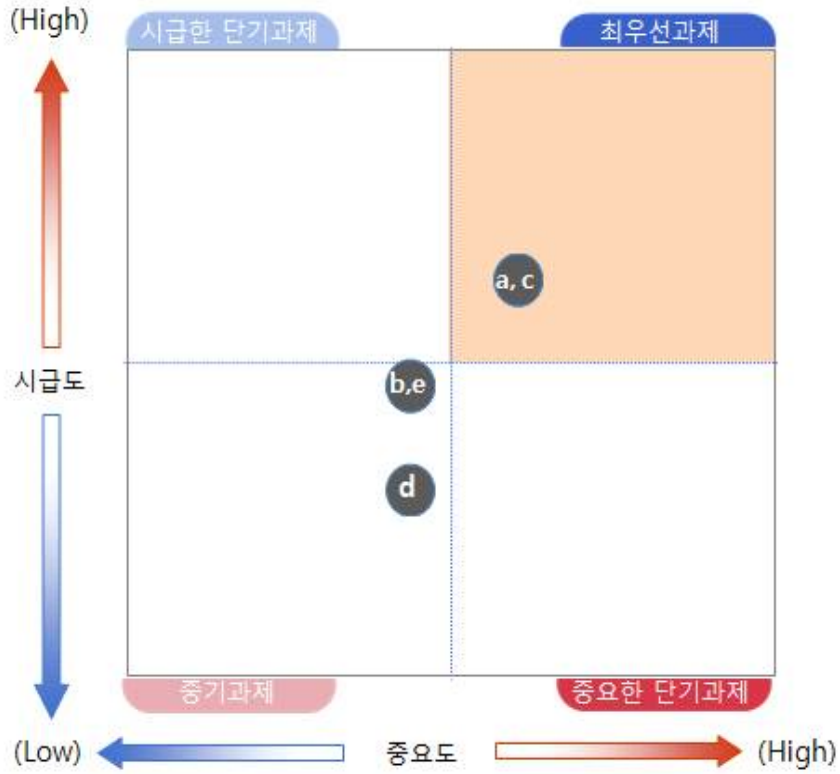
[1분과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전략체계 검토 및 성과목표 재수립**	●	●	1
계획	b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프로그래밍**		●	1
집행	c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1
집행	d	중도 지원 포기자에 대한 제재		●	5
성과	e	질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	●	4

- 「109.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총 5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래밍'과 집행영역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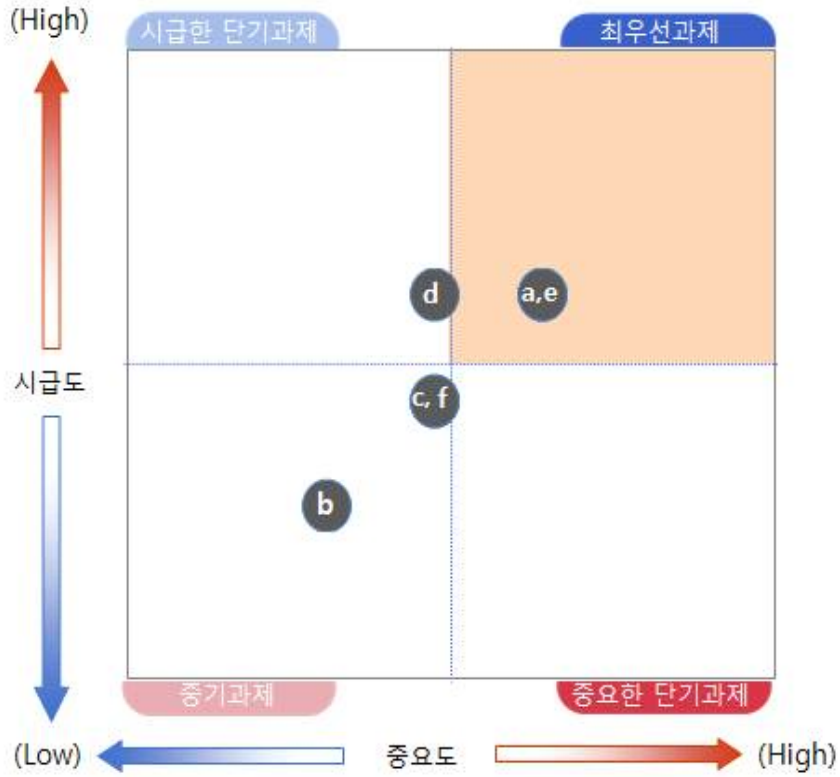
[1분과 -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	●	1
계획	b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3
집행	c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	1
성과	d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	5
성과	e	성과지표 산식의 명확화		●	3

- 「110.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사업은 총 6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의 유지'와 집행영역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1분과 -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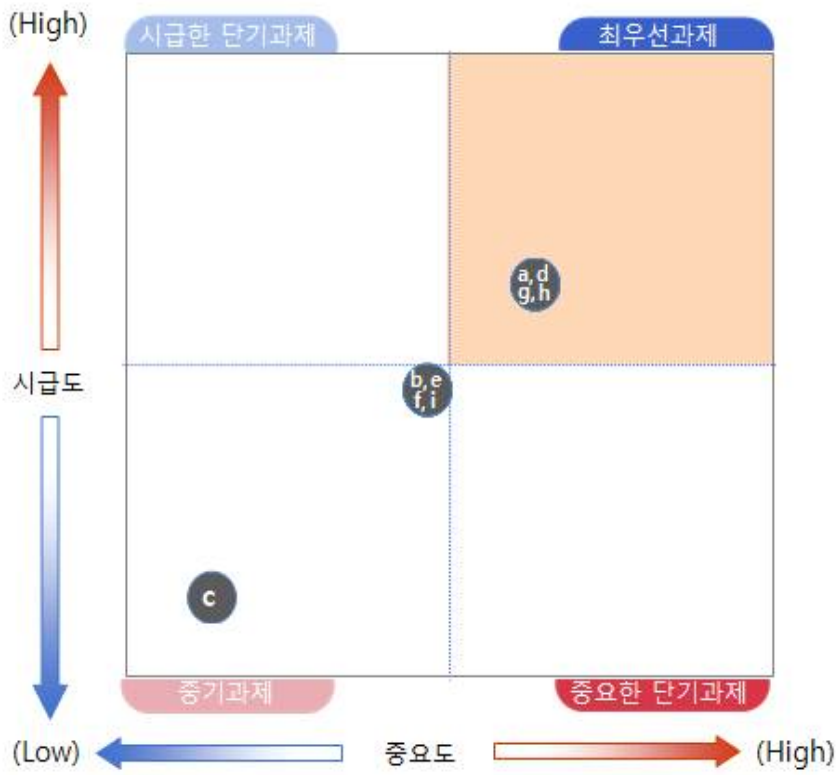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의 유지**		●	1
계획	b	비율적 성과목표로의 전환 검토		●	6
계획	c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	●	4
집행	d	재원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	●	3
집행	e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1
성과	f	지원 대상 만족도가 특성화지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	4

○ 2분과 문화예술공간운영 세부·기초사업별 개선과제

- 「201. 아르코미술관운영」사업은 총 9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 '미술관의 사업목적 재정립', 집행영역의 '문화예술 공간연계사업 도출', 성과영역의 '미술관 운영의 확대(전시공간, 아카이브 포함)', '미술관 공간 활용 활성화'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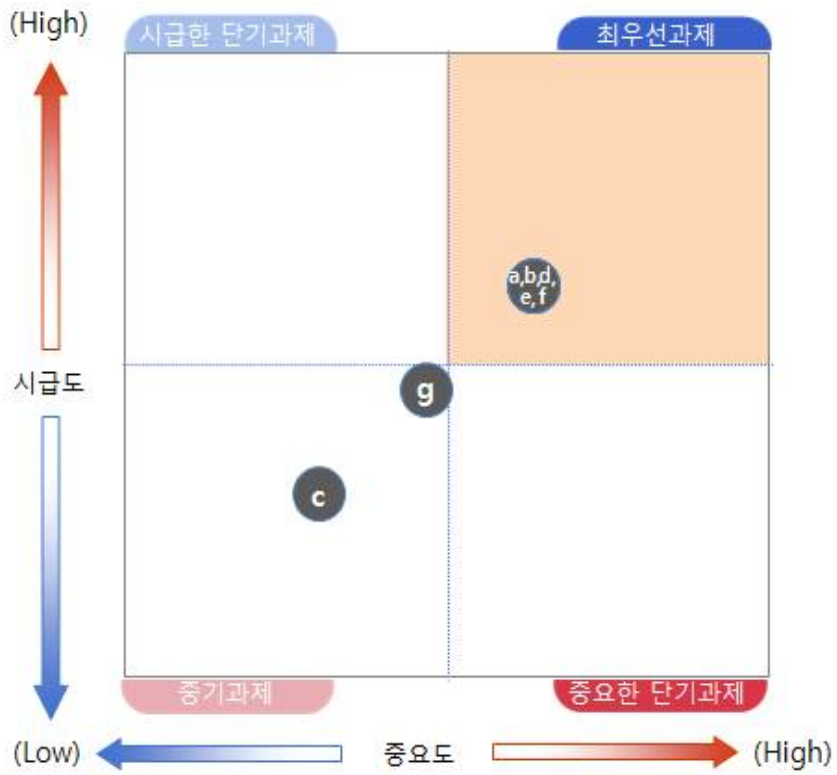
[2분과 - 아르코미술관운영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2011	2012	우선순위
계획	a	**미술관의 사업목적 재정립**		●	1
계획	b	실험적 시각예술과 공연예술과의 연계		●	5
계획	c	전시 공간과 전시 일정의 효율성 확보		●	8
집행	d	**문화예술 공간연계사업 도출**		●	1
집행	e	어린이 건축학교의 운영		●	5
집행	f	미술관 아카이브의 위상 제고		●	5
성과	g	**미술관 운영의 확대 (전시공간, 아카이브 포함)**	●	●	1
성과	h	**미술관 공간 활용 활성화**		●	1
성과	i	모니터링 지표 개선	●	●	5

- 「20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사업은 총 7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공연예술 인큐베이터사업 재규명', '국제공연예술가 시리즈 국가별 초청 활성화', 집행영역의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및 홍보강화', 성과영역의 '벽제 인력개발원 공간 활용', '교육내용 전 과정 공개'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2분과 - 예술인력개발원운영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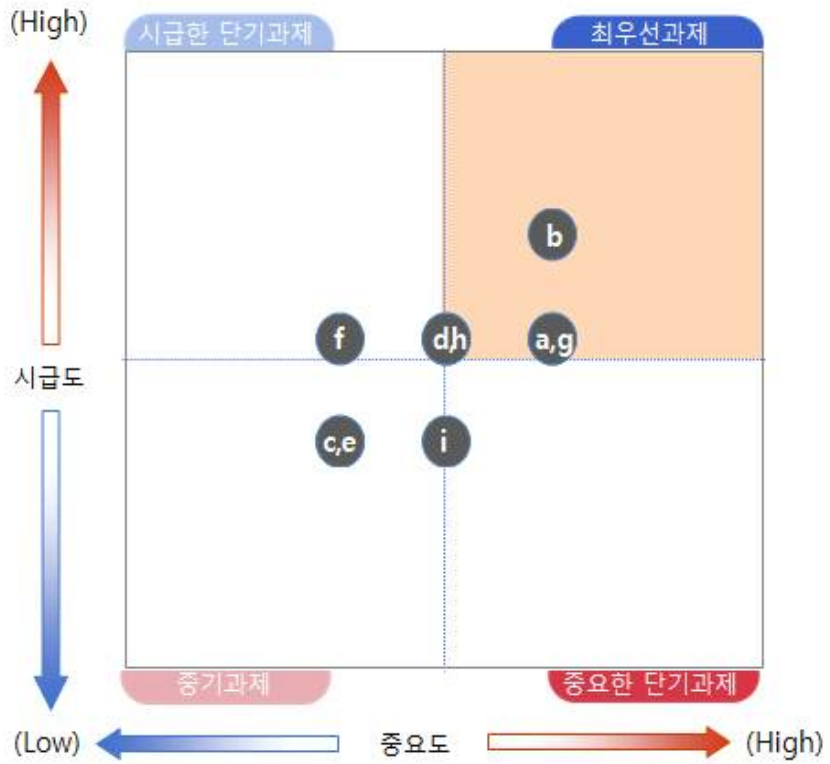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공연예술 인큐베이터사업 재규명**		●	1
계 획	b	**국제공연예술가시리즈 국가별 초청 활성화**		●	1
계 획	c	찾아가는 교육사업 운영		●	7
집 행	d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및 홍보강화**		●	1
성 과	e	**벽제 인력개발원 공간 활용**		●	1
성 과	f	**교육 내용 전 과정 공개**		●	1
성 과	g	모니터링 지표 개선	●	●	6

○ 3분과 생활속의예술활성화 세부·기초사업별 개선과제

- 「301.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사업은 총 9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민간 지원단체와의 협의조정기구 구성'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사업의 통합', 성과영역의 '지속적인 수요자욕구조사를 겸한 바우처사업의 패널데이터확보'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3분과 -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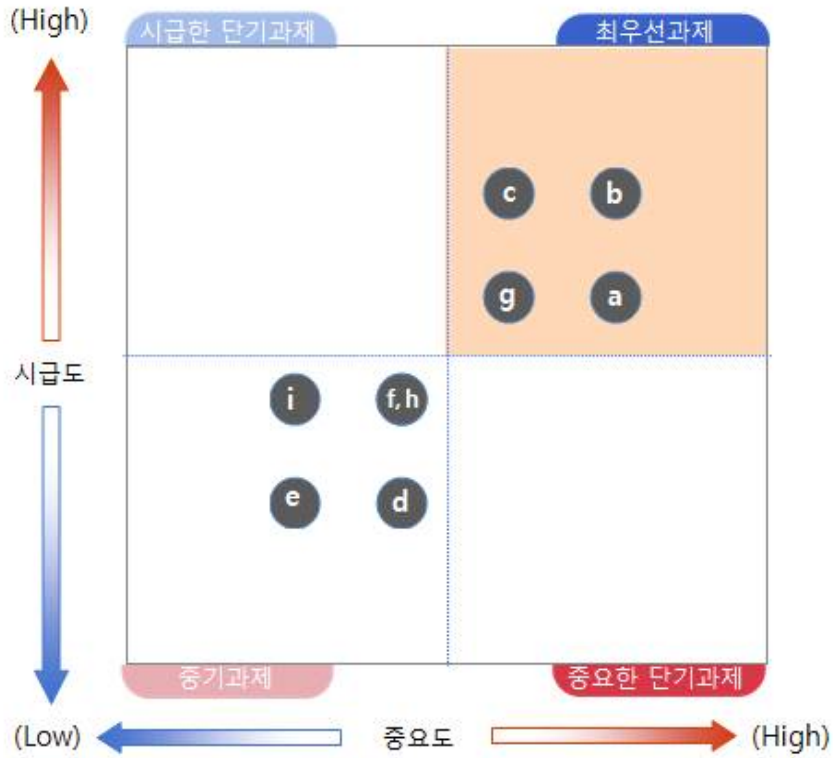


개선영역	연번	개선과제	2011	2012	우선순위
계획	a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사업의 통합**		●	2
계획	b	**민간 지원단체와의 협의조정기구 구성**	●	●	1
계획	c	세부프로그램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강화 및 상향	●	●	7
집행	d	사업자 자격에 대한 사전 심의 강화	●	●	4
집행	e	모니터링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	7
집행	f	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	6
성과	g	**지속적인 수요자욕구조사를 겸한 바우처사업의 패널데이터확보**		●	2
성과	h	문화여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변화 측정 강화		●	4
성과	i	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		●	6

○ 4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세부·기초사업별 개선과제

- 「401.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총 9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와 상대적 목표 책정에 따른 달성 부합정도 측정의 객관성 확보', '사업목적과 과제의 연결 합리성 제고 및 그에 따른 목표치 설정',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기준의 정합성 마련', 성과영역의 '우수 사례에 대한 발굴 및 인센티브, 언론 홍보 강화 등'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4분과 - 지역문화예술진흥의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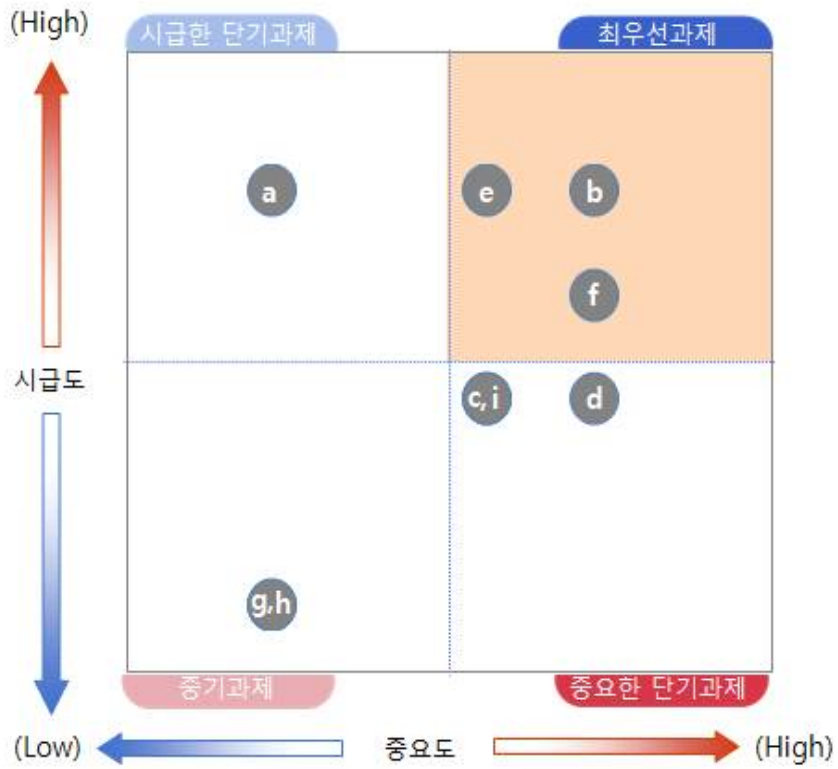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사업목적과 과제의 연결 합리성 제고 및 그에 따른 목표치 설정**	●	●	2
계 획	b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와 상대적 목표 책정에 따른 달성 부합정도 측정의 객관성 확보**	●	●	1
계 획	c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기준의 정합성 마련**		●	2
집 행	d	수행과제의 내용의 정합성 및 세부목적에 따른 구분		●	7
집 행	e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재편 고려		●	8
집 행	f	예산 집행시기 조정의 유동성 확보	●	●	5
성 과	g	**우수 사례에 대한 발굴 및 인센티브, 언론 홍보 강화 등**		●	4
성 과	h	성과위주의 사후지원방식 체계의 지속적 도입과 점검		●	5
성 과	i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성과측정	●	●	7

○ 5분과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세부·기초사업별 개선과제

- 「501.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사업은 총 9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세부사업 내용의 재구성', '용어 사용의 명료화', '질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5분과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선 영역	연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세부사업명 수정		●	5
계획	b	**세부사업 내용의 재구성**		●	1
계획	c	문화예술홍보 수요 예측의 합리성 제고	●	●	5
계획	d	국민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	4
계획	e	**용어 사용의 명료화**		●	2
계획	f	**질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	●	●	2
집행	g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사업별 분리 작성		●	7
집행	h	모니터링 실적 보고서 사업별 분리 작성		●	7
성과	i	특성화 지표 가중치 부여		●	5

- 「5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사업은 총 4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집행영역의 '연구과제 조기 착수 실현'과 계획 영역의 '사업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개발'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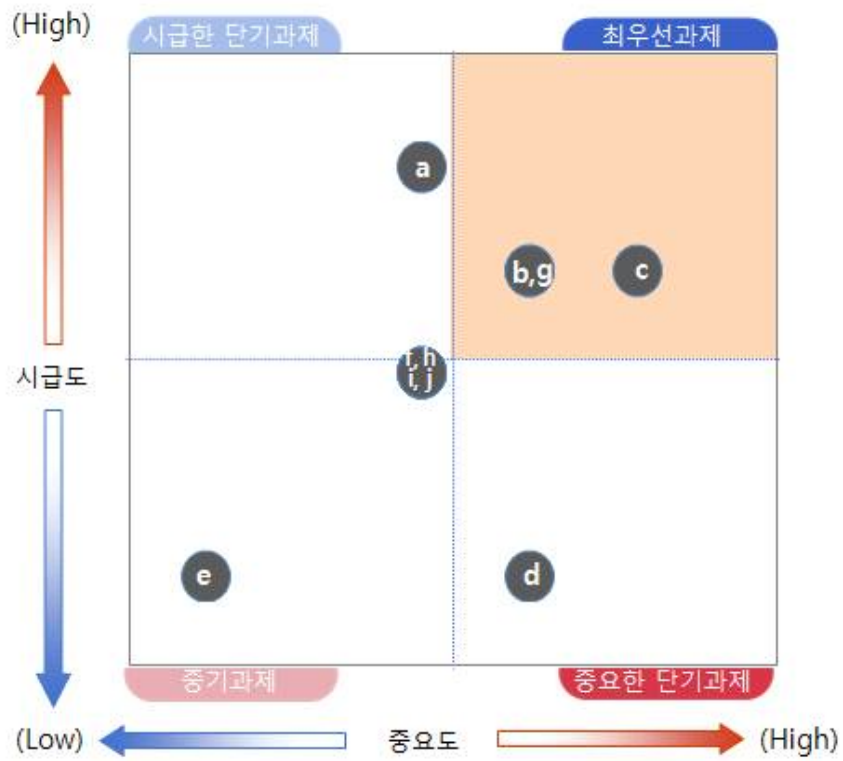
[5분과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사업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개발**	●	●	2
집 행	b	**연구과제 조기 착수 실현**		●	1
집 행	c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	●	3
성 과	d	연구 과제 활용도 조사 양식 개발		●	3

- 「5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사업은 총 10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기부금 모금 사업의 전략 목표 설정'과 '사업내용의 재구성', 성과 영역의 '전략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재설정'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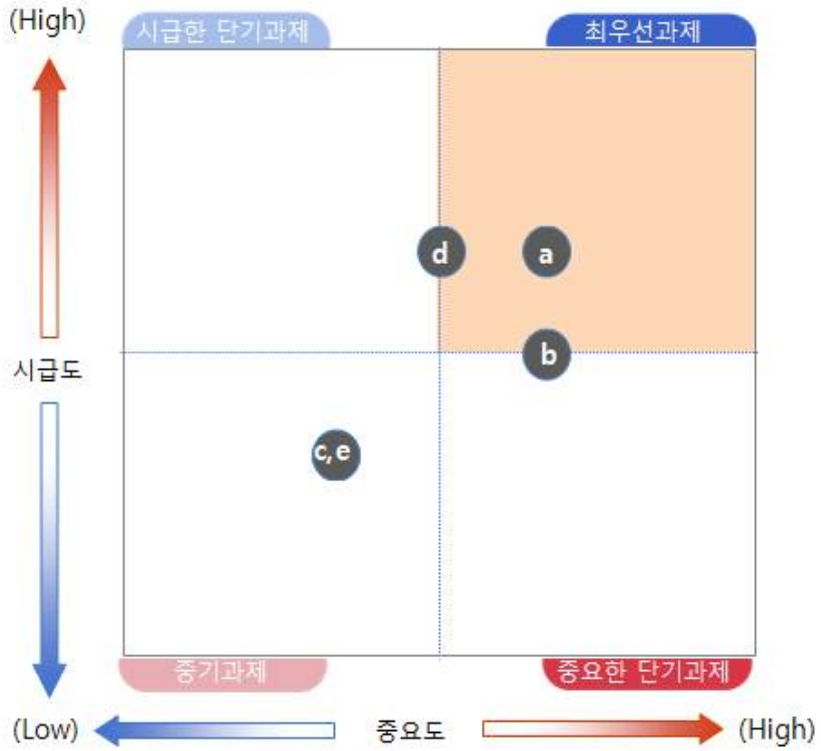
[5분과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사업명 수정		●	2
계획	b	**사업내용의 재구성**		●	2
계획	c	**기부금 모금 사업의 전략 목표 설정**		●	1
계획	d	경제 상황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		●	7
집행	e	예산 집행률 사업별 구분 작성		●	8
집행	f	예산 집행률 산출 방식 변경		●	5
성과	g	**전략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재설정**		●	2
성과	h	기부 건수와 기부금 유치액 증가의 병행 전략 마련	●	●	5
성과	i	기부금 유치 실적의 반기별 균형 실현		●	5
성과	j	매칭펀드 참여기업 만족도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5

- 「504. 공공미술기반사업」 사업은 총 5개의 개선과제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계획 영역의 '성과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재설정'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됨

[5분과 - 공공미술기반사업 개선과제 우선순위 Matrix]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성과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재설정**		●	1
계획	b	공공미술 기금 출연제도 홍보 강화		●	2
집행	c	예산 집행 계획 사업별 분리 작성		●	4
집행	d	고객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		●	2
성과	e	시범사업 공정률 지표의 개선		●	4

Ⅳ 단위사업 및 세부·기초사업 평가결과

1. 전략평가 부문
2. 사업평가 부문

1. 전략평가 부문

■ 비전 및 전략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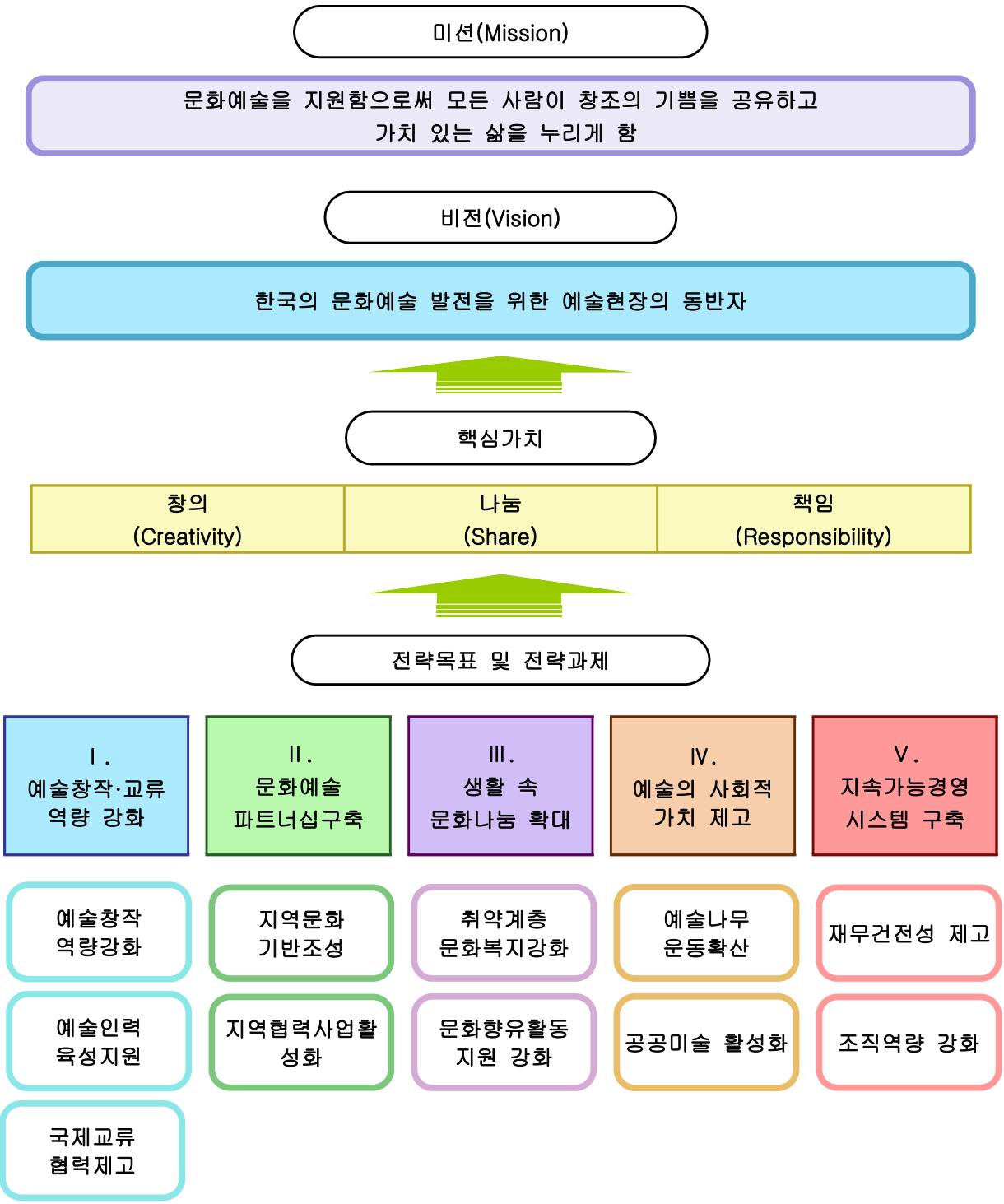
■ 주요사업 추진계획

■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전략평가 부문 최종보고서

1. 개요

□ 기관 미션, 비전 전략체계



○ 예술위원회 미션을 '예술창작', '문화나눔', '예술위원회 역할' 등 3가지 영역으로 분류, 정의하여 예술위원회의 전략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

미 션	미션 정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 공공기관이자 위원회 구조로서,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도록 지원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 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문화예술계 상호 협력기반을 조성,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과 세계화를 선도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와 향유의 기쁨을 공유하고, 타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량으로써의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

○ ARKO 비전2015 Rolling 및 7대 중점과제 도출

비전 2015 (4대 전략목표, 14대 전략과제)	
Ⅰ. 예술창작역량 강화	- 예술현장 지원강화 - 문화예술인력 관리 및 육성 지원 - 문화예술공간운영 특성화
Ⅱ.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	-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 국제교류 역량강화 지원 - 지역문화 기반조성 강화 -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Ⅲ. 예술을 통한 문화나눔 확대	-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 - 문화향수활동 활성화 -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 공공미술 활성화
Ⅳ.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구축	- 중장기 재무건전성 강화 - 지방이전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 - 조직역량 강화

비전 2015(Rolling) (5대 전략목표, 11대 전략과제)		
Ⅰ. 예술창작 ·교류역량 강화	- 예술창작역량 강화 - 예술인력 육성지원 - 국제교류 협력제고	4 수 6
Ⅱ. 문화예술 파트너십 구축	- 지역문화 기반조성 -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7
Ⅲ. 생활 속 문화나눔 확대	-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 문화향유활동 지원강화	3
Ⅳ.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 예술나무운동 확산 - 공공미술 활성화	1 2
Ⅴ.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	- 재무건전성 제고 - 조직역량 강화	

○ 기존 비전2015이 Rolling됨에 따라 과제별 목표지표를 재정립하여, 5대 전략목표 이하 11대 전략과제별 목표지표를 설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함

- Ⅰ. 예술창작·교류역량 강화
  - 예술창작 역량강화 :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노력과 성과 등 4개
  - 예술인력 육성지원 : 예술인력 육성 지원노력과 성과 등 4개
  - 국제교류 협력제고 : 다자채널확대 등 3개
- Ⅱ. 문화예술 파트너십 구축
  - 지역문화 기반조성 : 참여자수 등 2개
  -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 비수도권 참여관객 비율 등 1개

- Ⅲ. 생활 속 문화나눔 확대
  -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 운영 체계화 등 3개
  - 문화향유활동 지원강화 : 수혜자수 등 2개
- Ⅳ.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 예술나무 운동 확산 : 기부금 창출 실적 등 2개
  - 공공미술 활성화 : 공공미술기금 연간조성액 등 1개
- Ⅴ.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구축
  - 재무건전성 제고 : 기획기부프로그램 등 4개
  - 조직역량 강화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고도화 노력과 성과 등 8개

□ ARKO 비전2015 체계 기반 주요사업 선정

○ 비전 2015-전략목표-전략과제로부터 Cascading 되어 도출된 주요사업 4가지 분류는 기존으로부터 유지된 반면, 정성/정량적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 반영 측면에서의 2012년 대비 2013년 일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함

○ 특히, 기존 주요사업으로 분류한 문화예술 공간운영은 미술관 및 예술인력개발원의 사업포트폴리오가 타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바, 이를 통폐합하여 5대 주요사업의 범주가 4대 주요사업으로 조정함

전략 목표	전략 과제
Ⅰ. 예술창작·교류역량 강화	• 예술창작역량 강화
	• 예술인력 육성지원
Ⅱ. 문화예술 파트너십 구축	• 국제교류 협력제고
	• 지역문화 기반조성
	•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Ⅲ. 생활 속 문화나눔 확대	•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 문화향유활동 지원강화
Ⅳ.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 예술나무운동 확산
	• 공공미술 활성화
Ⅴ.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	• 재무건전성 제고
	• 조직역량 강화

주요사업		
대분류	소분류	조정
예술창작 역량강화	• 예술창작지원	축소 (△3.1%)
	• 예술인력육성	강화 (110.3%)
	• 국제예술교류지원	축소 (△5.5%)
생활속 예술활성화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강화 (1.3%)
지역문화 예술진흥	• 지역문화예술지원	강화 (1.5%%)
예술사회적 가치제고	• 문화예술이미지제고	유지
	• 공공미술사업운영	유지
문화예술 공간운영	• 미술관운영	폐합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폐합

□ 주요사업 추진계획

○ 기관의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사업추진 성과와 정부정책 변화 등을 종합하여 비전·전략체계에 따른 주요사업 중장기 추진방향 도출

성과분석	환경분석			역량분석
	정부정책	사회/기술	예술현장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현장 파급효과 제고 - 책임심의위원제 도입, 다년간 지원제도 도입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한 공공미술추진 및 문화바우처 확대 근거 마련 - 공공미술 ('11. 5월), 문화바우처 ('12.8월) •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08) 111억→ ('12) 203억, 82.9%↑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성과중심 조직역량 제고 -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 공공기관 최초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문화부 지출재정 중 문화예술분야 투입 규모 ('09) 6,821억→ ('11) 9,144억 34.2%↑ •문화복지 강조 - 문화바우처 ('11) 347억→ ('12) 487억 40.3%↑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법령 개정	•소득양극화에 따른 문화향유 사각지대 발생 지속 - 소득 5분위 배율이 지속 상승 ('09) 7.7%→ ('10) 7.74%→ ('11) 7.86%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SNS, YouTube 등 사용자 참여중심 인터넷환경 발달 - 인터넷 이용지수 ('08) 76.8%→ ('10) 77.9%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관심 및 지출 증대 - 문화서비스 지출 ('09) 22,066원→ ('10) 23,445원 - 가계지출 대비 ('09) 0.89%→ ('10) 0.91% •창작환경 악화로 인한 창작활동 위축 - 공연단체 재정 자립도 ('09) 56.6%→ ('11) 45.6% - 월평균 수입 1백만원 이하 ('09 조사) 62.8% •지역 단위 문화재단 출범 - ('09) 9개 → ('11)13개 *광역시도 기준	•지원정책추진을 위한 광범위의 네트워크 보유 • 지역문화예술 현장전문성 부족 •온라인-모바일 환경 변화 대비 IT전략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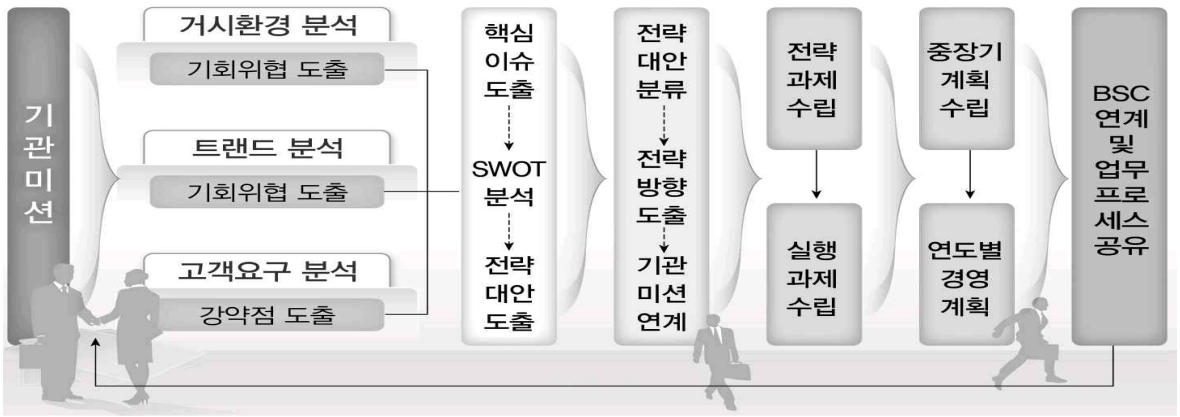
주요사업 중장기 추진방향

예술현장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작지원체계 구축	문화복지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기관역할 확대	지역네트워킹 확대를 통한 협력 강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중장기 추진방향에 따른 주요사업별 추진과제 도출

구 분	전략목표	전략과제
사업부문	예술 창작 교류역량 강화	① 예술창작역량강화
		② 예술인력육성지원
		③ 국제교류협력제고
	문화예술 파트너십 구축	④ 지역문화기반조성
		⑤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생활 속 문화나눔 확대	⑥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⑦ 문화향유활동 지원 강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⑧ 예술나무 운동 확산
		⑨ 공공미술 활성화

○ 기관의 설립목적과 중기경영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전략과제 도출 프로세스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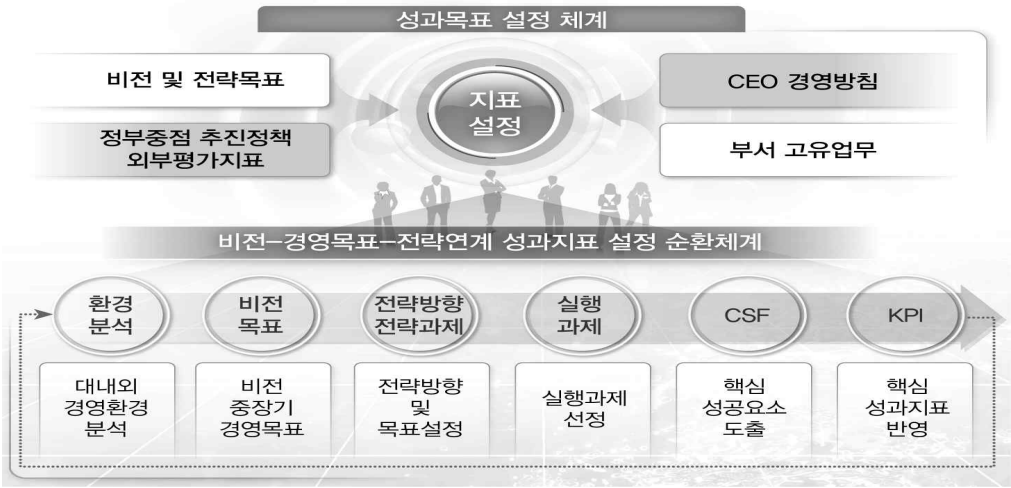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체계 연계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기관 미션, 현안과제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 주요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체화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 할 수 있는 Outcome 중심의 대표 성과지표 설정

주요사업	중장기 전략 방향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술인 창작활동 신장사업	•일회성 개별 프로젝트 지원의 한계 극복, 예술가(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담보 •해외창작거점 공간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성과와 품질 중심의 창작진흥사업 운영을 통한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원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수준
지역문예진흥 지원사업	•지역 간 균형전략에서 지역 특성화 전략 방향으로 전환 •지역 간, 지역 내 교류 및 협력 강화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균형발전	• 비수도권 지역예술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관객 비율
생활 속의 예술활성화 사업	•'문화바우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 관리 •국민문화향유활동 확대를 위한 생활속의 문화나눔 확대전략 추진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문화나눔 활성화	• 문화바우처 이용자 수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의 가치 확산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술나무』 운동 전개 •적극적 공공미술의 사회적 역할 기여를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 및 예술의 공공성 제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기부금 유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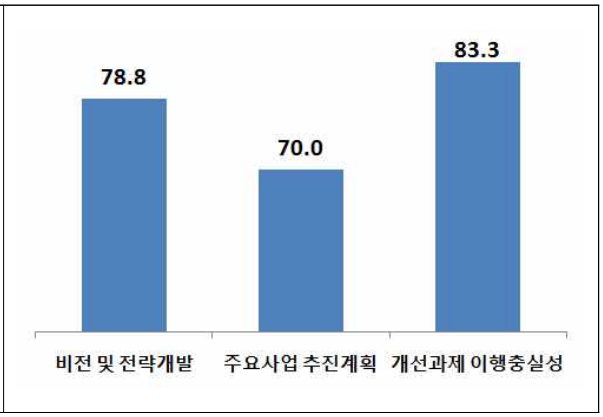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전략부문은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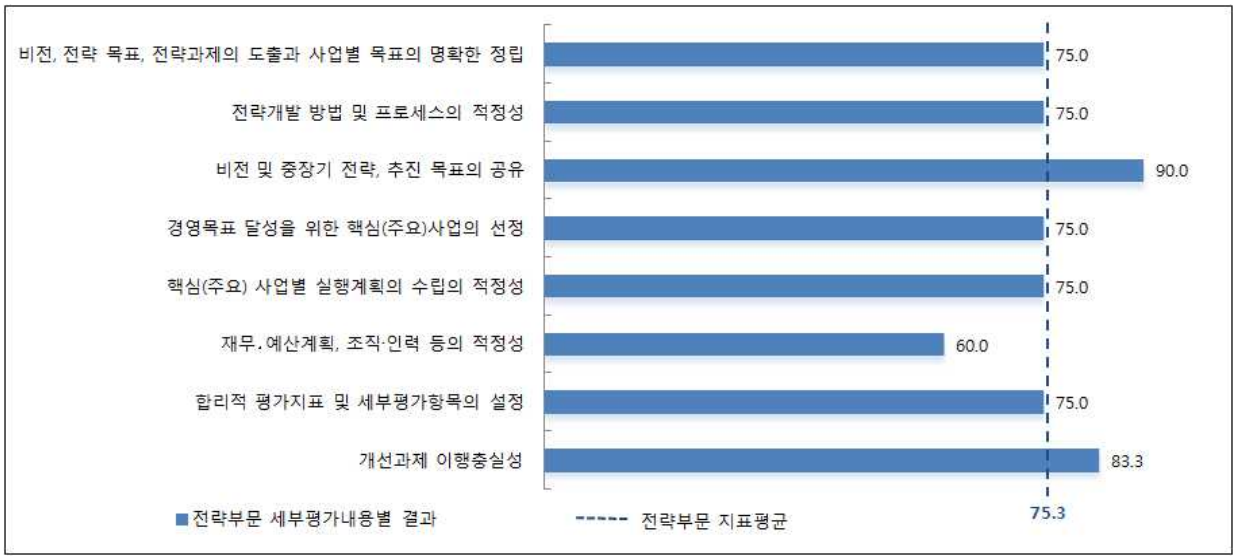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전략 평균점수(75.3점) 대비 비전 및 전략개발(+3.5)과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8.1)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주요사업추진계획(-5.3)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등급	환산점수	
비전 및 전략개발	1-1	B	75.0	78.8
	1-2	B	75.0	
	1-3	A	90.0	
	1-4	B	75.0	
주요사업 추진계획	2-1	B	75.0	70.0
	2-2	C	60.0	
	2-3	B	75.0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83.3	83.3



□ 세부 평가내용별 점수결과

[해당 세부평가 내용별 점수 비교]



○ 전략부문의 세부평가내용별 점수 결과 평균 75.3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1-3.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추진 목표의 공유’이며 90.0점(A등급)으로 평가됨

○ 가장 맞게 평가된 지표는 ‘2-2. 재무, 예산계획, 조직·인력 등의 적정성’이며 60.0점(C등급)으로 평가됨

3. 총평

○ 미션·비전·핵심가치·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의 비전하우스 체계가 내·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직을 체계화하여 구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한 점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제시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관의 특성상 문화예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충분한 재고(再考)가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인 경영기법을 시도하며 적용하는 것에 더 숙고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들이나 자원분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은 기관의 운용을 위해서도 개선해 나아갈 부분이라고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비전 및 전략개발

□ 사업계획

1-1. 기관(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전략, 목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사업별 목표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의 비전하우스 체계가 내·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롤링된 것으로 판단됨
- 핵심가치 정의와 실천과제 연관 위한 비전2020 수립하고 있으며,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개최와 백서 출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 재원확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확충 계획을 세움

[부정적 측면]

- 전략목표의 목표수준 및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움, 무엇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핵심가치가 조직문화로 체화되어 과제나 프로그램으로의 연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언적인 수준에서 멈추고 있음
- 사업별 지표 및 목표 선정에 꾸준히 노력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전략목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사이에 갭이 존재함

[개선제안]

-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의 연계성 확립, 미션 비전 등의 추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천과제를 사업별 목표로 정의하고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위원장의 5대 화두와 7대 과제를 핵심가치와 전략목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업별 목표에 연결시킬 것을 제안함
- 목표 설립 시 기관당면 위협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2. 기간(기금) 운영을 위한 전략개발 방법 및 프로세스가 적정한가?

[긍정적 측면]

-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시스템 구축을 위해 To-be Committee, 중장기 전략소위원회, 미래전략포럼준비소위원회, 비전 Committee 등의 조직을 체계화 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바람직 함
- 미래전략 대토론회 등의 활성화로 이해관계자의 소개를 다각도로 듣고 분석하고 백서까지 발간한 것은 매우 바람직 함. 특히 정계, 재계, 지역대표 등 각계 인사들을 토론회에 초청하여 문예위의 문예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바람직 함

[부정적 측면]

- 기관특성에 맞는 전략개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우선순위 판단기준 등 실행역량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외부 내부 소통기구의 내용을 어떻게 전략에 연계하였는지 명확하지 못함

[개선제안]

- 실행역량 등 과제의 우선순위 판단기준이 필요함
- 정부정책 변화 및 목표 롤링에 대한 프로세스 및 시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당면 위협요소를 강점 약점과 연관하여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관 특성에 맞는 전략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관 특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1-3. 기관(기금운영)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추진 목표에 대해 어떻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가?

[긍정적 측면]

- 이해관계자 유형을 가치의 흐름에 따라 가치생산형, 영향형, 구매형, 전달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따른 공유 노력은 바람직함
- 공유도 제고를 위한 분석지수 AVS3.0을 개발하는 노력은 바람직함
- 공유도 점수는 92.8점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작년대비 무엇을 어떻게 더 노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롤링의 과정성에서 여러 가지 프레임이 존재해 롤링 전과 롤링 후 구성원이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비전공유도 제고방안은 좋으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계획이 부족함

[개선제안]

- 비전공유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AVS. 3.0 설문항목 및 조사시행 여부와 조사를 했다면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함

1-4. 기관(기금운영)의 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주요)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효과성 및 조직역량에 근거한 주요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우선순위를 진행하여 사업 확대, 역량전환, 잠재업무, 사업검토 등으로 유형화 함

[부정적 측면]

-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의 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공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요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이 사업역량과 사업효과만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검토해보야야 함
- 장기사업계획에 따른 재무 및 인력배분의 연계성이 약함
- 도식화된 사업 분석 매트릭스

[개선제안]

-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통상적 우선순위 업무를 핵심 사업별로 기술하고 올해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함
-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한 평가 결과
- 핵심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사업추진계획

□ 성과계획

2-1.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주요) 사업별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기관의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사업성과와 정부정책 등 환경 분석 등을 종합하여 전략체계에 기반한 주요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도출함

[부정적 측면]

- 전략목표에 대한 수준 및 근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사업실행계획의 구체적 내용 및 각 핵심 사업별 세부사업의 내용이 결여됨
- 환경 분석과 역량분석에서 필요한 미래 사업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내지 못함

[개선제안]

- 사업별 실행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인력이 포함된 계획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전략목표 수치 및 근거를 제시하고 핵심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함
- 미래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함

2-2. 사업별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달성을 위한 재무, 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으며 적정한가?

[긍정적 측면]

- 핵심 사업을 위한 직위 직무 공모제를 실시하여 예술나눔부장 등 핵심 직위·직무 2명 선발·인사 배치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적자원 배치를 통한 주요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함
- 이용자 중심의 고객 친화적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개선,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대표 홈페이지 운영, 문화예술분야 나눔 및 기부활동을 매개하는 포털 서비스를 구축 등 주요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함
- 핵심 사업에 기반한 재무 예산 계획은 구체적임
- 중장기 추진 전략에 기반한 편성원칙과 편성방법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 함

[부정적 측면]

- 현재는 사업방향과는 별도의 인력조직 계획이 세워져 있음
- 비전2020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과 자원배분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음

[개선제안]

- 사업별 예산과 인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 중장기 3개년 혹은 5개년 사업계획에 기반한 자원배분계획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사업전략 또는 사업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인력/조직, 예산재무 등의 계획이 연계되어야 함

2-3. 주요사업 추진활동의 적정성 및 효율성과 궁긍적인 성과(Outcome)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항목이 설정되어 있는가?

[긍정적 측면]

- ADL을 반영한 평가지표 설계 및 지표개발에 대한 노력은 바람직함
- 특히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Outcome 중심의 성과지표 발굴 노력은 바람직함

[부정적 측면]

- 전략경영에 기반한 목표수준에 대한 근거는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
- 예술인 창작활동 신장사업의 성과지표는 수월성 위주인지 보편성 위주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글로벌 전략이 부재함
- 지역문예진흥 지원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와 질을 알 수 없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를 대표성 및 측정용이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의 지표를 수월성과 보편성의 지표로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쟁전략과 벤치마킹 전략이 필요함
- 해외 관련사업의 성과지표는 글로벌 지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의 성과지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① 고객재정의를 통한 고객만족 계획 수립

[긍정적 측면]

- 기관 이해관계자 유형을 가치의 흐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고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공유노력 진행함

[부정적 측면]

- 이해관계자별 니즈에 기반한 CS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능동적으로 이해관계자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가치유형별로 고객만족 점수 보여줄 필요가 있음

② 고유사업 중심의 전략체계 수립

[긍정적 측면]

- 기존 아르코비전 2015의 4대 전략목표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를 추가하여 5대 전략목표로 사업부문을 확대하고 전략과제를 기관중점과제와 연계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재조정 하는 등 롤링작업을 통해 비전/전략체계를 고도화한 것은 바람직 함
- 지역협력사업도 선택집중형(공연), 선택집중형(공연 이외), 지역특화형, 소액다건형의 4가지 방향으로 구조화하여 추진한 점은 바람직함
- 지역문화협력관의 지역 상주와 운영 강화는 바람직함

[부정적 측면]

-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함
- 작년과 다른 차이점 위주로 실제 성과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함

③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과정의 기관장 역할 강화

[긍정적 측면]

-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을 추진한 것은 매우 바람직 함
- 기관 7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중점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함
- 예술나무 운용 등 대외적 홍보 활동을 시행함
- 민예총 등 문화예술관련 단체장들과 공동선언에 기여하고 메세나 협회 활동을 시행함

[부정적 측면]

-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함

④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위한 기관장 및 경영진의 역할 확대

[긍정적 측면]

- 비전 committee 운영 및 미래전략포럼준비 소위원회가 운영한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함
- 내부 이해관계자를 최고의결기구인 위원회 의원, 간부진, 일반직원, 노동조합 및 전사차원으로 구분하여 소통방법과 소통내용을 대상별 맞춤형으로 추진하여 소통을 통한 가치공유를 활성화 함
- 기능별 소위원회 운영과 비상임위원의 역할을 강화함

[부정적 측면]

- 소통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음

⑤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긍정적 측면]

- 전사 리스크를 경영, 사업, 기금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로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간소화 함
- 각 부서별 과장급 이상 1명씩 총 9명의 자율 감사인을 위촉하여 예방적 내부통제 활동(Check List를 통한 주기적 점검)을 수행케 함으로써 부서 내의 리스크 발생 요인을 1차적으로 차단함

[부정적 측면]

-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리스크 관리위원회와 자율감시인 제도의 실제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기금분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함

⑥ 교육훈련체계 전문성

[긍정적 측면]

- 직무선택교육을 도입하여 자기경력개발계획에 따른 교육선택 수강하게 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임
- 시간이수제에서 과정이수제로 변경하여 교육을 효율성을 높임

[부정적 측면]

-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전문지식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⑦ ERP 시스템 고도화

[긍정적 측면]

- BSC/MBO 등 ARCO형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관리제도 운영 효율성 극대화와 업적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전략실행력을 확보함

[부정적 측면]

- 시스템 고도화가 요구됨

⑧ 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긍정적 측면]

- 사업 5대 전략목표, 11대 전략과제의 조직 단위별 Cascading을 통해 명확한 수행주체를 설정하여 전략 실행의 구체성을 강화함

[부정적 측면]

- 핵심사업별 구체적 목표 및 근거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 계획에는 있으나 현재 남북한 문화 이질화를 막기 위한 실행사업은 부재함

⑨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예산계획 수립

[긍정적 측면]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구인 위원회 위원 5명과 사무처 예산 주무부서 부서장을 간사로 기금운용편성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예산 수립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킴

[부정적 측면]

- 세부사업별 자원배분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요구됨
- 예산항목별 우선순위 작업 등 구체적인 변화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⑩ 재무·예산계획의 전략연계성 강화

[긍정적 측면]

- 사업역량(내부지표), 사업효과성(외부지표)에 따른 '사업확대', '잠재사업', '역량전환', '사업검토'로 구분하여 '사업확대'군으로 도출된 사업 중심으로 재원배분 우선 순위화 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함
- 성과주의예산제도에 입각한 각종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전략방향과 연계성을 강화시킴

[부정적 측면]

- 세부사업별 재무 예산 계획이 전략목표와 연계되지 못함
- 논리적 배분기준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⑪ 재원확충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긍정적 측면]

- 예술나무추진계획 등 대국민캠페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나무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 시켰음

[부정적 측면]

- 재원확충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⑫ 자원배분과 성과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긍정적 측면]

- 기관의 지속성장 및 발전을 위한 HR이슈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및 인적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년 조직개편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과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함

[부정적 측면]

- 비전전략 및 중장기 사업에 따른 인력/조직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과 연계한 인력의 성과평가가 필요함

⑬ 성과창출형 계량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핵심성과지표 220개 선정은 바람직함
- 성과용인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바람직 함

[부정적 측면]

- CSF와 사업층위별 대표적 결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⑭ 파급효과(Outcome)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기관 비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반영한 주요 사업별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여 전략과 지표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바람직 함

[부정적 측면]

- 주요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⑮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긍정적 측면]

- 컨트롤 타워 부서 신설을 통해 기금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 고도화, 효율적인 기금사업 성과평가 관리체계 구축,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함
- 기금사업 층위별(전략층위, 사업층위, 활동층위) 평가체계·운영을 통한 단계별 성과 측정 ·모니터링을 전개하였으며, 기관경영· 사업평가· 분석 및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 선순환 체계를 강화한 노력은 바람직함

[부정적 측면]

- 내부적 모니터링은 세부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직원 성과와 교육훈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비전 및 전략 개발

○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판단기준 마련

-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의 기준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원을 배분해야 함. 아르코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또한 국고지원을 받아서 집행되는 영역이 존재함. 그 자원들은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프로그램들에 사용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동시에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선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기관 특성 파악을 통한 전략개발

- 전략을 개발할 때 주로 기관의 최고경영층, 구성원,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영전략을 개발함. 그것은 기관의 특성이라고 하기 어렵고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의지라고 판단됨. 최고경영자, 구성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교체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관의 특성이 무엇인지, 존재의 근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특성 위에 전략적 개발을 계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화려한 전략개발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AVS 3.0 개발 근거 마련

- 작년도 AVS 2.0의 결과를 밝히고, 2.0과 3.0의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충하여 3.0의 개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추진계획

○ 미래 사업의 청사진 마련

- 환경 분석과 역량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핍되고 위축된 결과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중장기 추진방향에 맞추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임. 예를 들면 공연단체 재정자립도 비율과 월평균 수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예술인력 육성지원 등과 같이 포괄적인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다고 이해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배분계획 마련

- 중장기 3개년 혹은 5개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배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 사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어, 인적자원의 노하우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성과가 더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됨

○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의 성과지표 근거 마련

-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는 작품을 통한 파급효과 등도 정량적인 지표(유료관객 비율, 관객 수 등)와 함께 성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어떤 작품의 파급효과를 작품이 초연된 후부터 언제까지로 인정해야 할지, 작품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지표를 삼아서 평가를 해야되는지 위원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지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비전 및 전략 개발	a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판단기준 마련		●	3
	b	**기관 특성 파악을 통한 전략개발**	●	●	1
	c	AVS 3.0 개발 근거 마련		●	6
주요사업 추진계획	d	미래사업의 청사진 마련	●	●	3
	e	중장기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배분계획 마련		●	3
	f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의 성과지표 근거마련**		●	1

2. 사업평가 부문

■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 2분과 [문화예술공간운영]

■ 3분과 [생활속의예술활성화]

■ 4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 5분과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1분과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101] 문학창작지원

[102]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103] 공연창작지원

[104] 창작매체・소통지원

[105]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106] 예술행사지원

[107]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AYAF)지원

[108]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09]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10]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1분과 단위사업 최종보고서

100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창작활동 촉진과 발표공간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차세대예술인력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예술교류지원을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규모 : 200억원

-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 140억원
-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 10억원
- 국제예술교류지원 : 50억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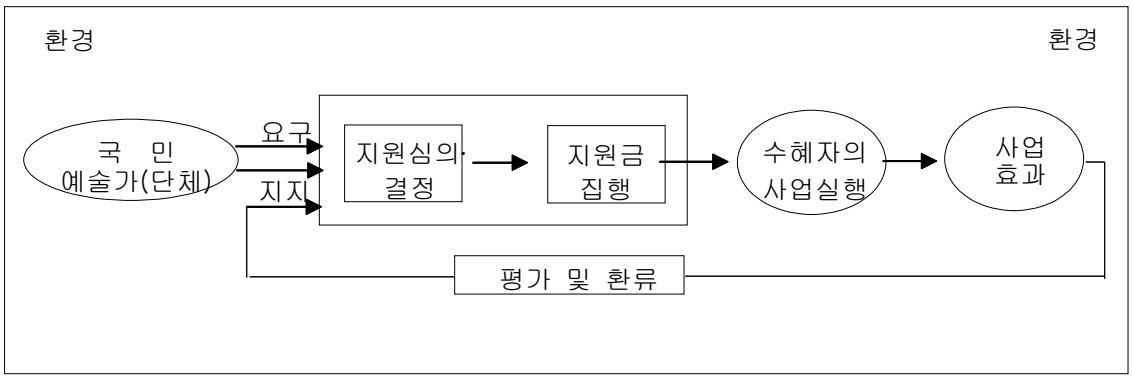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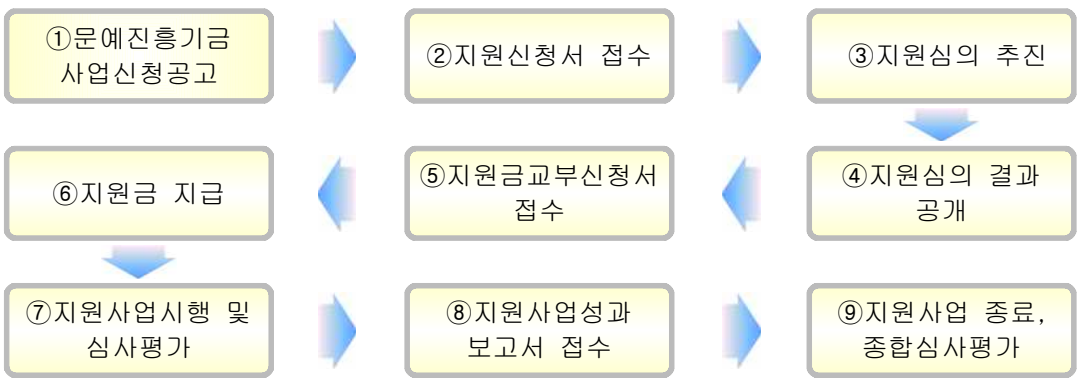
구 분	'10 예산	'11 예산(A)	'12 예산(B)	증감(B-A)	%
□ 사업명					
■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242	150	140	△10	△6.7
■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12	11	10	△1	△9.1
■ 국제예술교류지원	64	55	50	△5	△9.1

계	317	216	200	△16	△7.4
□ 세출예산비목					
○ 인건비(110)	1	1	1	-	-
○ 운영비(210)	6	17	21	4	23.5
○ 여비(220)	2	2	2	-	-
○ 업무추진비(240)	1	1	1	-	-
○ 보전금(310)	-	-	8	8	순증
○ 민간이전(320)	223	195	167	△28	△14.4
○ 자치단체이전(330)	15	-	-	-	-
○ 건설비(420)	8	-	-	-	-
○ 기타유형자산(430)	1	-	-	-	-
○ 무형자산(440)	60	-	-	-	-
계	317	216	200	△16	△7.4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추진체계도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한다

○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출처)
지원 대상 만족도(점)	목표	77.3	77.7	80.6	85.0	85.0	○ 경영평가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 고객만족 개선도 100점 수준의 목표치 설정	○ 지원예술인 만족도 조사(기재부 PCSI 조사 결과) ○ 경영실적평가 고객 만족 개선도 산식 적용
	실적	76.8	76.5	76.7	79.1	85.6		
	달성도	98.4	98.4	95.2	93.0	100.7		
평균창작 작품수 (건)	목표		신규	40.7	41.9	43.1	○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목표인 기준치의 13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지원사업 전체 창작작품 수 ÷ 지원사업 건수(ERP 성과보고서 집계) ○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편차 산식 적용
	실적	22.3	39.5	44.1	59.6	49.1		
	달성도			108.4	142.2	113.9		
평균 관람객 수 (명)	목표	-	신규	21,550	22,000	22,880	○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목표인 기준치의 130% 달성이 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 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환산평점 : 100.0점	○ 지원사업 전체 관람객수÷지원사업 건수(ERP 성과보고서집계) ○ 경영실적평가 목표 부여산식 적용
	실적	15,398	21,106	23,532	26,274	28,724		
	달성도			109.2	119.4	1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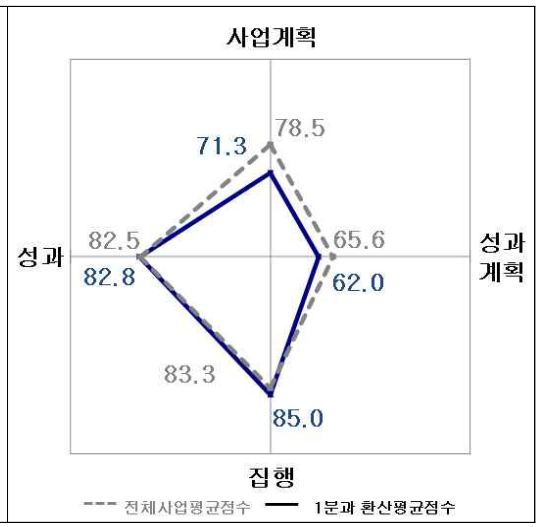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1분과 단위사업)」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1.3점, ‘성과계획’ 62.0점, ‘집행’ 85.0점, ‘성과’ 82.8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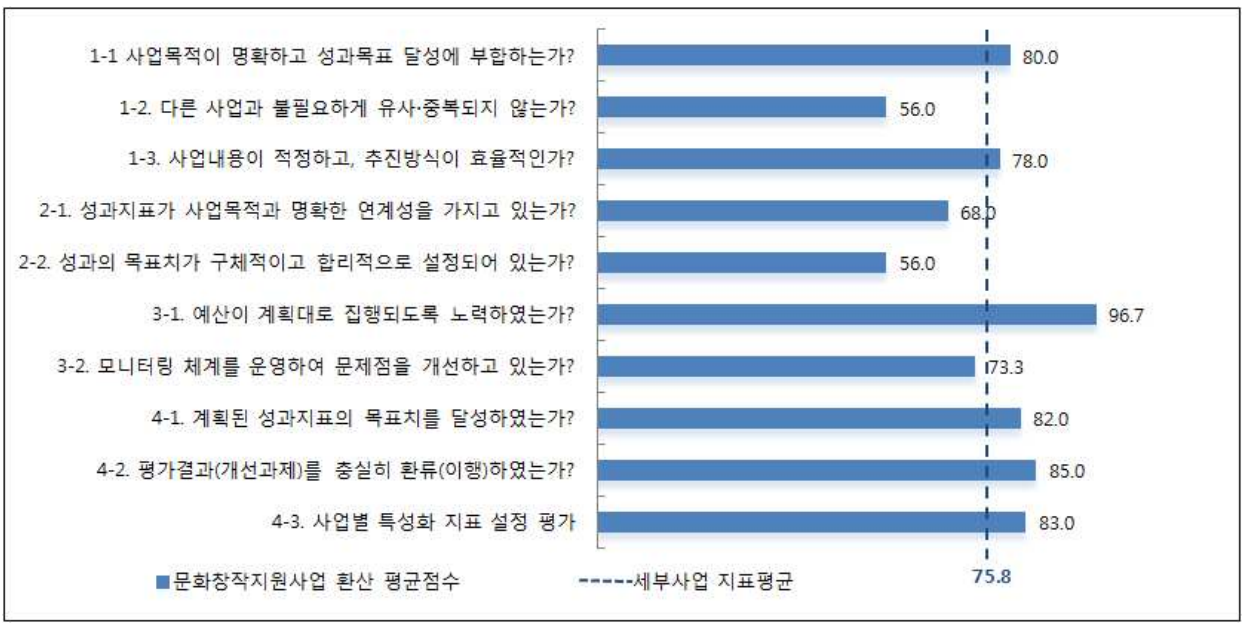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 평균점수 대비 집행(+1.7), 성과(+0.3)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계획(-7.2), 성과계획(-3.6)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4.0	80.0	71.3
	1-2(5점)	2.8	56.0	
	1-3(5점)	3.9	78.0	
성과계획	2-1(5점)	3.4	68.0	62.0
	2-2(5점)	2.8	56.0	
집행	3-1(15점)	14.5	96.7	85.0
	3-2(15점)	11.0	73.3	
성과	4-1(25점)	20.5	82.0	82.8
	4-2(10점)	8.5	85.0	
	4-3(10점)	8.3	83.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단위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1분과 단위사업)」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5.8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이며 96.7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와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56.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비전 2015'에서 제시한 중장기 목표인 '창작활동 10%성장' 과 전략목표인 '예술창작역량 강화' 및 14대 전략과제를 통해 체계적인 창작지원 정책체계를 갖춰 사업목적에 적합한 당위성 확보에 긍정적 노력이 있었으며, 각 분야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도 매해 성장 추이를 보이는 등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 프로세스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영아트프론티어사업은 신진 예술가 지원육성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합목적성면에서도 최적의 지원 사업으로 성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제반 성과지표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의 표준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진의 각고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인 사업이라 평가함. 반면, 문화예술 지원 사업 운영 시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사, 중복지원 및 특정장르 편중지원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성과계획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성과목표는 보다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개발에서 사업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표를 발굴하여 현재와 같이 세부사업 전반의 성과지표가 유사해지는 경향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성과 목표치 설정도 마찬가지로 타 조사에서 준용되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사업이 전년실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성과지표의 합리적 설정과 제시한 목표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 및 집행, 성과에 이르는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하여 계획-실행-성과의 상호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모니터링의 경우, 지원 사업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활동방식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마다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사업의 목적에 조응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특성화지표를 통해 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한 객관화된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점이나,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와 환류 시스템 개선 등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행 노력으로 평가됨

[국제교류]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 중 국제교류 사업은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이상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국제교류 사업은 우리 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분명한 사업목적을 수립하고 있음

○ 사업의 성격에 있어서 여타 기관과 일정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국제교류 분야는 국가중앙예술지원기구로서의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이며, 예술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는 여타 기관과 차별화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이 유사성 및 중복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사업의 당위성에 안착하기 보다는 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라는 예술위원회원회 본연의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실천해야 할 것임

○ 제시된 성과목표치는 지난 수년간의 추세치를 반영하고 경영실적 평가 체계상의 S등급 달성과 연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며, 성과지표의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의와 산식을 명확하게 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함

○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성과를 차기 사업에 환류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전문가에 의한 해외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질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재원집행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 공연, 실험적 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및 신진예술인력 지원, 창작 매개·소통활동 지원 사업 등은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명확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각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장르별, 이슈별 예술현장에서 처해있는 상황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사업목적과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들과의 논리적, 당위적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함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들을 아르코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15'와 연계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사업의 체계적 기획 및 추진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국가차원의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거나, 실험적 예술이나 신진예술인력, 창작매개활동 지원과 같이 특화된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체계에서 소외,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다만, 사업목적이나 재정지원 필요성은 분명한데 비해, 사업목적을 구체화시킬 성과목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핵심 초점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개선제안]

- 예를 들어, 문학창작지원 사업에서 일반국민의 향유지원까지 포괄하려고 한다든지,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사업에서 실험성과 다양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점, 창작매개 및 소통지원 사업에서 세부 사업들의 창작매개 역할을 성과목표 등에 구체적으로 변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평가됨
- 각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와 보다 유기적인 연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지자체 차원의 예술창작지원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예술위원회가 수행하는 창작역량강화 사업은 불가피하게 유사,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자의 명단을 상호 공유한다거나, 창작초연 공연작품을 중심으로 주로 지원하는 원칙을 수립한 점, 지원방식을 사전지원, 직접지원에서 사후지원, 간접지원으로 변경하여 추진방식의 차별성을 도모한 점 등은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함
- 특히, 영아트프론티어 사업처럼 단발성이 아닌 다년간 지원, 자가 설계형, 예술적 협업체계 장려 등의 차별성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울이고 차별성을 도모한 점 등은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지자체 및 타 공공기관 사업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시급히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개선제안]

- 예를 들어, 문학창작지원에서 개인 창작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등과 명단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것 자체가 사업간 성격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또한 문학집배원과 같은 향유지원 사업이나 조사연구지원, 실험적 예술 지원과 같은 사업들은 지자체 및 타 기관들과의 유사, 중복적 성격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성으로 빈번히 제시되고 있는 '우수한' 작품에 대한 강조나 '전국적' 규모에 대한 강조는 지원 사업 성격자체의 차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격의 유사성 기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사업성격이나 지원 대상을 차별화 하는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지원 사업 성격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부 중복지원의 사례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도 본래의 지원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는 사업성격 자체를 차별화하고 이차적으로는 중복지원 허용과 불가의 기준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차별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사업들, 예를 들어 문학창작지원, 실험적예술지원, 공연창작지원, 창작매개지원, 예술전용공간활성화 지원, 예술행사지원, 영아트프론티어 지원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들로 평가됨
- 각 사업의 경우 최소 자부담 비율을 제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실사 등을 포함하는 2~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며, 사전지원 방식을 사후지원방식으로 이전하여 선정 작품의 우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제반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세부사업 아래에 위치한 세세부 사업의 경우,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라고 하는 본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존재하며, 신중한 수혜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도포기 사례들이 나타나 재정의 계획적 집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
- 또한 사후지원의 경우 지원시점과 성과평가 대상시점의 차이,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통제의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각 세부사업별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제시되어 있고, 성과지표의 정의, 측정산식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다만,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사업 및 장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만족도, 평균 창작 작품 수 등과 같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성과지표에 다양하게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실험적 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실험적 예술임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지원 선정된 사업들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표 측정은 사업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반감되는 영향을 미침

- 또한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의 경우, 장르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공간 가동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과평가 기준의 모순이 도출될 우려가 있고, 예술행사 지원 사업의 경우, 각기 다른 성격의 시각예술분야 및 공연예술분야 창작실적을 혼합 평가함으로써 제출실적에 대한 산출정보의 왜곡현상이 우려되어 보다 적절한 관리지침이 요구됨

[개선제안]

- 성과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해당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만큼, 지표의 설정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참여자 수와 같은 수동적 지표뿐만 아니라 지원을 통하여 해당 영역의 발전이 유도되는 측면과 관련한 적극적 성격의 지표개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 등과 같이 장르의 특성과 기능적 차이가 반영된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산식 보완과 더불어, 수혜대상 기관에서 통보된 실적의 과다산정 방지책 등과 같은 부분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대부분 만족도관련 지표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수행하는 목표치 설정 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창작 작품 수나 참여자수의 경우 최근 3개년 내외 실적 기준치에 110~130%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음
- 이러한 목표치 설정은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계획에 의거 사전에 설정되었으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도전목표를 설정하고자 관련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외부평가기준의 일괄 적용으로 해당 연도 성과 목표치가 직전년도보다 하향 설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설명이 특정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그만큼 중요한 분석적 노력 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 목표치는 각 사업의 전년도 성과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내부역량, 외부환경 등에 대한 평가에 기반 하여 설정될 때 내용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목표치 설정과정이 해당 사업영역에 대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목표치 설정은 외부기준의 일괄적 적용이 아니라 이를 감안한 내부적 성찰과 분석의 결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100% 집행률을 보였으며 분기 집행계획에 의거 큰 차질 없이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2012년도 문화예술기금운용계획서' 수립과 같이 예산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점, 한국창작음악제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지원영역 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점,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한 점 등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기관차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선정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당초 집행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4/4분기에 예산이 집중 집행된 사례 등이 발생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취하는 부분과 사업포기여부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책임심의위원과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별 현장평가, 분야별 전문가 초청 의견수렴, 이용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과 심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류 기능 또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인지된 문제점들을 환류과정을 통하여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모니터링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지원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활동이외에 지원사업의 운영을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속에서 검토하는, 산출의질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를 들어, 실험적 예술지원이나 예술전용공간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이 실제 예술의 실험성 증진이나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모니터링이 향후 지원단체선정의 중요 자료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중간에라도 지원기관이나 수혜단체 모두에게 피드백 되어서 사업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대다수 사업은 당초 계획된 성과 목표치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높은 달성률은 다양한 내·외부 평가를 전담하기 위해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계획된 목표치들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후속 연계사업지원,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다만, 성과목표치 달성이 사업목적이나 성과목표의 명확화, 성과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어 성과목표치 달성의 의미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성과목표치 달성이 사업목적의 성공적 구현을 의미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다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에서 지적된 전년도 평가결과의 개선은 각 지적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예술창작지원 사업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격을 특성화하고자 창작초연공연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창작된 결과물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지원금을 사후지원방식으로 제공한다든지, 예술전용공간활성화를 지원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 지원 사업들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기울였음. 또한 사업신청건수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졌음. 특히 지원 사업 선정 시 특정 장르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장르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부각됨. 예술지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정보화하는 상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음. 또한 지원 대상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컨설팅 개최 시 현장 중심형 순회 설명회를 실시(8회), 보조금정산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전담 인력을 활용한 면대면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문예창작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80.3점에서 88.2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다만, 전년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에 있어 각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차별화된 지표개발을 통하여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다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질적 성과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활동 결과가 지원대상선정시 뿐만 아니라 사업 중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수요예측은 목표치 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현재 목표치 설정은 사업성격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산출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사업영역에 대한 수요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따라서 전년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기반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에 보다 심층적인 노력이 필요함

[개선제안]

- 향후 개발된 특성화지표 가운데 일부는 기본 성과지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특성화 지표로 개발된 평균 일자리 수나 참여예술인 수는 질적 성과라기보다는 양적성과로써 효과성과 효율성 등의 내실보다는 실적 위주의 외형적 요소에 치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질적 차원의 성과 측정에 민감한 지표가 추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긍정적 측면]

- 사업별 특성화 지표는 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적 지표의 관리와 연계하여 개발되었음. 사업별 특성화지표로 발굴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기존 성과지표에서 부족한 질적 성과들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일부 지표들의 경우 질적 측면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측면들이 나타남. 예를 들어, 특성화지표로 개발된 일자리 창출지표는 질적 지표로 보기 어려우며, 지표 산식도 3개월 이상 근무자로 되어 있어 공연예술분야의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무가 되어야 실질적인 창작 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개선제안]

- 또한 특성화지표로 개발된 일부 지표들은 특성화 지표가 아닌 기존 성과지표 체계 안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특성화지표가 사업의 양적, 질적 성과들을 측정하는 지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각 사업영역의 발전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 지표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5. 개선과제

□ 계획

○ 사업목적을 반영하는 성과목표 설정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각 사업영역의 성과목표가 대부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사업목적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성과목표는 해당 사업이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함과 동시에 각 사업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성과목표의 모호성을 사업목적과 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목적을 포괄하는 성과지표개발

- 기존에 개발된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로써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만족도나 평균창작작품 수 등 유사한 지표들로 개발되어 각 사업영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또한 개발된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 내 세세부 사업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세세부 사업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라고 하는 전체 사업목적과 해당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합리적 근거 제고

-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목표치 설정 시 전년실적에 대한 질적 분석 없이 최근 3개년 평균치 대비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경영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족개선도 관련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가대상년도 목표치가 직전년도 목표치에 비해 하향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음.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직전년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 당해 연도 해당사업관련 내·외부 여건 평가 등에 기반 하여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창작매체/소통지원 사업의 성격 및 측정기준 명확화

- 창작매체, 소통지원 사업의 경우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간접적인 환경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가의집 운영이나 조사연구지원 등 사업 성격 및 내용이 다른 사업들과 달라 다른 사업과 동일한 평가 기준들에 의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

- 또한 세부 사업에서 개발된 지표의 경우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절히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본 사업영역(예술가 창조역량 강화)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까지 제기됨
- 따라서 해당 사업(창작매체/소통지원)이 본 사업(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과의 연계성이 성과목표나 지표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과 다른 이 사업에 적합한 평가 기준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례별 중복지원에 대한 허용(체계적인 기준 재설정)

- 2년간 '공간운영에 사용 경비'로 장기 지원받는 본 사업 수혜단체가 타 지원기관에는 개별적인 단일작품으로 추가 지원받는 사례 등 다양한 중복 지원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중복지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일괄 불가 하는 것도 본래의 지원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허용과 불가의 기준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지표 평가기준 명확화

- 공간 가동률 기준의 차별화 적용(문학창작공간과 공연장 가동률 상이)과 평균 관람객 기준의 모호함, 공연행사와 전시행사 등 서로 다른 성격의 행사가 같은 기준으로 측정, 평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실적취합 기준이나 성과평가 기준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실적취합 및 성과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수혜대상 기관에서 통보된 실적이 과다산정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 강구 등 합리적 지표 개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프로그래밍

-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을 개별 사업에 반영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여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

○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파견 예술가의 해외 체류기간 중의 예술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함
- 특히 해외에서의 활동이 예술가의 질적 수준의 제고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측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비율적 성과목표로의 전환 검토

- 최종 목표가 한정된 사업의 경우 추세치를 통한 빈도 중심이 아닌 성과 달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비율적 성과목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함
- 교류협력 국가수와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가 증가할수록 협력사업 추진 건수도 그에 상당하게 증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구조를 비율구조〔협력사업 추진 건수 / (교류협력국가 수 + 교류협력국제기구 수)〕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 타 평가 체계상의 성과목표 설정치가 아닌 사업부서 내부에서 계획된 사업운영을 중심으로 한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2010년도에서 2011년도의 성과 달성 성장 수준 보다는 하향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함. 단지 경영실적 평가 체계상의 S등급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일 뿐 의욕적 목표치로 보기 어려움

□ 집행

○ 분기별 예산 집행률 제고

- 대다수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해당 기간 내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분기별 집행실적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나타남. 사업 환경에 따라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는 있으나 4/4분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사례 등은 개선의 여지가 큼
-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분기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만큼, 전체 예산 집행률과 함께 분기별 예산 집행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업포기 사례 조기발견 및 대처

- 일부 사업의 경우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발생하여 예산집행이나 사업의 계획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니터링 활동에서 이러한 사업포기 사례를 적극 찾아내고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술위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모니터링 사업 외에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모니터링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활동 확대

- 모니터링의 경우, 일부 사업에서 사업성격의 차이를 근거로 해당 세세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모니터링은 한편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해당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세세부 사업 전반에 대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이런 맥락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용함. 또한 지원당자사 이외에도 불특정 수혜대상자들이 참여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예술가(예술단체)의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창작역량이 제고되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식화함으로써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전문가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도 지원 포기자에 대한 제재

- 중도에 지원을 포기한 예술 단체(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중도 지원 포기로 인하여 다른 지원 대상자들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재원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 재원집행률이 93%에 그쳐 4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분기별 집행 현황도 모두 100% 달성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3/4분기에 87%로 매우 낮게 집행됨
- 재원집행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

○ 성과제시 기준 재조정

- 현재 성과측정 방식은 기존에 설정된 성과지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평가. 이러한 평가방식이 타당하려면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내용을

포괄하고, 지표 내용이 성과의 양적, 질적 측면을 제시할 있도록 개발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성과측정은 단순히 성과목표치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제시, 설명되고 있어 지표의 성격이나 내용, 성과의 질적 측면이나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발되어있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성과부분에 대한 설명은 개별 성과목표치 달성여부와 함께 각 사업이 전체 사업(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 성과 지표에 대한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 활동의 구체화가 필요함
- 목표치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달성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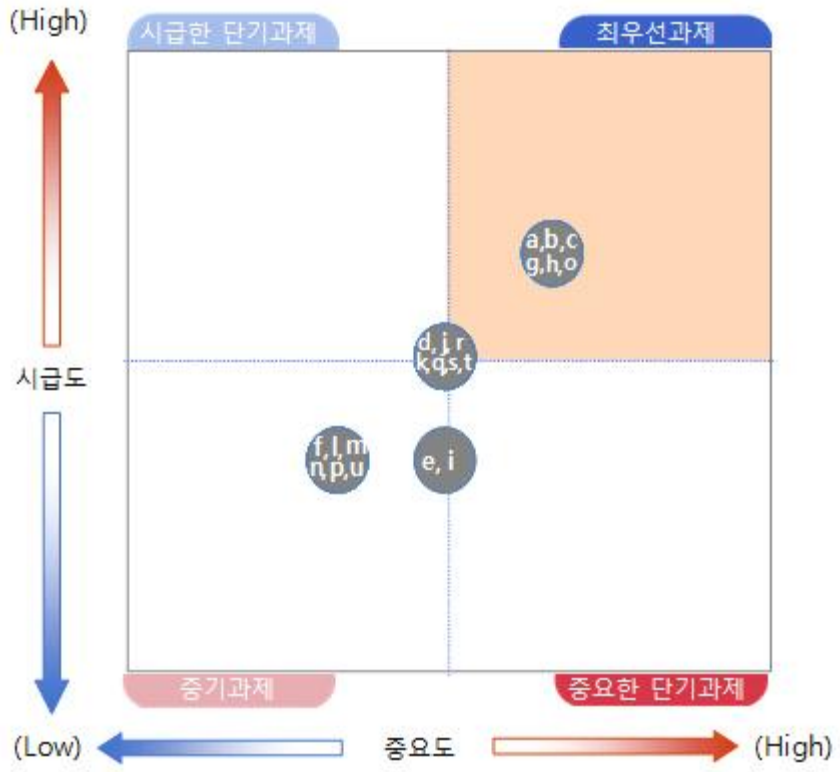
○ 성과지표 산식의 명확화

- 성과지표에 있어서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의 경우 파생의 범위(시간 개념 포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정의하여야 하며, 특성화지표의 경우에도 2개 지표 모두 목표치와 달성치가 100% 일치하여 산식의 신뢰도를 저하시킴
- 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지원대상만족도가 특성화지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 본 사업이 시행주체가 주로 예술위원회인 직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만족도가 성과지표의 특성화지표로 활용되기에는 조사 설계와 다소 괴리가 있음
-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필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예술위원회가 시행주체이며 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사업목적을 반영하는 성과목표 설정**	●	●	1
계획	b	**사업목적을 포괄하는 성과지표개발**	●	●	1
계획	c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시 합리적 근거 제고**	●	●	1
계획	d	창작매체/소통지원 사업의 성격 및 측정기준 명확화	●	●	7
계획	e	다양한 사례별 중복지원에 대한 허용 (체계적인 기준 재설정)	●	●	13
계획	f	평가 지표 평가기준 명확화	●	●	15
계획	g	**전략체계 검토 및 성과목표 재수립**	●	●	1
계획	h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프로그래밍**	●	●	1
계획	i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13
계획	j	비율적 성과목표로의 전환 검토		●	15
계획	k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	●	7
집행	l	분기별 예산 집행률 제고		●	15
집행	m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업포기 사례 조기발견 및 대처	●	●	15
집행	n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활동 확대	●	●	7
집행	o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식화)**	●	●	1
집행	p	중도 지원 포기자에 대한 제재		●	15
집행	q	재원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	●	7
성과	r	성과제시 기준 재조정		●	7
성과	s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	7
성과	t	성과지표 산식의 명확화		●	7
성과	u	지원대상만족도가 특성화지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	15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1 문학창작지원

101 문학창작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 여건 조성과 대국민 문학 향수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2350백만원

○ 지원대상 : 문학 분야 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사이버문학광장 이용 국민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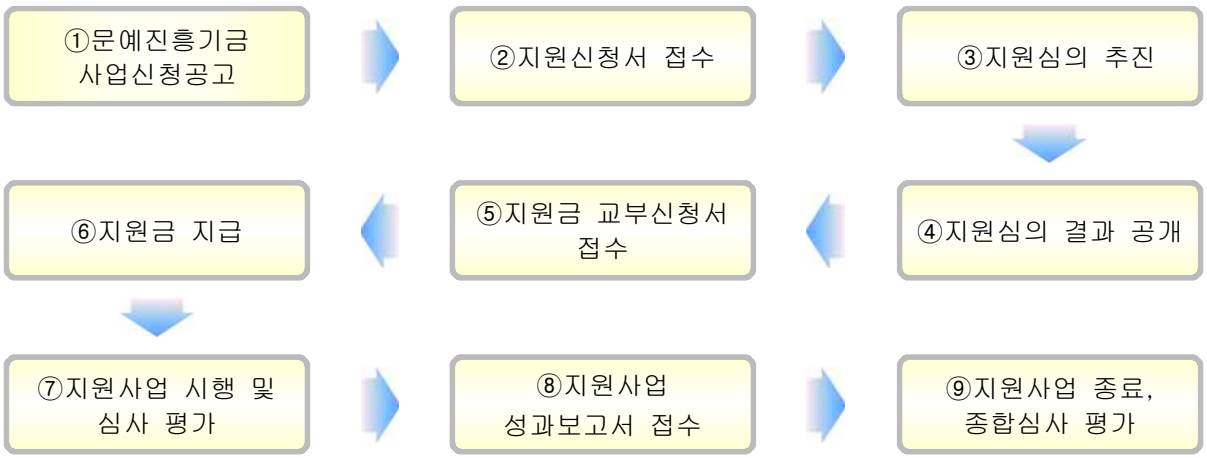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문학창작지원	2300	2350	2200	△150	93.6
■ 문학창작지원	900	800	800	-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700	700	700	-	
■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200	200	200	-	
■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500	650	50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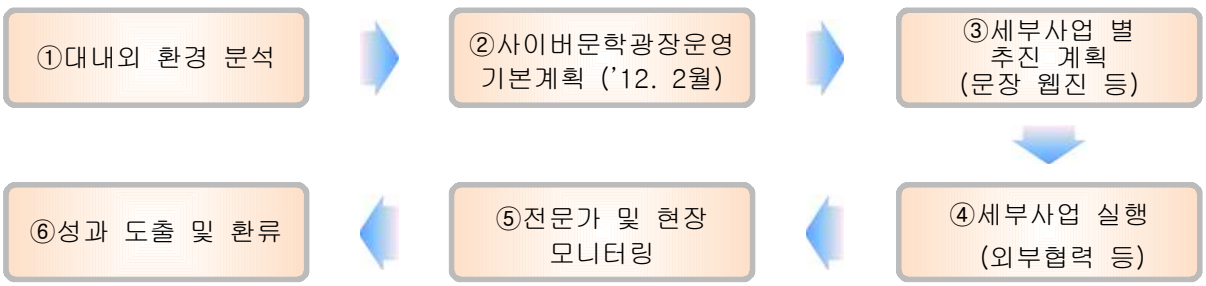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추진체계도

- 문학창작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대상만족도 (점)	목표				87.1	86.0	ㅇ 경영평가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ㅇ 고객만족 개선도 100점 수준의 목표치 설정	ㅇ 측정방법 :기획재정부 PCSI조사 ㅇ 측정산식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ㅇ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PCSI 조사 결과
	실적		76.5	82.0	84.4	88.2		
	달성도 (%)		-	-	96.9	102.6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수 (명)	목표				57,280	62,758	ㅇ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ㅇ 전용홈페이지 내 회원가입자수 집계 (www.munjang.or.kr) ㅇ 전년도 실적 대비 110%
	실적	36,270	44,389	49,566	57,052	64,607		
	달성도 (%)	-	-	-	99.6	102.9		
평균창작작품수 (건)	목표	-	-	-	205.4	283.88	ㅇ 과거 4개년('08~'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 적용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 (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목표치 환산평점 : 100점	ㅇ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지원사업 전체 창작작품수 ÷ 지원사업 건수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편차 산식 적용
	실적	204.95	190.85	199.59	257.73	305.48		
	달성도 (%)	-	-	-	134.2	107.6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경영실적평가 (2010)	■ 문학창작지원사업의 창작품에 대한 모니터링체계와 심사기준에 대한 지표의 구체화필요 - 특히 현재 심사기준으로 제시하는 4개의기준과 가중치는 객관적 평가에 부적절	■ 문학창작지원 심사기준 구체화 - “잠재력 있는 문인의 발굴육성”으로 사업운영의 방향성 명확하게 설정 - 작품원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심사 보완
	■ 문학창작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체계적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	■ 지원 연도(창작활동)와 성과 구현(작품집에 대한 평가) 간 시차를 반영하여 일정기간(3년) 추세치로 성과 파악
감사원 감사 (2010)	■ 문예진흥기금 1천만원 이하 지원사업과 문학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 집행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토록 규정한 「정산관리 변경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조사업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는 방안 강구	■ 문학창작기금 예산과목 변경으로 지원금 정산 면제 추진 및 시행 완료
문화부 평가 (2011)	■ 창작된 예술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특성화지표로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 개발 및 관리
	■ 지원대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산증빙 컨설팅 서비스 실시	■ 보조금 정산 컨설팅 전담 인력 활용 및 단체별·단계별 개별 컨설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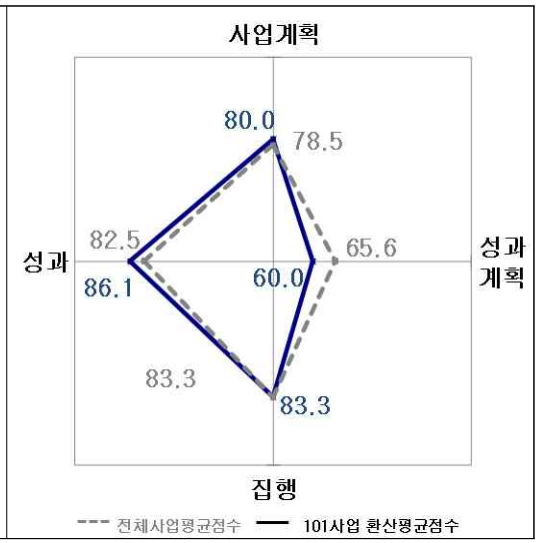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문학창작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0.0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3.3점, ‘성과’ 86.1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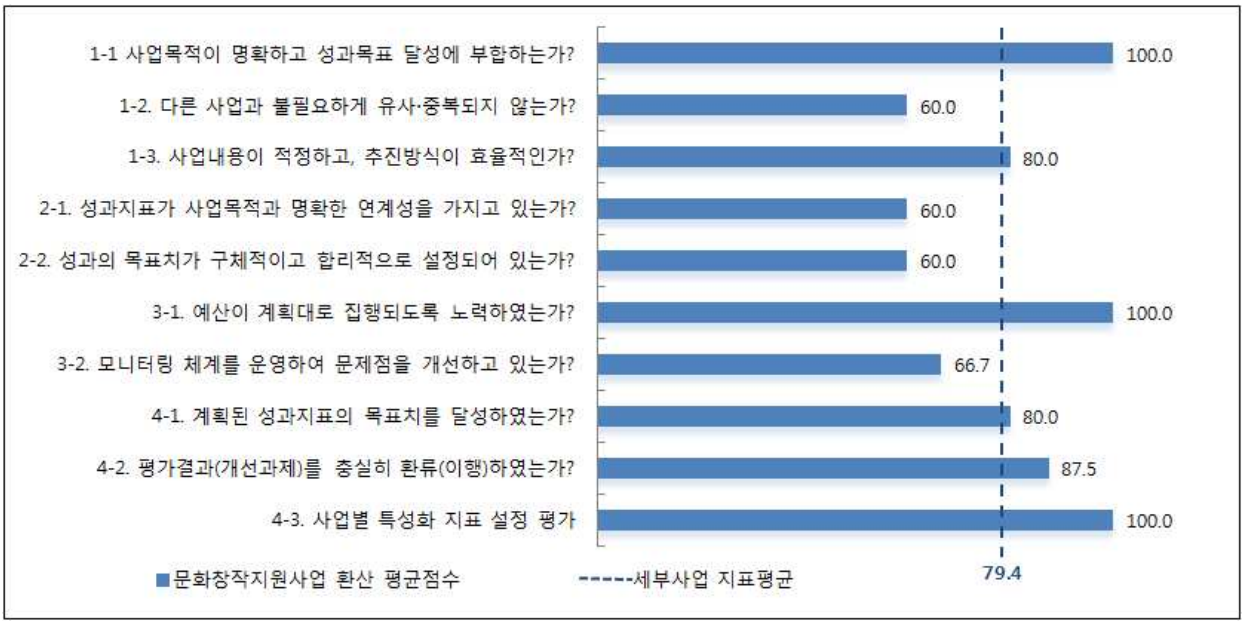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5), 성과(+3.6)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0.0)영역은 일치되었고, 성과계획(-5.6)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80.0
	1-2(5점)	3.0	6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86.1
	4-2(10점)	8.8	87.5	
	4-3(10점)	10.0	10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문학창작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9.4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성과’ 항목 중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문학창작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서 창작과 향유지원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에 있어서도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넓은 의미에서 일반 국민의 문학향유활동 확대가 창작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창작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향유활동은 창작의 부수적 결과물로 위치지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창작과 향유 두 측면 모두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이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창작지원으로 초점을 맞춰 제시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창작지원의 경우, 지역문화재단 등과 선정자 명단을 공유함으로써 중복지원의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근본적으로 지역의 창작지원사업들과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지원의 초점을 바꾸거나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100% 집행실적을 나타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분기별 집행실적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4/4분기에 집중 지원됨으로써 계획에 따른 분기별 예산집행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모니터링 활동은 주로 사이버문학광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이나 작고문인선집발간사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표에 기반한 사업성과는 목표치가 100%이상 달성됨으로써 당초 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분석적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지표 자체도 문학영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지표가 미흡하여 향후 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에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독서인구의 정체, 출판시장의 불황 등 여러 측면에서 문학창작과 관련된 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문학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실제 문화부가 실시한 2009년 조사 자료들에는 문학 분야 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 150만 원 이하 비율이 응답자의 4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환경에서 문학창작여건 조성을 위해 개인 창작지원, 문예지 발간 지원, 작고문인선집 발간 지원,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학인 및 문학창작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예술창작역량 강화' 라고 하는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예를 들어, 작고문인선집 발간 지원의 경우 전문가 조사 결과 99.5%의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 필요성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음
- 사이버문학광장을 통해 온라인창작 공모를 실시하는 것도 예비 작가 육성을 위해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사업목적이 창작역량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과 대국민 문학향수기반마련으로 나뉘어져 창작 지원 사업으로써의 초점이 다소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개선제안]

- 문학향유는 창작지원에 대한 부가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업에서는 사이버문학광장을 향유지원보다는 창작지원에 보다 초점을 둠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사업은 예술위원회이외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 이에 비해 작고문인선집 발간지원이나 사이버문학광장 등은 지역의 문학창작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가진 사업들로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들의 문학창작지원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지원대상선정 명단을 공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예술위원회 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지원자격에 거주지역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지원기간의 차이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업목적이나 사업수혜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각 지역의 문학창작지원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개인창작지원이나 문예지발간지원 사업 등은 지역의 지원 사업들과 중복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유사, 중복의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예술위원회에서는 문학창작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들에 대해 지역문화재단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개인창작지원은 현재의 문학인, 작고문인선집 발간 지원은 과거의 문학인, 사이버문학광장 운영을 통한 신진작가 발굴은 미래의 문학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세부 사업들은 문학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위해 적절한 사업들로 평가. 또한 문학인들의 등단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문예지발간 지원이나 축적된 자료의 DB화를 지원하는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등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들로 판단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사업들의 문학상 수상실적이 증가한 것은 본 사업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3차에 걸친 심사단계를 통해 우수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은 이러한 성과가 체계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사전지원에서 사후지원 곧 포상금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한 것은 지원방식의 변화를 통해 사업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며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됨
- 또한 국문학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 하여 작고문인을 선정, 선집발간을 지원한 것은 자칫 선정의 신뢰성에 대해 제기되기 쉬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포상금 성격의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기금 자체가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지원된 포상금 또한 창작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이버문학광장의 경우에도 신진인력의 발표기회 제공이나 관련 자료의 축적, 문학인의 창작물 소개 등은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나, '문학집배원'과 같이 이를 향유지원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창작지원사업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도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학창작지원사업에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문학창작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로 제시된 지원대상 만족도나 평균창작작품수 등은 문학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성과지표는 또한 지원사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다만,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자 수는 결과지표이기는 하지만 창작과 향유의 양 측면에 걸친 특성을 가짐으로써 '창작'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체 사업 중에 작고문인선집 발간지원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량적 근거 제시 미흡함

[개선제안]

- 따라서 사이버문학광장 및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관련 성과지표가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곧, 사이버문학광장이나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사업은 문학창작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이 강조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도 사업 결과가 나온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시작 전에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만족도의 경우 경영실적평가 PCSI 조사산식 '고객만족 개선도'를 적용해 100%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함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이처럼 목표치 설정에 있어 특정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지원대상 만족도의 경우 2012년 목표치(86.0점)가 2011년 목표치(87.1점)보다 오히려 낮게 제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방식은 목표치 설정에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다소 기계적 과정에 의한 목표치 산출이라고 볼 수 있음
- 평균창작작품건수도 전년대비 110% 상향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왜 이러한 상향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

[개선제안]

- 따라서 향후에는 목표치 설정이 보다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과정을 강화하고, 설정된 목표치에 대한 설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4개 세부사업 중 3개 세부 사업은 예산집행실적 100%를 달성하였으나 사이버문학광장은 98.3%의 실적을 나타냄
-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예산집행실적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은 당초 계약직 인건비 집행으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인력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사유가 타당함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실적이 90.5%(2010) → 98.9%(2011) → 99.5%(2012) 등 연차별로 향상되고 있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보여줌

[부정적 측면]

- 그러나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에는 4/4분기에 당초 계획(373백만 원)에 비해 지출(471백만 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분기별 예산계획은 적절히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개선제안]

- 향후에는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다른 사업에 비해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사업은 해당분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은 지원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과정 상에 부딪히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업운영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지원금 정산과정의 체계화, 사업개선 관련 워크숍이나 전문가 간담회 등은 사업의 진행 현장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활동과는 다르며, 이런 점에서 문학창작지원 사업의 모니터링 활동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개선제안]

- 따라서 문학창작지원사업은 향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의 경우, 문예지 발표작품의 질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사업에 대한 문학계의 평가는 어떠한지 등은 모두 모니터링의 내용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은 문학창작지원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들로 모니터링의 중요 대상이 됨. 따라서 문학창작지원사업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은 일반인, 전문가, 관계자 등 인적자원을 통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 자기기록형식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모니터링이 사업 마지막에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실시됨으로써 그 내용이 사업 운영과정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제시된 세 가지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지원 대상 만족도,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자 수, (우수문예지) 평균창작작품 수는 목표치 달성률이 각각 102.6%, 102.9%, 107.6%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다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달성률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하므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성적인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예를 들어, 지원 대상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가 전년대비 하향 제시됨으로써 이미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설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음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지원체계 및 지원대상 재정립(cotext 중심)

[긍정적 측면]

- 문학창작지원사업 중 다른 기관과 유사, 중복 성격을 가진 세부사업은 개인창작지원과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이며, 다른 사업은 중복적 성격이 약함
- 문학인 지원과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과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정대상에 대해 명단공유를 추진한 일은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문학창작지원이나 문예지 발간지원이 지역문화재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명단공유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자격에서 등단 10년 기준을 5년 기준으로 변경하여 서울문화재단 등 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대상과 더욱 겹치게 됨
- 근본적으로 유사, 중복적 성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 신청건수 감소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긍정적 측면]

- 온라인 아마추어 응모작품 수의 경우 2010년 대비 2011년 감소하였는데, 지역순회 컨설팅이나 홍보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2012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문학창작지원 또한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다만, 신청감소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예컨대,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의 경우 신청건수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88건으로 감소되어 내년 평가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개선 노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③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창작된 예술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성화 지표로 개발한 '주요문학상 수상실적'은 적절한 지표로 평가됨
- 또한 보조지표로 '우수문예지 수상실적'을 개발, 문학창작물의 질 관리와 우수문예지 지원사업을 연계시킨 것도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우수문예지발간지원이나 작고문인선집 발간 지원 등에도 질적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④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활동 강화(시대적 트렌드 반영)

[긍정적 측면]

- 온라인상 문학창작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문학광장 운영을 통해 신진, 아마추어 작가들의 창작발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또한 SNS나 모바일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양한 형태의 문학창작 지원활동으로 볼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다만, 시대적트랜드 반영이 정보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문학창작활동 및 문학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⑤ 평가결과를 정보화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구축

[긍정적 측면]

- 예술지원행정서비스 TF를 구성,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더불어 예술위원회 내부 시스템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한 것은 평가결과를 상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2013년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리뉴얼을 추진 중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평가결과가 지원심의 단계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평가결과가 DB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정보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연계되는 것임

⑥ 지원대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산 증빙 컨설팅 서비스 실시

[긍정적 측면]

- 정산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금 정산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면대면 컨설팅을 추진한 것은 지원 대상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됨
- 또한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서울 및 지방 6개 처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컨설팅 만족도에 대한 조사까지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정산의 어려움을 해소시킨 것은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주요 문학상 수상 실적

[긍정적 측면]

- 주요 문학상 수상실적은 지원된 작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써 적절하며, 이를 통해 지원된 사업의 정성적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이 지표의 성과목표치는 전년대비 2건 증가한 17건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원된 작품 중 21건이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여 제시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제안]

- 문학창작지원 사업의 초점이 문학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에 두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되는 문학작품 수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작품의 질에 대한 문제도 지원사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함

② 사이버문학광장 아마추어 응모작품 수

[긍정적 측면]

- 기본 성과지표로 제시된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 수'는 문학창작지원과 관련한 지표라기보다는 창작과 향유 양자를 아우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특성화 지표로 제시된 '사이버문학광장 아마추어 응모작품 수'는 사이버문학광장이 아마추어의 창작공간으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제시된 목표치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을 100% 이상 초과 달성하여 아마추어 창작공간으로 사이버문학광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이 나타남

[개선제안]

- 향후에는 '사이버문학광장 아마추어 응모작품 수'를 특성화 지표가 아닌 기본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창작’ 지원중심의 사업목적 명확화

- 본 사업은 문학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창작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창작자 개인에 대한 사후지원과 작품의 발표공간인 우수문예지 지원, 원로(작고) 작가들의 선집발간, 온라인 공간을 통한 아마추어 작가 발표기회 제공 등은 모두 창작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목적이 창작역량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과 대국민 문학향수기반마련으로 나뉘어져 창작지원사업으로써의 초점이 다소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문학향유는 창작지원에 대한 부가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통하여 창작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 구체적으로는 사이버문학광장 운영에서 ‘문학집배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창작지원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학창작지원사업에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문학창작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개인창작지원의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문학창작 지원 사업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술위원회에서는 지역 차원의 지원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지원대상선정 명단을 공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명단 공유는 이중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사업의 성격 자체가 차별성을 지닌 것은 아님
- 또한 지역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방문예진흥기금을 통하여 개인창작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사업의 차별적 특징을 강조하여 창작지원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차원의 우수문예지 지원이나 작고문인선집발간과 같이 지역사업과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개인창작지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 재구성 및 추가 개발

- 현재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는 ‘지원대상 만족도’나 ‘평균창작작품수’는 창작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 그러나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자수’는 ‘창작’ 측면에 대한 성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특성화 지표로 개발된 ‘아마추어 응모자 수’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수문예지발간지원이나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집행

○ 분기별 예산집행률 개선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사업에 포함된 4개 세부사업 중 3개 세부 사업은 예산집행실적 100%를 달성하였고, 사이버문학광장 운영이 98.3%의 실적을 나타내었으나 인력의 정규직화로 인해 발생한 잔액으로 이해되어 예산집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예산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4/4분기에 당초 계획(373백만 원) 대비 지출(471백만 원) 실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적절히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의 예산계획수립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모니터링 체계를 통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특정 시기에 예산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모니터링 활동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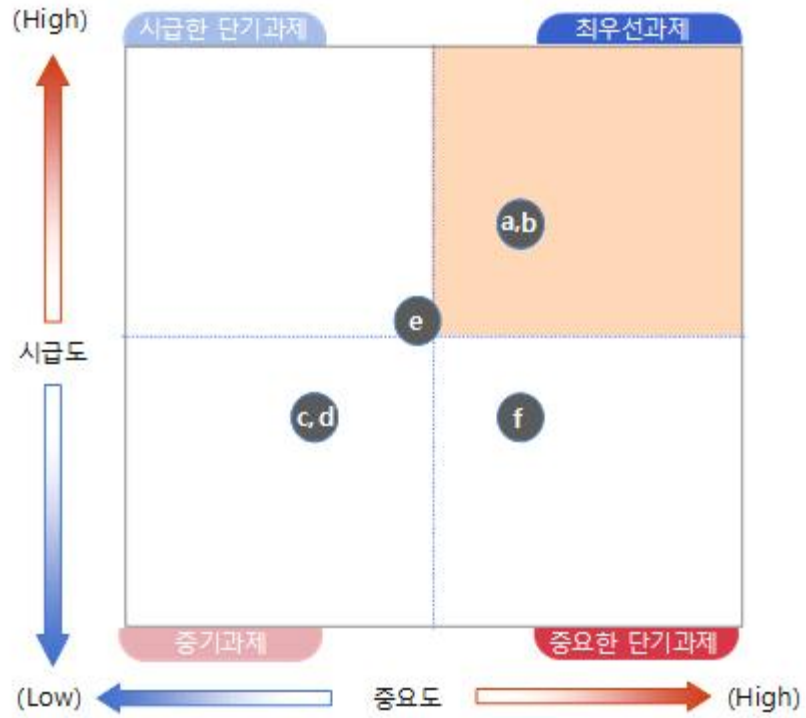
- 문학창작지원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모니터링 활동은 사이버문학광장 운영에 집중되어 있고, 우수 문예지 발간이나 작고문인선집발간과 관련된 모니터링 활동은 미흡함
-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지원금 정산과정의 체계화, 사업개선 관련 워크숍이나 전문가 간담회 등은 사업의 진행 현장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활동과는 다르므로, 이런 점에서 문학창작지원사업의 모니터링 활동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들은 모두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개발되어야 함

□ 성과

○ 적극적 성과지표 발굴

- 본 사업을 위해 개발된 성과지표는 모두 100%를 상회하여 당초 목표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개발된 성과지표가 타 영역 사업들의 성과지표와 큰 차이가 없음
- 지표는 단순히 목표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의 개선이나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되므로 문학창작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내용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와 관련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존에 개발된 지표는 성격상 다소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곧,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제공된 사이버문학광장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등을 주로 측정함으로써 문학창작의 내용이나 방향을 발전적,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은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지원사업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도 문학 분야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지표로 추가 개발하여 기존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창작지원중심의 사업목적 명확화**		●	1
계획	b	**개인창작지원의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1
계획	c	성과지표 재구성 및 추가개발	●	●	5
집행	d	분기별 예산집행률 개선		●	5
집행	e	모니터링 활동 확대	●	●	3
성과	f	적극적 성과지표 발굴		●	3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2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1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102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험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 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500백만 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사업수행단체 자부담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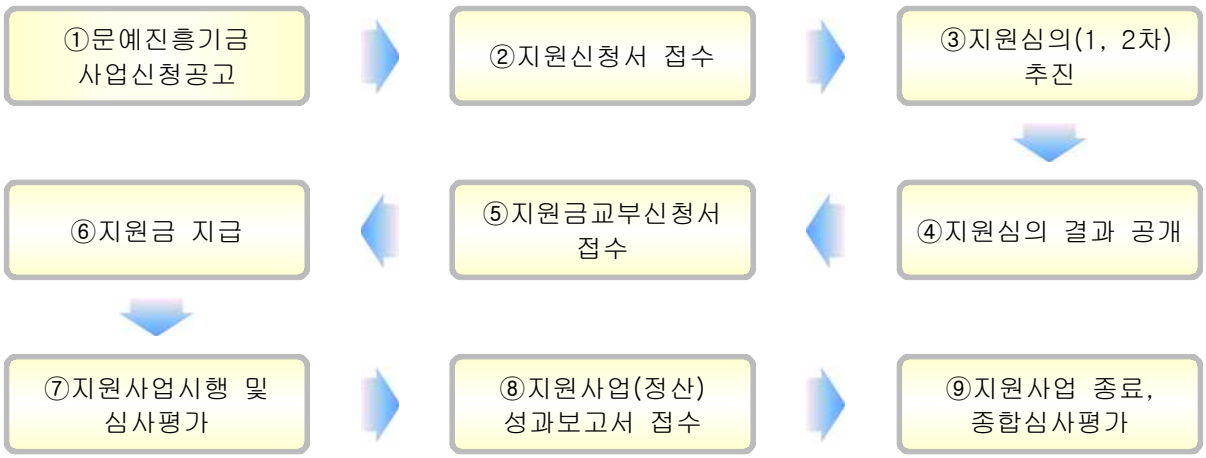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 감(B-A)	
					%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500	500	500	-	-

□ 사업추진 절차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수혜자 만족도 (점)	목표				84.4	72.0	ㅇ경영평가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ㅇ고객만족 개선도 100점 수준의 목표치 설정	ㅇ측정방법 :기획재정부 PCSI조사 ㅇ측정산식 : Σ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도 개선도' 적용 ㅇ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PCSI 조사 결과
	실적		76.5	72.7	68.9	79.2		
	달성도 (%)	-	-	-	-	109		
평균 창작작품수 (건)	목표				229.5	218.5	ㅇ과거 4개년 ('08~'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 편차 평가 방법 적용 ㅇ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목표치 환산 평점 : 100.01점	ㅇ측정산식 :Σ지원사업 전체 창작작품수 ÷ 지원사업 건수 ㅇ자료출처 : ERP 성과보고서 집계
	실적	176.5	107.8	192.68	184.73	236.0		
	달성도 (%)	-	-	-	-	108		
평균관람객 수 (명)	목표				9,887	10,163	ㅇ과거 4개년 ('08~'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 방법 적용 ㅇ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목표치 환산평점 : 100점	ㅇ측정산식 :Σ(공연, 전시 관람객 수 +행사 참여관객 수) ÷ 지원사업 건수 ㅇ자료출처 :ERP 성과보고서 집계
	실적	9,915	8,325	9,091	9,567	10,810		
	달성도 (%)	-	-	-	-	106.4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0년)	■ 비재정적지원사업 강화	■ 다각적인 기금사업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도 제고 ■ 다원예술관련 기금사업간 선순환구 조 형성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비재정적지원 확대
문화부평가 (2011년)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 강화	■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타기관 협력사업 개발
	■ 지원체계 및 지원대상 재정립	■ 다원예술 현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 개발)
국회・감사원	해당사항없음	
경영평가 (2011년)	■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의 발굴과 신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 필요	■ 예술분야 신성장동력인 융복합형 사업 신규 개발 - 예술현장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 -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 워크숍 개최 (총2회, 예술가 및 과학자 65명 참가)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2013년 공모사업 신규 추진 (46건 신청, 3건 선정, 예산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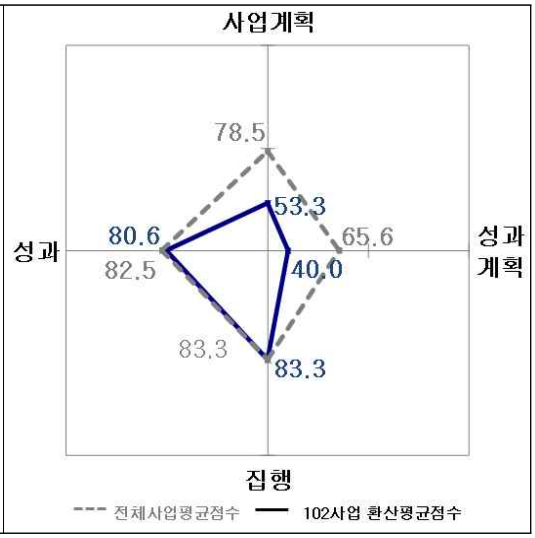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53.3점, ‘성과계획’ 40.0점, ‘집행’ 83.3점, ‘성과’ 80.6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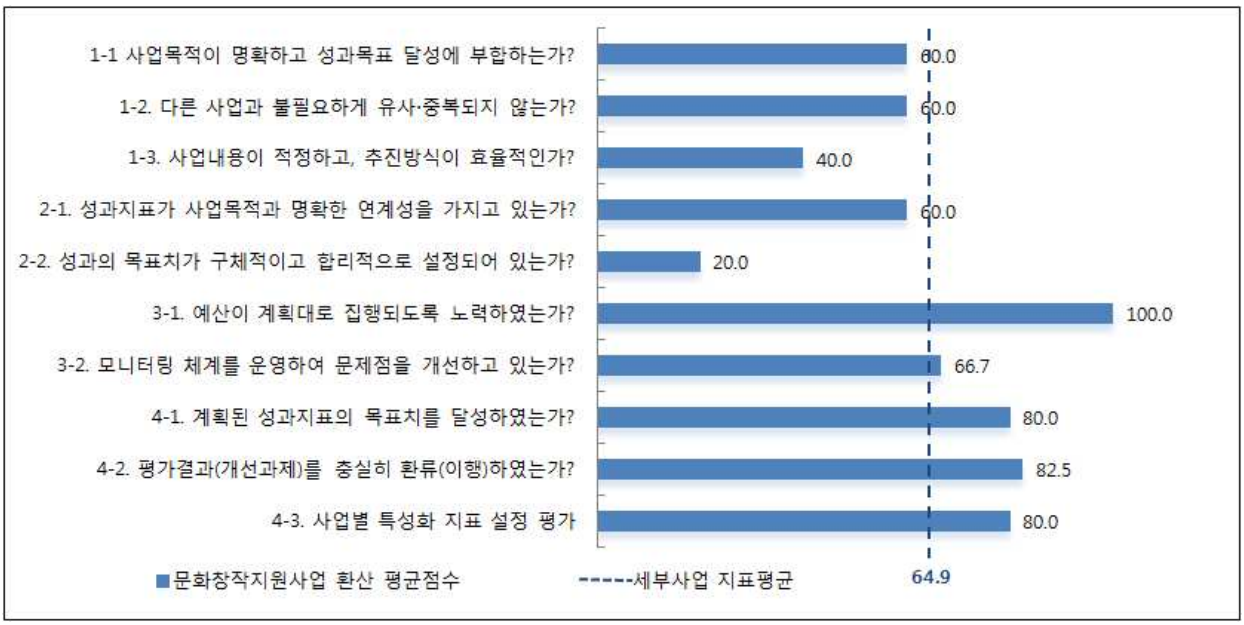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집행(+0.0)영역은 일치된 반면, 사업계획(-25.2), 성과계획(-25.6), 성과(-2.0)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3.0	60.0	53.3
	1-2(5점)	3.0	60.0	
	1-3(5점)	2.0	4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40.0
	2-2(5점)	1.0	2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80.6
	4-2(10점)	8.3	82.5	
	4-3(10점)	8.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64.9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2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실험적 예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다양한 기술적 발전과 장르 간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예술경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유형의 예술적 실험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험적 예술 지원과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실험성' 과 '다양성'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지원 대상 사업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사업성격의 모호성은 성과목표나 성과지표 설정에서도 나타나는 바, 설정된 지표가 창작된 작품의 실험성이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서 전년 실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내·외부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 집행이나 모니터링 등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도 포기한 일부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일찍 파악하여 추후 사업이 너무 늦지 않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사업성과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정된 특성화 지표 '평균참여예술인수' 와 '평균창작신작 수' 는 사업목적인 예술의 '실험성' 과 '다양성' 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사업성과는 기 설정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을 통하여 평가되는데, 설정된 지표와 목표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목표치 초과달성에 대한 의미부여는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사업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원 대상 기준의 구체화, 이에 따른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목표치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기존의 장르체계나 예술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들은 기존의 방식을 통한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적합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험성과 다양성은 예술의 본래적 부분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예술에 대한 지원은 예술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부정적 측면]

- 다만, 예술적 작업들은 대부분 그 안에 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 증진도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지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어떤 예술이 실험적 예술인지의 문제는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음
- 마찬가지로 다양성 증진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예술 활동이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결과적으로, 본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는 세부 사업명을 되풀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이 사업을 통하여 거두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임

[개선제안]

- 이런 점에서 본 사업은 실험성과 다양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독립적 영역으로써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 차원의 문화예술창작 지원활동은 주로 장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목적이 서로 다르고 유사·중복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사업에는 비평을 비롯하여, 평론, 조사연구 등까지 폭넓게 포함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지원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짐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다원예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지원되는 사업 유형이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유형을 띠는 경우가 있어, 여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보다 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실험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선정기준을 명확화, 차별화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자부담 최소 10%이상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 선정현황, 당해연도 신청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수요를 예측하고 있어 사업이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두 단계에 걸친 심의체계를 통해 수혜대상자 선정이 일어져 선정과정의 공정성 또한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업 내용 가운데 서로 다른 영역의 인력들에게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 곧 예술가 및 과학자 융합 워크숍을 통해 두 분야 인력들의 접촉을 유도하는 비재정적 매개지원활동을 실시한 것은 예술의 실험성 및 다양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대상자 선정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선정된 사업이 실험성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는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의 불명확성과 연결된 것으로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초래함

[개선제안]

-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험성과 다양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은 성과지표로 지원 대상 만족도와 평균창작작품 수, 평균관람객 수를 제시함
- 성과지표 자체가 결과지표로 되어 있고 측정산식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는 예술 활동 및 작품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는 실험성과 다양성과는 관련성이 낮은 지표로 구성됨
- 지원 대상 만족도나 평균창작작품 수, 평균 관람객수 등은 문학창작지원 사업의 지표와 대동소이하여 본 사업의 지원 취지를 명확히 살리고 있지 못함
- 특히, 평균 관람객수와 같은 성과지표는 작품의 실험성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 대중성에 대한 지표로 더 가까워 사업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지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개선제안]

- 향후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에 맞게 대체, 운영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해당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도 사업결과가 나온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시작 전에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정근거에서 일률적인 산식을 적용하여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과 해당 분야의 경향, 이러한 여건분석에 기반한 목표치 설정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목표치가 설정되지는 않음

- 그 결과 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 지표의 경우, 2011년 목표치가 84.4%였는데 비해, 2012년 목표치는 72%로 12% 이상 하향 설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목표치는 전년 실적이 68.9%에 머무른 것이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68.9%가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실적인지, 이러한 원인이 해소 또는 개선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해 연도 목표치 72%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목표치의 합리적 설정근거를 찾기 어려움
- 마찬가지로 평균창작작품 수 또한 2011년 229.5편에서 2012년 218.5편으로 감소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로 단지 “경영평가 PCSI 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를 적용, 100점 수준의 목표치 설정”이라는 점을 제시함으로 목표치 설정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목표치 선정의 합리성이 검증되지 못했다면 목표치 달성의 의미도 그만큼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옴

[개선제안]

- 따라서 전년도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당해 연도(2012년) 해당 장르의 환경분석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에 더하여 성과제고를 위해 기울일 노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당초 수립된 예산은 분기별 집행현황에 일부 계획대비 실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수행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2건 있어 2,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추가 사업의 추진 일정이 12년 12월부터 13년 3월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추가사업의 시작이 2012년 12월부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까지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일부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선제안]

- 이전과 달리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포기단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업과 같이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업포기 시점도 연말이 아닌 연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책임심의위원 4인과 내부 전문위원 1인 등 총 5인이 연중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예술사랑방 릴레이토크를 통해 내·외부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타 분야 협력기관, 다원예술분야 현장 전문가 등을 초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예술적 실험과 다양성 증진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 등은 ‘모니터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현장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과학자·기술자 등과 함께 융복합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 트랜드에 기반한 예술의 실험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등은 본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그러나, 모니터링이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한 피드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현재에는 모니터링이 피드백되는 과정이 연말 사업평가 시 이외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개선이 사업과정 중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음
- 곧, 모니터링의 경우 사업 중간에라도 사업담당자에게 피드백되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모니터링의 일환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나 컨설팅, 책임심의위원 워크숍 등은 모니터링 활동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활동들임

[개선제안]

- 따라서 컨설팅, 모니터링, 사업지원활동 등을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 곧 지원 대상 만족도, 평균창작작품 수, 평균관람객수 등은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 대상 만족도의 경우, 당초 계획은 72%였으나 실적은 79.2%로 11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평균 창작작품 수는 218.5건 계획 대비 236건 실적으로 나타나 108%의 달성률을 보임. 평균관람객수 또한 106.4%의 달성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다만,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등에 있어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음

[개선제안]

- 향후에는 이러한 평가와 목표치 달성 평가가 연동되는 것을 감안, 목표치 설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지원체계 및 지원대상 재정립(cotext 중심)

[긍정적 측면]

- 예술위원회에서 융복합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하고 다원예술창작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은 예술위원회와 지자체간 지원사업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이를 위해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에 3억 원을 편성하고, 프로젝트당 1억 원 내외의 집중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사업이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여전히 이 사업의 다수 지원 사업은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타 장르 중심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으므로 지원 대상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사업의 유사, 중복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② 사업 신청건수 감소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긍정적 측면]

- 2010년 지원신청건수는 353건인데 비해, 2011년 지원신청건수는 204건으로 크게 감소함. 이렇게 지원신청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기준을 강화한 때문으로 나타남
- 실험적 예술이나 다양성 증진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부정적 측면]

- 다만, 이로 인하여 지원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2012년 지원신청건수는 증가하여 관련 노력이 적절하게 기울여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지역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하여 공모안내를 제공한 것은 사업신청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됨

③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부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는 창작된 예술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는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특성화 지표로 제시한 '평균참여예술인수'나 '평균창작신작 수'는 창작된 작품의 질적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평균참여예술인수'는 예술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사업목적과 연계된 질적 지표로 제시하였으나, 여러 예술인이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예술의 다양성 증진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마찬가지로, '평균창작신작수' 또한 순수창작 신작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지표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창작된 작품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개발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앞서도 지적된 바이지만, 실험적 예술에서의 '실험성'과 다양성 증진에서의 '다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④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활동 강화(시대적 트렌드 반영)

[긍정적 측면]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대적 트랜드를 예술활동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본 사업에서는 전문가 릴레이 토크나 지원대상자 인터뷰, 타기관 융복합형 협력사업 추진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또한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다원예술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러한 활동은 예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 활동을 통하여 예술적 혁신을 유도하며, 모델개발을 통해 실험적 예술 유형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됨

⑤ 평가결과를 정보화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구축

[긍정적 측면]

- 예술지원행정서비스 TF를 구성,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더불어 예술위원회 내부 시스템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한 것은 평가결과를 상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2013년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리뉴얼을 추진 중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평가결과가 지원심의 단계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평가결과가 DB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정보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연계되는 것임

⑥ 지원대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산 증빙 컨설팅 서비스 실시

[긍정적 측면]

- 정산증빙 컨설팅을 기존 5대 도시 6회 개최에서, 7대도시 8회 개최로 확대한 것은 지원 대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보조금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정산증빙시스템이 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예술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을 초기 신한은행으로만 제한하였던 것에서 도서벽지의 경우 타 은행 거래도 가능하게 조치한 사항들은 지원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평균 참여예술인 수

[긍정적 측면]

- 설정된 목표치는 51건이고 실적치는 56건으로 당초 계획한 목표치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많은 예술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을 예술의 다양성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평균참여예술인수'는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개선제안]

- 사업별 특성화 지표는 앞에서 지적된 창작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개발과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예술의 실험성이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대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평균 창작신작 수

[긍정적 측면]

- 이 지표의 성과목표치는 116건이었는데 실적은 125건으로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참여예술인수'와 비교하여 볼 때, '평균창작신작수'는 본 지원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순수창작 신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창작 자체가 실험적 시도라고 하는 점에서 본 사업의 목적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음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실험적 예술 지원 사업이 기존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예술창작활동 발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신작수'라는 성과지표가 이러한 사업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개선제안]

- 따라서 새로이 창작된 작품이 실험적 예술의 유형에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지원 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

- 본 사업의 목적은 실험적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특히 실험적 예술, 특히 장르 간 융합에 기반 한 예술 활동들은 기존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구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사업영역을 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실제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어떤 예술이 실험적 예술인지, 다양성 증진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목적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은 실험성과 다양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실험적 예술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서도 융복합 예술 활동을 예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경향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되는 사업 유형이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한 유형을 띠는 경우가 있어, 여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보다 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재조정

- 본 사업의 목적은 기존 장르 중심형 지원체계에서 배제되는, 실험성이 강하거나 예술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제시된 것이 '지원 대상 만족도'와 '평균창작작품 수', '평균관람객 수' 등 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적, 곧 예술 활동 및 작품의 실험성과 다양성이 본 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는 실험성과 다양성과는 관련이 낮은 지표로 구성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기존의 성과지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제고

- 성과지표 목표치로 제시된 수치가'지원예술인/단체만족도'지표의 경우, 2011년 84.4%에서 2012년 72%로 하향 설정됨
- 이처럼 하향된 목표치 설정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타 평가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서 나타나는 측면이 강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성을 가지려면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내부역량/외부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검토에 기반 하여 성과지표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집행

○ 예산집행률 제고

- 예산의 최종적 집행률은 100%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실제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곳의 수행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2,200만원이 2012년 12월에 추가 선정된 대상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추가사업의 실제 예산 집행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루어짐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
- 선정단체의 사업포기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 기간 중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단체 변경 및 재선정은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에도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 운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업 포기가 연말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더욱 세심히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사업진행 중 모니터링의 피드백 과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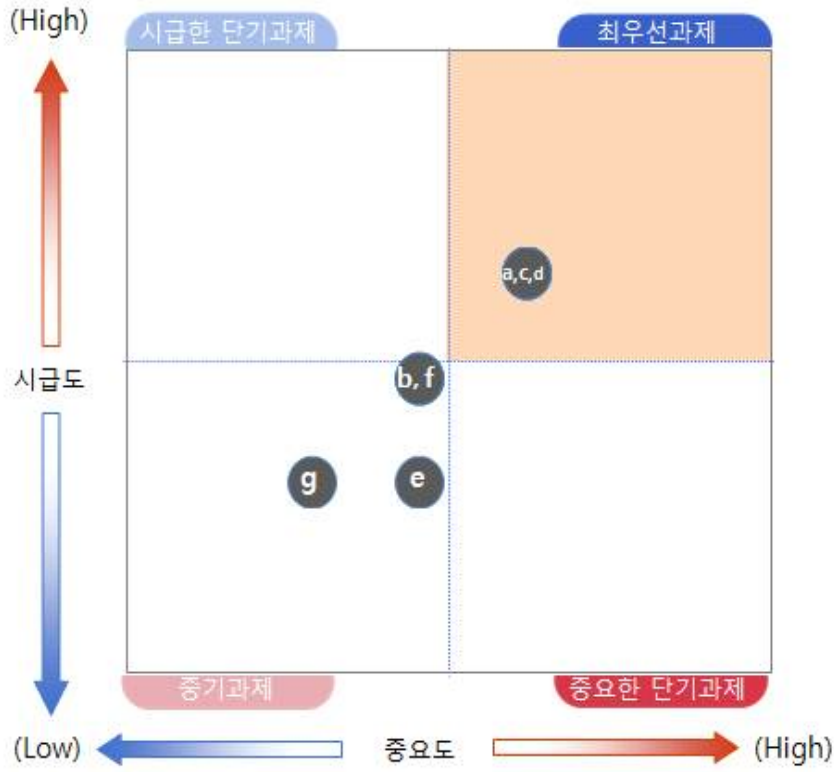
- 모니터링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있음.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가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 검토에 피드백 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
- 현재의 모니터링 결과 활용은 선정대상단체에게 사업 중간에 피드백 되어 운영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사업 운영 결과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져 향후 지원 대상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가 사업운영 개선에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향후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 참조하는 것과 더불어 사업진행 과정 중 그 결과가 선정단체에게 제공됨으로써 사업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성과

○ 특성화 지표 개선

- 성과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특성화 지표 가운데'평균참여예술인수'는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 목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지표임
- 이 지표는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영역들 간 융복합 활동, 곧 실험적 활동이 이루어지면 참여하는 예술인 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개발되었으나, 역으로 평균 참여 예술인수가 많으면 그만큼 예술의 실험성이나 다양성이 증진된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님
- 예술의 실험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참여예술인 수로 측정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평균창작신작 수' 또한 새로이 창작된 작품이 실험적 예술의 유형에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지원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	●	●	1
계 획	b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4
계 획	c	**성과지표 재조정**	●	●	1
계 획	d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제고**		●	1
집 행	e	예산집행률 제고		●	6
집 행	f	사업진행 중 모니터링의 피드백 과정 강화	●	●	4
성 과	g	특성화 지표 개선		●	7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3 공연창작지원

1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103 공연창작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제공연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 공연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의 차기 사업을 사후 집중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 창작물 개발의 선순환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22.5억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사업별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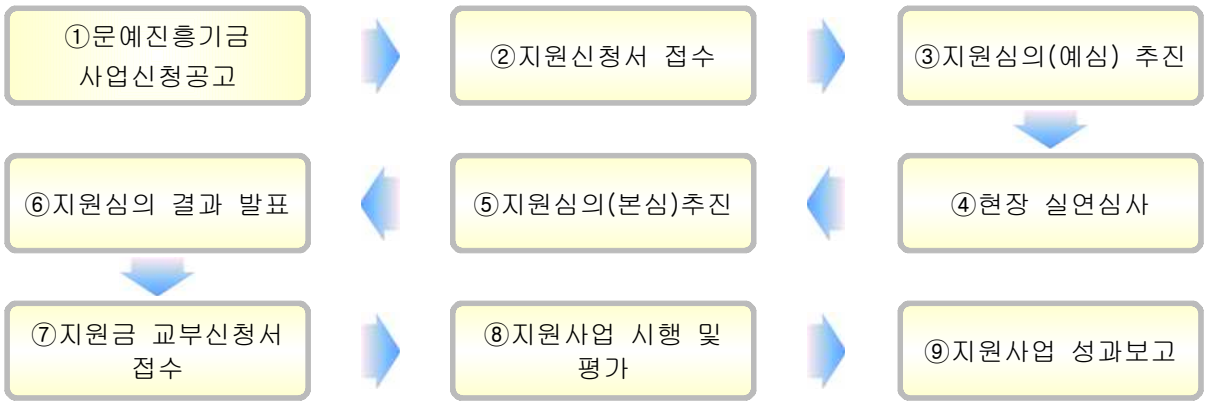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 (B-A)	%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2,300	2,250	2,500	250	10
■ 민간경상보조	2,150	2,100	2,350	250	10.6
■ 일반수용비	132	132	132	-	-
■ 여비	15	15	15	-	-
■ 업무추진비	3	3	3	-	-
계	2,300	2,250	2,500	250	10

□ 사업추진절차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9	'10	'11	'12	'12년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대상만족도 (점)	목표			85.1	82.27	ㅇ경영평가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ㅇ고객만족 개선도 100점 수준의 목표치 설정	ㅇ지원예술인 만족도 조사(기재부 PCSI 조사 결과) ㅇ경영실적평가 고객만족 개선도 산식 적용
	실적	76.5	75.3	80.3	88.2		
	달성도 (%)			94.4	107.2		
평균창작작품수 (건)	목표			1.38	2.04	ㅇ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목표인 기준치의 13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ㅇ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ㅇ지원사업 전체 창작작품 수 ÷ 지원 사업 건수(ERP 성과보고서 집계) ㅇ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편차 산식 적용
	실적			1.57	2.16		
	달성도 (%)			113.8	105.9		
평균관람객수 (명)	목표			1,090	1,536	ㅇ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목표인 기준치의 13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ㅇ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환산평점 : 100.0점	ㅇ지원사업 전체 관람객 수 ÷ 지원 사업 건수(ERP 성과보고서집계) ㅇ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산식 적용
	실적			1,182	1,575		
	달성도 (%)			108.4	102.5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0년)	■ 평가결과 개선 사항(책임심의위원제 개선) ■ 보조금 집행관리 지도체계 정비	■ 책임심의위원의 현장평가 확대, 자체 워크숍 등 추진 ■ 보조금 집행 전산시스템개선 및 사용자 매뉴얼작성배포
문화부평가 (2011년)	■ 연차별 지속적 감소현상이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의 실현인지, 신뢰도 약화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심사선정상의 불공정 문제인지 분석 필요	■ 사업 첫해에는 위원회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들이 신청하였음 그러나 2011년에는 우수단체의 우수작품 위주로 엄선됨에 따라서 지원단체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사업설명회, 컨설팅강화 및 공연예술단체 조직역량강화 지원 등 다각적인 홍보강화 노력에 따라 지원단체수가 증가하였음
	■ 전체 지원비 중 타 장르에 비해 연극장르가 지원비를 과도하게 독식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심사선정의 공정성 확보 요망	■ 공연예술창작기금사업은 연극분야의 과도한 기금배정으로 타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기 힘든 음악 및 전통분야를 위해 음악·전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장르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행노력을 하였음
	■ 현장 심층인터뷰 결과 지원대상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장 큰 불만족 요소인 “정산증빙 컨설팅 서비스” 개선책 마련	■ 서울뿐만이 아닌 지역의 예술인(단체)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다양한 홍보 방법(웹진·이메일·SMS 발송, 지역문화재단 협조 등)을 통해 참여 유도 · 총 8회 전 장르 컨설팅 참석자 1,910명 · 컨설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87.7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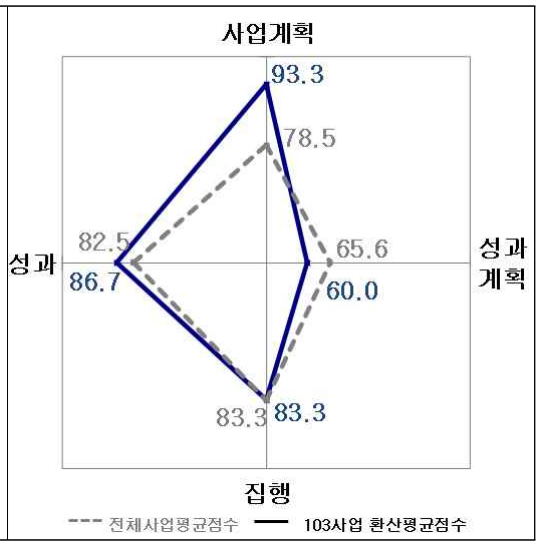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공연창작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93.3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3.3점, ‘성과’ 86.7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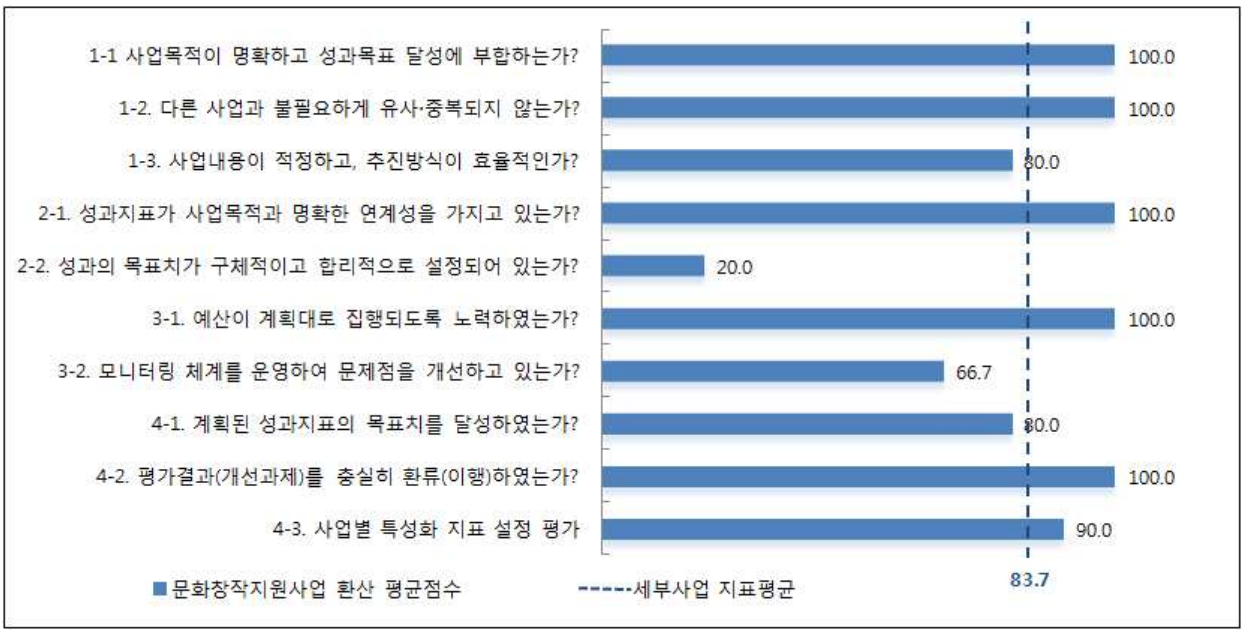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4.8), 성과(+4.1)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0.0)영역은 일치되었고, 성과계획(-5.6)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93.3
	1-2(5점)	5.0	10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5.0	100.0	60.0
	2-2(5점)	1.0	2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86.7
	4-2(10점)	10.0	100.0	
	4-3(10점)	9.0	9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공연창작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3.7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성과’ 항목 중 ‘4-2. 평과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2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공연창작지원 사업은 지역 차원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자칫 유사, 중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비해 창작초연작품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의 차별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무용이나 전통예술, 기타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성장하기 어려운 장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연 창작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후지원 방식을 택함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어섬으로써 실제 지원이 제공된 시점과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불일치하는 문제나, 창작지원이 우수창작물에 대한 포상형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사업의 목적이 ‘우수’ 창작물에 대한 지원에 있는지 ‘창작기회’ 제공에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사업 목적 및 성과 목표에 대한 설명 등에서 일부 혼선이 나타남

○ 따라서 공연창작지원사업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에 합당한 성과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사업의 성과측정 타당도 및 성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에 따르면, 민간공연단체의 자체수입비중은 전체의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46.1%에 달해 민간공연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공연창작지원 사업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의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창작물 제작 및 발표를 유도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연예술 생태계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원은 또한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역량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사업목적이 명확한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하여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구체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목표를 “우수한 창작작품 개발을 통한 선순환 체계 마련”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사업목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사업목표는 사업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로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구현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임. 따라서 사업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지역차원의 지원과 달리 지원대상의 기준을 창작초연작품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차원의 지원과 효과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구상, 시행하고 있음
- 지역에서의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도 창작물에 대한 지원이 있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사업들과 유사, 중복적인 성격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연 창작에 대한 지역차원의 지원이 주로 사전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예술위원회의 지원은 사후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공연예술분야임. 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에서도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술위원회의 공연 창작 지원사업과 유사, 중복적 성격을 가질 우려가 다분히 존재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에 대한 지역차원의 지원이 주로 기존 작품의 재공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창작초연작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공연예술작품의 창작을 유도하고, 사후 지원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공연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서면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연의 실연심사를 실시하고 우수창작물을 발굴, 지원하는 방식은 공연창작지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작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차기 작품 제작을 위한 창작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원금이 단체의 후속 공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추진방식 또한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공연 창작에 있어서 사전지원방식이 공연 창작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지원금을 받아 공연되는 작품의 질을 통제할 수 없다거나 공공지원에 기댄 창작/발표계획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비해, 사후지원방식이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지원장르간 비중도 전년대비 장르 간 편차를 많이 보완하여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2011년에 음악단체의 신청이 38건이었던 것을 2012년에는 62건으로 크게 확대한 반면, 무용은 61건에서 60건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이에 비해 지원금은 무용분야가 14.8%(2012년)로 다른 장르에 비해 가장 낮게 지원됨

[개선제안]

- 장르 간 지원비중의 균형을 고려하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로 제시된 ‘지원대상 만족도’, ‘평균창작작품수’, ‘평균관람객수’는 공연창작지원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결과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도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성과지표는 또한 사업목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공연창작지원사업의 목적이 ‘우수’창작물 지원에 초점이 있는지, ‘창작기회’조성에 초점이 있는지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창작물에 대한 지원이라면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나, 위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며, 개발된 지표는 주로 일반적인 창작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의 공연창작지원 사업 성과지표에 가까움
- 현 성과지표에서는 ‘평균관람객수’를 지원대상자의 예술적 완성도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람객수가 작품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계량적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개선제안]

- 따라서 사업목적이 우수한 창작초연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면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시에 사업목적에서도 창작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2012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계획에 의거 사전에 설정함
- 기본적으로 전년도(2011)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연도(2012)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때 설정된 목표치는 ‘지원대상 만족도’의 경우 경영평가 PCSI 점수개선도 85점(전년대비 104%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평균창작작품수’나 ‘평균관람객수’의 경우, 전년대비 목표치를 130%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지표의 목표치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PCSI 점수 개선도 등과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지원예술인/단체 만족도' 지표의 경우 2011년 목표치가 85.1점이었는데 비해, 2012년도 목표치는 82.27점으로 하락하게 제시함
- 또한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PCSI 점수 개선도를 왜 85점 수준으로 설정하였는지, '평균창작작품수'나 '평균관람객수'의 경우, 전년대비 목표치를 왜 130% 수준으로 설정하였는지와 관련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2011년 실적 수치가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했었는지/불가능했었는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실적이 높거나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목표치가 특정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는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당초 수립된 예산은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분기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더라도 1/4분기부터 4/4분기에 이르기까지 당초 계획과 다른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2010년이나 2011년의 경우, 재정 집행률이 각각 97.8%, 98.3%로 100%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재정 집행률이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4/4분기에 재정집행이 집중된 것은 당초 계획에서도 예견하였던 것으로, 공모 접수가 8월에 이루어지고 2차 본심이 10월중에 실시됨으로써 실제 사업기간이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임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외부책임심의위원(4인)과 지원사업 담당자(1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또한 장르별 책임심의위원과 지원단체 대표,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릴레이토크 방식의 현장의견 모니터링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 모니터링과 관련된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됨
- 실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제기된 '비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단체의 홍보물 제작 및 기부금 유치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것은 모니터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부정적 측면]

- 다만,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제시한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나 1:1면접 컨설팅 등은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지원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제안]

- 또한 모니터링 결과가 지원 단체 선정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중간에라도 결과가 피드백 되어 사업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공연창작지원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공연예술단체이나 최종적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에 의한 모니터링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대상만족도’, ‘평균창작작품수’, ‘평균관람객수’ 등 각 성과지표에서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각각 107.2%, 105.9%, 102.5%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제안]

- 다만,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성과지표 설정 시 앞서 제시한 공연 창작물의 우수성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사업 신청건수 감소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긍정적 측면]

- 2012년에는 사업설명회, 컨설팅 강화, 공연예술단체 조직역량 강화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결과 전년에 비해 304건으로 증가하였음
-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들은 사업 신청건수를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2010년 사업신청은 1, 2차 총합하여 374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249건으로 신청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감소 원인은 2011년 지원기준을 전년에 비해 우수작품 위주로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기존에 개발된 성과지표의 질적 수준의 평가를 위해 ‘작품매체노출빈도수’나 ‘수상건수’와 같이 특성화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함
- ‘수상건수’의 경우, 지원받은 작품에 대한 공연계의 평가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질적 지표로 볼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기존에 개발된 성과지표는 창작된 예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함
- 그러나 '작품매체노출빈도수'는 우수 작품이 매체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그러한 개연성은 있지만 매체에 노출된 빈도수는 홍보 노력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우수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지표로 보기는 어려움

③ 지원사업 선정 시 공정성 확보(연극장르에 대한 편중 방지)

[긍정적 측면]

- 2012년의 경우 특히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국창작음악제를 개최하여 장르간 지원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은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됨
- 특히, 공연창작지원이 사후지원 방식을 띠고 있고 음악이나 전통예술의 경우 창작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표 기회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창작음악제를 기획, 개최한 것은 지원에 있어서 장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공연물의 경우 작품의 생산자체에서 장르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장르에 대한 지원이 다른 장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이 존재함
-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공지원의 목적이 자생성을 갖추지 못한 예술영역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장르 및 활동 활성화라고 볼 때, 특정 장르에 집중이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무용 분야는 여전히 지원건수나 지원 금액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함

④ 평가결과를 정보화하는 상용 서비스체계 구축

[긍정적 측면]

- 예술지원행정서비스 TF를 구성,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더불어 예술위원회 내부 시스템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한 것은 평가결과를 상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2013년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리뉴얼을 추진 중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평가결과가 지원심의 단계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평가결과가 DB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정보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연계되는 것임

⑤ 지원대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산 증빙 컨설팅 서비스 실시

[긍정적 측면]

- 정산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금 정산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면대면 컨설팅을 추진한 것은 지원 대상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됨
- 또한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서울 및 지방 6개 처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컨설팅 만족도에 대한 조사까지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정산의 어려움을 해소시킨 것은 긍정적 노력으로 평가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작품매체노출빈도수

[긍정적 측면]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품매체노출빈도수는 공연창작 지원에 있어 홍보노력과 관련한 지표로는 적절함

[부정적 측면]

- 다만, 창작된 예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작품이 얼마나 매체에 노출되는지 여부는 작품의 우수성에도 달려 있지만, 홍보의 적극성에 보다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노출빈도 자체로 작품의 우수성을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목표치의 경우도 1건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1건이 갖는 의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적이 1.05건으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이러한 성취가 사업에서 제시한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개선제안]

- 따라서 이 지표는 창작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수상건수

[긍정적 측면]

- ‘수상건수’는 지원된 창작품이 공연계 우수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작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전년대비 110%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 설정도 의욕적으로 된 것으로 평가됨
- 실제 실적치는 목표치 17건 대비, 20건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5. 개선과제

□ 계획

○ 성과목표의 명확화

- 본 사업은 우수창작공연작품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을 제고하고 창작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처럼 사업의 목적은 명확한데 비해 실제 사업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가 “우수한 창작작품 개발을 통한 선순환 체계 마련”이라고 제시되어 동어반복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
- 사업목적이 성과목표를 통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공연창작지원사업의 목적이 ‘우수’창작물 지원에 초점이 있는지, ‘창작기회’조성에 초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공연창작지원사업의 목적이 우수 창작물에 대한 지원에 있다면 작품의 우수성에 대한 지원 내용이 성과목표를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하고, 창작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현재와 같이 얼마만큼의 창작 작품이 발표되었는지가 성과목표에 반영되어야 함
-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공할 것임

○ 실제 지원과 성과 평가 시점과의 시차 개선

- 본 사업은 사후 지원사업으로 우수 창작물을 공연한 단체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단체가 차후 공연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2차 공모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공연은 실연심사를 받은 연도 말에서 이듬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성과지표의 측정을 위한 조사는 실연심사를 받은 해당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지원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과 성과평가를 위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상 기간과의 차이가 발생
- 이러한 시차는 사후지원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성과측정은 지원된 금액이 사용된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에서 나타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함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성과측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실제 지원과 성과평가 시점과의 시차를 개선하는 노력 필요함

○ 성과지표 보완

- 공연창작지원 사업이 '우수' 공연창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면, 현재와 같이 성과지표가 평균창작작품수와 같이 제시되기보다는 창작된 작품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는 것이 타당함
- '평균 관람객수'가 지원대상자의 예술적 완성도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질적 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작품의 대중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창작품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의 성과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취약장르에 대한 균형지원 노력 강화

- 2011년에 비해 2012년은 장르간 지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악과 전통예술과 같은 취약장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이를 통해 연극에 치중되어 있던 지원건수 및 지원금 규모가 다른 장르와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조정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무용장르는 지원 건수나 지원금 규모에서 타 장르에 비해 크게 낮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무용 장르는 예술인이나 창작발표 자체가 많지 않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공연창작지원 사업이 공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성장이 어려운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기 실시된 한국창작음악제와 유사한 기획을 통해 취약장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집행

○ 사후지원과 연관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 활동은 현장실연심사를 통한 모니터링과 릴레이 토크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구분됨
- 현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후 지원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원단체로 선정되기 위한 단계에서 외부책임심의위원과 지원 사업 담당자에 의한 현장실사(현장모니터링)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모니터링은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은 지원받기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원결정 이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지원된 이후의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만약, 본 사업이 우수창작단체에 대한 포상의 성격이 강하다면, 사업자체를 우수공연창작단체 시상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모니터링 결과가 지원 단체 선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선정이후 창작 및 발표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결과가 피드백 되어 사업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 반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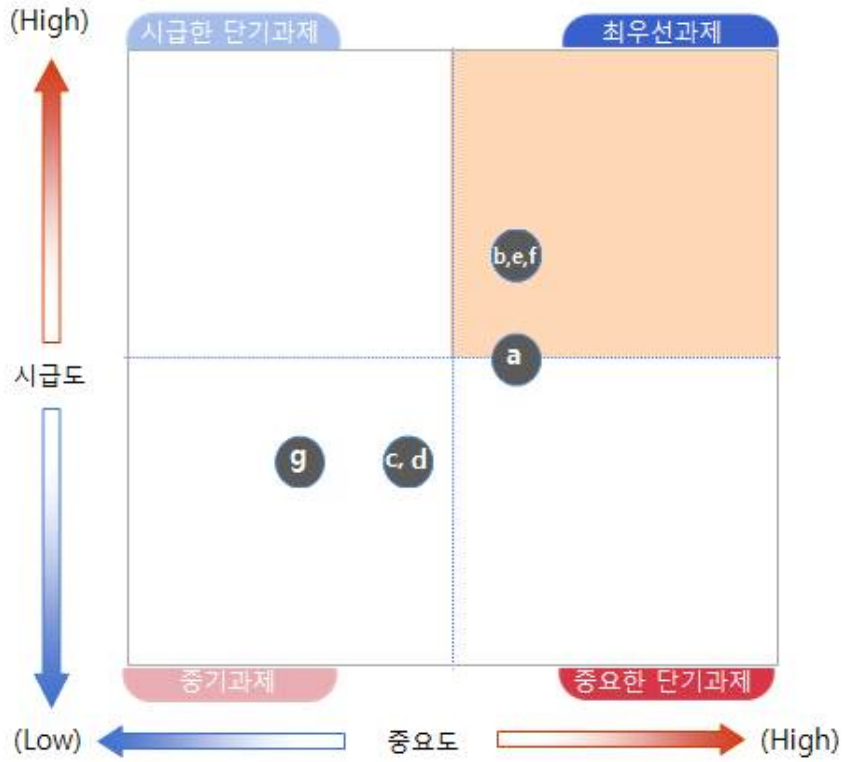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본 사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지원대상만족도', '평균창작작품수', '평균관람객수' 는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치를 달성했느냐의 여부도 있지만 그 전에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개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여러 여건에 대한 종합적 분석 위에 설정된 것인지가 타당해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위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는 우수한 공연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성화지표 보완

- 특성화지표를 통하여 성과지표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으나, 작품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작품매체노출빈도수'는 창작된 예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보다는 공연창작 지원에 있어 홍보노력과 관련한 지표와 보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작품이 얼마나 매체에 노출되는지 여부는 작품의 우수성에도 달려 있지만, 홍보의 적극성에 보다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질적 지표로 제시된 '작품매체노출빈도수'는 다른 지표로 보완되는 것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성과목표의 명확화	●	●	4
계획	b	**실제지원과 성과평가 시점과의 시차 개선**		●	1
계획	c	성과지표 보완	●	●	5
계획	d	취약장르에 대한 균형지원 노력 강화		●	5
집행	e	**사후지원과 연관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	●	●	1
성과	f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	1
성과	g	특성화 지표 보완		●	7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4 창작매체 · 소통지원

1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104 창작매체·소통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지원,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기획 강좌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예술지원정보 제공, 기초예술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자료구축 및 보존활동을 지원하여 예술현장의 소통 및 창작활동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1070백만원

- 예술가소통공간지원 : 350백만원
- 예술지원정보서비스 : 200백만원
-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지원 : 52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국민

ㅇ 지원형태

- 예술가소통공간지원 : 자체집행
- 예술지원정보서비스 : 자체집행
-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지원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지원

ㅇ 사업시행 주체

- 예술가의집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지원 : 문화예술전문지 발간단체, 예술분야 조사연구 실적단체

□ 예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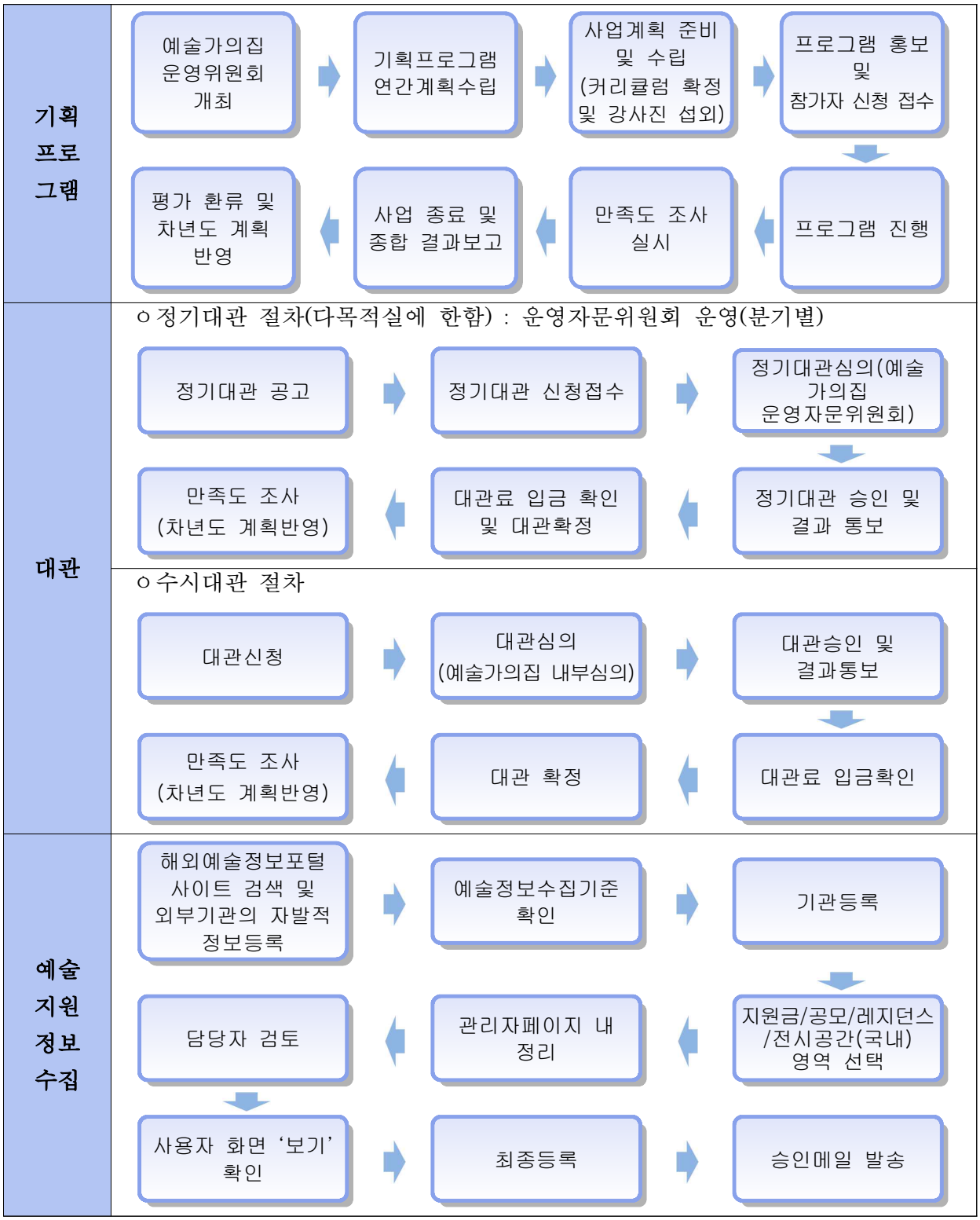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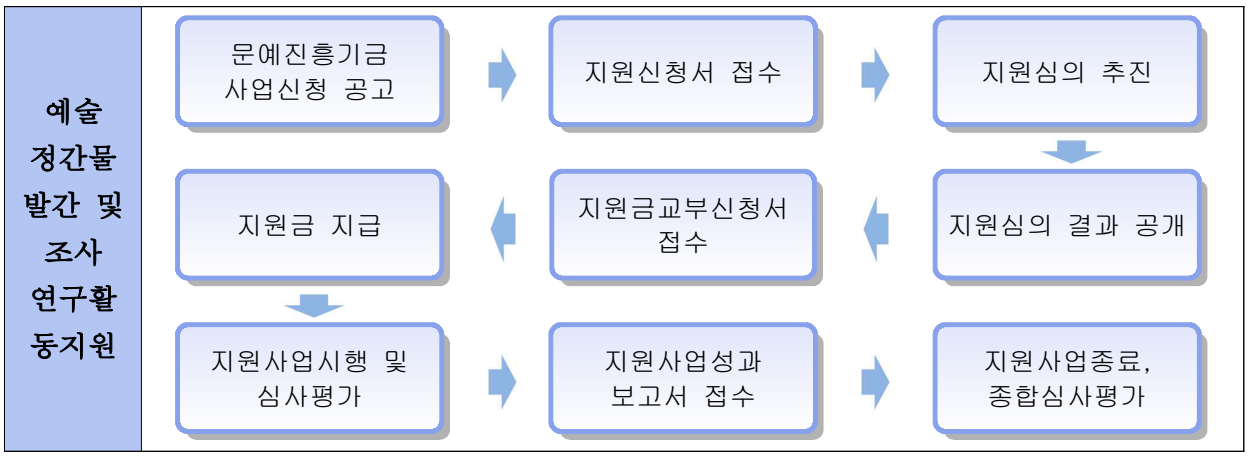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 (B-A)	%
□ 창작매개·소통지원					
■ 예술가소통공간지원	200	350	550	-	
■ 예술지원정보서비스	200	200			
■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500	520	520	-	

□ 사업추진 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 프로그램 추진	⇒	모니터링 시행 환류 및 내·외부사업 평가	⇒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운영 개선
ㅇ전년 내외·부 평가, 자문의견,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내외부 환경분석 ㅇ사업목표, 추진방향 설정 ㅇ연간 계획 수립 ㅇ개별 사업계획 수립 ㅇ운영자문위원회 구성 ㅇ공간구성 및 시설 점검		ㅇ자체 기획프로그램 진행(융복합, 시민과의 소통, 예술가 창작등) ㅇ대관사업 진행 -정기대관(분기별 운영자문위원회 외부심의 확정) -수시대관 (수시로 내부심의 확정) ㅇ협업프로그램 진행 (외부 단체, 기관과 협업프로그램 진행) ㅇ예술가의집 생성 콘텐츠 아카이빙 진행 ㅇ예술지원정보 수집 및 제공(주1회 뉴스레터 및 MMS문자 알림서비스) ㅇ예술지원정보 온라인 컨설팅 진행 ㅇ사업홍보 및 시설 점검		ㅇ모니터링 -외부전문가평가단 -예술가 모니터링 -일반참여자 모니터링 ㅇ내부사업평가 -외부전문가평가단 -문예진흥기금사업 자체 평가 ㅇ외부평가 -주무부처(문화부) 주관 문예진흥기금 사업 등		ㅇ사업평가 결과 차기 사업계획 수립 등 환류 -중장기비전전략 설정반영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세부사업별업무 개선반영 -고객서비스개선반영

□ 세부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절차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예술가의집 이용자수 (명)	목표			41,273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목표치 합산 평점 : 100.00점)	○측정방법 :예술가의집 이용자수 집계(자체 운영실적보고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 ※대관이용자수+기획프로그램이용자수+국립예술자료원이용자수
	실적		37,521	45,450		
	달성도 (%)			110.1		
예술가의집 만족도 (점)	목표			89.2	○경영평가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고객만족 개선도 100% 수준의 목표치 설정	○측정방법 :예술가의집 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집계(자체 운영실적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88	93		
	달성도 (%)			104.3		
평균 창작품수 (건)	목표			4.32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최근 2개년 평균 참여예술인 성과치 4.32명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 ※ 차기년도부터 최근 3개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 최고수준 목표 설정	○지원대상 성과보고서 전수조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연동된 내부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계량적 성과보고 현황 산출 및 활용
	실적	3.72	4.91	4.56		
	달성도 (%)			105.6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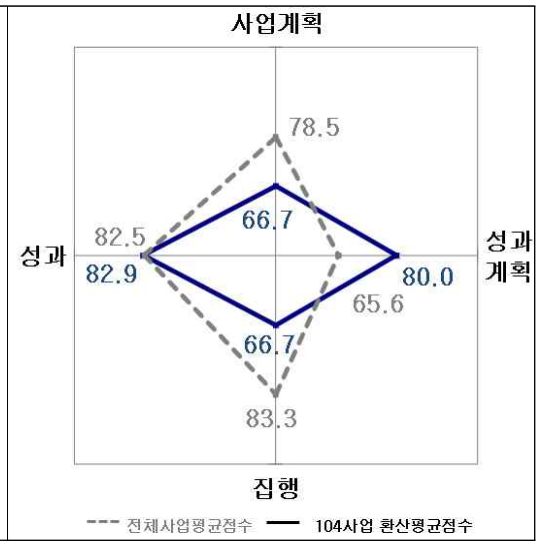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창작매체・소통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66.7점, ‘성과계획’ 80.0점, ‘집행’ 66.7점, ‘성과’ 82.9점이 산출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성과계획(+14.4), 성과(+0.3)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계획(-11.9), 집행(-16.7)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3.0	60.0	66.7
	1-2(5점)	3.0	6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5.0	100.0	8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0.0	66.7	66.7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82.9
	4-2(10점)	개선과제 없음	개선과제 없음	
	4-3(10점)	9.0	9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창작매체・소통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3.7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예술가 상호간, 예술가와 타 분야 전문가, 예술가와 일반 시민과의 상호 연계, 소통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예술창작활동의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설정된 세부사업들, 예컨대 예술가의집 운영, 예술지원정보제공,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 등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심층적이고 폭넓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타 영역 및 사회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중요하고 적절한 사업들로 평가됨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가의집을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제한하여 제공하고, 예술가 타 영역간 융복합 프로그램이나 동료 예술가와의 토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며, 국내외 예술지원정보를 수집하여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한 것은 창작매개/소통 지원 사업의 목적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사업들로 평가함

○ 다만,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 민간 및 공공기관 등에서 예술가를 위한 소통공간 제공,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제시된 성과지표(예술가의집 이용자수, 예술가의집 이용만족도)는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매개/소통 활동에 초점을 두기보다 공간 자체의 운영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창작매개사업으로써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평균창작품수는 창작매개를 위한 지원사업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어서 적절한 지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점증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매개사업으로써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라고 하는 큰 영역 아래 창작매개 및 소통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본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교류와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사업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기획강좌 프로그램 진행, 국내외 예술지원정보제공, 기초예술 성과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자료구축 및 보존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포함
- 이러한 세부사업들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지식, 정보, 인력 자원들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업목적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에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보다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예술가의 집 운영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과지표는 예술가의 집 이용자 수인데, 이것만으로는 예술가의 집이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마찬가지로, 예술가의집 이용만족도 또한 공간으로써의 예술가의 집에 대한 이용만족도일 뿐 ‘창작매개’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 이와 같은 성과지표의 설정은 예술가의 집 운영이나 예술 정기간행물 발간, 포털사이트 구축 등 창작매개를 위한 활동이 어떻게 예술창작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줌

[개선제안]

-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 매김되려면 세부사업이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와 연계되는 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성과지표 개발 등이 뒤따를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를 위한 교류공간 제공이나 정기간행물 발간지원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부 유사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차원의 예술가 교류 공간, 전국 차원의 예술정기간행물 지원, 예술정보지원 포털 등의 사업이 중앙단위에서 필요한 만큼, 그 유사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다만, 점차 지역차원에서도 지역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간을 통하여 예술가 및 시민들을 위한 교류, 교육, 강좌 등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타 지역 및 기관/단체의 사업과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제안]

- 특히, 이 사업을 향후에도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 영역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조사연구활동 지원과 같은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예술위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관 간의 역할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소통공간지원,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은 직접적으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관련되고 있으나, 창작활동의 지평을 확대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창작활동 활성화에 선순환적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가 소통공간 지원, 곧 예술가의집 운영에서는 공간지원(대관)의 대상을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로 한정함으로써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예술분야와 타 분야와의 융복합 프로그램, 동료예술가나 후학들이 다른 예술가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술가의 집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사업은 외부인력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예술지원 정보를 수집,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현장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추진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술정간물발간지원의 경우, 수혜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로 의무화하고 있어 재원분담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지역차원의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술지원정보서비스나 예술가 교류 기회들을 확대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로 '예술가의 집 이용자수', '예술가의집 이용 만족도', '평균창작품 수' 제시함

[부정적 측면]

- 위 성과지표가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사이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예술가의집 이용자 수나 예술가의집 이용 만족도는 예술가의 창작을 매개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지 않고, 단순한 공간이용과 관련된 측면의 지표로 '사업목적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마찬가지로 평균창작품 수는 예술가의 집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창작품 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평소 창작활동을 많이 하는 예술가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평균창작품 수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부적절함
- 또한 세부사업으로 '예술지원정보서비스'와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세부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제안]

-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매개하고 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공간운영이나 온라인정보서비스 제공, 발간물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이 어떻게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매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예술가의집 이용자수의 경우 전년대비 110%, 예술가의집 이용만족도의 경우 경영평가 PCSI 조사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100점 만점 기준 적용, 평균창작품수의 경우 최근 2개년 평균 참여예술인 성과치의 목표치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다만, 목표치라고 할 경우 전년대비 110%나, 특정 조사방식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전년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 해당 연도에 대한 환경 분석, 내부 역량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 설정 등 내외부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기반 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특정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상승된 지표를 제시할 경우, 내외부적 여건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승분'이 적절하게 검토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선제안]

-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여러 여건에 대한 분석과 기울일 수 있는 역량 및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부정적 측면]

- 예산 집행률이 예술가의 집 운영 96%, 예술지원정보서비스 91%, 예술정간물 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 98%로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모두 100% 예산집행률을 나타낸 사업이 없음
- 세부적으로는 예술정간물 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에서는 시각예술분야 2개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2백만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함

[개선제안]

-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사업포기나 절감요인 발생 등으로 100%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100%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예술지원정보서비스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91%이지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잔액인 만큼 미집행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조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1월부터 12월까지 예술가의 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중 프로그램별로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술가의 집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점검내용에는 강연평가, 강연자 만족도, 강연운영 및 시설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함으로써 예술가의집에서 기획,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지원정보유용성, 서비스 이용만족도, 콘텐츠 활용 만족도 등 항목을 통하여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제시된 모니터링 활동 중 예술가의집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나 문예진흥

기금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 예술사랑방 릴레이토크 개최 등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적절치 않음

- 또한 정기간행물 발간 및 조사연구와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는 제시되지 않음

[개선제안]

-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제안사항, 예를 들어 융복합 프로그램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기회 제공, 예술가와 소통을 위한 강의 시간 연장 요청 등은 운영에 바로 반영하여 실제적인 개선을 이루어냄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제시된 성과지표 예술가의집 이용자수, 예술가의집 이용만족도, 평균창작품 수 각각 당초 계획 대비 110%, 104.3%, 105.6%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 전년도 지적사항 없음 (신규 사업)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예술가의집 운영적절성

[긍정적 측면]

- 새로 개발된 '예술가의집 운영적절성' 지표는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이 15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함으로써 예술가의집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얼마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적 지표임
- 예술가의집 운영이 창작활성화를 위한 예술가의 매개/소통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 개발된 특성화지표는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가의집 운영간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다만, '예술가의집 운영적절성'에서 '운영적절성'이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다 명확한 명칭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제안]

- 측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술가의집 프로그램 운영적절성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② 예술지원정보 만족도

[긍정적 측면]

- '예술지원정보만족도'는 예술지원정보서비스에 대한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지표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제시된 목표치 85점에 비해 실적이 85.3점으로 제시되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다만, 지표가 새로 설정되어 목표치 설정에 있어 합리적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5. 개선과제

□ 계획

○ 사업목적과 세부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려면 세부사업이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와 연계되는 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성과지표 개발 등이 뒤따를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시된 사업목적은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창작매개 및 소통 지원사업을 제시하여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전체 목적과 세부사업 운영 간에는 유기적 연계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됨
-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예술가의집 운영이나 예술지원정보제공, 정간물 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은 창작역량을 간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의 운영이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 예술가의집 운영이나 정간물 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 등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매개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운영 내용에 있어 창작활동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운영이 필요함

○ 지역 및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예술가의 교류 공간 제공이나 온라인을 통한 예술지원정보 제공, 예술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은 지역 및 타기관들에서도 그 비중을 점차 늘여가고 있는 사업임
- 예를 들어, 점차 지역차원에서도 지역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간을 통하여 예술가 및 시민들을 위한 교류, 교육, 강좌 등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타 지역 및 기관/단체의 사업과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재조정

-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성과지표인 '예술가의 집 이용자수', '예술가의집 이용 만족도', '평균창작품 수'는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창작매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제시된 성과 지표가 주로 예술가의집 운영에 국한되고 있어 예술지원정보 서비스나 정간물 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과 관련한 지표가 추가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매개하고 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공간운영이나 온라인정보서비스 제공, 발간물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이 어떻게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매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집행

○ 예산집행률 제고노력 강화

-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집행률이 96.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공간운영이나 온라인관련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이 지속적으로 96.0%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예산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미집행 가능성을 제거하고, 실제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예술정간물 발간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에서는 시각예술분야 2개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2백만 원의 미 집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조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연동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달라 모니터링 체계 또한 다른 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사업이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라고 하는 큰 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모니터링은 단순히 예술가의집 공간이나 예술지원정보 온라인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니터링은 이 영역에 속한 모든 사업에 대해 최소 하나 이상씩의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정기간행물 발간 및 조사연구와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술가의집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 등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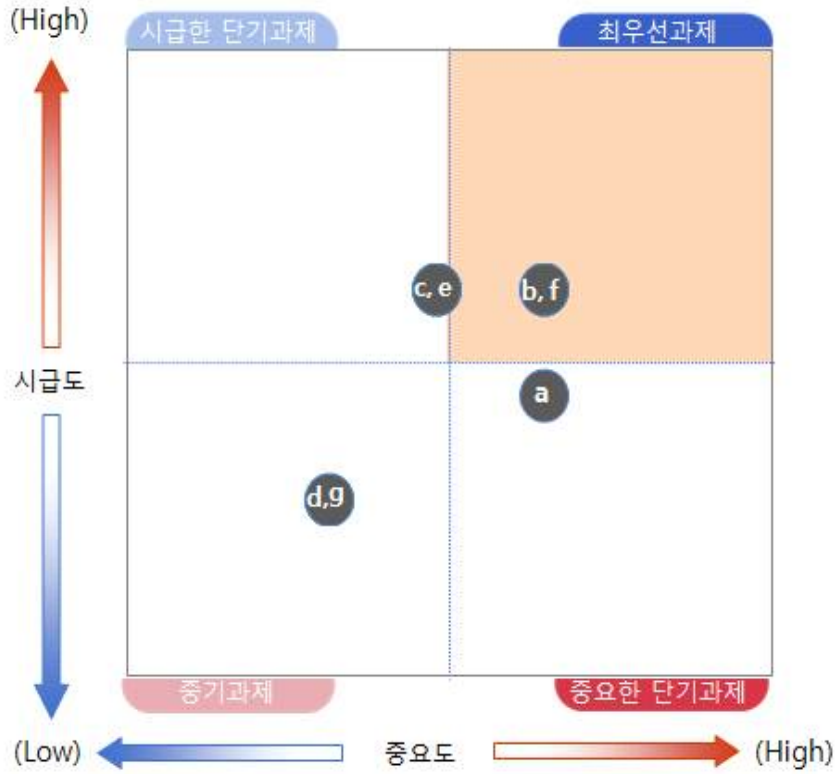
○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 확보 노력 강화

- 제시된 성과지표와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성과지표에 대해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제시된 목표치가 “경영평가 PCSI 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를 적용, 100점 수준의 목표치 설정” 등과 같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산출됨으로써,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 곧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과 해당 분야의 경향, 해당연도 기관의 내외부적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표치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성화 지표를 기본 성과지표로 전환

- 새로 개발된 특성화 지표인 ‘예술가의집 운영적절성’이나 ‘예술지원정보만족도’는 기존에 제시된 성과지표가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와 기존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데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인 만큼, 이를 특성화 지표로 둘 것이 아니라 기본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특성화 지표의 내용 또한 기존 성과지표보다 본 사업의 목적과 이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만큼, 이를 성과 지표화 하는 것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사업목적과 세부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	●	3
계획	b	**지역 및 타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	1
계획	c	성과지표 재조정	●	●	3
집행	d	예산집행률 제고노력 강화		●	6
집행	e	모니터링 체계 개선		●	3
성과	f	**목표치설정의 합리적 근거확보 노력 강화**		●	1
성과	g	특성화지표를 기본 성과지표 전환		●	6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5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105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공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 거점 확충 및 창작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1년 ~ '12년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26.3억 원

○ 지원대상 : 예술인(공간운영단체) 및 국민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민간보조(정액지원), 다년도 지원, 사업 소요예산 일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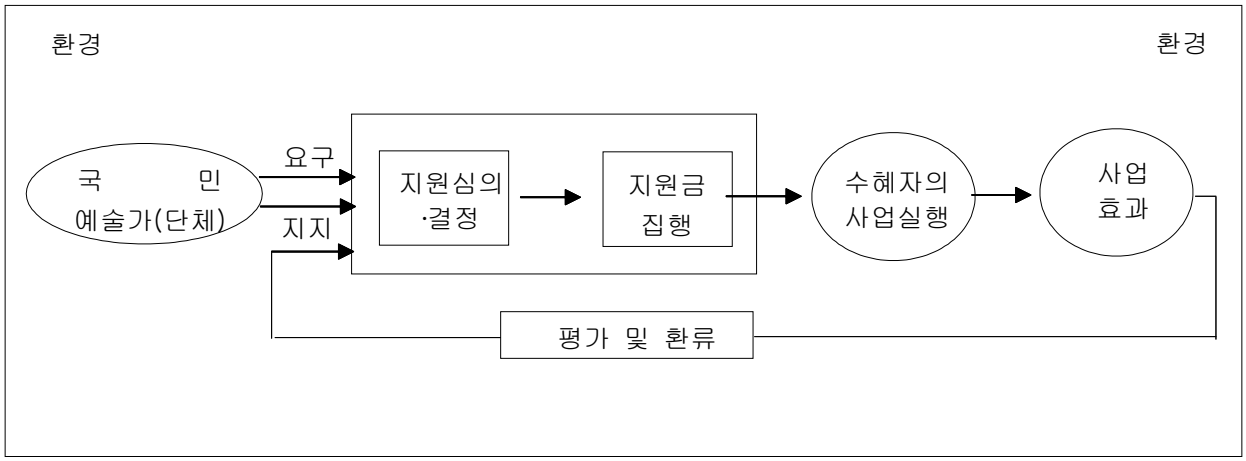
○ 사업시행 주체 : 공간운영단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 (A)	'13 예산 (B)	증감 (B-A)	%
□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2,630	2,630	2,400	△430	△8.8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추진체계도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대상 만족도 (점)	목표	-	83.7	84.7	83.8	○ 최근 3개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 76.2% X 1.10 = 79.2%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0.0점	○ 지원공간 만족도조사 (기재부 PCSI 조사결과)
	실적	82.9	68.5	77.1	80.2		
	달성도 (%)	-	81.8	91.0	95.7		

공간가동률 (%)	목표	-	67.6	75.7	79.2	ㅇ 최근 3개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 72.0% X 1.10 = 79.2%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0.0점	ㅇ Σ(공간가동일(연습일 포함)/365일) ÷ 공간 지원건수 (성과보고서 집계)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 부여 산식 적용
	실적	66.3	68.8	80.8	86.7		
	달성도 (%)	-	101.8	106.7	109.5		
평균 창작작품수 (건)	목표	-	-	134.1	160.9	ㅇ 최근 3개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 146.3건 X 1.10 = 160.9건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0.0점	ㅇ 전체 창작품수(기획 프로그램 공연·전시 횟수) ÷ 지원사업 건수(성과보고서 집계)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 부여 편차산식 적용
	실적	120.0	121.9	197.0	208.3		
	달성도 (%)	-	-	146.9	129.4		
평균 관람객수 (명)	목표	-	-	6,753	12,689	ㅇ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0.0점	-지원사업 전체 관람 건수 ÷ 지원사업 건수(성과보고서 집계) -경영실적평가 목표 부여 편차산식 적용
	실적	-	6,139	11,535	18,061		
	달성도 (%)	-	-	170.8	142.3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 창작지원사업과 지원중복성 방지 (예산집행기준의 공간전용 20% 상한선 변경)	■ 지원금의 공간 운영비 사용범위를 현행 20% 범위 내에서 100%로 확대(제한 철폐) -2012년 지원대상 사업에 적용 및 안내(' 12. 9. 12 공문 발송) -2013년 공모사업계획 수립시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사업' 개선하여 반영 * 지원항목 : 공간별 특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간 운영에 사용하는 경비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정량지표 이외에 시설운영관리 상의 -상시적 문제점을 객관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	■ 특성화지표 개발 및 관리 -평균 일자리 창출 실적 : 예술전용공간의 지원을 통해 상근 인력 고용이 활성화되고 해당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측정 -평균 참여예술인 수 : 예술인의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지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이 해당분야에 끼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분석
	■ 전용공간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집행정산 서비스체계 보완	■ 보조금 정산 컨설팅 전담 인력 활용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컨설팅 개최 시 보조금 정산 컨설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사업의 특정분야 편중방지를 위해 배분 비율 상한선 마련

□ 참고 사항

○ 2013년 문학창작집필실공간지원,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사업 본심 진행 중(2013.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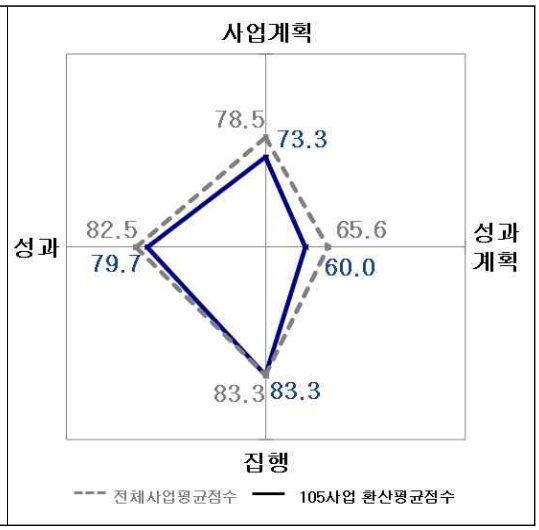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3.3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3.3점, ‘성과’ 79.7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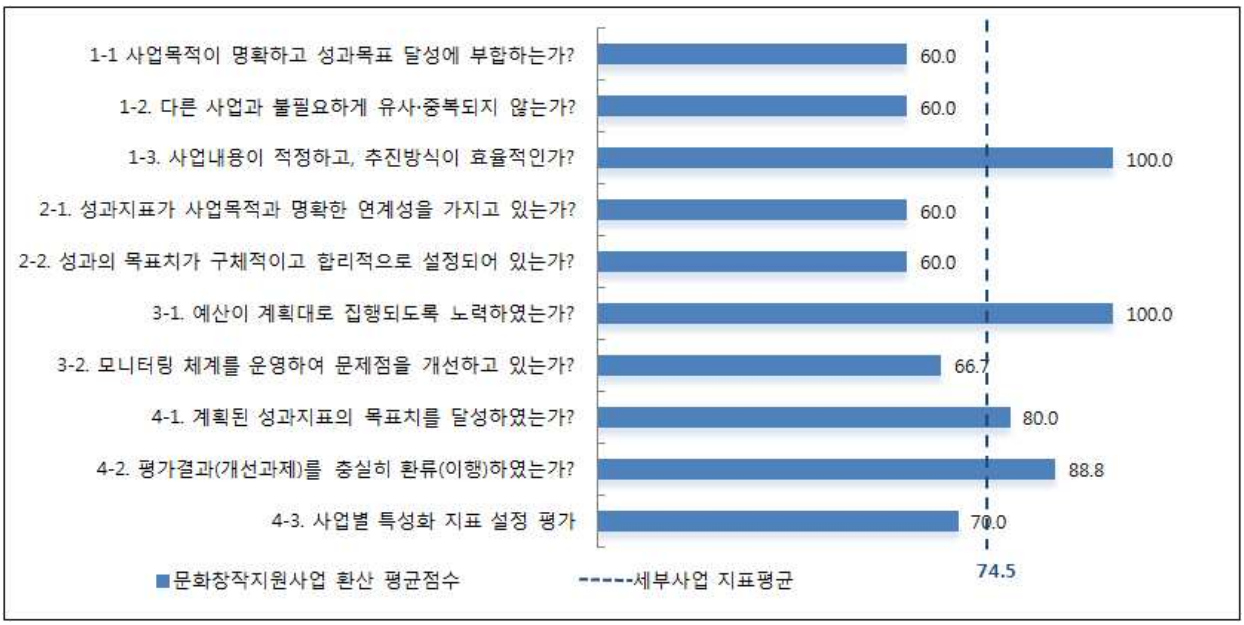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집행(+0.0)영역은 일치된 반면, 사업계획(-5.2), 성과계획(-5.6), 성과(-2.8)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3.0	60.0	73.3
	1-2(5점)	3.0	60.0	
	1-3(5점)	5.0	10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79.7
	4-2(10점)	8.9	88.8	
	4-3(10점)	7.0	7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4.5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예술전용 공간 활성화 지원은 ‘비전 2015’ 전략목표 및 14대 전략과제를 통해 예술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현장 지원강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작지원의 정책체계를 갖춰 사업목적에 적합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자율적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다년 지원방식 도입, 예산집행 기준의 변경 등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기존 실적 기준치를 상회하는 도전목표를 설정하고 대부분 실적의 초과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매해 진일보 하는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표에 대한 질적, 양적 성과측정치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 근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계량화 측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측정 기준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시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사 중복지원 문제 및 특정장르 편중지원 문제 등 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장르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일괄 적용된 성과기준 등 일부 모호한 실적지표의 기준 또한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공연·전시 발표 공간 확보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활동 거점 및 창작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분야별 예술창작활동활동은 물론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연·전시의 공간을 확충하여 예술의 유통 전 단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순수문화예술 지원책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창작육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목표인 '창작활동 10%성장' → 전략목표인 '예술창작 역량 강화' → 전략과제인 '예술현장 지원강화' 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작 지원체계를 갖춰 사업목적에 적절히 부합함
- 아르코 Mission과 중장기 계획 '비전 2015'에 따른 4대 전략목표 및 14대 전략과제를 통한 정책 일관성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지극히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할 경우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화예술분아의 투자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에 따라 위험부담을 집단적으로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다원예술매개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고, 지자체, 유사 지원기구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업으로 주류예술계에 비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부정적 측면]

- '예술창작 거점공간 확충 및 운영활성화'라는 성과목표와 같이 예술전용공간 소유 및 임차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 목적을 같은 사업이나, 이 또한 결국 창작활동 활성화라는 본질적 정책방향에 기인된 것임을 감안, 단순 공간지원에서 보다 심화된 정책 연계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창작 및 발표의 거점을 확충하기 위함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밝히고 있어 유사 중복에 대한 자율적 통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이 판단됨

- 또한 사업의 운영방식의 자체가 지자체 경상보조(상주단체)/민간 경상보조(예술전용공간)로 확연히 구분되어 중복의 소지가 없음
-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과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업이므로 사업공고 시부터 지원신청자격을 배타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혹여 중복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신청내역의 공유를 통해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배제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사업과의 차별성 이 제시되었는데 본사업의 취지나 성격으로 볼 때 상주단체 육성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한정한 대비만으로 유사중복의 소지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한 차별성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임

[개선제안]

- 2년간 '공간운영에 사용 경비'로 장기 지원받는 본 사업 수혜단체가 타 지원기관에는 개별적인 단일작품으로 추가 지원받는 사례 등 다양한 중복 지원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중복지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일괄 불가 판단하는 것도 본래의 지원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허용과 불가의 기준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기초사업별 4분류를 통해 장르별로 사업별로 효율적인 지원분야로 구분되어 원활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고, 다년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문화예술계의 현실 여건이 반영된 효율적인 지원방식을 취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사업내용의 적정성, 재원의 배분 등 업무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에서도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수혜대상자 선정에 있어 창작 및 발표가 가능한 예술전용공간을 운영하는 예술인 및 단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이나 기업에서 운영되는 공간을 제외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함

[부정적 측면]

- 수요예측이 『2012 공연예술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기반한 민간예술전용공간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으며, 민간공연장의 기획공연 평균공연건수와 객석점유율을 통한 수요예측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절하지 않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목적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은 명확한 개념적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 전략목표에도 적절히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로 제시된 만족도, 공간가동률,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 관람객수 등은 예술창작거점 공간확충 및 운영 활성화라는 성과목표에 부합하며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성과지표는 또한 공간 활성화 사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평균 창작작품수', '평균 관람객수' 지표를 신설하여 공간 운영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의 중요성을 강화시킴

[부정적 측면]

- 장르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각 이질적 장르들의(문학, 시각, 연극, 무용 등) 공간가동률 일률 적용으로 인한 부적합성으로 성과평가 기준의 모순이 도출될 우려가 있어 성과지표의 보다 정교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문학의 경우 공간가동률의 의미가 다른 예술장르와 달라 직접적 비교가 어렵고 이를 다른 장르에 실적 합산할 시 산출정보의 왜곡현상이 우려되어 보다 적절한 지표설정이 요구됨

[개선제안]

- 공간가동률 기준의 차별화 적용(문학창작공간과 공연장 가동률 상이)과 평균 관람객 기준의 모호함, 수혜대상 기관에서 통보된 실적위주의 과다산정 방지책 강구 등을 포함한 합리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설정지표는 최근 3개년도 실적 기준치에 110%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여 합리적인 도전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도 사업결과가 나온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 시작 전에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사업의 경우 과거 3개년의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 평가방식을 적용해 다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2011년도 계획목표와 달성목표의 과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목표치 과소책정 등 수요측정의 오류가 있는지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목표치 설정에 있어 특정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원대상 만족도의 경우 2012년 목표치(83.8)가 2011년 목표치*87.1)보다 오히려 낮게 제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3년간 예산 대비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12년도 분기 집행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종합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분기별 집행계획 대비 실 집행의 다소 편차는 있지만 최종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어 자금 우선순위에 의한 편차로 이해됨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보조사업자의 포기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이 발생함. 지원대상의 상황에 따라 사업일정 변경, 사업지연 및 사업취소 등 다양한 외부변수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도 말에 진행되는 사업의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기획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임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모니터링 체계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별 현장평가, 분야별 전문가 초청 의견수렴 등 상시 모니터링과 심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환류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별 교부-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개별 지원사업 평가단, 단위사업·세부사업 평가단 운영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 전년도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등의 피드백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사업추진 단계별 ‘2012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용관리 설명회’, ‘담당자 모니터링’, ‘사업운영실태 현장평가’, ‘예술사랑방 릴레이토크를 통한 의견수렴’, ‘심층성과보고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차기년도 사업지침 수립 및 추진 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간전용 20% 상한선 변경 등 사업 개선의 노력이 엿보임

[개선제안]

- 지원당자사 이외에도 향후 불특정 수혜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지원환경의 현장 의견을 담는 모니터링으로 추가 보완하는 것을 제안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계획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는 전체 평균 121.3%로 모든 기준에 충족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지원대상 만족도	77.1	80.2	104.02%
• 공간가동률	79.2	86.7	109.47%
• 평균 창작작품수	160.9	208.3	129.46%
• 평균 관람객수	12,689	18,061	142.34%
소계			121.3%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창작지원사업과 지원중복성 방지
(예산집행기준의 공간전용 운영비 상한선 20% 변경)

[긍정적 측면]

-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사업과 창작지원사업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신규사업공모계획을 변경하는 등 지원금 활용방안을 설정함
- 예산집행 기준의 공간전용 운영비 상한선 20% 폐지조치 등은 문화예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②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 정량지표 이외에 시설운영관리 상의 상시적 문제점을 객관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

[긍정적 측면]

-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실적, 참여예술인수 지표설정은 시대 트랜드를 반영한 우수한 평가지표 개발사례라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평균 일자리 수나 참여예술인 수는 질적 성과라기보다는 양적성과라고 판단되어 효과성과 효율성 등의 내실보다는 자칫 실적만능 위주의 외형적 요소에 치중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전용공간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집행정산 서비스체계 보완

[긍정적 측면]

- 컨설팅 전담 인력제를 도입하여 집행정산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돋보임

[부정적 측면]

- 컨설팅 운영이 기존 설명회나 상담기능을 다소 보강된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며, 자칫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요구되며 각종 절차에 대한 간소화된 프로세스 구축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 연극장르에 과도한 편중지원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 마련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전용공간을 제외한 타분야의 지원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연극분야 편중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조정 등 일부 개선의 노력이 보임

[부정적 측면]

- 연극분야의 50%편중으로 향후에도 수요신청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여 신청결과 배분방식의 신중한 검토와 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평균 일자리 창출 실적

[긍정적 측면]

- 일자리 창출실적과 예술인 참여에 대한 지표는 본사업의 운영취지와 더불어 시대 트랜드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시행 초기 단계로 목표치 설정 기준에 대한 모호함은 있으나 최근 실적 대비 110% 도전 목표를 설정하여 적절히 운영 중임

[부정적 측면]

- 일자리 창출지표 중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는 것은 공연예술분야의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예술창작역량 강화라는 취지와 걸맞지 않을 수 있음. 예술창작 지원에 직접적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 업무영역이 필요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무가 되어야 실질적인 창작 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개선제안]

- 기존 3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보다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본 지표성격에 부합될 있도록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평균 참여예술인

[긍정적 측면]

- 참여예술인에 대한 공간별 활동사항을 양적으로 계량화 하는 시도로 긍정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시행 초기단계로 목표치 설정 기준에 대한 모호함은 있으나 최근 실적 대비 110% 도전목표를 설정하여 적절히 운영 중임

5. 개선과제

□ 계획

○ 다양한 사례별 중복지원에 대한 허용(체계적인 기준 재설정)

- 2년간 '공간운영에 사용 경비'로 장기 지원받는 본 사업 수혜단체가 타 지원기관에는 개별적인 단일작품으로 추가 지원받는 사례 등 다양한 중복 지원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중복지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일괄 불가 판단하는 것도 본래의 지원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허용과 불가의 기준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가 기준 명확화

- 공간가동률 기준의 차별화 적용(문학창작공간과 공연장 가동률 상이)과 평균 관람객 기준의 모호함 및 수혜대상 기관에서 통보된 실적위주의 과다산정 방지책 강구 등을 포함한 합리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집행

○ 모니터링 활동 개선(불특정 수혜 대상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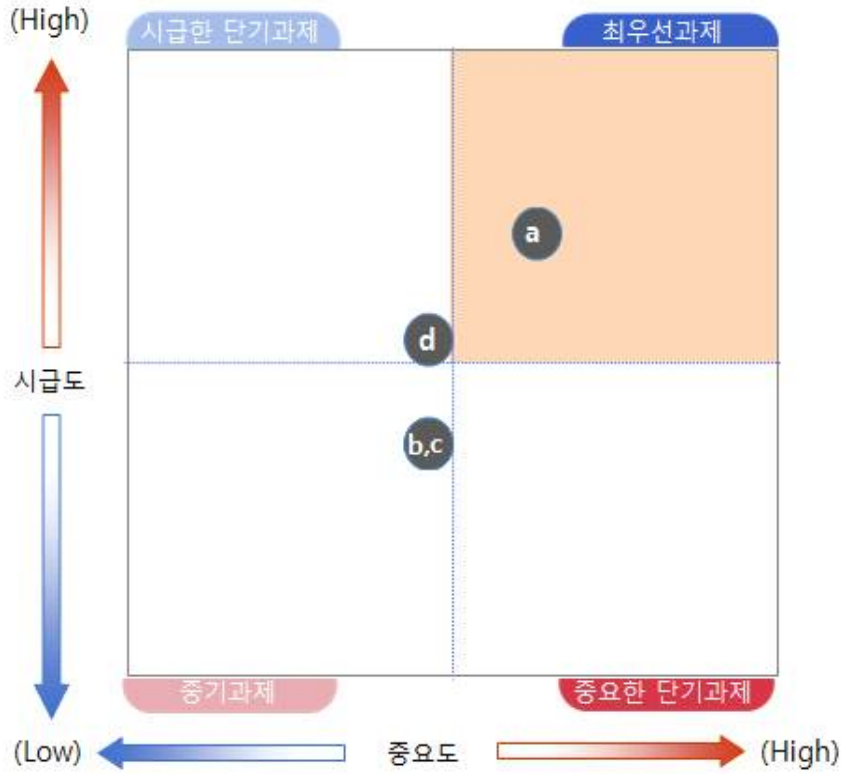
- 지원대상자 이외에도 불특정 수혜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지원환경의 현장 의견 수렴하고 이를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모니터링 추가 보완하는 것을 제안함

□ 성과

○ 지표성격에 부합하는 업무영역 설정(일자리 창출실적 지표에 맞는 업무영역 기준 재설정)

- 기존 3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보다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본 지표성격에 부합될 있도록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다양한 사례별로 중복지원 허용(체계적인 기준 재설정)**	●	●	1
계획	b	평가 기준 명확화	●	●	3
집행	c	모니터링 활동 개선 (불특정 수혜 대상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추가)		●	3
성과	d	지표성격에 부합하는 업무영역 설정		●	2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6 예술행사지원

1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106 예술행사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축제 및 기획행사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예술 향유 저변 확대를 도모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 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4,600백만 원

- 공연예술행사지원 : 4,100백만 원
- 시각예술행사지원 : 500백만 원

○ 지원 대상 : 행사주관단체(협회, 조직위원회, 재단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지원조건 : 사업수행단체 자부담 10% 이상, 평가에 의한 지원 규모 조정

○ 사업시행 주체 : 전국단위 범주의 공연예술, 시각예술분야 예술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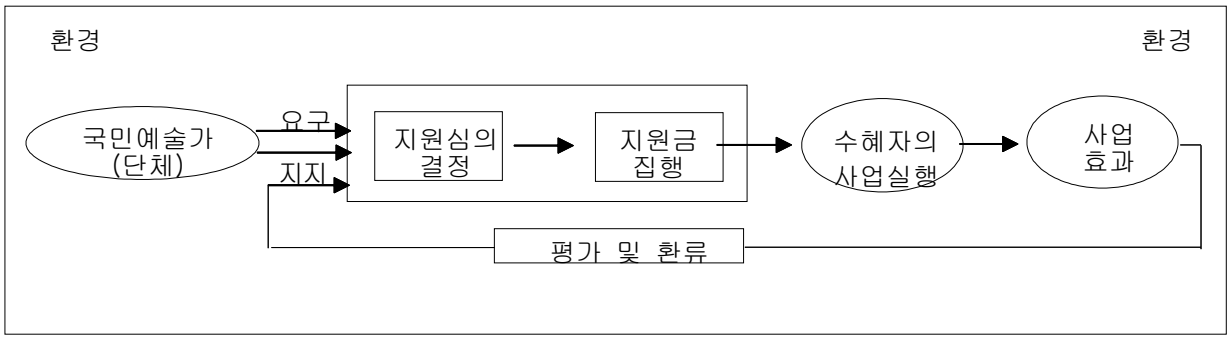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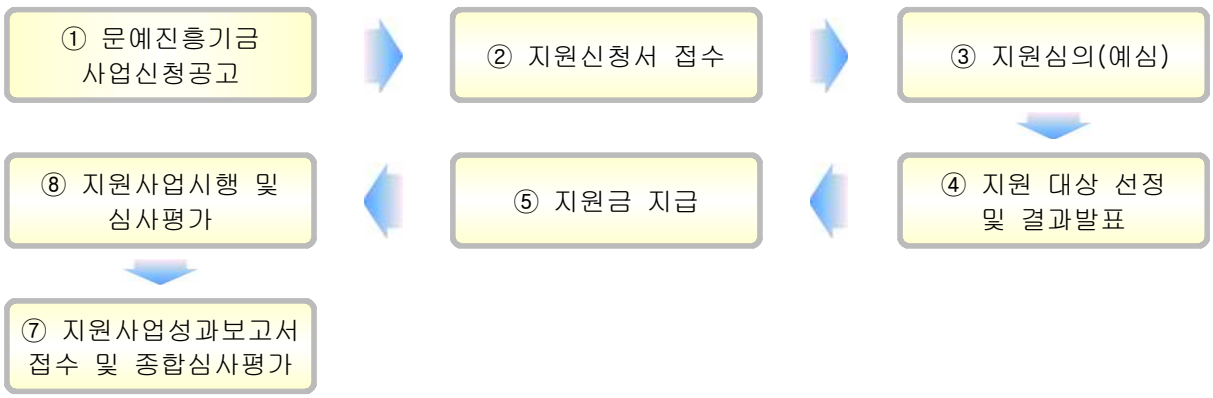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 (B-A)	%
□ 예술행사지원	5,950	4,600	4,820	220	104.8
■ 공연예술행사지원	4,900	4,100	4,420	320	107.8
■ 시각예술행사지원	1,050	500	400	△100	80.0

□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개요



○ 지원사업 세부추진절차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 대상 만족도 (점)	목표	-	-	80.0	86.8	85	○ 고객만족개선도는 전년도 실적이 미흡임을 감안, 양호 수준(110%)으로 설정	○경영실적평가 고객만족 개선도 산식 적용
	실적	-	-	80.8	76.9	86.0		
	달성도	-	-	-	-			
평균 창작 작품 수 (건)	목표	-	-	-	14.21	17.79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최상위평점등급인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환산평점 : 100.0점)	○지원 사업 전체 창작 작품 수 ÷ 지원 사업건수 ○경영실적평가목표부여 산식 적용 ○목표와 실적치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각각의 목표치 및 실적치에 예산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산정(아래 세부산식표 참조)
	실적	-	-	12.92	14.96	22.3		
	달성도 (%)	-	-	-	-	125.4		

평균관람객수 (명)	목표	-	-	-	39,350	18,758	ㅇ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 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0.1점)	ㅇ 지원 사업 전체 관람객 수 ÷ 지원 사업 건수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산식 적용 ㅇ 목표와 실적치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각각의 목표치 및 실적치에 예산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산정 (세부 산식표 별첨)
	실적	-	-	35,765	39,570	22,784		
	달성도 (%)	-	-	-	-	121.5		

□ 참고 사항

ㅇ 당초 목표치 대비 수정치 (단위: 백만원,%)

기초사업	지표명	목표/실적	연도별 당초 목표 및 실적					2012년도 수정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정치	통합	예 산 (백만원)	가중치(%)
공연예술행사	평균창작작품수(건)	목표				14.21	15.82	14.11	17.79	4,100	89.1
		실적			12.92	14.38	35.66	31.80	22.3		
	평균관람객수 (명)	목표				39,350	41,336	36,789			
		실적			35,765	37,578	50.459	44,908			
시각예술행사	평균창작작품수(건)	목표	2011년 국고→기금 이관 사업			79.5	198	21.58		500	10.9
		실적				180	129.6	19.8			
	전시건당관객수 (명)	목표	2011년 국고→기금 이관 사업			1,050	7,260	726	18,758		
		실적				6,600	6,591	659	22,784		

* 2012도 목표치와 실적치는 기초사업중심으로 당초 설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되, 2011년 목표치는 시각예술행사의 데이터를 반영치 않고 설정된 관계로 2012년 공연예술행사와 시각예술행사를 통합한 예술행사지원사업의 목표치의 왜곡이 심한 상태임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12년 단위사업별 예산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합목표치를 수정함

ㅇ 수정 목표 및 실적치(통합) 산식

사업 목표치 및 실적치 = [공연목표치(실적치) x 가중치(4,100/4,600x100) + 전시목표치 (실적치) x 가중치(4,100/4,600 x 100)] ÷ 2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 (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	■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기법 개발 -수요예측을 단순히 지원신청 건수로만 보는 것은 트렌드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행위임	■ 정량적 방식으로는 신청 건수와 예산 수요추이를 반영한 '시계열 분석방식'과 정성적 방식으로는 책임심의위원워크숍 등을 통한 '전문가의견활용 방식'을 적용함
	■ 사업에 대한 역할 재정립 (유사사업과의 지원방식 차별화) -사업성격과 사업대상, 사업범위에서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이 필요함, 지역별로 분배하는 예술행사지원기금사용방식을 바꿔 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예진흥기금 상징축제(예술축제)를 개발하여 개인별, 지역별 지원대상자를 본 축제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 모색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은 창작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급적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 사업에는 지원을 피하고 있음 ■ 불가피한 중복 사업의 경우라도, 예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술창작중심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교부시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있음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합리성 확보 미흡 -성과지표 '지원 대상만족도', '평균창작작품수', '평균관람객수'와 성과목표인 예술단체 창작역량 제고 간 일정한 상관성 부족, 평가지표 간 인과관계, 상관관계 추적을 통한 합리성 확보 필요	■ 지표 '평균창작작품수'는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역량 강화의 활성도를 판단하며 '지원대상'의 경우 예술현장 실태와 여건의 반영을 통한 예술인의 호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창작역량 제고에 상관성을 가짐 ■ 지표 '평균관람객 수'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목표와 상관성을 가짐 ■ 다만, 사업목적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보완지표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관람객 만족도'를 특성화지표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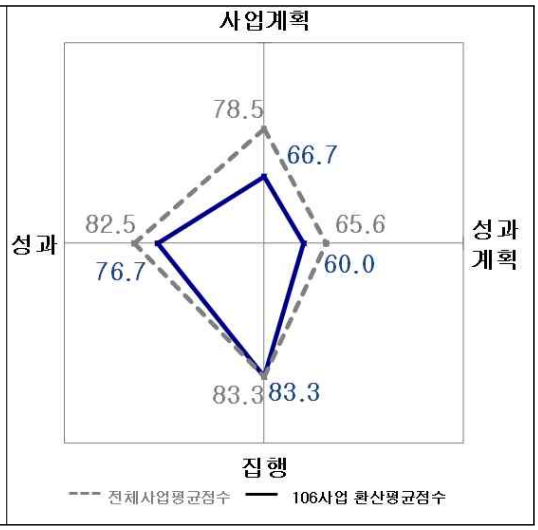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예술행사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66.7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3.3점, ‘성과’ 76.7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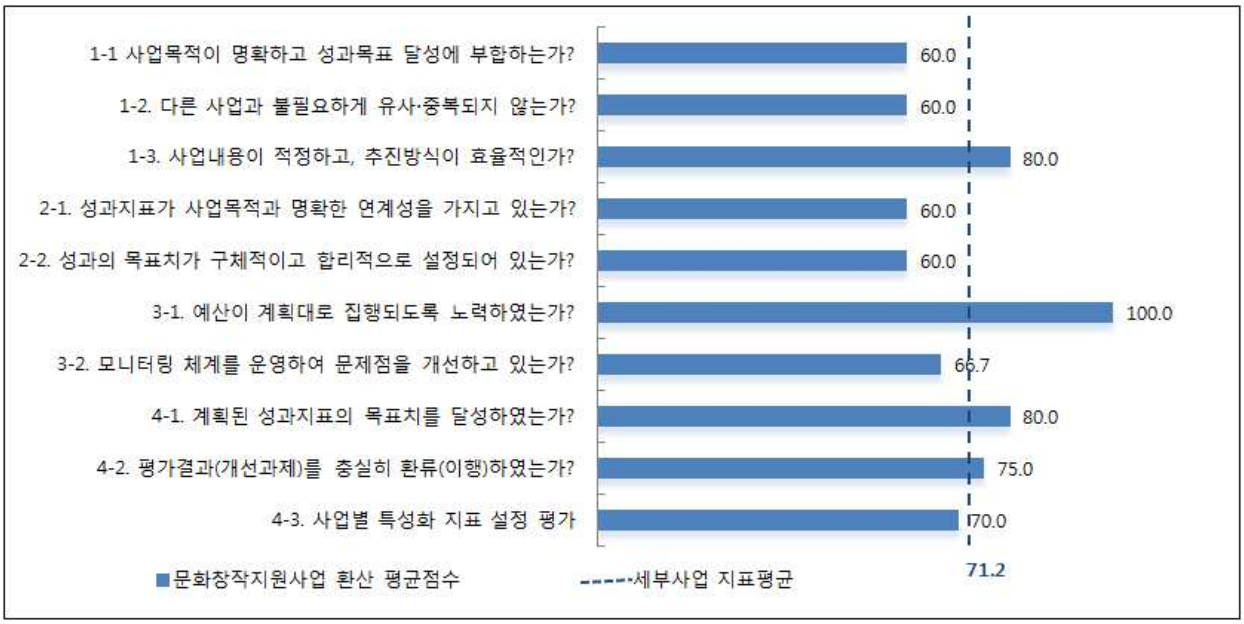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집행(+0.0)영역은 일치된 반면, 사업계획(-11.9), 성과계획(-5.6), 성과(-5.9)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3.0	60.0	66.7
	1-2(5점)	3.0	6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76.7
	4-2(10점)	7.5	75.0	
	4-3(10점)	7.0	7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예술행사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1.2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예술행사 지원은 ‘비전 2015’ 4대 전략목표 및 14대 전략과제를 통해 예술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현장 지원강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작지원의 정책구조를 갖춰 사업목적에 적합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 현장은 물론 국민 여가 및 레저 문화 활성화 등 축제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축제의 유사 중복지원을 최소화 하고 지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술창작 중심의 배부기준 설정, 해당 전문가를 통한 보다 합리적인 심의기준과 절차의 설정 등 다양한 수요예측의 자구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의 노력이 돋보임. 모니터링 체계 및 환류 시스템 역시 타 지원 사업 대비 대체적으로 효율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성격과 취지가 다양한 축제지원의 특성상 지원기준을 지역별, 장르별, 연차별,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별 등 각기 특성에 맞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재정자립도 및 수지율 또한 평가기준의 객관적 타당성이 미흡해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아르코 Mission과 중장기 계획 '비전 2015'에 따른 4대 전략목표 및 14대 전략과제를 통한 정책 일관성으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순수문화예술 지원책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창작육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목표 창작활동 10%성장→전략목표 예술창작역량 강화→전략과제 예술현장 지원강화 등 체계적인 창작지원체계를 갖춰 아르코 설립목적에 부합함
- 지역문화 활성화정책 및 레저문화 활성화에 따른 특징적인 지역문화 환경의 변화가 지역문화 행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동인하였으며 아울려 국민들의 공연 예술행사 참여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수준 낮은 축제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비영리 영역의 예술행사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공공재원의 투입이 필요함

[부정적 측면]

- 수준 낮은 지역행사 양산의 방지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업지원과 축제의 질적 수준 제고란 변수사이의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질적 수준제고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대규모 축제의 경우 운영 특성상 일부 유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사항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술창작 중심으로 교부금 배부기준을 설정하는 등 적절한 노력이 돋보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거나 응모한 동일사업이 국고 또는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시각예술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기반 대표 축제와의 중복 없이 차별화된 전국규모 우수기획 전시 행사 지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일부 중복수혜를 받는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15건)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모호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개선제안]

- 수준이하의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으로 무분별한 지역축제 남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심사를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전국규모의 예술행사와 지역기반 축제행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상호 차별성을 반영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은 전국규모 공연(시각)예술행사를 기반으로 수월성 높은 예술행사를 개최토록 지원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창작여건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연예술행사지원과 시각예술행사지원 사업으로 적절하게 구성됨
- 총사업비의 최소 10%를 자부담하는 등 재원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개방형 공모, 책임심의위원제를 거쳐 선정,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적절한 환류체계 등 사업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매해 동일행사 신청 및 지원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지속지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과 지원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개선제안]

- 행사 성격에 따라 지역별, 장르별, 연차별 등 지원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목적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연계성은 명확한 개념적 연계성과 전략목표에 부합되고 있음

- 본 사업은『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는 사업목적을 가짐. 예술단체 창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평균 창작 작품 수', ' 지원 대상 만족도', 국만의 문화예술향수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한 성과지표로 '평균 관람객 수'는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축제의 경우 일반적인 예술문화공간 및 예술인 지원의 형태와 같이 많은 창작물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창작품 생산이 47개 사업에 2,544건이라는 많은 수치가 말해주듯 지역축제의 행사성 레퍼토리 공연은 그 자체가 예술단의 고유작품으로 창작의 의미도 있을 것이나, 통상적 개념의 무대창작 활동이라 평가받기는 어려워 생산수치를 인정하기 곤란함. 이러한 것을 시각분야와 동일한 관점에서 측정하여 오류가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어 보다 정교한 지표 측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특성과 기능적 차이가 반영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해당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도 사업결과가 나온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시작 전에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 대상 만족도가 전년도 실적이 미달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양호수준을 목표로 하여 고객만족도 개선도 110.5%를 설정함

[부정적 측면]

- 지원 대상만족도 목표는 연차별 평균수치의 원인에 기인한 듯 하지만 2011년도 86.8 →85.0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적 86%로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타 지표대비 점진 상승의 실적 추이에는 역행되어 면밀한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 이러한 방식은 목표치 설정에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평균창작작품수와 평균관람객수는 전년대비 110% 상향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왜 이러한 상향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어 집행되었으며, 총 사업예산 중 외부전문평가단체 용역계약 낙찰차액을 140만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을 100% 집행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공연예술행사지원	4,100	4,099	99.98%
시각예술행사지원	500	500	100.00%
소계	**4,600**	**4,599**	**99.98%**

- 예산 집행률은 2010년 98.7%, 2011년 94.2%, 2012년 99.98%로 전년대비 집행률이 증가됨
- 지원 대상 단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개시년도 전 12월 중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사업타당성,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모니터링 체계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이며 외부 전문기관 평가용역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환류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실제로 문예기금사업 모니터링, 외부전문가 평가용역 모니터링, 예술인 현장의견 모니터링,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국가지원시스템 활용능력 미흡, 지원금 교부절차 숙지 미흡)을 해결한 실적이 인정되며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있음

[개선제안]

- 공연예술행사와 시각예술행사는 운영 성격이 상이하여 모니터링 운영 또한 각기 분리 운영하여 장르별 현장실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계획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는 전체 평균 116%로 모든 기준에 충족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평균창작 작품 수(점)	17.79	22.3	125.4%
▪ 고객만족도(점)	85	86	101.2%
▪ 평균관람객수(명)	18,758	22,784	121.5%
소계			116.0%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예측기법 개발

[긍정적 측면]

- 수요예측을 단순히 지원신청건수만 보지 않고, 다양한 수요예측 기법 개발에 관련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정량적 방식으로는 신청건수와 예산 추이를 반영한 '시계열 분석방식'과 정성적 방식으로는 책임심의위원워크숍 등을 통한 '전문가의견활용방식'을 적용함
- 시계열분석 및 책임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요예측의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외부용역 검토 등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임

② 사업에 대한 역할 재정립(유사사업과의 지원방식 차별화)

[긍정적 측면]

- 지원방식 중복성 방지, 문진기금 상징축제 등의 의견에 대해 일부 불가피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판단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모니터링결과 피드백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강화

[긍정적 측면]

-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시스템은 타 사업 대비 적극적이고 우수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모니터링 시행결과에 다른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평가전문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사업평가 모니터링 실시 및 내부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니터링은 평가위원의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평가위원 사전회의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별 전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2012 사업계획을 검토함. 지원사업별로 5인의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대비 수행실적, 문제점 개선여부 등에 대해 실시하고 평가위원별로 의견서를 평가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위원 결과회의 시 평가위원 토론 및 협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고 위원회에 보고되어 차기 지원심의에 반영되도록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함

④ 대상사업 선정과정의 합리성 확보

[긍정적 측면]

- 지원 확정이후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중도탈락 방지책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돋보임

- 국가지원시스템을 통한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중도포기여건 발생 조기 점검 및 원천제거를 통해 중도포기 사업 발생률 0%를 달성함

⑤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합리성 확보

[긍정적 측면]

- 전략적 차원의 지표와 목표의 연계성 보완을 위한 외부용역평가를 통해 현행 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목표 관련사항을 심층 반영하는 노력이 돋보임

- ‘사업재정자립도’와 관객 향유권 확대에 부합되는 실질적 지표인 ‘관람객 만족도’를 특성화 지표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표와 사업 목표간의 연계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사업재정자립도

[긍정적 측면]

- 사업별 특성화 지표로 관객만족도에 대한 외부기관 측정결과 반영은 본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바람직한 평가지표라 판단됨
- 리커트 5단 척도의 우수단계로 기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절히 운영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지원사업 성격상 재정자립도 평가요소가 본 사업 취지에 타당한지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검토결과가 타당한 경우라면 흔히 재정자립도 또는 수지율에 대한 측정 기준은 전체 수입(기금, 입장수입, 후원 수입 등) 대비 지출률로 측정하고 있는데 기금지원액만을 제외한 예산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사업재정자립도의 경우 목표달성에 미달된 것으로 평가됨 (목표 57.15 대비 92.1%인 52.61 달성)

② 관람객만족도

[긍정적 측면]

- 본 지표는 고객만족도, 관람객수, 평균창작 작품 수 등 계량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관람개의 만족도 등 공연의 질적 가치 등을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사업 내용을 포괄하며, 측정산식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른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행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용이성, 행사의 예술적 수준, 행사진행의 완성도, 재관람 여부, 타인에게 행사 추천 여부 등 전반적인 참여만족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

5. 개선과제

□ 계획

○ 실효성있는 평가지표 개발

- 예술축제 지원 수준제고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지원심사 기준의 내실화

- 수준이하의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으로 무분별한 지역축제 남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심사를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전국규모의 예술행사와 지역기반 축제행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상호 차별성을 반영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성과지표 구체화(행사 지원기준 구체화 및 상이한 운영체계를 반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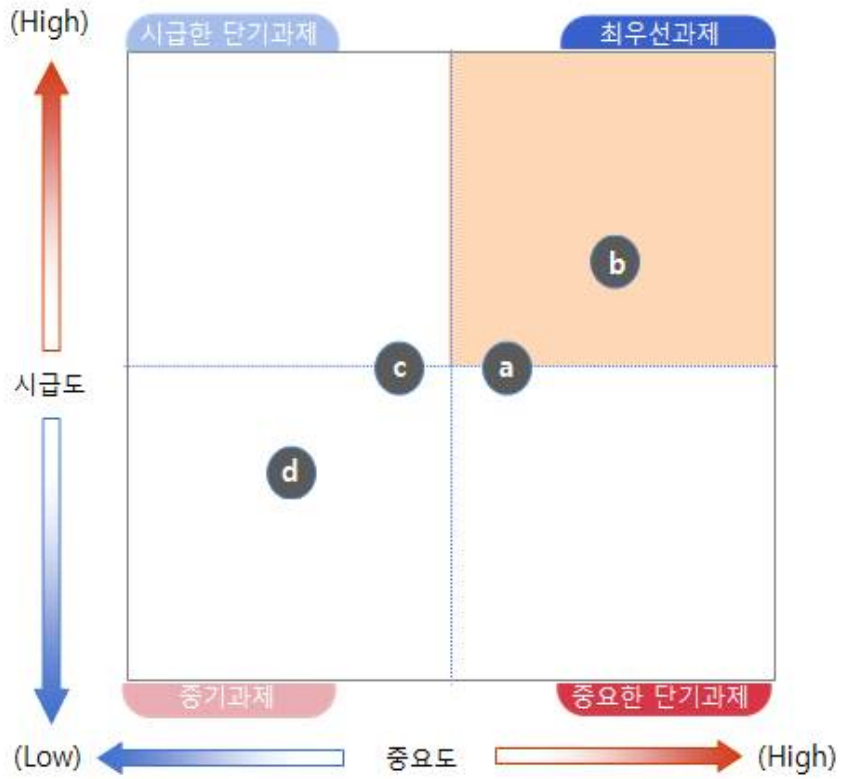
- 행사별 지원기준에 지역별, 장르별, 연차별, 지원기준 등 보다 구체화하여 균형감을 유지하고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차이를 반영한 성과지표가 필요

□ 집행

○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모니터링 분리

- 공연예술행사와 시각예술행사는 운영 성격이 상이하여 모니터링 또한 각각 분리 운영하는 것이 현장의 니즈 반영에 보다 효율적 시스템이 아닐지 검토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실효성있는 지표개발	●	●	2
계획	b	**지원심사 기준의 내실화**		●	1
계획	c	성과지표 구체화 (행사 지원기준 구체화 및 상이한 운영체계를 반영한)		●	3
집행	d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모니터링 분리	●	●	4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7 영아트프론티어지원

1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107 영아트프론티어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YAF는 우리나라 예술계의 미래를 선도할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 및 기획인력을 발굴하여 창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중견 예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함

* AYAF : ARKO Young Art Frontier의 약자로, 차세대 예술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브랜드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다년간 지원(2년)

○ 총사업비 : 9.72억원

○ 사업규모 : 1인당 연간 8백만원 ~ 1천 4백만원 지원(총 85명)

○ 지원대상

- 공모접수 연도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의 개인(초, 중, 고, 대학생 제외)
  단, 문학분야는 연령에 관계없이 등단 10년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및 문화일반 분야
- 음향, 조명, 무대, 의상, 분장 등 관련 분야 종사자
- 기획, 행정, 경영 관련 분야 종사자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2년 지원약정 : 활동계획서에 의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책정 후 분할 지원
- 창작활동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진예술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환경을 제공하고, 작품발표를 지원하는 워크숍 등 다각적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조건 : 개인별 1년차 활동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 사업시행 주체 : 개인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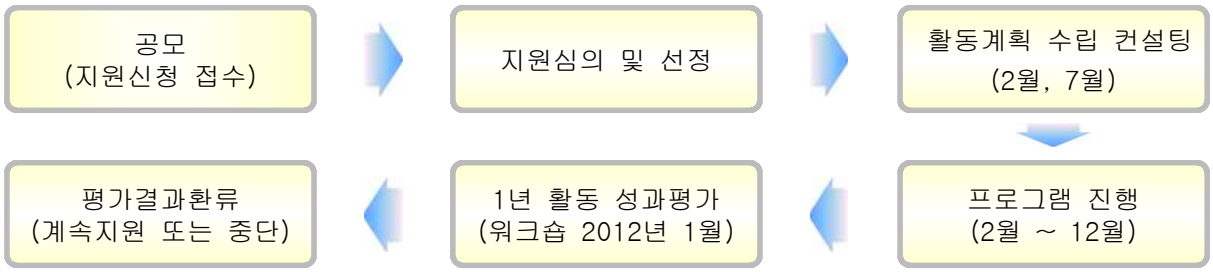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 (B-A)	%
□ 사업명					
■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	1,080	972	1,278	306	31.5%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방식



○ 사업추진 절차

- 계획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8개 분야별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
- 집행 : 사업시행 3개월 이전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및 지원금 집행계획 등을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선정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도록 교부신청상의 예술활동 계획 및 세부 항목별 예산을 계획을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사업 추진 중 일정 및 장소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여 당초 목표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컨설팅
  - · 중요한 변경이나 사업 취소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익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에 패널티 부여
- 결과보고 : 사업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 평가 :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관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심의 및 차후 연계 지원 시 반영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사업수혜자 만족도 (점)	목표	75.7	78.9	80.0	86.2	86.2	ㅇ 산출근거 : '11년 목표대비 달성도가 90%에 그쳐(전년대비 1.2점 하락) 해당 목표치 설정시 최근 4년 중 가장 의욕적인 '11년 목표 86.2를 준용함 ㅇ 목표치 산출방식 : 고객만족 개선도 - 고객만족개선도 만점(100%)을 기준으로 '11년 대비 약130% 향상된 수준의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	ㅇ 측정방법 :기획재정부 PCSI 조사 ㅇ 측정산식 :PCSI 조사 산식 중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전년대비 향상도) ㅇ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PCSI 조사결과
	실적	76.4	79.6	79.1	77.9	88.5		
	달성도 (%)	100.9	100.9	98.9	90.4	102.7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청 실적 (건)	목표	-	-	0.20	0.35	0.55	ㅇ 산출근거 :과거 3개년('09~' 11년)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 편차방법을 적용 *참고 '10년:30건÷97명=0.31 '11년:30건÷85명=0.35 ㅇ 목표치 산출방식 : 목표부여 (편차)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하여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0.4점	※ '10년 도입 신규지표 ㅇ 측정방법 -AYAF 성과보고서 수치 ㅇ 측정산식 :전체수상 및 초청 실적 ÷ 총 지원대상자수 ㅇ 자료출처 -ERP 성과보고서 계량실적 분석
	실적	-	0.11	0.31	0.42	0.58		
	달성도 (%)	-	-	155.0	120.0	105.5		
1인당 평균 창작 작품수 (건)	목표	-	-	-	10.15	11.60	ㅇ 산출근거 :과거 4개년('08~' 11)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 적용 ㅇ 목표치 산출방식 : 목표부여 (편차)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목표치 환산평점 : 100.19점	※ 11년 도입 신규지표 ㅇ 측정방법 :AYAF 성과보고서 수치 ㅇ 측정산식 : (전체 문학 창작 발표 작품 수 + 시각예술 창작전시 작품수 +공연예술창작 작품수 +다원예술 창작작품 수) ÷ 지원사업 건수 ㅇ 자료출처 : ERP 성과보고서 집계
	실적	9.62	3.65	7.65	11.42	12.04		
	달성도 (%)				112.5	103.8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table>
<tr><th>평가명
(연도)</th><th>지적사항</th><th>개선사항(실적)</th></tr>
<tr><td rowspan="4">문화부
평가
(2011)</td><td>1. 수요예측분석 강화
(우선순위 3)
o 신진예술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을 신청건수에 기대고 있어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함
⇒ 신청건수 이외에 광범위한 수요조사가 필요함</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1-1. 문헌조사</td><td>완료</td><td>■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차기 선발 대상 세분화
- 실연자, 창작자 2-Track 구분</td></tr>
<tr><td>1-2. 현장 의견수렴 확대</td><td>완료</td><td>■ 신진예술가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 접수 및 2013년 사업계획에 반영
- 현행 공모 중심의 사업방식으로는 우수한 인재의 발굴과 지원에 한계점 노출</td></tr>
<tr><td>1-3. 지역문화재단과의 공조</td><td>완료</td><td>■ 대전문화재단 사업개선 토론회 참여를 통한 신진예술가 지원모델 공유 및 확산(8월)</td></tr>
<tr><td>1-4. 예술영재 Pool 구축</td><td>추진중</td><td>■ 한국예술종합학교,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예원학교 등 예술영재 관련 교육/지원 기관과의 업무협의 진행(총 5회)</td></tr>
</table>
</td></tr>
<tr><td>2.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
(우선순위 1)
o신진예술가의 경우 잠재력과 창의력이 중요한데 반해 단순 관람객 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2-1 성과지표 개발 연구</td><td>완료</td><td>■ 기존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해당 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증
■ 신규 제시 지표에 대한 검토
- 중기 과제로 반영</td></tr>
</table>
</td></tr>
<tr><td>3. 사업에 대한 명확성 확립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우선순위 2)
o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에서 타기관의 유사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함</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3-1. 유사사업 사례조사</td><td>완료</td><td>■ 사업 차별화 방안 도출 및 기본계획 반영
-국내 공공, 민간 부문, 해외 공공 부문 유사 지원사업 사례분석</td></tr>
<tr><td>3-2. 사업개편 계획 수립</td><td>완료</td><td>■ ‘13년도 사업기본계획 수립(‘12. 11월)
-관련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Consensus Meeting 6회 개최(‘12. 8월 ~ 11월)</td></tr>
</table>
</td></tr>
<tr><td>4. 신진예술가용 모니터링 운영안 마련 (우선순위 6)
o 일반 전문집단 대상 모니터링과 신진예술가 대상 모니터링의 차별성을 둔 신진예술가용 모니터링 운영안 필요</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4-1. 차세대 예술인력관리 시스템 운영</td><td>완료
(상시 운영)</td><td>■ ‘12.3월 정식 오픈
- 총 164명의 AYAF 1, 2기의 성장 이력 관리를 위한 활동정보/프로필 관리 등</td></tr>
<tr><td>4-2. 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td><td>완료</td><td>■ 기금사업 신청서/성과보고서 등의 행정 양식 개선
- 개인별 활동 사항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 가능 항목 추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5. 종합적인 평가분석모델 개발 (우선순위 5)
o 기존에 타 기관·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사업 및 본 사업의 일반 창작지원과의 차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분석모델 개발 필요
⇒ 기관간 비교우위 평가틀 정비 및 질적평가 제고방안 마련</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5-1. 중장기 예술인력 육성 전략 로드맵 수립
(기관 7대 중점과제 중 신진예술가지원 포함)</td><td>완료
⇩
평가 모델 개발 과제 설정</td><td>■ 기관 7대 중점과제 선정
- 위원장 발표 5번째 과제(6.28)
“신진예술가의 평생후원자 ARKO,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 2013년도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전략 반영(‘12. 11월)</td></tr>
</table>
</td></tr>
<tr><td></td><td>6.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 수립 (우선순위 4)
o 신진예술가들의 사업성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td><td>
<table>
<tr><th>추진과제</th><th>이행 여부</th><th>반영실적/개선사항</th></tr>
<tr><td>6-1. AYAF 지원자의 후속 활동 평가 및 연계지원 현황 파악</td><td>완료</td><td>■ AYAF 1, 2기의 수혜기간(2년) 종료 후 타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수요 및 선정현황 실적 파악
⇒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신진예술가에 대한 연계지원 강화</td></tr>
<tr><td>6-2. AYAF Ensemble 결성 - 선정자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단체 설립</td><td>추진 중</td><td>■ 음악, 전통예술분야 중심으로 공연예술단체 구성(‘12. 12월)
- 공식 창단 연주회 확정
(‘13. 2월 올림푸스홀 / 2회 공연)
- 민간기업과의 MOU 체결 예정</td></tr>
<tr><td>6-3. AYAF 사업성과 종합 자료집 제작</td><td>완료</td><td>■ 심층 인터뷰 23명
- 스토리가 있는 활동 자료집을 통해 홍보 기능 강화
- 서면 조사를 통한 설문 및 활동 정보 업데이트</td></tr>
</table>
</td></tr>
<tr><td>국회 감사원 (2011)</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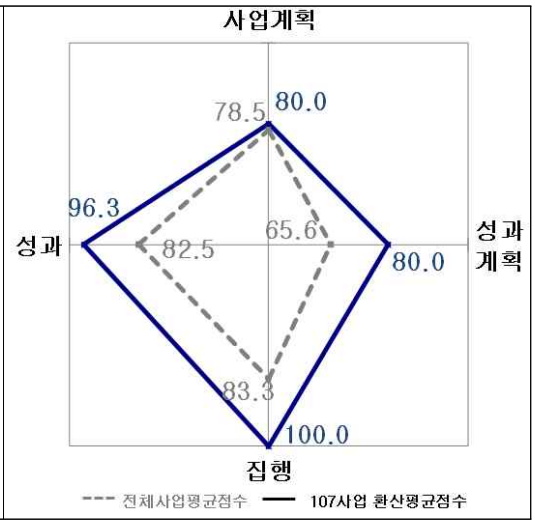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영아트프론티어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0.0점, ‘성과계획’ 80.0점, ‘집행’ 100.0점, ‘성과’ 96.3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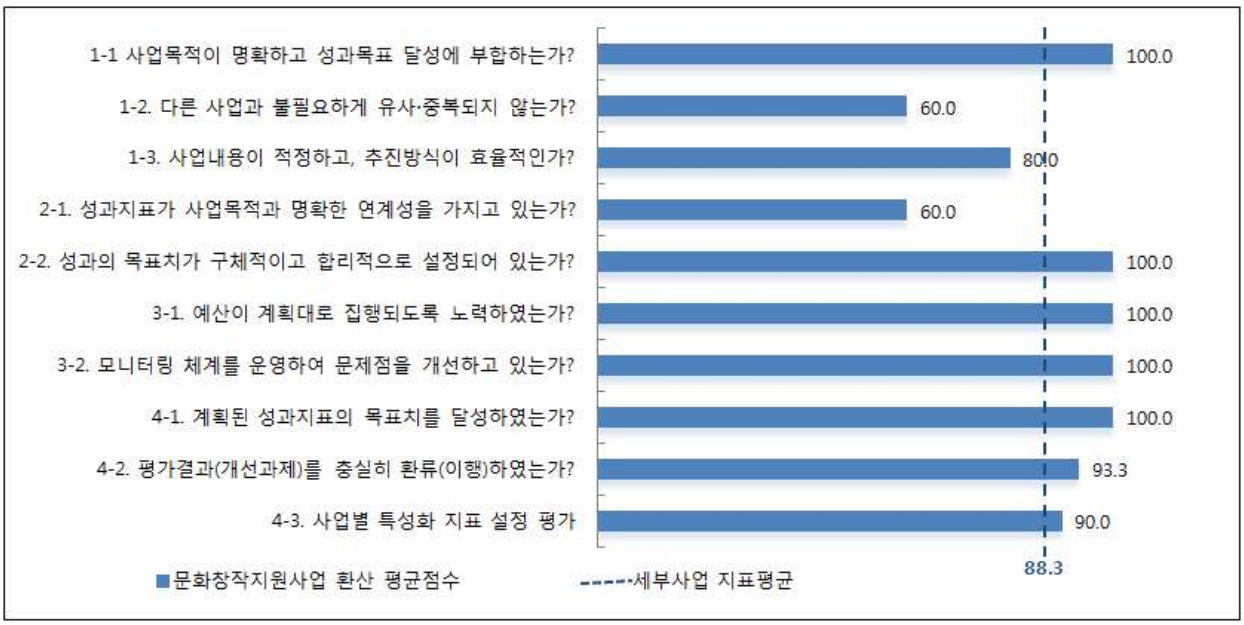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5), 사업계획(+14.4), 집행(+16.7), 성과(+13.8) 모든 영역에서 높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80.0
	1-2(5점)	3.0	6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80.0
	2-2(5점)	5.0	100.0	
집행	3-1(15점)	15.0	100.0	100.0
	3-2(15점)	15.0	100.0	
성과	4-1(25점)	25.0	100.0	96.3
	4-2(10점)	9.3	93.3	
	4-3(10점)	9.0	9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영아트프론티어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8.3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와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성과’ 항목 중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영아트프론티어지원 사업은 신진 예술가 지원육성 사업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예술현장 지원강화는 물론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합목적성면에서도 최적의 지원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에서도 각종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사업으로 인지될 만큼 운영 지원 시스템의 표준모델로 성장해 온 사업이라 판단되어 그간 실무진의 각고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인 사업이라 평가함

○ 본 사업 분야의 모범적 정착 요소는 크게 신진예술인 대상, 다양한 예술장르 수용, 단발성이 아닌 다년 지원 사업, 자기 설계형 운영시스템, 지원자 간 협업 시스템 장려 등이 주요 핵심 성공전략 포인트라 평가됨

○ 특히나 2년 지속 지원체계를 통해 창작의욕을 높이고 젊은 예술가들의 성향에 적합한 자기설계방식에 의한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축과 각종 수상실적, 타 문화행사 초청실적 등 신진예술가 작품 활동의 실질적 요소가 반영된 평가지표의 도입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적기준 운영 등 본 사업의 지원 시스템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를 높이 평가함

○ 예산 집행면에서도 예술가들의 현실여건을 감안한 활동계획의 조기 확정을 통한 지원금 집행시기 단축과 지원금 교부에 국한하지 않고 공연장과 제휴의 노력으로 무대 실연 공간 확보, 신진예술인 전용 모니터링 사이트 구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함

○ 지원예산 규모의 한정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본 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만족도, 우수한 운영 시스템, 긍정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선정비율 20% 수준에서 보다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 전체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예술가로 성장가능성 있는 신진인력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예술 및 인력을 발굴· 육성한다는 명확한 사업목표를 나타냄
- 아르코 Mission과 중장기 계획 '비전 2015'에 따른 4대 전략목표(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 및 14대 전략과제(예술인력 육성)와도 연계성이 지극히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신규 인력에 대한 진입장벽(경력미비, 재정적 취약 등)이 높은 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진예술가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 초기 정착률 제고를 위한 공공역역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략목표인 '예술창작역량' 강화의 가장 적합한 사업목적을 취하고 있어 예술현장 지원강화는 물론 재정지원 필요성에서도 이견이 없는 우수 사업이라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은 신진예술가 지원 육성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인지되고 있고, 과거부터 독보적으로 운영되어 유사 중복의 기능 폐해보다는 외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 사업으로 지명도를 높이고 있음
- 본 사업의 핵심적 성공 포인트는 신진 예술인, 다양한 예술장르, 단발성이 아닌 다년간 지원, 자가 설계형, 예술적 협업체계 장려 등의 성공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실제로 본 사업의 경우 유일하게 다년간(2년) 신진예술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활동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특정장르에 한정되지 않은 모든 기초예술분야의 신진예술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 사업과 차별성을 가짐
- 사업 수혜대상에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민간의 사업과 신진예술가라는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지원 목적과 사업추진방식, 지원범위 등이 상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이나 방식에 일부 유사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예술위원회 지원대상자의 해당 사업을 각 지역문화재단에 통지하여 사전에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2년간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진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예술 활동 유지 등 적정한 사업내용과 체계화된 사업추진 방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공공재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감소하고,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현장의 자생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된 부분에 한하여 일부지원(자부담 최소 10%)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사업방식에 있어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다년간(2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연도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계지원 제공함. 반면, 집중평가 결과 성과미흡 사업은 차년도 지원중단 및 지원 금액 삭감 등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엄격한 사업운영관리체계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수혜대상 선정은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며, 차기년도 지원 금액은 책임심의위원의 집중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함

[부정적 측면]

- 다년간 지원체제하에서 자기 설계방식에 대한 탄력적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나 탄력적 시스템으로 인한 자칫 불필요한 지원금 사용 등 느슨한 관리체계의 역기능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 예산여건에 기인한 것이지만 신청건수 대비 선정비율 20%에 불과해 보다 심도 있는 수요예측 필요함

[개선제안]

- 자기설계방식으로 인해 자칫 자율통제 기능이 상실된 방만한 운영 요소가 없는지 관리 시스템을 자기설계방식에 적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이 신진예술가의 창작역량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자의 연간활동을 통해 발표된 1인당 평균창작작품수, 1인당평균 수상 및 초정실적, 수혜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이는 사업성과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업목적과도 연계성을 가짐

- 성과지표 중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은 신진 예술가 작품활동 평가의 실질적인 요소로, 외부로부터 객관적인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Outcome)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결과지표라 판단됨
  ※ 예술지원정책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예술분야의 성과(Outcome)측정 지표는 생산된 창작작품수, 관람객수, 예산투입대비 지원사업수 등을 주로 채택하고 있음
- '사업수혜자 만족도'는 PCSI 조사 방법 및 산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수상실적 및 초청실적'과 '1인당 평균 창작 작품 수'또한 지원 대상자 전수를 조사하고 있어 측정 산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1인당 창작 작품 수만으로 지표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다작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1개의 단일 작품이라도 킬러 콘텐츠 여부에도 큰 비중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표설정이 보강이 필요함

[개선제안]

- 본 사업의 지원 취지상 창작 작품 수 양적인 요소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적 평가요소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청실적은 최근 3개년도 실적 기준치에 110~130%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1인당 평균 창작작품수는 4개년도 추세치 활동 등 합리적인 도전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PCSI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 고객만족 개선도 산식을 적용해 설정함으로써, 고객만족도의 경우는 목표치가 합리적이고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청실적의 경우 AYAF 1기 사업실적 추이를 근거로 2년차 활동시기에 대외 지명도 향상 및 예술창작역량 향상에 따른 초청 및 수상 실적 증가분(1기: 전년대비 143% 증가, 2기 157% 증가)을 예상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12년도 분기 집행계획에 의거 전체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는 집행률(100%)을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지원	972	972	100.00%
소계	**972**	**972**	**100.00%**

- 특히 수혜자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활동계획 조기 확정을 통한 지원금 집행시기 단축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노력을 보임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모니터링 체계는 크게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문예진흥기금사업 모니터링단과 분야별 수례대상자인 신진 예술가 현장의견 접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수혜대상자 의견 수렴은 타 사업분야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올림프스홀과 같은 공연무대 공간과 MOU를 통해 신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이 단순 기금지원 차원을 넘어 무대실연 여건까지 제공하려는 노력 등을 우수하게 평가함
- 각 사업별 교부-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개별 지원사업 평가단, 단위·세부사업 평가단 운영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실적,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등의 피드백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보조금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집행사례 개선, AYAF 지원 이후 연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안내(AYAF Ensemble 결성) 등의 실제 사업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개선제안]

-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신진예술가들의 보다 많은 창작활동공간 발굴 지원 및 상호 매칭의 노력을 통해 원활한 작품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계획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는 전체 평균 103.8%로 모든 기준에 충족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단순한 목표달성의 가시적 실적을 넘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 노력을 보임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86.2	88.5	102.7%
▪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	0.55	0.58	105.5%
▪ 1인당 평균 창작작품수(건)	11.6	12.03	103.7%
소계			103.9%

- 사업 담당자별로 연중 밀착형 컨설팅 및 연계 코디네이팅 등의 활동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노력을 경주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수요예측분석 강화

[긍정적 측면]

- 신청건수 이외 광범위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문헌조사’, ‘현장 의견수렴 확대’, ‘지역문화재단과의 공조’, ‘예술영재 Pool구축’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이행함
- 추진 과제별로 단기·중기 과제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장기과제는 추진중에 있음. 또한 문헌조사의 경우 2013년 신규 발견 연구자료, 사례 등의 추가조사 실시, 현장 의견수렴 확대과제의 경우 신진 예술가 선발 시 추천제도 확대 등 향후 개선계획을 수립함
- 추진과제 이행을 통해 ‘거시적 문화예술환경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 수요의 적정성 파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 연령 폭 조정’, ‘지역문화협력관을 통한 지역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사업 개선방향 논의’, ‘공공 및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의 성과를 나타냄
- 수요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지원수요는 거의 대부분의 예술전공자라 해도 타당할듯한데 자체 수요예측의 노력이 돋보임

②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한국정책평가원 지표연구 분석 의뢰로 기존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과 신규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보임
- 검토 결과 '1인당 수상 및 초청실적', '평균 창작작품 수', '평균 관람객 수', 'AYAF 브랜드 인지도', 'AYAF 운영의 적절성', '수혜자 만족도'의 성과지표가 도출됨
-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과 '1인당 평균 창작작품수'는 기존 지표와 동일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새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특성화 지표로 활용함

③ 사업에 대한 명확성 확립(유사사업과의 차별화)

[긍정적 측면]

- 국내 공공기관, 민간기관, 해외 등 유사사업 사례조사와 사업개편계획을 통해 효율적 개선안 도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음
- 유사사업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분야별 지원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품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사업개편계획을 통해서는 AYAF 사업만의 독보적인 지원방식과 사업품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유사사업 사례조사 시사점 : 기존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이 대부분 단발성 지원에 그쳐 안정적인 지원기반 취약, 민간 및 유관기관간 교류 부족 및 정보공유 미흡으로 사업효과 저하

  ※ 사업개편계획 : AYAF사업 추진방식 전면 개편을 통한 차별성 확보
- 시사점 도출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중점 추진방향을 재설정(생애주기형 육성체계, 코디네이팅 역할 강화, 예술 활동 유형을 창작자와 실연자로 이원화)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④ 신진예술가용 모니터링 운영안 마련

[긍정적 측면]

-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차세대예술인력관리시스템 운영', '인적자원관리방안 연구'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향후 개선계획을 제시하였음
- 차세대예술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진 예술가 전용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함

  ※ 신진예술가의 성장경로 및 활동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페이지를 구축함

※ 관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AYAF 개인별 SNS를 메인페이지로 연동하여 홍보 기능을 변행함

- 인적관리방안연구를 통해 ‘신진예술가의 성장이력관리를 위한 사례조사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⑤ 종합적인 평가분석모델 개발

[긍정적 측면]

- 유사사업 및 본사업의 일반창작지원과의 차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분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중장기 예술인력 육성 전략 로드맵 수립’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추진과제인 ‘중장기 예술인력 육성 전략 로드맵 수립’ 이행을 통해 기관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13년도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 또한 향후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유사사례 분석과 평가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을 수립함
- 개선과제 이행에 따른 효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애주기형 육성 체계』로 전환, 활동기반이 취약한 신진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였음

[부정적 측면]

- 세부이행 노력, 즉 중장기예술인력 육성 로드맵의 수립은 진일보하였으나 제시된 차별화를 위한 평가분석 모델 개발은 적시되지 않음

⑥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 수립

[긍정적 측면]

- 신진예술가들의 사업성과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AYAF 지원자의 후속활동 평가 및 연계지원 현황파악’, ‘AYAF Ensemble 결성’, ‘AYAF 4년간의 사업성과 종합 자료집 제작’의 추진과제를 설정함
- 추진과제인 ‘AYAF 지원자외 후속활동 평가 및 연계지원 현황 파악’을 통해 지속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신진예술가에 대한 연계 지원을 강화함. ‘AYAF Ensemble 결성’을 통해 공식 창단 연주회 확정하고, ‘AYAF 4년간의 사업성과 종합 자료집 제작’을 통해 스토리 있는 활동 자료집 발간 및 홍보기능 강화의 효과를 가져옴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1인당 평균 창작활동 유발도(건)

[긍정적 측면]

- 선정 전·후 활동 실적 비교, 연계유발 건수 등의 부가적인 지원효과를 측정하여 본 사업만의 차별화된 사업성과를 측정함
- 진입장벽이 높은 예술분야의 특성상 신진예술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본인의 창작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의 취지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한 평가지표라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창작유발도 건에 한하여 목표치(6.1)건에 미달한 5.13건을 달성함

② 타분야 협업활동 유발도(건)

[긍정적 측면]

- AYAF사업은 유일하게 기초예술 전부문을 지원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 기회 제공 등 연계활동 유발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 평가지표라 판단됨
- 타분야 협업 유발도가 11회로 전년도 5건 대비 배 이상 증가되어 협업 및 융복합 창작활동에 기여된 것으로 평가함

[부정적 측면]

- 타 분야 교류 및 협업기준이 모호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함

5. 개선과제

□ 계획

○ 자기설계방식의 자율 평가지표 보완

- 자기설계방식으로 인해 자칫 자율통제 기능이 상실된 방만한 운영 요소가 없는지 관리 시스템을 자기설계방식에 적합하도록 보완 필요

○ 창작작품의 질적 평가 요소 병행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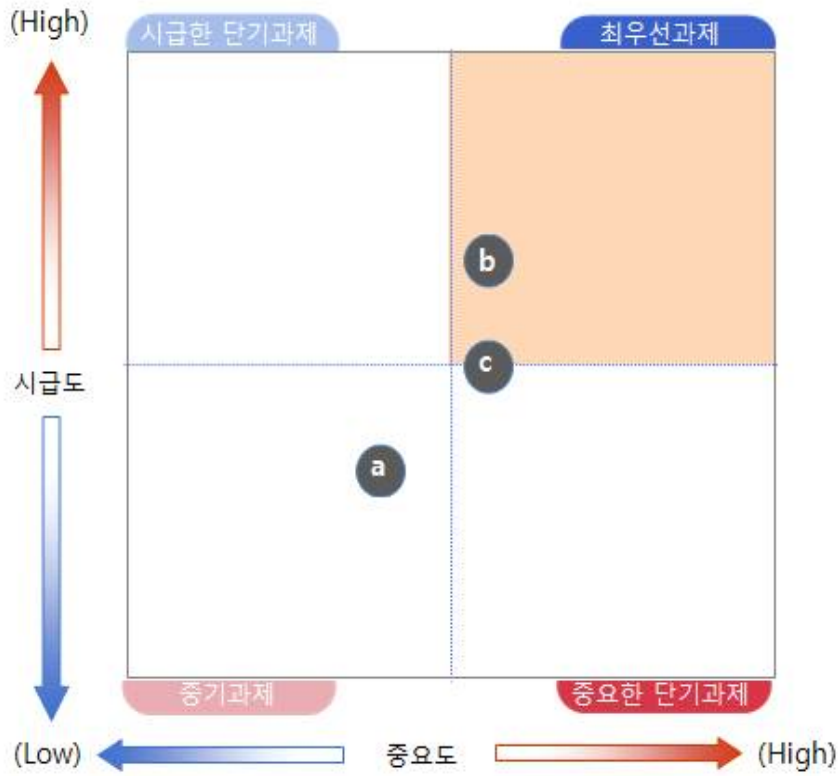
- 본 사업의 지원 취지상 창작 작품 수 양적인 요소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적 평가요소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

□ 집행

○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공간 매칭 사업 활성화

-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신진예술가들의 보다 많은 창작활동공간 발굴 지원 및 상호 매칭의 노력을 통해 원활한 작품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활성화가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자기설계방식의 자율 평가지표 보완		●	3
계획	**b**	**창작 작품의 질적 평가 요소 평행 보완**		●	1
집행	c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공간 매칭 사업 활성화		●	2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8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08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4년 ~ 단 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 160건 내외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일반공모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자체부담 10% 이상

- 기획형 사업의 경우 별도의 추진단 설립 후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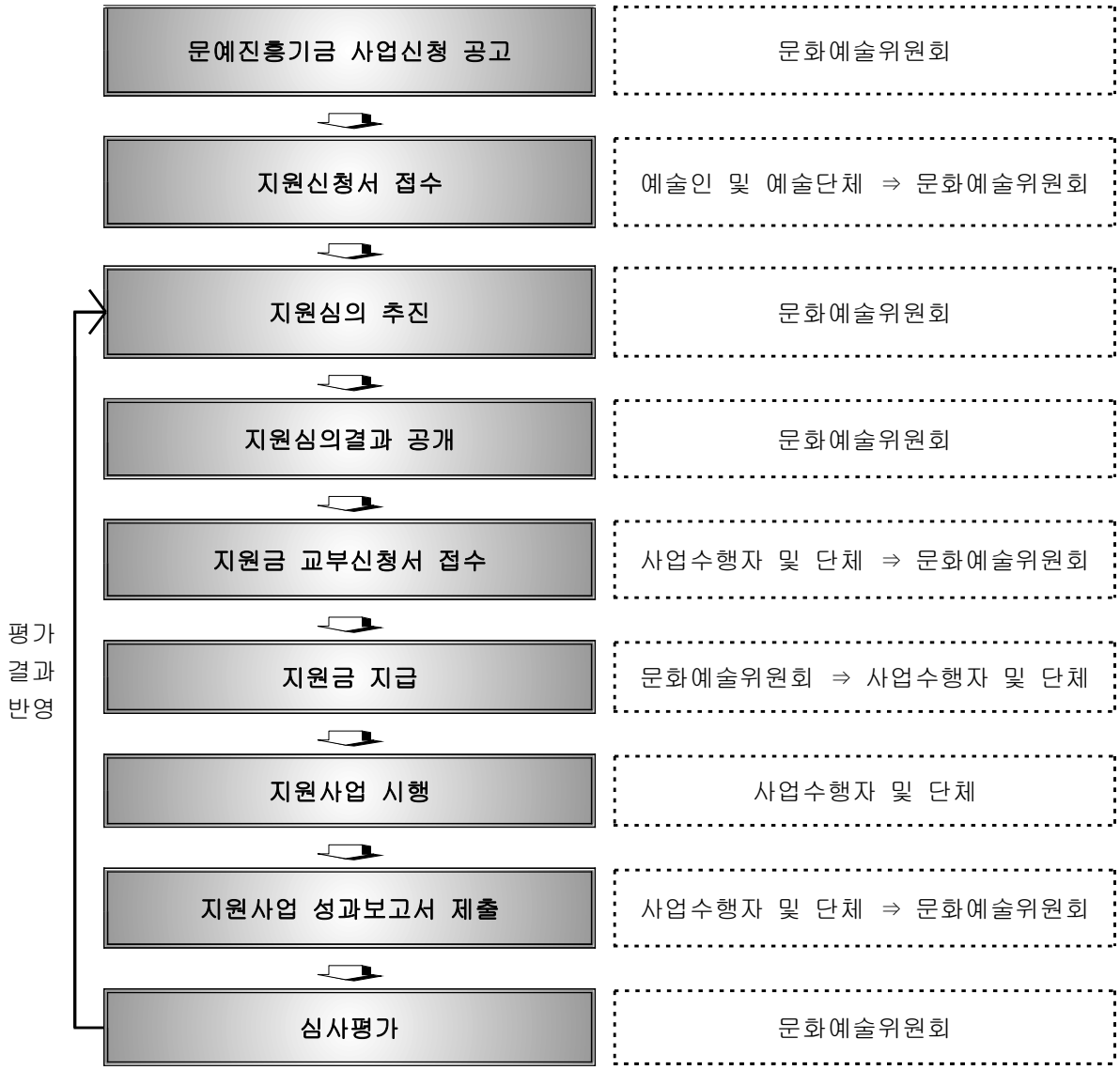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예술단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3,100	2,800	2,500	△300	△10.7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공모)	2,800	2,100	1,800	△300	△14.3
■ 아르코-팸스 협력사업지원	-	400	400	-	-
■ 한국예술특집행사	300	300	300	-	-

□ 사업추진 절차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대상 만족도 (점)	목표	-	-	-	-	85.0	ㅇ 고객만족개선도 만점(100점) 목표치인 82.63점을 훨씬 상회하는 의욕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	ㅇ 지원예술인 만족도 조사
	실적	76.7	81.6	76.4	80.7	85.7		
	달성도	-	-	-	-	100.8		
평균 창작 작품수 (건)	목표	-	-	-	-	17.86	ㅇ 과거 4개년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 부여편차 평가방법 적용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ㅇ (지원사업 전체 문학 창작발표 작품 수 +시각예술 창작 작품 수 +공연예술 창작 작품 수 +다원예술 창작 작품수) ÷ 지원사업 건수
	실적	10.08	18.03	10.69	14.64	17.92		
	달성도	-	-	-	-	100.3		
평균 관람객수 (명)	목표	-	-	-	-	4,485	ㅇ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목표 부여방식적용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부여 방식 적용 (전년대비 10%향상적용)	ㅇ (지원사업 전체 공연, 전시 관람객 수 +행사 참여관객수) ÷ 지원사업 건수
	실적	7,241	3,419	1,596	4,077	4,637		
	달성도	-	-	-	-	130.4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및 전략 체계 수립	■ 국제교류사업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ARKO 비전 2020 설정 연구용역 참여 ■ 기초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참여
	■ 사업비 지원방식 변경(자부담비율 차별화, 사후지원 등)	■ 2012년도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일반공모사업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 추진(신규) ■ 아르코-팸스 협력사업 신설(신규)
	■ 예측기반의 재원 집행계획 수립	■ 전년도 재정집행현황 및 사업성과 분석 및 2012년 재정집행계획 작성(2011.12월) ■ 사업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모니터링 실시(매월)
	■ 국제상호교류의 질적 향상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 기초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참여 ■ '2012년도 기금사업 성과관리 향상 워크숍' 개최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핵심성공요인 및 성과지표 개발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장 모니터링 도입)	■ 2012년 해외개최 국제교류 지원사업 평가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 해외개최사업 현장 모니터링, 해외개최사업 파트너기관 VOC조사, 국제교류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 사업지속 추진을 위한 타당성 평가 모델 개발	■ 2012년 해외개최 국제교류 지원사업 평가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 해외개최사업 현장 모니터링, 해외개최사업 파트너기관 VOC조사, 국제교류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국회・감사원 (2011년)	해당 없음	
재정사업자율평가 (2011년)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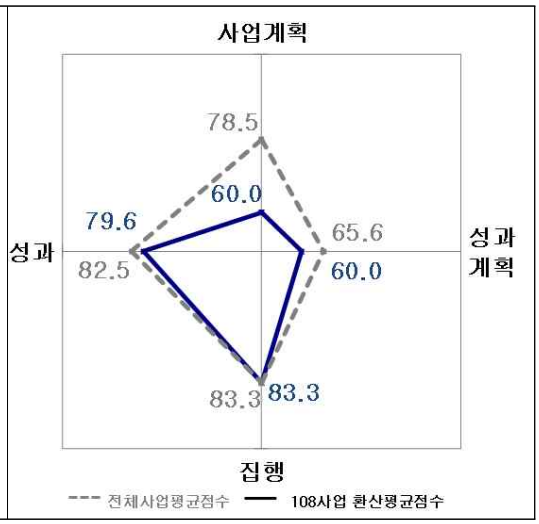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60.0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3.3점, ‘성과’ 79.6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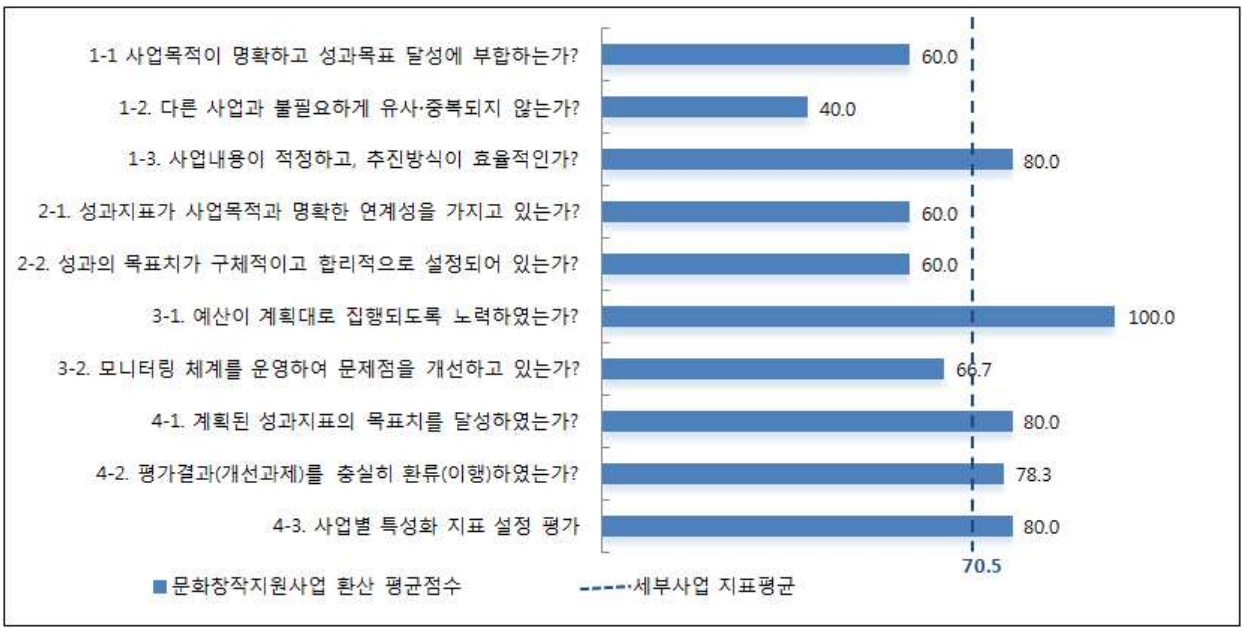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집행(+0.0)영역은 일치된 반면, 사업계획(-18.5), 성과계획(-5.6), 성과(-2.9)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3.0	60.0	60.0
	1-2(5점)	2.0	4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79.6
	4-2(10점)	7.8	78.3	
	4-3(10점)	8.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0.5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이며 4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우리 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업목적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향후 트랜드와 국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지원은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이 사업은 수혜대상자 선정에서 지원,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원방식의 변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완 등의 개선노력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가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성과지표 또한 사업의 목적 및 성과목표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예술가(조직)의 창작역량 강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본 사업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특히 해외 현장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보다 심층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면 실제적이고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된 성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함
- 우리 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분명한 사업목적을 수립함
-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향후 트랜드를 반영할 때 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지원은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부정적 측면]

-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역량강화라는 사업목적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기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 등과 제시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미비함. 특히 제시된 성과목표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는 사업목적인 예술의 창작역량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 과정 지표로써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조가 논리적이지 못함

[개선제안]

- 국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규모가 큰 국제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민간예술단체나 예술인 개인의 독자적 사업 수행 여력이 부족하므로 그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기존의 성과 목표와 함께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예술가(예술단체)의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창작역량이 제고되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목표에 반영함
- 본 사업의 전략 체계를 재수립하고 사업 목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목표 제시가 필요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목적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각 사업 수행주체 간 MOU 체결 등의 노력을 통해 수혜대상자가 중복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국제교류재단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의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함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아르코-팸스 협력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해외진출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모색함

[부정적 측면]

-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라는 차별화된 사업목적을 수립하고 있으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과 해외 주요 예술관계자 초빙사업 등은 사업유형에 있어서 여타 기관의 국제교류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보임

[개선제안]

- 사업목적 달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술위원회는 단순 해외진출사업지원 보다는 예술가(조직)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문화예술의 해외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재단 등의 사업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 및 사업 수혜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타 기관의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여타 기관의 사업과 차별화를 위한 보다 세밀한 프로그래밍 필요함
- 수혜대상의 중복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여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되어야 할 것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일부지원원칙을 통해 필요 재원의 10%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5천만 원 이상 지원 선정단체는 성과보고 시 반드시 외부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투명한 재원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공모사업의 선정과정과, 책임 심의 위원제를 통한 수혜대상자 선정 과정이 적정하였음
- 공모사업의 경우 사후지원 및 간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은 적정하였으며, 다년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도 예술창작역량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 연차별 공모 지원현황과 결정현황을 살펴 볼 때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됨
- 신청 프로젝트 건수와 신청 금액 등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방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르코-팸스 협력사업 지원은 팸스 초이스 선정 작품 중 해외 기관의 초청이 있는 예술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수혜대상이 명확하고, 한국예술특집행사의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도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세부사업 가운데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강화라는 사업목적보다는 여타 기관과의 차별성의 선명하지 않은 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공모), 아로크-팸스 협력사업지원, 한국예술특집행사와 같은 기초사업들이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구성인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즉, 각각의 기초사업의 목적들을 통합할 경우, 세부 사업의 목적이 필요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는 사업 설계가 부족함
- 성과보고서에 국제교류 분야의 재정지원 수요증가 및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31억 원 대비 약10% 감소한 28억 원으로 책정됨

[개선제안]

- 현실적으로 사후지원으로의 지원 방식 변경은 어려울 것이므로, 사후지원에 준하는 엄격한 운영상의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결과 산출 방식이 명확함
- 창작 작품 수에 대한 측정은 민간예술단체(인)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고 비교적 자료 수집이 어려운 관람객 수는 주최 측의 발표 자료를 준용하게 하는 등의 성과 지표의 합리적 관리 노력이 있음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가 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인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를 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할 경우 여타 기관의 국제교류사업과의 차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임

[개선제안]

- 사업의 목적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작 작품의 수나 평균관람객수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람객의 수가 예술작품의 질적 평가 기준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지표 정의 및 측정 산식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 지표 산식에 있어서 전체 지원 사업 건수로 분모를 설정하여 지원 단체 별 창작여건 개선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작품의 품질 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한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국제적 경쟁력 강화 여부에 대한 성과 지표 보완이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2012년도 부서업무성과계획서 및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계획에 제시되어 사업시행 전에 설정 됨
- 성과지표(지원대상 만족도, 평균 창작작품 수, 평균관람객 수)에 따른 목표 값이 명확하게 제시 됨
- 전년도 성과 대비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함
- 투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약 12% 증가하여 높게 설정하는 등 전년대비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다고 판단됨. 특히 PCSI의 4.3점(5.3%)의 증대 목표는 매우 의욕적이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상향 조정된 목표치에 대한 성과 제고 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PCSI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슬로건 설정과 VOC 이슈에 대한 실천과제는 계획되어 있으나, 그 밖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전년과 다른 추가적인 활동계획(사업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수준은 파악되지 않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만 제시된 성과 목표치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99.6%의 예산 집행 달성률을 보임
- 전년(98.5%)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제고됨
-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4/4 분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재원 집행률 100% 미달성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공모)	2,100	2,091	99.57%
아르코-팸스 협력사업지원	400	398	99.50%
한국예술특집행사	300	300	100.00%
소계	**2,800**	**2,789**	**99.61%**

- 1,2,3분기에는 예산집행이 계획에 따라 이뤄졌으나 4분기 예산집행실적이 75.3%로 저조함
- (소액의) 집행 잔액 반납은 정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지만, 지원금 미선정 잔액을 정상집행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전시, 비엔날레, 공연, 페스티발은 지원 규모가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공모사업의 미집행 잔액 11백만 원은 세미나, 워크샵, 회의 등의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금액 규모라고 판단됨. 따라서 재원 집행률이 100%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개선제안]

- 중도에 지원을 포기한 예술 단체(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중도 지원 포기로 인하여 다른 지원 대상자들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후 제출된 보고서에 의한 수동적인 모니터링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방법으로 전환됨
- 해외 거주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현지 파트너 기관의 VOC 수집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신설, 보조 지원 방식 추가, 성과 공유 확대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음

[부정적 측면]

-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 및 정기적 피드백 여부 확인 필요함
- 새롭게 구축된 모니터링 체계와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구조화가 부족함

[개선제안]

- 사업 추진 과정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국제교류 성과관리 워크샵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환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전문가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함 (전체 활동 간의 계층화와 전후 실행 관계에 따른 도식화)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목표치 100% 이상 달성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지원대상 만족도(점)	85	85.7	100.8%
■ 평균 창작작품수(건)	17.86	17.92	100.3%
■ 평균 관람객수(명)	4,485	4,637	103.4%
소계			**101.5%**

- 전년도 대비 의욕적으로 설정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목표치는 100%이상 달성하였으나,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방식 개선 등의 노력에 대한 활동 계획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성과지표 목표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및 전략체계 수립

[긍정적 측면]

- 사업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워크숍 개최, 연구용역 참여 등의 활동을 시행함
- 국제문화예술교류활성화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창작을 활성화하여 결국 창작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는 사업 핵심성공요인 도출은 설득력이 있음

[부정적 측면]

- 실행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사업목적(창작역량강화)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제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환류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워크샵 참여, 연구용역 참여 등의 활동 보다는 어떠한 개선 계획, 관리 노력,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

② 사업 신청건수 감소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긍정적 측면]

- 작품제작 경비를 포함한 집중지원방식으로 전한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 예술인 초청기획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신설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식을 다변화 함
- 2013년 작품제작 경비를 포함하는 집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노력은 바람직함

[부정적 측면]

- 자부담비율 차별화 방안에 대한 기준 선정과 사후 지원으로의 조건방식 변경에 대한 개선 노력은 다소 미흡함

③ 예측기반의 재원집행계획 수립

[긍정적 측면]

- 사업별 재정집행실적을 월단위로 모니터링 함
- 지적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재정집행계획 작성,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져 있음

[부정적 측면]

- 9건의 사업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것은 전년도 2건에 대비할 때 부정적인 결과임
- 국제문화교류재단과의 중복 지원에 대한 사업 포기도 지원 결정 이전에 상호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지 초청기관의 사정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④ 국제상호교류의 질적 향상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지원받은 예술인(단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지표를 개발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부정적 측면]

- 지원을 받은 사업과 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예술작품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정성적인 평가지표가 없음
- 본 개선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 관리, 이행 노력 등이 본 과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현장 모니터링 도입)

[긍정적 측면]

- 본 과제 개선을 위한 개선 활동 체계가 수립됨
- 해외 현장모니터링요원 운영, 해외 고객 VOC 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됨
- 과제 관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30% 내외의 이행 실적도 나타냄

[부정적 측면]

- 93건의 해외 사업 중 24건의 사업(25.8%)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은 다소 아쉬움
- 향후 대부분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요원의 규모 확대가 필요함

⑥ 사업지속 추진을 위한 타당성 평가모델 개발

[긍정적 측면]

- 전년도 대비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려는 노력을 보임

[부정적 측면]

-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모니터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예술특집행사건수

[긍정적 측면]

- 전년 대비 의욕적인 목표치를 선정하였으며, 예술특집행사 건수는 목표 8건을 초과 달성하여 9건의 실적을 보임
- 공모지원 사업 중심의 지표 이외에 예술특집행사 관련 지표가 설정되어 사업 내용의 포괄성을 다소 높임
- 현 시점에서의 측정 산식 또한 명확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예술위원회가 다른 기관의 국제교류사업 지원과 차별되어야 하는 것은 예술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임. 예술특집행사 건수와 같이 행사의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 해외 예술인 초청 기획 프로그램인 경우, 행사 건수 보다는 함께 참여한 외국 예술인과 관람객 수 등의 지표 검토가 필요함

[개선제안]

- 국제적 경쟁력 강화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향후 해외예술인 초청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지표 설정도 필요함

② 해외개최사업 현장모니터링 건수

[긍정적 측면]

- 해외개최사업 현장모니터링 건수는 목표 15건을 초과 달성하여 24건의 실적을 보임
- 해외 개최사업 현장 모니터링 건수를 성과지표화 하여 사업실적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해외 개최사업 현장 모니터링 건수는 사업 목적과 연관된 성과지표이기 보다는 사업 진행 개선을 위한 과정 지표로써 특성화 지표로써의 한계점을 갖고 있음

[개선제안]

- 전문가에 의한 해외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지원받은 예술인의 창작역량제고나 산출된 예술품의 질적 수준제고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임
- 향후에 모니터링 건수는 향상률 보다는 해외 개최 사업 건 수 대비 수행한 모니터링 비율 등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5. 개선과제

□ 계획

○ 전략체계 검토 및 성과목표 재수립

- 본 사업의 전략 체계를 검토하여 보완하고 사업 목적과 연계된 보다 분명한 성과목표 제시가 필요함

○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프로그래밍

-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을 개별 사업에 반영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여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

□ 집행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예술가(예술단체)의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창작역량이 제고되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식화함으로써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전문가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도 지원 포기자에 대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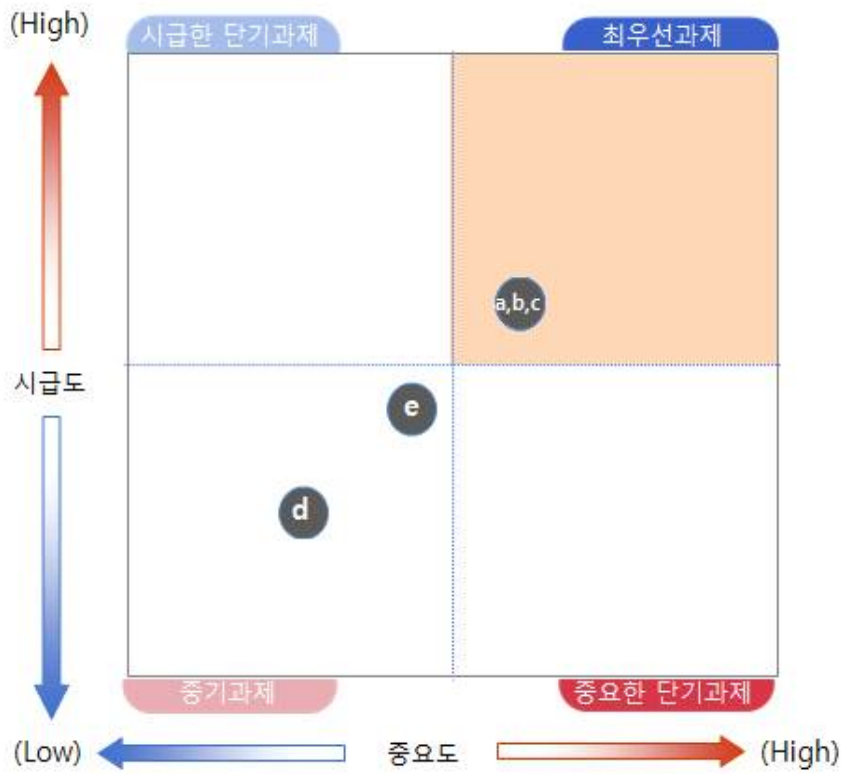
- 중도에 지원을 포기한 예술 단체(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중도 지원 포기로 인하여 다른 지원 대상자들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성과

○ 질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작품의 품질 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한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목표치 설정 시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만이 제시된 성과목표치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전 략 체 계 검 토 및 성 과 목 표 재 수 립**	●	●	1
계 획	b	**사 업 의 목 적 을 실 현 하 는 프 로 그 래 밍**		●	1
집 행	c	**통 합 모 니 터 링 시 스 템 구 축**	●	●	1
집 행	d	중 도 지 원 포 기 자 에 대 한 제 재		●	5
성 과	e	질 적 평 가 를 위 한 성 과 지 표 의 개 발	●	●	4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09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109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위원회가 자체 기획·발굴한 국외 기관 간 협력사업, 창작거점 작가 파견 사업 등을 통해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함

□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항, 제18조 4항, 제20조 1항

② 추진경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선양 및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의 교류사업 중점 지원
- 1994년 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와 상호 교류를 시작하여 해외 주요 문화예술 기관과의 인적 교류 및 사업교류 확대(’06년 몽골, ‘08년 싱가포르 등)
- 1995년부터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9년 12월 아르코 비전 2015 선포 시 7대 전략 중 하나로 ‘국제교류 기반 확충 전략’ 설정
- 2012년 6월 기관장 7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한류, 기초예술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설정

○ 사업기간 : ‘74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해외레지던스프로그그램 참가지원 33건,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 22건(거점 20개소 운영),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 4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지원(6억원)

○ 지원대상 :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일반공모사업의 경우 자체부담 10% 이상, 기획협력형 사업의 경우 개별 약정 체결 후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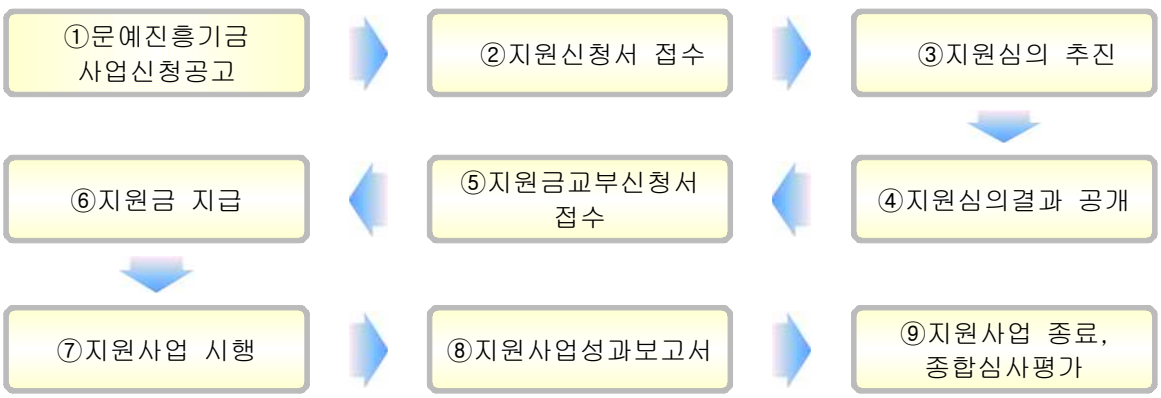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619	1,584	1,611	27	1.7%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일반공모)	276	200	200	0	0%
· 해외창작거점 예술가파견지원	400	370	562	192	51.9%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운영 및 전시	600	599	599	0	0%
·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	343	215	250	35	16.3%
· 중국798예술특구 한중작가 공동 특별기획전(단년도 사업)	-	200	-	-	-

□ 사업추진 절차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일반공모)



○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 및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규 거점 리서치 및 협력 타당성 검토

⇩

해외 주관처와 약정 체결 및 협력프로그램 설계

⇩

지원 신청 공고 및 접수

⇩

파견 예술가 선정

⇩

선정 예술가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예술가 파견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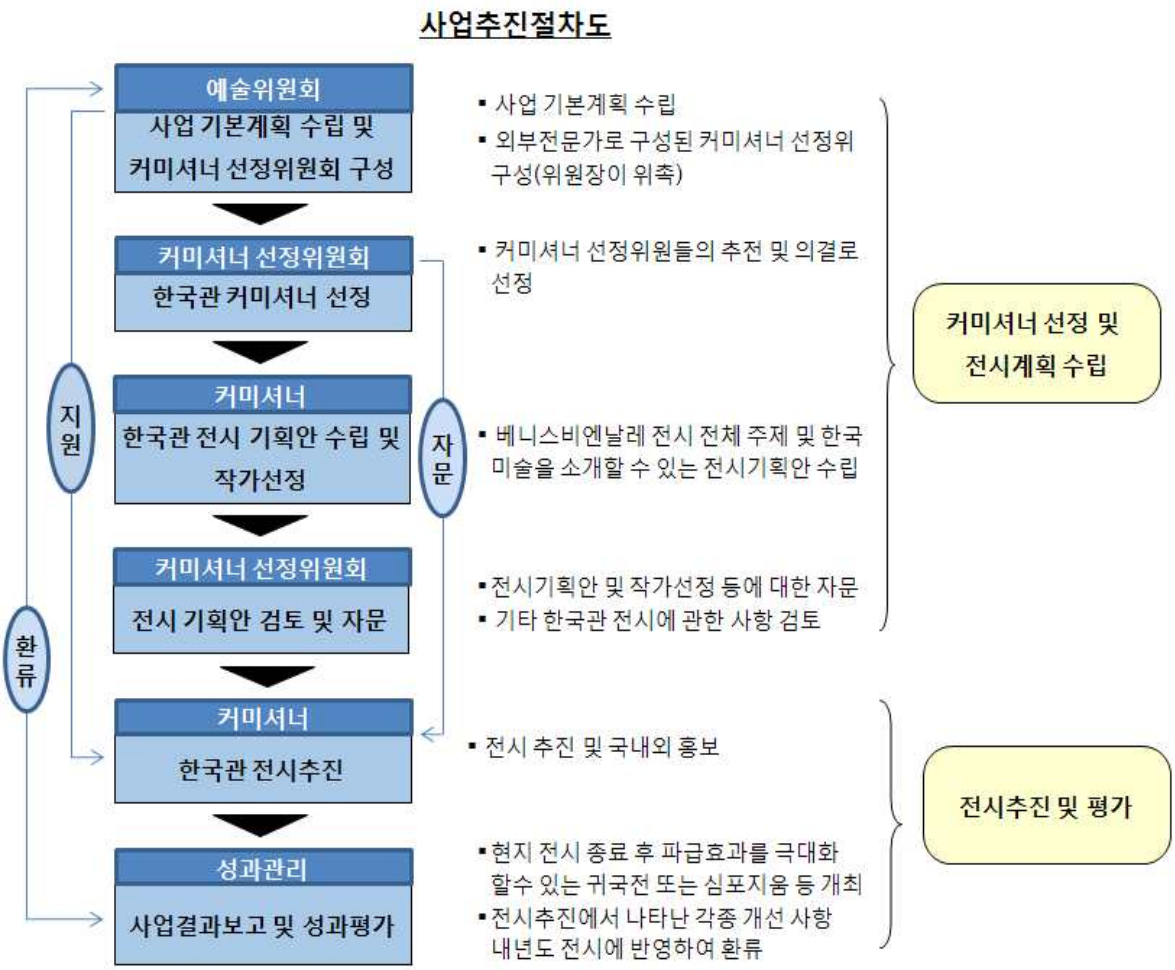
⇩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

평가 및 환류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대상 만족도	목표					85	○ 고객만족개선도 만점(100점) 목표치인 82.63점을 훨씬 상회하는 의욕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 ※ PCSI : '보통' 80점 '양호' 85점	○측정방법 : 기획재정부 PCSI 조사 ○측정산식 : Σ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PCSI 조사 결과
	실적	76.7	81.6	76.4	80.7	85.7		
	달성도(%)					100.8		
해외창작거점 공간 수(개)	목표					20	○ 과거5개년('07~'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 적용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4.22점	○측정방법 : 기관간 합의를 통해 해외문화예술기관, 대학 등 예술가 해외진출 채널 공간 확보 수 집계 ○측정산식 : Σ ○자료출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4	4	5	15	20		
	달성도(%)					100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목표					104.5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환산평점 : 100.0점	○측정방법 : 국제교류 기획형 공모사업 중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예술단체의 사업으로 촉발되어 추진하게 되는 국제교류 연계사업 실적 비율 ○측정산식 : Σ 국제교류 연계사업 건수 ÷ 국제교류 지원사업(지원사업 결과보고서)건수 ○자료출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38	95	105		
	달성도(%)					100.5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 지원 사업의 장르 확대	■ 공연예술분야 거점 3개 개발 완료
	■ 성과분석의 환류기능 강화	■ 웹진 홍보 30건 등 홍보 진행
	■ 예측기반의 재원집행계획 수립	■ 예산집행률 100%달성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고도화	■ 5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보조지표 개발	■ 3대 성과지표 개선 및 보조지표 개발
국회・감사원 (2011년)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자율평가 (2011년)	해당사항 없음	

□ 참고 사항

- 해외창작거점 발굴 현황 : 총 20개 공간 운영

구분	아시아 권역	유럽 권역	미주・중남미 기타 권역	계
문학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러시아 사할린한국어교육원 ・인도 인코센터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대학교	・터키 앙카라대학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창작프로그램(IWP) ・쿠바 호세마르띠 문화원 ・쇄빙선 아라온호 선상 레지던스 ・남극 세종기지 레지던스	11
시각 예술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영국 가스웍스 ・영국문화원 협력 큐레이터 레지던스프로그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5
공연 예술	・인도 아딱깔라리 안무가 레지던스	・체코 프라하국립음악원	・뉴욕 무대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음향) ・뉴욕 무대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조명)	4
계	5	9	6	20

- 2012년 창작거점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결정금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1	김향라 (김이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예술가 파견사업	12년 1월~8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19,810	19,810	0	
2	김혜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예술가 파견사업	12년 5월~8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19,810	19,810	0	
3	김성중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 예술가 파견사업	12년 11월 ~13년 2월	쿠바 호세 마르띠 문화원	15,000	15,000	0	
4	최진아	터키 앙카라 대학교 예술가 파견사업	12년 7월 ~13년 3월	터키 앙카라 대학교	21,000	21,000	0	
5	이혜인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작가 지원	12년 3월 ~13년 3월	독일 쿤스틀러 하우스 베타니엔	21,130	21,130	0	
6	김아영	2011 베타니엔스튜디오 참가작가 지원	12년 6월~7월	서울	2,270	2,270	0	2011년 지원작가 후속 프로그램 지원
7	배고은	2012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스 참가	12년 1월 ~13년 12월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8,000	8,000	0	
8	진택근 (진시우)	2012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스 참가	12년 1월 ~13년 12월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8,980	8,980	0	2011년 선정작가
9	오경민 (오민)	2012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스 참가	12년 1월 ~13년 12월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8,980	8,980	0	2011년 선정작가
10	김민애	2012 가스웍스 레지던스 참가	12년 4월~6월	영국 가스웍스	1,119	1,119	0	
11	한정기	극지 아라온호 예술가 파견	12년 7월 ~12년 9월	아라온호	6,000	6,000	0	
12	최명숙	아이오와대학교 예술가 파견	12년 8월 ~12년 11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5,633	5,633	0	
13	김형수	울란바타르대학교 예술가 파견	12년 8월 ~12년 11월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10,470	10,470	0	
14	김이정 (김정숙)	인코센터 예술가 파견	12년 12월 ~13년 1월	인도 첸나이 상암하우스	5,000	5,000	0	
15	조용미	카포스카리대학교 예술가 파견	12년 9월 ~12년 12월	이탈리아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	14,900	14,900	0	
16	채길순	국립니자미대학교 예술가 파견	12년 12월 ~13년 2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니자미 국립대학교	14,900	14,900	0	
17	신영선	사할린대학교 예술가 파견사업	12년 11월 ~13년 2월	사할린대학교	14,900	14,900	0	
18	김유철	남극 세종기지 문학창작레지던스 참가	12년 12월 ~13년 2월	남극 세종기지	10,000	10,000	0	
19	이주원	뉴욕 무대조명 예술가 파견사업	12년 10월 ~13년 1월	미국 뉴욕	14,500	14,500	0	AIPAPS 연계사업
20	김현주	뉴욕 무대음향 예술가 파견사업	12년 11월 ~13년 1월	미국 뉴욕	13,110	13,110	0	AIPAPS 연계사업
21	이은선	체코프라하 국립음악원 작곡가 파견사업	12년 10월 ~13년 1월	체코 프라하 국립음악원	9,900	9,900	0	
22	나연우	인도 아따깔라리 안무가 레지던스	12년 12월 ~13년 2월	인도 아따깔라리 움직임 예술 센터	2,357	2,357	0	국외여비 일부 지급
23 *	김경운 등 6인	영국문화원 협력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12년 11월	영국 내 미술관 및 시설	17,800	17,800	0	예산 별도 집행
24 *	김병윤 (커미셔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및 운영	12년 6월~9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600,000	600,000	0	예산 별도 집행
계	**24건**	-	-	-	**865,569**	**865,569**	**0**	

* 영국문화원 협력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17,800천원), 베니스비엔날레(600,000천원)은 별도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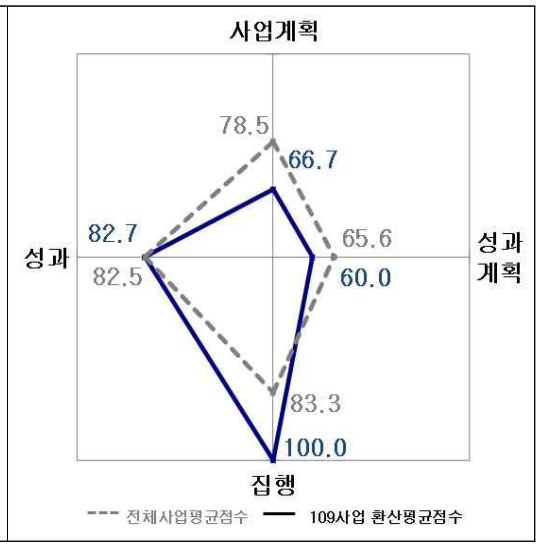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66.7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100.0점, ‘성과’ 82.7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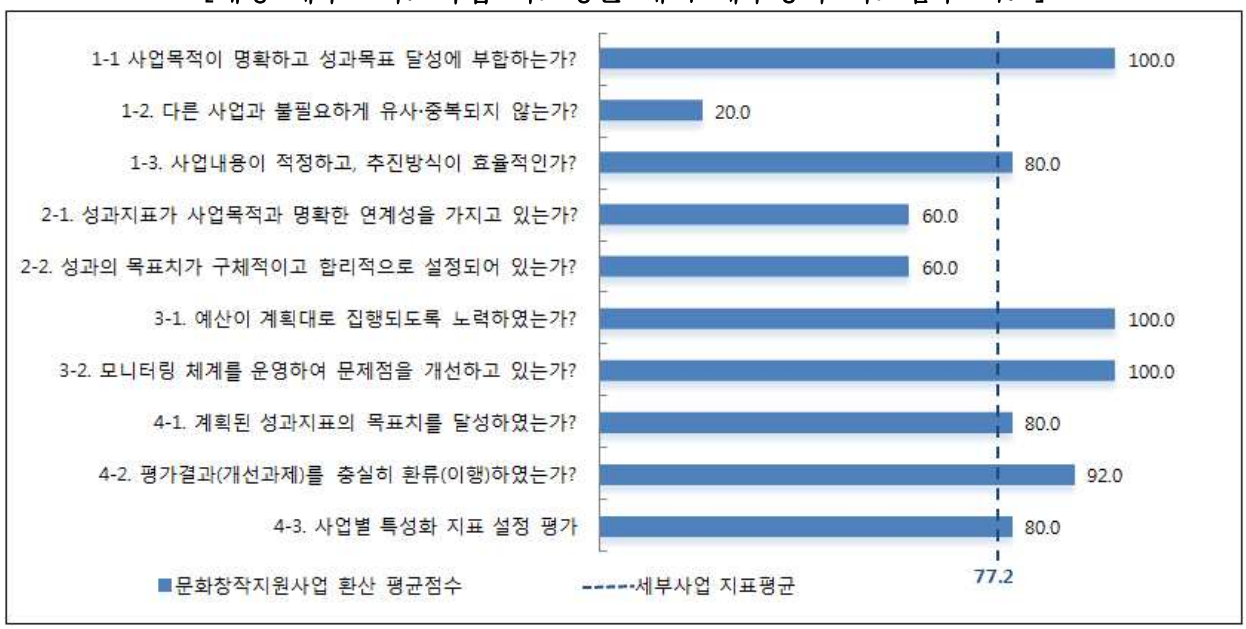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집행(+16.7), 성과(+0.1)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계획(-11.9), 성과계획(-5.6)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66.7
	1-2(5점)	1.0	2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100.0
	3-2(15점)	15.0	100.0	
성과	4-1(25점)	20.0	80.0	82.7
	4-2(10점)	9.2	92.0	
	4-3(10점)	8.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7.2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와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이며 2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예술인들의 글로벌창작역량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해외 진출 플랫폼을 확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분명하며, 문화예술위원회원회의 비전, 전략 방향 전략과제, 중점과제 등 상위 목표 달성과의 연계성도 분명함

○ 국제 교류 네트워크 구축은 민간예술단체의 노력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포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여타 기관과 유사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관과 차별되며, 그들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타 기관의 예술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확보하지 않으면 수혜대상자의 중복지원 및 지원 포기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결국 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라는 예술위원회원회 본연의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래밍을 실시해야 할 것임

○ 한편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적 구조화가 필요하며, 전문가에 의한 해외 모니터링의 실시로 실제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성과분석이 분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 활동의 구체화가 필요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인들의 글로벌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해외 진출 플랫폼을 확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분명하며, 문화예술위원회원회의 비전, 전략 방향 전략과제, 중점과제 등 상위 목표 달성과의 연계성도 분명함
- 국제 교류 네트워크 구축은 민간예술단체의 노력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포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예술위원회는 비전 2015를 통해 국제교류활동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네트워크 강화를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 6대 전략 중의 하나로 국제교류기반 확충을 설정하고, 7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2013년까지 해외창작거점 25개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외창작거점 20개소 운영이라는 성과목표가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확대와 우리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라는 분명한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여타 기관과 유사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관과 차별되며, 그들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외교통상부, 해외문화홍보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여타 기관의 예술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음
- 특히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사업과 사업목적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혜대상자의 유사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 및 지원 포기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개선제안]

- 타 기관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당위성에 안착하기 보다는 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라는 예술위원회 본연의 차별화된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 것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해외 레지던스 참가지원,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 지원,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전시 등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됨
- 수혜대상자는 공모제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분야별 책임심위원제,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적절하게 심의가 이뤄짐
- 사업 내용에 따라 일부 자부담 원칙과 커미셔너 지원금 및 외부 기업 후원 등의 재원 분담이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신청건수와 결정건수에 대한 5개년 실적 자료를 갖고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분야별 예술가 및 전문가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거점 개발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지원방식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음
- 2009년도 이후 국제교류거점 및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건수(2009년도 113건 → 2012년도 79건)가 감소하고 있음
- 예술가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함

[개선제안]

- 예술가의 소득분위를 지원규모 결정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사후지원으로의 지원 방식 변경이 힘든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 준하는 운영상의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지원대상 만족도, 해외 창작거점 공간 수,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로 설정한 것은 비교적 적정함
- 성과지표 중 해외창작거점 공간 수와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는 각각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와 국제교류 성과 확산(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표를 포괄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성과지표의 산출방식이 분명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라기 보다는 산출지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최종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결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함
- 성과지표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산식에서 제시된 국제교류연계사업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측정 산식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국제 교류 연계 사업 건수는 2년을 해당 기간으로 하고 국제교류 지원 사업 건수는 1년 만을 해당기간으로 함에 따라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움

[개선제안]

- 해외 교류 파트너의 만족도(또는 평가) 및 파견 예술가의 해외 체류기간 중의 예술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산식의 명확화가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2012 업무 성과계획 및 기관 7대 과제 지표에 따라 성과 지표가 사전에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2년 간 추세치와 각 지표별 목표치 산출 근거를 활용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 대비 의욕적으로 설정됨
  - 지원 대상 만족도(점): 80.7 ▸ 85
  - 해외창작거점 공간 수(개): 15 ▸ 20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95 ▸ 104.5
- 성과 목표치를 모두 달성함

[부정적 측면]

- 해외창작거점 공간 수는 전년도 10개의 확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5개 확대라는 목표치만을 설정한 점은 다소 수동적인 목표치로 판단됨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목표치 또한 전년도 달성 추이를 반영한다면 단순히 S등급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은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개선제안]

- 상향 조정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산이 지원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집행됨
- 분기별 집행계획을 100% 준수함
- 발생잔액이 환율변동,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상집행으로 간주하여 예산 집행률 100%로 인정할 수 있음
- 해외창작 거점 예술가 파견 지원 사업 잔액 18백만 원 (재원 지원 규모는 5백만 원~3천만 원)은 현지 기관에서 체재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지원함에 따른 예산 절감 활동으로 판단됨
-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사업 잔액 4백만 원 (재원 지원 규모는 4천만 원~6천만 원)은 소액 집행 잔액으로 인정됨

[부정적 측면]

- 재원 집행률 100% 미달성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일반공모)	200	200	100.0%
해외창작거점 예술가파견지원	370	352	95.1%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	599	597	99.7%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	215	211	98.1%
중국798예술특구 한중작가 공동 특별기획전 (단년도 사업)	200	200	100.0%
소계	**1,584**	**1,560**	**98.5%**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전년도 대비하여 해외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됨
- 공연예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됨
-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공모사업은 협력기관의 VOC,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는 현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등 기초사업별로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해결 실적도 보유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기초사업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함
- 구조화된 모니터링 체계 속에서 각 모니터링 활동의 역할과 시행 주체 등이 설계되고 향후 워크샵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과제 계획이 필요함
- 개선 과제의 실행 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함

[개선제안]

- 향후에는 세부 사업별로 모니터링 활동, 문제점 및 개선 과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른 기간별 해결 방안 모색, 단기적 해결 실적 등이 구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적 구조화가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목표치 100% 이상 달성함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지원대상 만족도	85	85.7	100.8%
▪ 해외창작거점공간수	20	20	100.0%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104.5	105	100.5%
소계			100.4%

- 전년도 대비 의욕적으로 설정된 성과목표치를 100%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해외창작거점공간수와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이 다소 미흡함
- 지원 대상 만족도 등 의욕적인 목표치에 대한 달성 계획 및 추진 현황의 구체화도 다소 미흡함

[개선제안]

- 성과 지표에 대한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 활동의 구체화가 필요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지원사업의 장르 확대

[긍정적 측면]

- 공연예술의 경우 지원 건수는 전년도 대비 1건 증가하여 4건에 그쳤으나 무대미술분야(조명, 음향)가 지원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역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다양화되었으나 장르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학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② 성과분석 환류기능 강화

[긍정적 측면]

- 전년도 부진한 성과 부분(지원대상의 만족도)가 목표치(85)를 상회하여 달성(85.7)됨으로써 개선실적을 보이고 있음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려는 노력이 있음

[부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 중 개선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전년도 지원대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국제교류 성과관리 워크샵의 문제점과의 연관성이 모호함

③ 예측기반의 재원집행계획 수립

[긍정적 측면]

- 2012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24,270,000원으로 비교적 예산이 재원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되었음
- 전년도 재원집행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12년도 예산 집행 계획의 예측성을 높임

[부정적 측면]

- 예산집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함
- '12년 단기적인 계획 수립에 반영된 내용을 중장기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④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고도화

[긍정적 측면]

- 전년도 대비하여 해외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됨
- 공연예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됨
- 다양한 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을 수립함

[부정적 측면]

- 단발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운용에 그치지 않고, 국제교류사업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전문가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질적인 부분에서의 평가체계 필요함
- 세부사업, 장르, 이해관계자 등 몇 가지 모니터링 축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다양한 모니터링 제도간의 상호 역할 정립이 필요함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보조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임
- 성과 지표의 연속성 유지 이외에 다양한 특성화지표(보조지표)의 개발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관리하여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예술위원회-창작거점 협력사업 건수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주요 지표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기존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음
- 보조지표(‘예술위원회-창작거점 협력사업 건수’, ‘거점관련 성과 확산 활동 수’)와 사업목적 달성과의 연계성 설명이 부족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예술위원회-창작거점 협력사업 건수

[긍정적 측면]

-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위원회-창작거점 협력사업 건수의 지표화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존 성과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써의 사업 내용 포괄성이 인정됨
- ‘예술위원회-창작거점 협력사업 건수’는 목표 30건을 100%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특성화 지표의 경우 2개 지표 모두 계획과 성과가 100% 일치하여 산식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

[개선제안]

- 협력사업의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측정 대상 및 지표의 명확화가 필요함
- 전문가에 의한 해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파견 예술가의 해외 거점에서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해야 함

② 거점사업관련 성과 확산 활동 건수

[긍정적 측면]

- '거점관련 성과확산 활동 수 건수'는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임
- '거점관련 성과확산 활동 수 건수'는 목표 5건을 100% 달성함

[부정적 측면]

- 거점관련 성과 확산 활동 수의 지표의 개념과 목적성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실제 측정대상 및 표본 수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부 공개행사 개최 및 참여건수 합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개선제안]

- 측정 대상 및 지표의 명확화가 필요함

5. 개선과제

□ 계획

○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 타 기관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당위성에 안착하기 보다는 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라는 예술위원회 본연의 차별화된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 것임

○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파견 예술가의 해외 체류기간 중의 예술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함
- 특히 해외에서의 활동이 예술가의 질적 수준의 제고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측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집행

○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적 구조화가 필요하며, 도식화하여 전문가에 의한 해외 모니터링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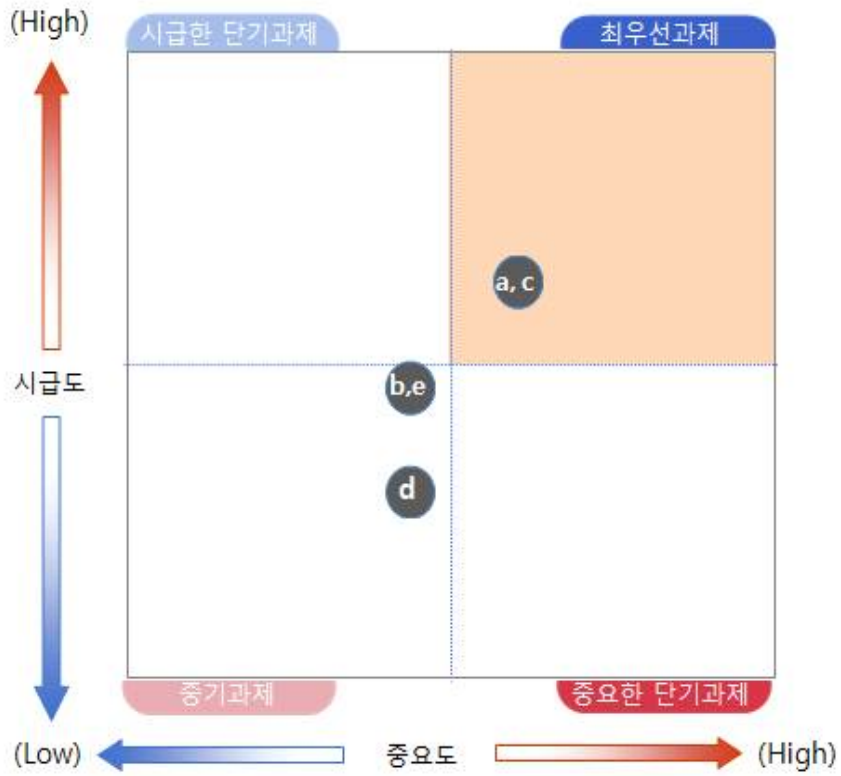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 성과 지표에 대한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 활동의 구체화가 필요함
- 목표치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달성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성과지표 산식의 명확화

- 성과지표에 있어서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의 경우 파생의 범위(시간 개념 포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정의하여야 하며, 특성화지표의 경우에도 2개 지표 모두 목표치와 달성치가 100% 일치하여 산식의 신뢰도를 저하시킴
- 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	●	1
계 획	b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3
집 행	c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	1
성 과	d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	5
성 과	e	성과지표 산식의 명확화		●	3

1분과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세부사업

110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110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국제기구, 국가기구, 주요 인사 등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다각화하고 협력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4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589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일반공모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자체부담 10% 이상
- 기획협력형 사업의 경우 개별 약정 체결 후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예술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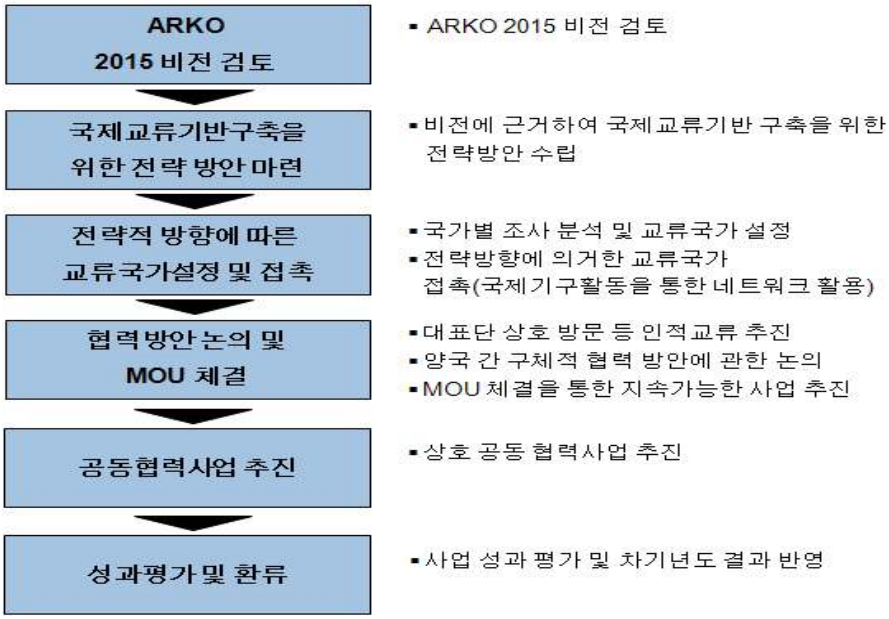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 (B-A)	%
□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600	589	559	△30	△5.3
■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600	589	559	△30	△5.3

□ 사업추진 절차

○ 국제문화기관교류사업 및 국제공동협력사업



○ 해외 주요예술인 초빙사업

- 외국 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하여 국내 유관기관 네트워킹, 주제 강연회 등의 행사 개최

초빙인사 선정방법 및 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선정방법	초빙대상자 및 사업주제Pool구축 - 일반국민 및 예술가 (홈페이지 및 아르코웹진을 통한 홍보 및 추천서 수렴) -위원회 위원 및 유관단체/단위 협회 장르별 학회(추천서 수렴)	초빙대상자 후보 및 사업주제 추천	초빙대상자 및 사업 주제 결정
절차	제안 수렴 * 제안 사유 상술	사업목표 및 인사초빙 시의성 평가	사무처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 1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교류협력 국가수 (개)	목표	-	-	-	12	21	ㅇ 과거 4개년 (2008~20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 편차 평가방법 적용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목표치 환산평점 : 100.70점	ㅇ 국제네트워크 확장을 목적으로, MOU 체결 등을 거쳐 상호문화예술 교류 협의를 완료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편차 산식 적용
	실적	8	8	8	17	21		
	달성도 (%)	-	-	-	-	100.0		
교류협력 국제기구수 (개)	목표	-	-	-	-	5	ㅇ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목표치 환산평점 : 140.00점	ㅇ 국제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교류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 수 (사업결과보고서)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산식 적용
	실적			2	4	5		
	달성도 (%)					100.0		
협력사업 추진건수 (개)	목표	-	-	-	-	30	ㅇ 과거 4개년 (2008~20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 적용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목표치 환산평점 : 118.82점	ㅇ 국제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구축된 각국과의 실제 협력사업 추진건수를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편차 산식 적용
	실적	10	12	12	22	35		
	달성도 (%)	-	-	-	-	116.7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고도화	■ 전년도 재정집행현황 및 사업성과 분석(2012.2월) - 재정집행률이 100%에 달성하지 못한 원인 분석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2012.5월) ■ 분기별 사업집행 및 예산점검 모니터링 실시
	■ 사업목적과 인과관계를 고려한 질적 성과지표 개발 ■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사업간 조정 단행(2012. 5월) -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사업과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사업 통합 ■ 국제교류 유관기관 성과지표 체계 벤치마킹(2012.6-7월) - 국제교류재단 등 ■ 사업평가부 주관 성과지표 개선 작업 참여 ■ 국제교류 사업 성과지표 풀 마련 및 성과지표 개선
	■ 신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 국제교류 네트워크 관리체계 재구축 - 다자채널, 양자채널, 키맨 채널 등을 대상으로 핵심영역 설정 및 네트워크 확대 로드맵 재설정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단계 및 채널 체계화를 통해 교류협력 파트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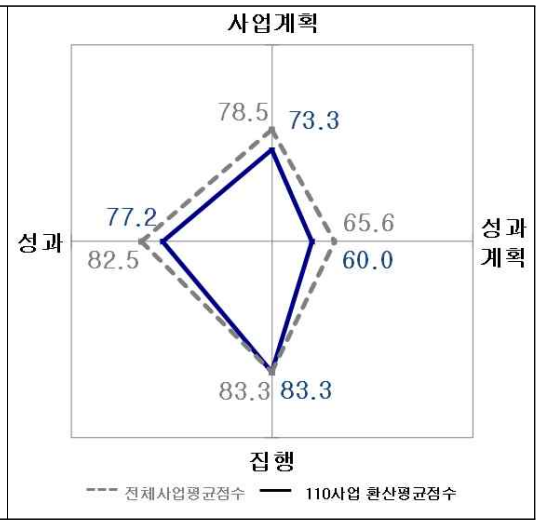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73.3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3.3점, ‘성과’ 77.2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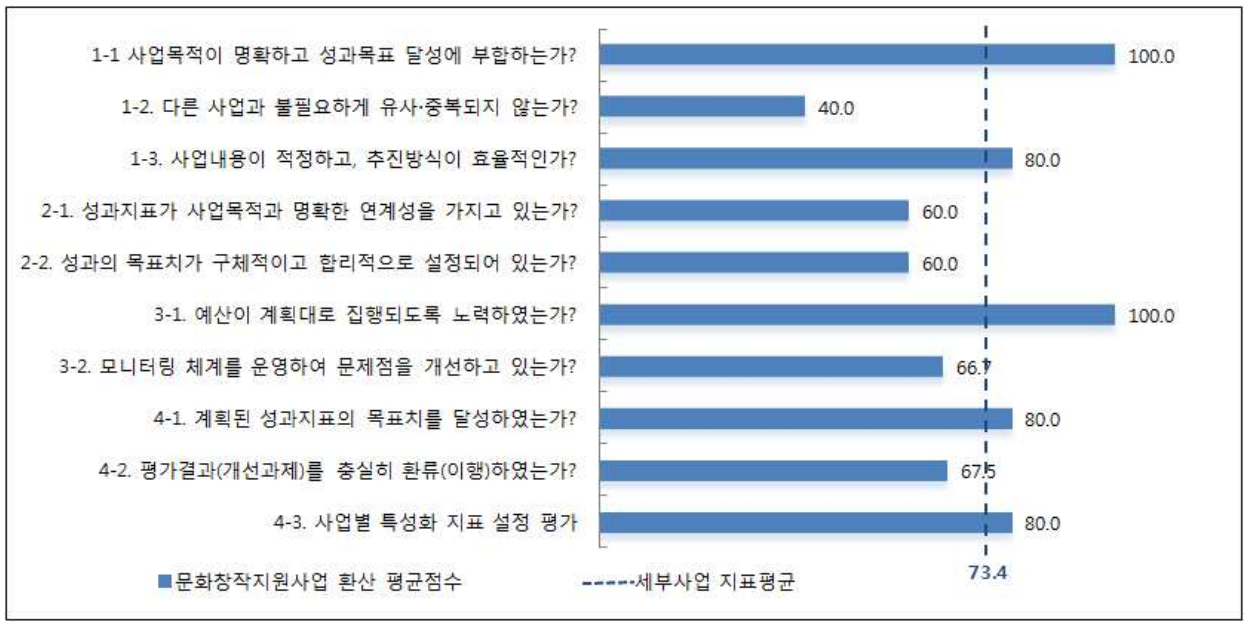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집행(+0.0)영역은 일치된 반면, 사업계획(-5.2), 성과계획(-5.6), 성과(-5.3)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73.3
	1-2(5점)	2.0	4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77.2
	4-2(10점)	6.8	67.5	
	4-3(10점)	8.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3.4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이며 4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문화예술 국제기구, 국가기구, 주요인사 등과의 교류협력채널을 다각화하고 협력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국제기구 참여, 국가 간 문화예술 기구 교류, 해외 주요 예술인사 초빙 등의 사업은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한편 사업의 특성상 직접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타사업과 시행주체가 중복되지 않으나 예술위원회원회만의 차별성(예술 창작 역량 강화라는 목적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재원 분담에 있어서는 직접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었으나 재원집행률이 93%로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악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치는 100%이상 달성하였지만,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지에 대한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 방식의 개선 노력 등이 불명확하며,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 과제 선정 및 해결안 이행에 대한 체계가 다소 미흡함

○ 한편 본 사업이 시행주체가 주로 예술위원회인 직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만족도가 성과지표의 특성화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성과지표에 있어서 정의와 산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 국제기구, 국가기구, 주요인사 등과의 교류협력채널을 다각화하고 협력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 국제기구 참여, 국가 간 문화예술 기구 교류, 해외 주요 예술인사 초빙 등의 사업은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술지원 관련 국제기구와 국가예술지원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키맨 관리활동 등 국제 문화기관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국가 중앙예술지원기구로써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으로 타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와 구별됨
- 사업 대상 또한 직접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타사업과 시행주체가 중복되지 않음

[부정적 측면]

- 하지만 최종 수혜 대상자는 민간 문화 예술단체 및 예술인으로 타 기관과의 상호 보완 또는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임에 따라 외교통상부와의 협력 및 사전 조율이 요구됨
- 예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라는 차별화된 사업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국제기구 협력활동, 국가 예술지원기구 간 교류협력, 주요 해외예술인사 초빙 네트워크 활동, 국제문화회관 협력프로젝트 등의 외형적 사업에 비중을 둘 경우 여타 기관의 국제교류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개선제안]

- 사업의 외형보다는 실제적으로 참여 예술가(단체)의 국제적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함
- 수혜대상 측면에서는 외교통상부의 고유 업무와 유사성이 있음에 따라 예술위원회만의 차별성(예술 창작 역량 강화라는 목적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자채널, 양자채널, 키맨 채널 등 채널별 영역을 설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재원 부담 또한 직접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운영됨
  - 국제기구 교류협력 활동의 경우 회원국 회비 및 행사비로 재원 분담
  -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항공료는 이동국 기관이 부담하고 초청국에서 체류 및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
  - 인사 초청사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기관에서 이동경비를 부담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진행경비를 부담
- 최근 4년 치 성과를 활용하여 수요예측 및 성과 목표를 관리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기구, 주요 국가예술위원회원회, 주요 인사 등과의 교류 강화 활동이 국제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확대의 사업목적 달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반 조성형 사업으로 특정 수혜대상자 보다는 최종적인 잠재 수혜대상자 전체에 대한 기회 확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방식 또한 기반 조성형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최근 4년간 추세치 활용하여 수요예측 및 성과목표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에 추세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예측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예를 들어 교류협력국가수의 경우 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3개년 동안 8개 국가였지만, 11년에 17개로 급증하고 있어 추세치를 활용한 예측 방법은 다소 무리가 있음

[개선제안]

- 최종 목표가 한정된 사업의 경우 추세치를 통한 빈도 중심이 아닌 성과 달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비율적 성과 목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교류협력국가 수, 교류협력 국제기구 수, 협력사업 추진 건수는 문화예술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성과지표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통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성과지표의 정의와 측정 산식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었고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지표를 도출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조직)의 글로벌 창작역량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교류협력 국가수와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가 증가할수록 협력사업 추진 건수도 그에 상당하게 증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구조를 비율구조〔협력사업 추진 건수 / (교류협력국가 수 + 교류협력국제기구 수)〕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선제안]

- 성과 지표 측정 산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명확화가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목표치가 2012년도 부서업무성과관리계획서,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관리계획에 의해 사업시행 전에 설정됨
- 최근 4년간의 추세치 등을 바탕으로 경영평가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활용하여 성과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음

[부정적 측면]

- 2010년도에서 2011년도의 성과 달성 성장 수준 보다는 하향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함. 단지 경영실적 평가 체계상의 S등급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일 뿐 의욕적 목표치로 보기 어려움
- 전년대비 상향 조정된 목표치에 대해 어떻게 성과 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제안]

- 특히 현재 교류협력 추진 중인 활동 건수를 함께 반영한다면, 향후 목표 달성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타 평가 체계상의 목표 설정치가 아닌 사업부서 내부에서 계획된 사업운영을 중심으로 한 의욕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산이 100% 집행되지 못했으나 (41백만 원 불용액 발생) '10년도 이후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예산 집행률이 2010년 87.7%→2011년 87.7%→2012년 93%로 제고되고 있음
- 대부분 예술위원회원회 직접집행사업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부정적 측면]

- 재원 집행률 100% 미달성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589	548	93.0%
소계	**589**	**548**	**93.0%**

- 분기별 집행현황도 모두 100% 달성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3/4분기에 87%로 매우 낮게 집행됨

[개선제안]

- 재원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전년도 대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남
- 부서 성과관리 워크숍을 상·하반기 개최하여 부서단위의 자체평가·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2013년도 사업에 개선 활동으로 환류

[부정적 측면]

- 예술위원회원회 전체의 통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 및 정기적 피드백 여부 확인 필요하며,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 과제 선정 및 해결안 이행에 대한 체계가 미흡함
- 성과보고서에서는 본 평가 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설명보다는 국제교류사업 전체의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 국가예술위원회원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개선제안]

- 사업 진행의 적정성 보다는 사업 진척도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추진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목표치 100% 이상 달성함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교류협력 국가(개)	21	21	100.0%
▪ 교류협력 국제기구수(개)	5	5	100.0%
▪ 협력사업 추진건수(개)	30	35	116.7%
소계			105.6%

[부정적 측면]

- 목표치는 100%이상 달성하였지만, 성과 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지에 대한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 방식의 개선 노력 등이 불명확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고도화

[긍정적 측면]

- 예산집행률이 2011년 87.7% → 2012년 93%로 제고되고 있음
- 재원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파악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과 비교적 적절한 관리 및 이행이 이뤄짐

[부정적 측면]

- 예산집행률이 제고되고는 있으나 100%에 도달하지 못함
-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이 미흡함

② 사업목적과 인과관계를 고려한 질적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 해외 예술인 초청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방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인사 초빙건수를 성과지표로 개발하여 반영함

[부정적 측면]

- 국제문화기관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해외교류사업 참여 예술인들의 글로벌 창작 역량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

③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긍정적 측면]

- 국제문화기관협력사업을 통한 글로벌네트워크 확대를 부서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부서업무성과계획에 최고의 가중치로 반영함
- 경영평가 방식의 S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목표치로 하여 전년도 대비 의욕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부정적 측면]

-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필요함
- 전년도 성과 달성 성장률에 대한 고려가 목표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업이 축소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함

④ 신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잠재고객 분석, 교류협력방안 증대)

[긍정적 측면]

- 다자채널, 양자채널, 키맨채널 등 교류채널별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 교류 대상 국가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협력 활성화 실적위주의 관리가 아닌 신규 교류 대상 기구 및 국가와의 사전 접촉 노력과 기존 협력 기구, 국가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위한 사전 조율 활동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해외인사 초청교류인원수

[긍정적 측면]

- 해외인사초청사업 교류 인원수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적정하다는 판단임
- 해외인사 초청교류 인원수 지표는 본 사업 목적의 핵심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판단됨
- 해외인사초청사업 교류 인원수는 목표치 42명을 초과하여 48명을 달성함

[부정적 측면]

- 해외인사초청사업 교류인원수 지표의 측정산식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개선제안]

- PCSI 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교류인원수 지표의 측정산식의 명확화가 필요함

② 지원 대상 만족도

[긍정적 측면]

- 지원 대상 만족도는 목표치 85.0점을 초과하여 85.7점을 달성함

[부정적 측면]

- 본 사업이 시행주체가 주로 예술위원회인 직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만족도가 성과지표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기에는 조사 설계와 다소 괴리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의 유지

- 사업의 외형보다는 실제적으로 참여 예술가(단체)의 국제적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함
- 건수 위주의 성과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참여 예술가(단체)의 질적 수준의 제고에 집중함으로써 사업목적을 실현하고 여타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비율적 성과목표로의 전환 검토

- 최종 목표가 한정된 사업의 경우 추세치를 통한 빈도 중심이 아닌 성과 달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비율적 성과목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함
- 교류협력 국가수와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가 증가할수록 협력사업 추진 건수도 그에 상당하게 증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구조를 비율구조〔협력사업 추진 건수 / (교류협력국가 수 + 교류협력국제기구 수)〕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 타 평가 체계상의 성과목표 설정치가 아닌 사업부서 내부에서 계획된 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한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2010년도에서 2011년도의 성과 달성 성장 수준 보다는 하향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함. 단지 경영실적 평가 체계상의 S등급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일 뿐 의욕적 목표치로 보기 어려움

□ 집행

○ 재원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 재원집행률이 93%에 그쳐 4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분기별 집행 현황도 모두 100% 달성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3/4분기에 87%로 매우 낮게 집행됨
- 재원집행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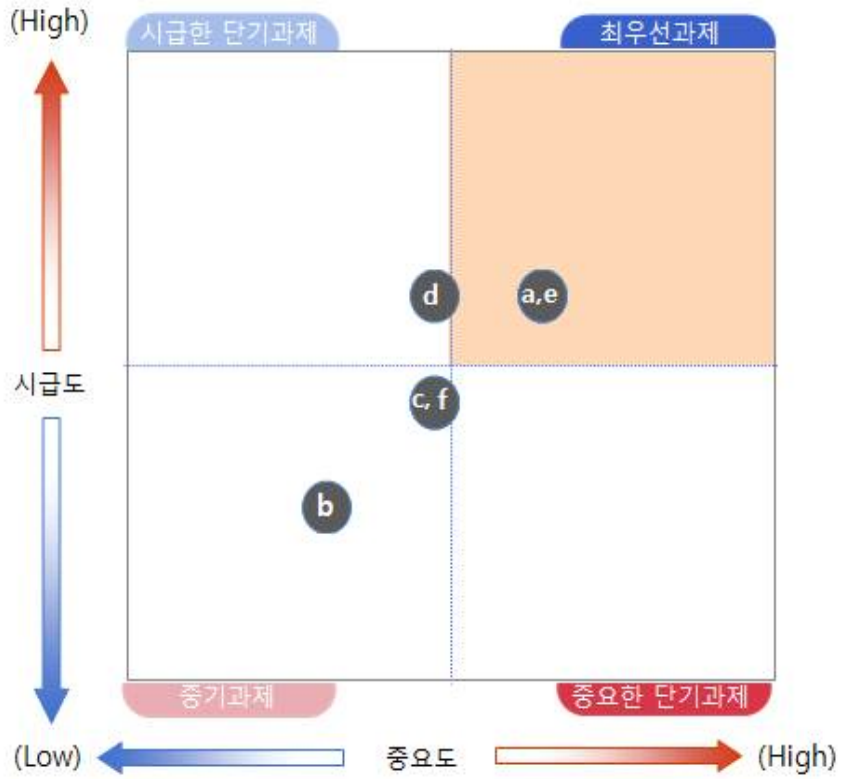
-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 및 정기적 피드백 여부 확인 필요하며,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 과제 선정 및 해결안 이행에 대한 체계가 미흡함
- 본 사업의 경우에 국제기구, 국가예술위원회원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사업 진행의 적정성 보다는 사업 진척도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추진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성과

○ 지원대상만족도가 특성화지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 본 사업이 시행주체가 주로 예술위원회인 직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만족도가 성과지표의 특성화지표로 활용되기에는 조사 설계와 다소 괴리가 있음
-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필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예술위원회가 시행주체이며 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의 유지**		●	1
계획	b	비율적 성과목표로의 전환 검토		●	6
계획	c	의욕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	●	4
집행	d	재원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	●	3
집행	e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1
성과	f	지원 대상 만족도가 특성화지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	4

2분과 [문화예술 공간운영] 단위사업

[201] 아르코미술관운영

[20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2분과 단위사업 최종보고서

200 문화예술공간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미술관운영 : 소장품 중심의 전시, 교육프로그램 위주인 일반적인 미술관과 차별화하여 실험성과 국제성에 특화한 전시, 교육,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각예술 작가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새롭고 실험적인 시각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예술인력개발원운영 : 문화예술 창작자 및 매개자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요구받는 필요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연수 등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차세대 창작예술인력의 육성 및 무대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기반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18억원

ㅇ 사업규모 : 미술관, 교육연수시설 관리 및 기획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대상 : 예술가,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 일부재원 민간부담, 보조사업 일부자부담(10%~30%)

ㅇ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0 예산	'11 예산(A)	'12 예산(B)	증감 (B-A)	%
□ 문화예술공간운영	2,248	2,365	1,822	△543	23.0%
■ 미술관운영	1,048	1,284	849	△435	33.9%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200	1,081	973	△108	10.0%
□ 세출예산비목	2,248	2,365	1,822	△543	△23.0%
■ 인건비(110)	70	0	0	-	-
■ 운영비(210)	1,554	1.603	1,448	△155	△9.7%
■ 여비(220)	43	48	54	6	12.5%
■ 업무추진비(220)	34	24	18	△6	△25.0%
■ 민간이전(320)	260	110	80	△30	△27.2%
■ 건설비(420)	173	530	180	△350	△66%
■ 유형자산(430)	114	50	42	△8	△16.0%

□ 사업추진 절차

○ 미술관운영

사업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 프로그램 추진	⇒	모니터링 시행 환류 및 내·외부사업 평가	⇒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운영 개선
ㅇ전년 내외·부 평가, 자문의견,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내외부 환경분석 ㅇ사업목표, 추진방향 설정 ㅇ연간 계획 수립 ㅇ개별 사업계획 수립 ㅇ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심의, 지원자 선정발표 ㅇ외부평가단 등 자문단 구성		ㅇ자체기획전 개최 ㅇ기획공모전 개최 ㅇ전문가성장프로그램 운영 - 작가성장지원 비평중심 워크숍 -큐레이터성장워크숍 ㅇ일반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아카이브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추진 ㅇ사업홍보 및 후원 개발		ㅇ모니터링 -일반관객모니터링 -전문가모니터링 ㅇ내부사업평가 -전문가인터뷰 -문예진흥기금사업 자체 평가 ㅇ외부평가 -주무부처(문화부) 주관 문예진흥기금 사업 등		ㅇ사업평가 결과 차기 사업계획 수립 등 환류 -중장기비전전략설정 반영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세부사업별업무개선 반영 -고객서비스개선반영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사업기본계획 수립	⇒	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시행 환류 및 내·외부사업 평가	⇒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운영 개선
ㅇ전년도까지 내외·부 평가, 자문의견, 모니터링 결과, 민원 및 고객의 소리(VOC) 등 수렴의견 등 환류 ㅇ사업목표, 추진방향 설정 ㅇ연간 교육계획 수립 ㅇ사업 홍보		ㅇ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 및 전형 ㅇ인큐베이팅 주관단체 선정 및 차세대 예술가 공모·선정 후 연중 운영 ㅇ문화예술특화교육, 국제공연예술전문가 시리즈, 찾아가는 교육 및 위탁협력교육 : 과정별 운영		ㅇ교육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검토 환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검토 반영 ㅇ내부사업평가 -문예진흥기금사업 자체평가 ㅇ외부평가 -주무부처(문화부) 주관문예진흥기금 사업 등		ㅇ사업평가 결과 차기 사업계획 수립 등 환류 -중장기비전전략 설정 반영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세부사업별업무 개선 반영 -교육수료생 이력 관리 및 현장진출 매개지원 반영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한다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출처)
이용자수 (명)	미술관	목표	57,000	58,212	48,209	51,000	64,248	○ 과거 5개년('07~'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적용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목표치 합산평점 : 100.00점)	○ 측정방법 :미술관 기획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 집계 ○ 측정산식 :Σ ○ 자료출처 : 자체운영실적 보고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57,092	25,693	37,435	51,779	67,332		
		달성도	100.1	44.1	77.7	101.5	104.8		
	인력개발원	목표	425	455	501	630	1,304	○ 예술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교육과정별 수강자 및 참가자 목표 정원의 합계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참가자 수 연간 집계 -자체 운영실적 보고서
		실적	419	380	604	953	1,425		
		달성도	98.6	83.5	120.6	151.3	109.3		
이용자만족도 (점)	미술관	목표	72.0	74.7	75.2	78.2	83.4	○ 경영평가 PCSI 점수 평가방식 적용 ○ 전년실적대비 개선도(향상도) 100점 만점 적용	○ 측정방법 :기획재정부 PCSI 조사 ○ 측정산식 :PCSI 조사산식 '고객만족개선도'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PCSI 조사결과
		실적	73.3	72.3	80.2	81.6	84.6		
		달성도	101.8	96.8	106.6	104.3	101.4		
	인력개발원	목표	80.0	81.3	82.8	85.0	86.0	○ 경평의 고객만족 개선도 100점의 목표치인 85.4점을 상회하는 86점을 의욕적으로 목표로 설정 ○ '10년도 공공기관 전체 교육훈련업 무유형 평균 85.8점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하므로 '12년까지 상대적 우위 수준인 86.0점을 달성	○ 경평에서 제시하는 고객만족개선도 산식 적용 ○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점수
		실적	79.7	80.7	84.5	83.6	86.7		
		달성도	99.6	99.3	102.0	98.4	100.8		

□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출처)
이용자수 (명)	미술관	목표	57,000	58,212	48,209	51,000	64,248	○ 과거 5개년('07~'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적용 ○ 최상위 평점등급인 S 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목표치 합산평점 : 100.00점)	○ 측정방법 :미술관 기획프로그램별 이용자수 집계 ○ 측정산식 :Σ - 자료출처 : 자체 운영실적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57,092	25,693	37,435	51,779	67,332		
		달성도	100.1	44.1	77.7	101.5	104.8		
	인력개발원	목표	425	455	501	630	1,304	○ 예술인력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교육과정별 수강자 및 참가자 목표 정원의 합계	○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참가자 수 연간 집계 -자체 운영실적 보고서
		실적	419	380	604	953	1,425		
		달성도	98.6	83.5	120.6	151.3	109.3		
이용자만족도 (점)	미술관	목표	72.0	74.7	75.2	78.2	83.4	○ 경영평가 PCSI 점수 평가방식 적용 ○ 전년실적대비 개선도(향상도) : 100점 만점 적용	○ 측정방법 : 기획재정부 PCSI조사 ○ 측정산식 :PCSI 조사산식 '고객만족개선도' 적용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PCSI 조사결과
		실적	73.3	72.3	80.2	81.6	84.6		
		달성도	101.8	96.8	106.6	104.3	101.4		
	인력개발원	목표	80.0	81.3	82.8	85.0	86.0	○ 경평의 고객만족 개선도 100점의 목표치인 85.4점을 상회하는 86점을 의욕적으로 목표로 설정 ○ '10년도 공공기관 전체 교육훈련업무유형 평균 85.8점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하므로 '12년까지 상대적 우위 수준인 86.0점을 달성	○ 경평에서 제시하는 고객만족개선도 산식 적용 ○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 점수
		실적	79.7	80.7	84.5	83.6	86.7		
		달성도	99.6	99.3	102.0	98.4	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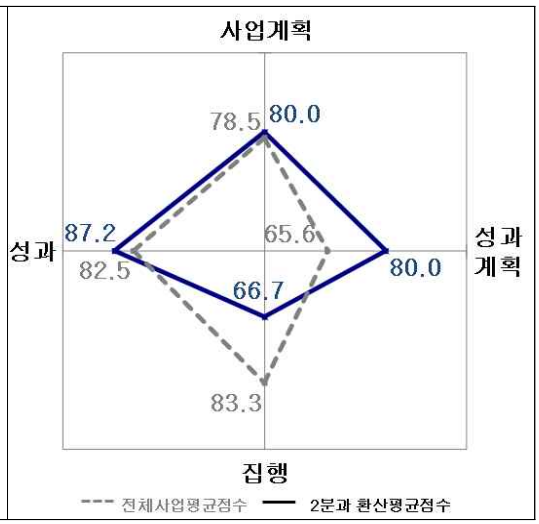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문화예술공간운영(2분과 단위사업)」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0.0점, ‘성과계획’ 80.0점, ‘집행’ 66.7점, ‘성과’ 87.2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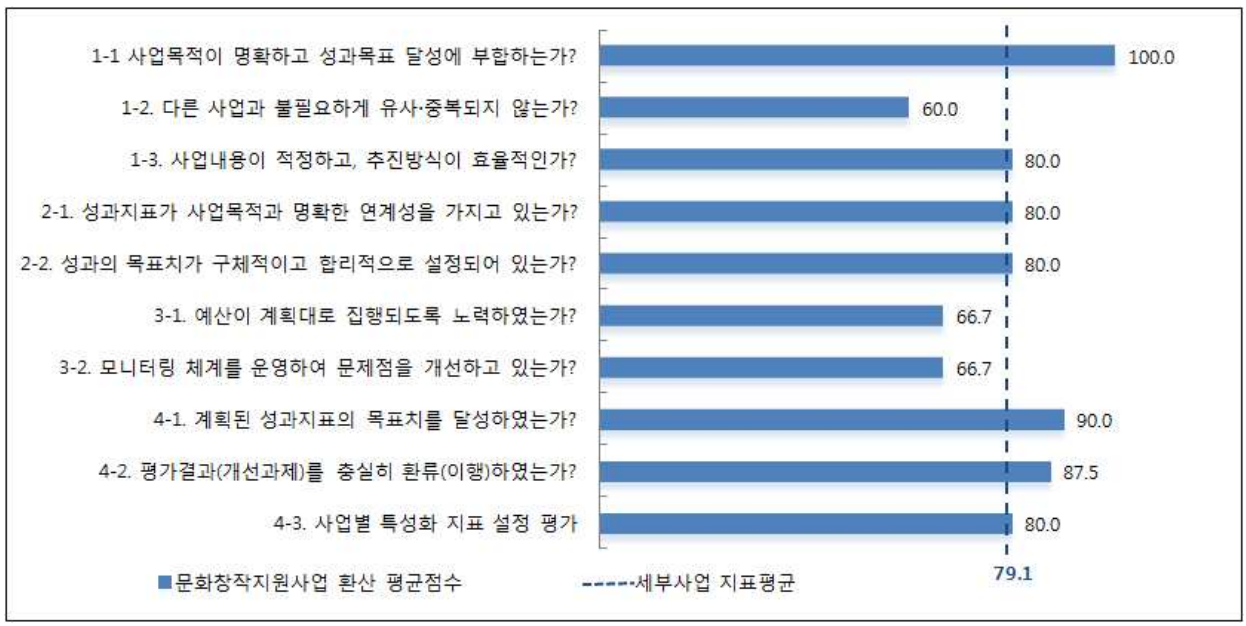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5), 성과계획(+14.4), 성과(+4.7)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16.7)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80.0
	1-2(5점)	3.0	6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4.0	80.0	80.0
	2-2(5점)	4.0	80.0	
집행	3-1(15점)	10.0	66.7	66.7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2.5	90.0	87.2
	4-2(10점)	8.8	87.5	
	4-3(10점)	8.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단위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문화예술공간운영(2분과 단위사업)」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9.1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2분과 문화예술공간운영 사업, 지원이 아니라 운영형태임.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은 아르코 미술관, 인력개발원 두 곳임. 아르코 미술관의 운영 핵심은 시각예술의 아카이브 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각예술의 젊은 예술가의 전시공간 제공. 여기서 아르코 미술관은 대학로 미술관과 더불어 신진 예술가 창작지원을 위한 인사미술공간을 포함함. 전반적으로 미술관 운영은 비상업적, 실험적 시각예술의 확대, 여건 조성, 관람기회 확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평가등급은 ‘보통’으로 평가됨

○ 2012년도 사업을 평가하면, 첫 번째로 두 공간의 사업이 겹쳐지면서, 사업의 독창성이 크게 줄어듦. 이는 성과목표, 사업목적을 재고할 필요성을 낳음. 두 번째로 실험적 시각예술이라는 운영 규칙이 몇 몇 단위사업들과 겹쳐지면서 확연하게 보이지 않음. 이를 분명하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건축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전체적으로 대학로 공원의 확대와 더불어 시각 미술 전문 미술관으로써의 전문성, 미술관의 역할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인력개발원 운영은 예년에 비하여 ‘우수’라는 향상된 평가를 받음. 여기에 큰 몫을 한 것은 운영 프로그램의 집중화라고 할 수 있음.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현장 예술가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분명하게 할 것은 국제공연예술전문가 시리즈임. 미국 중심으로 공연예술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임. 국가와 문화,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 이런 기준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전용되어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인력개발원 사업 가운데 ‘찾아가는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분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인력개발원의 가동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의 다각화를 요구하는 문제로, 인력개발원의 직원 인력, 예산의 확대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2012년도 사업목적에 비추어, 아르코 미술관의 사업목적과 적합한 세부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추진됨. 시각예술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부각하고, 이를 성취하는 젊은 실험적 예술가들의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됨. 공공미술관으로써, 전시, 교육, 연구의 기능을 골고루 수행하려는 의지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음. 인사미술공간운영에 있어서도, 그 목적인 신진예술가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지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대관전시보다는 기획전시가 주를 이루면서 미술관의 사업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임. 또한 미술관이 위치한 공원이라는 환경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점도 평가할 만한데, 인력개발원의 경우, 사업 목적이 구체적이며, 성과목표의 연계성도 분명한 편임. 인력개발원의 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상 재정지원 필요성이 절대적인 사업들임

[부정적 측면]

- 대학로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교육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교육 부분의 내용이 건축에 한정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여겨짐. 그것을 미술과 차별화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건축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미술관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미술관의 특성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됨
- 시각예술, 실험성, 젊은 예술가의 직·간접 창작 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지표에서, 어린이 건축교육프로그램은 조금 어긋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음
- 국제 창작 교류전의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 준비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 부분은 정성적 평가에 머물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이 특화될 필요가 있음
- 차별화 포인트와 아르코미술관의 가치 간 관련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함. 예를 들어 작품의 소장이 아닌 전시 중심이라는 것이 차별화의 포인트로 강조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설명되지 않으며, 공공성이 아르코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임. 어린이 대상 교육 등은 다른 미술관 등과 유사, 중복된다고 판단됨. 만약 이 사업이 미술관의 주변 환경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력개발원의 사업은 분명한 편이나, 공연예술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현재 프로그램은 전문화를 내세워 한정적이기 때문임. 인력개발원 공간과 시설은 매우 크기 때문임

[개선제안]

- 일반고객으로 사업대상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설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시각예술, 실험성, 젊은 작가라는 큰 사업목적에 걸 맞는 사업대상자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현재 그 세부적 규정은 분명하지 않은 편이며, 실험적 시각예술이라는 장르의 이론적 성찰이 필요함
- 전시 년 5회 내외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험적 주제, 국제 창작 교류전, 대표작가 초대전, 독립 큐레이터 기획전이 서로 균등하게 사업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러니까 이들 프로그램이 개별적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미술관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공연분야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인력개발 프로그램 강좌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음. 조명, 음향에 치중된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비교적 미술관이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평가됨. 그것은 미술관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미술관 공간 운영 사업이 실험성 있는 시각예술이라는 점에서 유사, 중복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기 때문임

[부정적 측면]

- 미술관 사업의 목적은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임. 그러나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각 사업의 차별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이를 분명하게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설명이 필요함. 미술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타 교육 등은 유사, 중복이지 않지만, 전문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짐. 그 한 예가 교육프로그램인 건축학교 프로그램임. 이는 공공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미술관의 특수성은 실험성, 전문성,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임
- 인력개발원의 경우, 프로그램은 독창적이지만, 그 대상자들은 한정적임. 무대미술 전문가 교육의 경우, 그 대상자들이 다수 중복될 경향이 큼. 그러니까 수혜 대상이 다른 기관 사업의 경우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조명, 음향

중심에서 벗어나 인력개발원 전체 공간을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 미술관의 경우, 아카이브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기능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아카이브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은 보다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임

[개선제안]

- 전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르코미술관의 명확한 역할, 기능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혜 대상을 분명하게 해서, 동일수혜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 혹은 미술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르코 아카이브는 국립예술자료원, 기타 미술관의 사업등과 가장 유사점이 보이는 사업임. 전시나 기획이 아르코 미술관 운영의 중심이 된다면, 아카이브존속과 필요성에 관한 보다 면밀한 설명이 요구됨
- 인력개발원의 사업은 다른 기관의 사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교육의 대상자들은 일정 부분 한정되고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큼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연예술분야의 변화를 잘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비교적, 아르코 미술관의 사업목적과 적합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각예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시 중심인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짐. 현대 미술의 영역은 매우 넓어지고 있음.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데, 그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세부 내역 사업의 적절한 편이고, 재원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짐.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지원방식도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함. 무대 미술전문가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전체적으로 미술관의 운영이, 전시, 교육, 기획자 워크숍, 아카이브 운영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은 줄어듦.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이 외부 지원에 의한 것으로 여긴 탓인지는 몰라도,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임

- 인사미술공간 전시기획의 경우, 낮은 수준의 총 관객 수로 보아, 전시파급효과 제고 및 프로모션 노력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시 운영의 경우, 전시회 개최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시각예술 전문가들의 엄격한 평가에 의해서 기획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전시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시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것도 제안할 수 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사업 방식은 무대미술의 경우는 재교육 중심이고, 공연예술인큐베이터 사업은 실천교육 중심임. 이들 사업이 단기사업이라 체계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이를 계량화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개선제안]

- 무엇보다도,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가 바람직한지를 적극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신진작가/기획자 워크샵 등 다른 사업의 유료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미술관의 전문성과 연계해서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실험적, 전문적 시각예술과 일반 관객의 연계점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는 나중에 성과지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아카이브 운영이 필요한지, 아카이브의 존재이유, 차별성의 유무 등, 전반적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임
- 신진 기획자 워크숍 운영이 미술관 사업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인력개발원 사업은 비교적 간단하게 개선 제안을 도출할 수 있음. 아르코미술관은 공연예술 분야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이 우선이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임.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 프로그램에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예산운영면에서 어려울 듯함. 프로그램 안에 체계적인 장기프로그램도 몇 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원 전체 공간, 시설, 활용 가능한 인력 등을 망라한 연구가 필요함. 현재 인력개발원의 교육 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 조명, 음향을 비롯한 공연예술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이 명확하고 측정에 오차가 없어 비교가 용이한 편임. 그 내용은 미술관 이용자 수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인력개발원의 경우, 지표와 사업 내용이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성과지표와 목적이 분명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문제는 시각 예술의 전문성에 일반 관객의 수와 만족도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있음. 이용자 만족도에 있어서,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부족한 편임
- 결과지표에 있어서, 결과의 내용(시민의 예술이해력, 심미적 향상에 관한 지표)은 구체적이지 않은 편임
- 인력개발원의 경우, 측정 산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만족도라는 것만으로는 성과지표의 명확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예컨대 교육효과의 파급내용,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표가 필요할 것임

[개선제안]

-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이 우선시 됨.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그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지표의 내용, 모든 모니터링 실적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 인력개발원의 경우, 성과지표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함. 전문성의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 이용자 만족도를 떠나 이용자의 교육을 통한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교육 수혜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들의 업적을 관리하는 일이 개선책이 될 것임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이용자 수의 경우 객관적 자료와 가정에 근거하여 목표치가 설정되었으며, 내용이 명확한 편임. 시각 예술이라는 한정된 분야의 수요에 비하여,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은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을 확충하려는 의지로 보여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교육 사업이 중심인 터라, 그 성과 목표치를 단기간에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현재 목표치를 86% 정도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짐. 동시에 성과제고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음. 공연예술계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문회의 개최, 국제적 단위 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도출된 잠재관람객의 규모와 이용자 수 목표치 간 관계가 불분명한 편임. 이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큼
- 관객을 일반 관객, 전문 관객으로 나누는 것은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음. 또한 연간 관람 회수와 목표수준을 연동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 역시 계량화에 의존하고 있어, 미술관 운영진들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현재 연간 관람 목표 회수는 자의적 설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인력개발원의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내용은 이용자 수, 만족도만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일회적임.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용역에 의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 내용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다른 미술관의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증가추이와의 비교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 실적과 금년 목표치의 차이를 자연증가분과 노력에 의한 증가분으로 구분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는 성과지표를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인력개발원의 경우에 그 필요성은 더 큼. 이용자 수, 만족도를 넘어서는 구체적이면서 전문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임. 그 한 예가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료생들의 업적을 기록,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교육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일임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미술관운영 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상반기 집행률은 사업의 성격상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는 미술관 운영의 특성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터라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인력개발원의 경우, 재원 집행률 100%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집행률이 96.4%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미집행금액은 집행과정에서 운영비를 절약한 부분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그럼에도 정부가 권장하는 분기별 집행계획이 준수되지 못함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사 미술공간의 경우, 실사 시 소명되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사업 안으로 들어가면, 예컨대 공연예술인큐베이터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이 일반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경향이 있음. 국제공연예술가 시리지의 경우도, 국가를 다원화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임. 현재는 미국 중심임. 이는 글로벌화되어 가는 오늘날 추세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동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우리와 떨어져 있는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를 적극 추천・제안함

[개선제안]

- 미술관 운영의 경우, 사업과 예산집행의 일원화가 어려운 편이지만, 이를 위해서 전시회수와 같은 사업의 축소화를 제안할 수 있음
- 전시와 사업의 프로그램이 매월 균등하게 시행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연초 보다는 가을 이후,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편임. 현재 공사 중인 대학로 공원의 개장에 맞추어, 그 한 복판에 있는 미술관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공원이 다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실험적 시각예술만의 추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임. 오히려 미술 일반, 미술의 변화, 미술의 융합 등을 통한 시민을 위한 미술 교육 기관으로의 변모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집행은 사업의 시행과 연계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계획은 사업프로그램의 계획 때부터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사업의 수혜자들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음. 어디 까지가 전문가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이에 대한 기 준 마련도 제안 사항이 될 수 있음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미술관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다각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모니터링의 대상자도 외부 전문가, 사업 참여자(작가 등) 이용자 평가 등으로 구분해서 모니터링의 합리성을 증가시킴. 인력개발원도, 전문가, 교육대상자, 자체 직원들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의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의 방법은 사후평가에 해당됨. 이러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함. 특히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샵이나 교육이 아닌, 아르코 미술관/인사미술공간의 전시사업의 경우, 전시 중 제기된 문제점이나 전시가 끝난 후에 지적된 문제점이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함
- 모니터링 결과 중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여겨짐(예: 인사미술공간 관람객 평가)
- 인력개발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특성상, 모니터링의 결과를 교육내용에 피드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흡한 편임. 이는 모니터링 내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내용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그럼에도 피드백 한 내용들을 구체화한 시도, 과정, 내용 들을 밝혀놓을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지금까지 실시 한 모니터링 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 사후 모니터링만이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과 사업실행 과정 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 해결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고서에는 가능한 것을 밝혀 놓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다음해에 연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놓고 있음
- 사전 모니터링과 사업실행 중에 하는 과정 모니터링을 제안하며, 이 경우 즉각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안함.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인 경우, 모니터링 내용을 달리하고, 특히 장기 교육의 경우, 모니터링 방법,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미술관의 경우, 목표치 100% 이상 달성했다고 판단됨. 이는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것임. 인력개발원의 경우도, 2012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위 두 가지 성과지표만을 보면, 성과부분에서 부정적 측면은 극히 적음. 두 가지 성과지표는 매우 한정된 지표라고 할 수 있고, 미술관 전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성과지표가 단순한 편임. 이를 미술관 사업의 다양성에 비하여 협소한 편이고, 결과적으로 미술관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는 지금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86.7%는 다른 기관의 사업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임. '찾아가는 교육'이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일치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각 사업별로 목표치 설정과 목표대비 실적 보고가 필요함. 특히 미술관은 대학로 공원 개발 이후, 환경에 걸 맞는 목표치, 목적 등을 수정해야 함
- 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성과목표치의 내용을 달리 하면 좋겠음. 현재 지표 내용 가운데, 품질 지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장기 사업도 다단기 사업이 적절해 보임. 그 이유는 인력개발원이 위치한 공간이 수요대상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먼 곳에 있기 때문임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협찬을 통한 홍보로 예산 절감함
- 고객을 세분화하여 특화된 전략 수립을 노력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시행함
- 인력개발원의 경우, 예술교육분야의 수요예측을 체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전문 관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설문내용에 따라 고객만족도와 예술성 및 실험성 간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음. 또한 분기별 집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 및 이유가 있음
- 인력개발원은 현재 사업의 내용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수요예측은 현재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제안]

- 미술관의 경우, 전문고객과 일반고객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미술의 확대, 융합 등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미술의 변화를 일깨워주는 공간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 이는 프로그램의 전면적 개선을 낳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인력개발원의 경우,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그 한 가지 예가 될 것임. 그리고 교육받은 수강생들의 장기적 인력개발, 업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긍정적 측면]

- 미술관의 경우, 전문가의 전시사업 질적 평가는 바람직하나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 못한 점이 있음. 주변 공간을 전면적으로 사업 목적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수요대상자가 전문 인력 중심으로, 그 비중이 큰 점. 예술창조 역량에 비하여, 문화나눔과 같은 사업은 그 특수성이 협소한 편임. 이 사업이 필요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 측면]

- 미술관의 경우, 예술창작여건 개선도의 경우 매년 개선정도를 측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편임. 인력개발원의 경우, 인력 양성도, 현업 도움도 라는 기준에 애매한 점이 있음

[개선제안]

- 독립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일반관객 만족도와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인력개발원은 교육의 내용에 따라 사업별 특성 지표를 달리 개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창작여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묻는 것, 교육내용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미술관의 사업목적 재정립

- 미술관의 사업목적을 분명하게 재정립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것임. 실험적 시각 예술이라고 하지만, 매우 복합적인 사업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임. 건축에 관한 교육을 사업 목적에 넣는다면, 미술과 연계될 수 있는 다른 장르와의 복합 교육에 관한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미술과 다른 장르와의 복합현상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대학로 미술관이 이런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연예술과 연계하는 방향도 제안할 수 있음. 미술 역시 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미술관은 그 환경 안에서 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미술관은 대학로 공원 안에 있다는 점을 특화하고, 그곳에서 사업 목적,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미술관은 '섬'처럼 분리된 공간이 아닐 것임

○ 국제공연예술가시리즈 재규명

- 본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임. 한 동안 유럽 권의 예술가들이 초청되었고,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미국 중심의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강의와 실기를 맡음.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그 계기를 규명하고, 실천을 지속하려면, 전면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나을 것임. 장르, 국가별 초청 예술가, 다른 문화와의 소통 등의 문제가 폭넓게 토의된다면 이 시리즈는 새로운 위상을 지닐 수 있을 것임. 동아시아 예술로 눈을 돌린다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지금 양태는 문화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

○ 공연예술 인큐베이터사업 재규명

- 본 사업은 인력개발원 사업 가운데, 다른 기관과 유사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임. 국립극장도 지난해부터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두 사업에 관여하는 멘토들은 크게 다르지 않음. 물론 인력개발원의 경우가 보다 확장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잘 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함. 사업의 목적, 과정, 평가 등 처음부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

○ 문화예술 공간연계사업 도출

- 미술, 공연예술이 문화예술 공간 단위 사업의 핵심 분야임. 그런데 이 두 분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들은 부재함. 이는 조직의 특성만큼이나 서로 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임. 미술관, 벽제의 공연예술 공간이 서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앞날의 예술경향과 어울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는 미술관과 인력개발원의 사업은 아무런 연계도 없고, 공동 작업을 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 두 기관을 하나로 엮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내용 전 과정 공개

- 이는 정보의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보여짐. 특히 인력개발원의 교육정보들은 더욱 자세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리고 수요대상자들을 널리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벽제 인력개발원 공간 활용

- 벽제 인력개발원은 먼 곳에 있기 보다는 관심 밖에 놓여있다고 여겨짐. 그 만큼 사업이 눈에 띠지 않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문턱을 낮추고,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원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운영예산도 확대해야 할 것임

□ 성과

○ 미술관 운영의 확대

- 미술관이 실험적 시각예술에 초점을 두는 터라, 일반 관객들에게는 대학로, 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이라도 다소 어려운 공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 일반 관객들을 위한 미술체험의 확대,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기회의 확충과 같은 서로 다른 목표가 통일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어린이 건축학교 프로그램은 이런 동기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오늘날 미술관이 그림을 보는 공간만으로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임. 실험적 시각예술이라고 하지만, 대학로라는 지정적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미술관의 기능, 역할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성과목표에 포함하는, 이른바 미술관 목적에 관한 교정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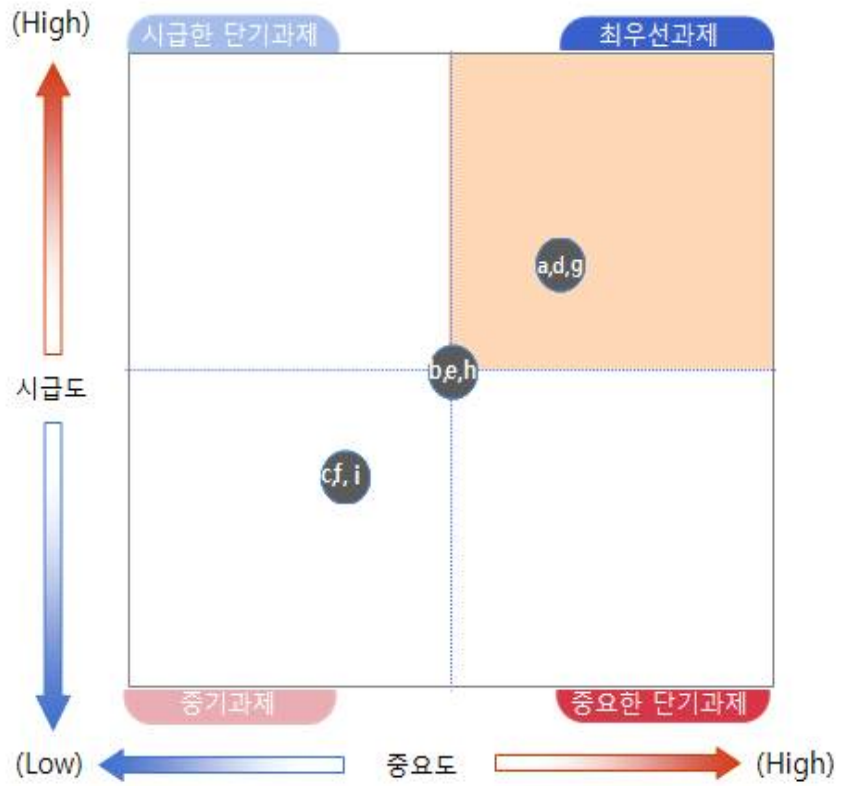
○ 미술관 공간 활용 활성화

- 예술가의 집 정원은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음. 미술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야외전시를 비롯한 사업들의 구상이 필요함.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공원 환경이 마무리된다면, 미술관은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현재 미술관은 다소 정적인 것이 사실임. 미술과 환경, 미술과 시민, 미술과 도시 등 미술관, 미술의 역할을 달리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지표 개선 연구

- 모니터링의 경우, 각 사업 단위의 특성만큼 지표가 다양화해야 할 것임. 현재는 이용자 수, 만족도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교육의 경우에는 내적 성장보다는 현업의 기여도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기준은 애매한 편임. 그런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정밀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미술관의 사업목적 재정립**		●	1
계획	b	국제공연예술가시리즈 재규명		●	4
계획	c	공연예술 인큐베이터사업 재규명		●	7
집행	d	**문화예술 공간연계사업 도출**		●	1
집행	e	교육 내용 전 과정 공개		●	4
집행	f	벽제 인력개발원 공간 활용		●	7
성과	g	**미술관 운영의 확대 (전시공간, 아카이브 포함)**	●	●	1
성과	h	미술관 공간 활용 활성화		●	4
성과	i	모니터링 지표 개선 연구	●	●	7

2분과 [문화예술 공간운영]
세부사업

201 아르코미술관운영

2분과 세부 · 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201 아르코미술관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일반적인 미술관과 차별화하여 실험성에 입각한 전시 개최, 전문아카이브 제공,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각예술 작가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새롭고 실험적인 시각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아르코미술관 핵심기능 : 전시중심의 당대 시각예술 창작, 연구, 교육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 시각예술의 발전에 기여

(※신진예술가 창작지원을 위해 '인사미술공간' 별도운영)

ㅇ 인사미술공간 핵심기능 : 자생력이 부족한 비상업적, 실험적인 신진작가 및 기획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시각예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ㅇ 참고 : 아르코미술관의 차별화된 기능(Positioning) 및 사례비교

국가	역할분담 내용과 대표 사례		
	작품소장 중심 근대이전	작품소장 중심 현대미술 전반	전시중심 당대미술 (새로운 경향, 실험성)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지자체설립 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테이트갤러리	테이트모던	헤이워드갤러리, ICA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퐁피두센터	팔레 드 도쿄

※ 영국(헤이워드갤러리, ICA)의 경우 ACE, 프랑스(팔레 드 도쿄)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직접 건립 및 운영지원

○ 참고 :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의 세부 사업목적

구분	(세부) 사업목적	주요 사업내용	그동안의 성과
아르코미술관 운영	○ 우리 시각예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관객)들의 새로운 시각예술 감상기회 제공 ○ 전시중심형 공공미술관으로써 실험성, 국제성에 입각한 전시, 교육, 연구 기능 수행	○ 전시 : 연 5회 내외 -실험적 주제기획전 2건 -국제창작교류전 1건 -대표작가초대전 1건 -독립큐레이터 기획 공모전 1건 ○ 차별화된 사회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유일 건축특화교육 ○ 창작자를 위한 시각예술 전문아카이브구축운영	○ '74~'03년 : 전시공간제공(대관기능)과기획전시 병행 ○ '04~현재 : 대관전시폐지, 기획성 강화(기획전시중심) 및 창작 연구지원기능강화운영 -기획력인정사례: 아트인컬쳐베스트전시 연속선정('11년 3개, '12년 2개 전시 선정) ○ 미술계평가 : 실험적이며 국내작가창작지원성과가 높은 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운영	○ 신진 시각예술작가에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창작역량강화 간접지원 ○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비상업 작품, 신진작가의 발표공간을 지원하여 신진작가 발굴육성	○ 신진작가 및 신진기획자 주제기획전시 : 연 8~10회 내외 개최 ※ 전시작가에 대한 비평, 홍보 지원으로 경력개발기회(프로모션) 제공 ○ 신진육성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진작가비평워크숍 - 신진기획자워크숍	○ IMF 이후 창작전시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예술가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공간임차 개관 (2000.5) ○ 개관이후 약 1,000여명의 신진작가 및 기획자의 창작활동 지원 -주요성장사례: 홍경택, 정연두, 권오상, 이윤준, 방자영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2년도 기준 1,049백만원

○ 사업규모 : 아르코미술관 시설운영 및 전시·교육·아카이브 등 기획 프로그램 운영, 인사미술공간 시설운영 및 신진예술가 전시개최, 워크숍 등 기획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예술가, 일반국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민간보조(기획공모전시개최 지원)의 경우 10% 자부담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미술관)

□ 예산현황

○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미술관운영	1,358	1,049	964	△85	
■ 미술관운영	1,284	849	764	△85	
■ 인사미술공간운영	74	200	200	-	

○ ‘12년도 아르코미술관 예산 세부내역

항목		예산(원)	예산비중
사업 (기획 프로그램)	전시(기획비,전시제비용,전시장인력인건비포함)	420,363,000	49.5%
	전문가교육(큐레이터인턴십운영비포함)	70,000,000	8.2%
	사회예술교육	65,000,000	7.7%
	아카이브운영(아키비스트인건비포함)	85,720,000	10.1%
	홍보,관객개발,재원개발비	60,000,000	7.1%
시설 운영	보험료,제세공과금	13,400,000	1.6%
	시설비(시설보수,신규설치등)	110,000,000	12.9%
	장비유지보수비	20,000,000	2.4%
	평가단운영	4,960,000	0.6%
소계		849,443,000	100%

○ ‘12년도 인사미술공간 예산 세부내역

항목		예산(원)	예산비중
시설 운영	운영,홍보,제세공과금	30,000,000	15.0%
	장비유지보수비	20,000,000	10.0%
사업	전시비	50,000,000	25.0%
공간 이전	시설비	60,000,000	30.0%
	공간이전비 (공간이전 추진 대비 예산)	40,000,000	20.0%
소계		200,000,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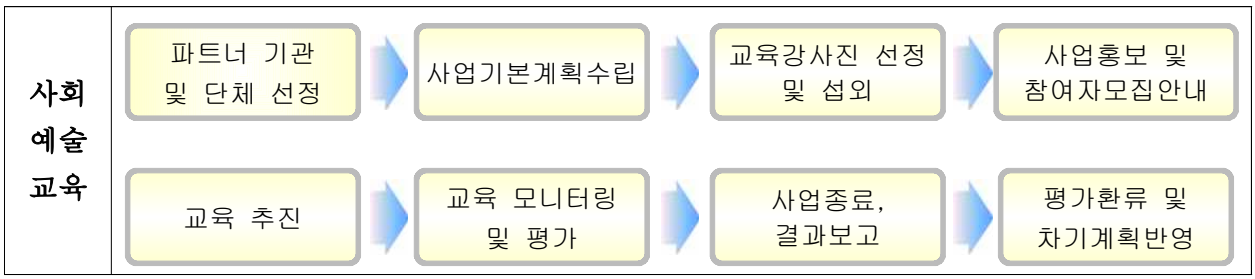
※ ‘09년부터 인사미술공간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 논의 및 그에 따라 유예되어 왔던 필수 개선수요 시설 및 장비 유지를 위해 ’12년도 예산중 시설비 비중을 높여 편성

□ 사업추진 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 프로그램 추진	⇒	모니터링 시행 환류 및 내·외부사업 평가	⇒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운영 개선
ㅇ전년 내외·부 평가, 자문의견,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내외부 환경분석 ㅇ사업목표, 추진방향 설정 ㅇ연간 계획 수립 ㅇ개별 사업계획 수립 ㅇ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심의, 지원자 선정발표 ㅇ외부평가단 등 자문단 구성		ㅇ자체기획전 개최 ㅇ기획공모전 개최 ㅇ신진작가큐레이터 워크숍 -작가성장지원비평 워크숍 -큐레이터성장워크숍 ㅇ일반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아카이브 운영 및 기획프로그램 추진 ㅇ사업홍보 및 후원 개발		ㅇ모니터링 -외부전문가평가단 -사업운영자(강사) 평가 -일반관객모니터링 ㅇ내부사업평가 -외부전문가평가단 -문예진흥기금사업 자체 평가 ㅇ외부평가 -주무무처(문화부) 주관 문예진흥기금 사업 등		-중장기비전전략 설정 반영 -중기재정운영 계획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세부사업별업무 개선 반영 -고객서비스개선 반영

□ 세부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절차

기획 전시 개최	미술관운영전략수립 (전사전략연계)	연간전시계획 수립	개별 전시계획 수립	보도자료발송 및 홍보
	전시 개막	전시 운영 및 도록 제작	평가단 평가 및 관객 만족도조사	전시종료 및 평가 환류
공모 전시 개최	개방형 공모전 사업신청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심의 추진	
	지원금 지급	교부신청서 접수	심의결과 공개	
	공모전 사업시행 및 평가단평가, 만족도조사	성과보고서 접수	평가 환류 차년도 계획반영	
전문 교육 (전문가워크숍)	사업기본계획수립	참가자 모집 공고	커리큘럼 확정 및 강사진 섭외	참가자 선정회의 및 선정결과공고
	프로그램 OT 및 사업추진	평가워크숍	사업종료 및 만족도조사실시	평가환류 및 차기계획반영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이용자수	목표	57,000	58,212	48,209	51,000	64,248	ㅇ 과거 5개년 ('07~'11)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적용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목표치 합산평점 : 100.00점)	ㅇ 측정방법 : 미술관 기획프로그램별 이용자수 집계 ㅇ 측정산식 : Σ ㅇ 자료출처 : 자체 운영실적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57,092	25,693	37,435	51,779	67,332		
	달성도	100.2	44.1	77.7	101.5	104.8		
이용자 만족도	목표	72.0	74.7	75.2	82.2	83.4	ㅇ 경영평가 PCSI 점수 평가방식 적용 ㅇ 전년실적대비 개선도(향상도) 100점 만점 적용	ㅇ 측정방법 : 기획재정부 PCSI조사 ㅇ 측정산식 : PCSI 조사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ㅇ 자료출처:기획재정부 PCSI 조사결과
	실적	73.3	72.3	80.2	81.6	84.6		
	달성도	101.8	96.8	106.6	99.3	101.4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 적극적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전문관객(예술가 및 예술매개자, 전공학생)으로 사업대상을 명확히 한 기획 프로그램 및 다양한 관객개발 프로그램 추진 - 고유의 사업목적인 '예술창작역량 강화'에 따라, 기획전과 공모전 병행, 신진작가워크숍 등 전문교육, 미디어아트 특화 시각예술 전문아카이브 운영 등 타 국공립미술관과 차별화된 사업 강화 추진 - 미술관 전시 부대프로그램 30회, 인사미술공간 전시 부대프로그램 10회, '아르코프렌즈데이' 현대미술특강 3회, '건축가와 함께 하는 토요일 11시' 건축특강 10주, '오프앤프리국제영화제', '예술가의 모자-가수 하림콘서트' 등 다양한 관객개발프로그램 추진
	■ 현장홍보 등 마케팅 확대	■ 자체 이용객 현황 전수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시장 방문객의 약 39%가 미술관을 지나다가 들렀다는 응답을 나타내 대학로에 공연관람이나 약속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을 미술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현장 마케팅 노력 지속. 또한 관객을 세분화하여 특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매체를 다각화하여 홍보마케팅 추진
	■ 아르코미술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 '예술창작역량강화'라는 미술관 고유의 사업목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2012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제안된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전문관객의 만족도" 및 "기획프로그램의 예술창작여건 개선도" 성과지표 신규 도출하여 관리함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시행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미술평론가・미술전문기자・예술감독 등으로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간 전시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작성을 기반으로 연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완료. 또한 연간 미술관고객 수요 연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분석을 추진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13년 사업계획수립에 환류
	■ 예산계획에 따른 재원 집행	■ 연초 예산조기집행계획 수립 및 기획예산부와 함께 주・월별 모니터링 추진, 계획대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인분석 및 집행계획재점검. 상반기에 조기집행 가능한 항목(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을 위주로 조기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였으며, 전년대비 미술관운영 예산집행률 상승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2011년)	■ 유사성해소 등 사업계획 보완 - 내역사업의 유사성을 해소하기 위해 문예기금 내 인접한 단위사업으로 사업재조정 권고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및 '미술관운영'을 사업 운영 목적에 인접한 단위사업인 '예술가 창조역량강화'로 '13년 사업을 재편하여 유사성 해소 - 문화예술공간운영 단위사업의 규모와 사업목적의 유사성 감안, '13년도부터 문화예술공간운영(단위사업)을 폐지하고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 (단일사업)으로 통합 추진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시 고려된 내외부 환경 변화 등 구체적 설정근거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개선 권고 - 사업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정근거를 통해 목표치를 도출하는 노력 필요	■ 구체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목표 도출 - 타 국공립미술관 등의 성과지표 벤치마킹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 특성화지표 설정 및 관리 : '전문관객(예술가 및 예술계종사자) 만족도'('12년 85.5점) 및 '기획프로그램의 예술창작여건 개선도'('12년 87.8점)
국회・감사원 (2011년)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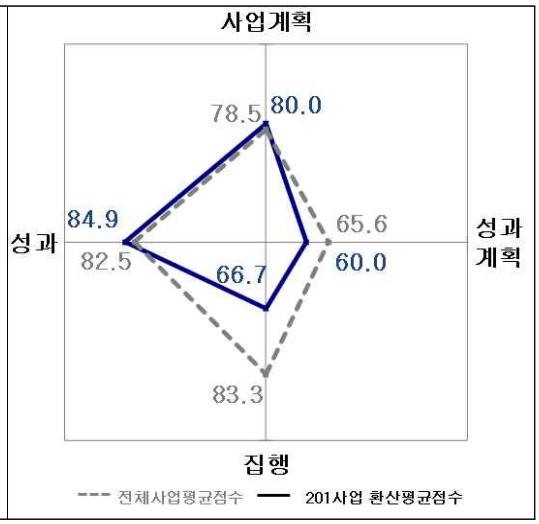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아르코미술관운영」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0.0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66.7점, ‘성과’ 84.9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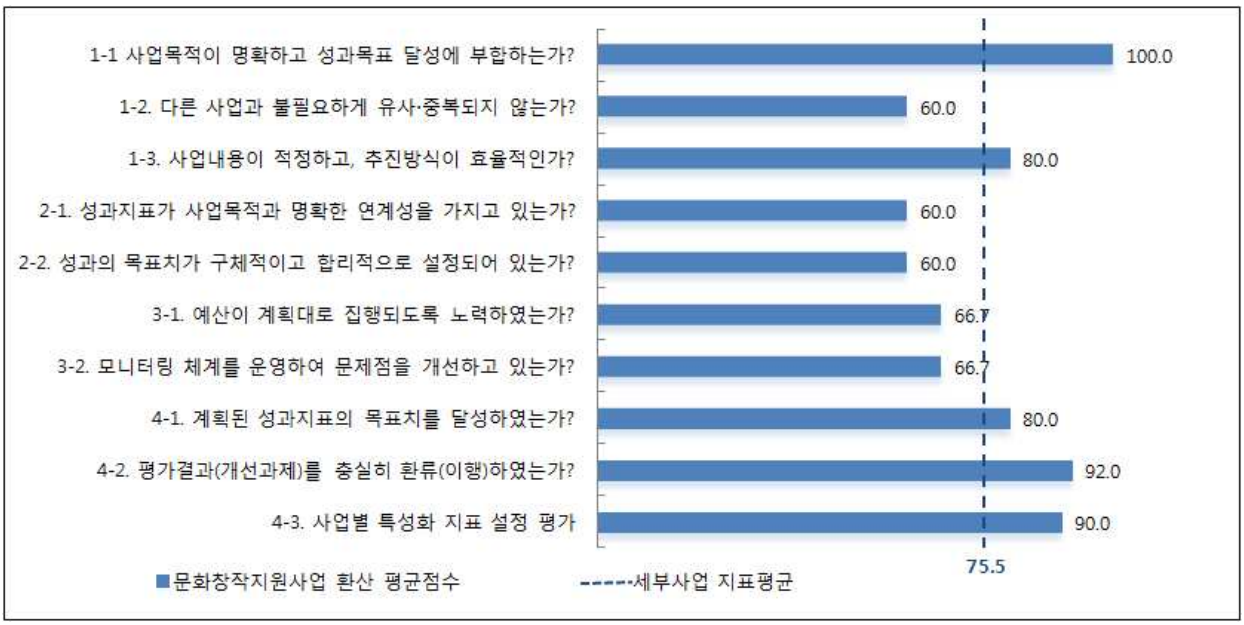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5), 성과(+2.3)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계획(-5.6), 집행(-16.7)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80.0
	1-2(5점)	3.0	6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0.0	66.7	66.7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84.9
	4-2(10점)	9.2	92.0	
	4-3(10점)	9.0	9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아르코미술관운영」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5.5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2012년도 사업을 평가하면, 첫 번째로 두 공간의 사업이 겹쳐지면서, 사업의 독창성이 크게 줄어듦. 두 번째로 실험적 시각예술이라는 운영 규칙이 그리 확연하게 보이지 않음. 미술관의 전문성을 위하여 깊게 논의할 필요가 필요함. 사업 목적은 비교적 충실한 편이지만, 전체적인 문화예술공간과의 연계 사업부분은 부재한 편임. 이 부분이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임. 제안하자면, 대학로 공간과 미술관의 연계, 예술가의 집 공간과의 연계, 인력개발원 공간과의 연계 등임

○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다듬어 진행한 편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개선과제 환류, 특성화 지표설정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사업 목적에 맞게 다시 설정할 것을 제안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2012년도 사업목적에 비추어, 아르코 미술관의 사업목적과 적합한 세부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추진됨. 시각예술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부각하고, 이를 성취하는 젊은 실험적 예술가들의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됨. 공공미술관으로써, 전시, 교육, 연구의 기능을 골고루 수행하려는 의지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음
- 인사미술공간운영에 있어서도, 그 목적인 신진예술가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지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범을 보이고 있음.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대관전시보다는 기획전시가 주를 이루면서 미술관의 사업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시각예술은 미술 장르 가운데 수익과 가장 무관한 공공사업인 터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됨. 이는 미술관의 사업목적과 가장 유관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3개의 기준을 모두 충복한 것을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대학로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교육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교육 부분의 내용이 건축에 한정된 점은 아쉬움. 그것을 차별화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건축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미술관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미술관의 특성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됨
- 시각예술, 실험성, 젊은 예술가의 직·간접 창작 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지표에서, 어린이 건축교육프로그램은 조금 어긋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음.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이 부분은 지표상 목적과 어긋나 약점으로 지적됨
- 국제 창작 교류전의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 준비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차별화 포인트와 아르코미술관의 가치 간 관련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함. 예를 들어 작품의 소장이 아닌 전시 중심이라는 것이 차별화의 포인트로 강조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설명되지 않으며, 공공성이 아르코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임

[개선제안]

- 일반고객으로 사업대상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설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시각예술, 실험성, 젊은 작가라는 큰 사업목적에 걸 맞는 사업대상자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전시를 년 5회 내외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험적 주제, 국제 창작 교류전, 대표작가 초대전, 독립 큐레이터 기획전이 서로 균등하게 사업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러니까 이들 프로그램이 개별적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미술관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비교적, 미술관이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평가됨. 그것은 미술관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실험적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공간 운영이 유사, 중복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기 때문임
- 수혜대상이나 수행 주체가 중복되지 않는 것은 실험적인 시각예술이라는 사업의 특성화에 잘 드러나고, 실천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동종의 미술관 예컨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과의 차별성이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미술관 사업의 목적은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임. 그러나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각 사업의 차별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이를 분명하게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설명이 필요함. 미술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타 교육 등은 유사, 중복이지 않지만, 전문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짐. 그 한 예가 교육프로그램인 건축학교 프로그램임. 이는 공공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미술관의 특수성은 실험성, 전문성,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라고 보여짐

[개선제안]

- 전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르코미술관의 명확한 포지셔닝을 위하여 간략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혜 대상을 분명하게 해서, 동일수혜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 혹은 미술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르코 아카이브는 국립예술자료원, 기타 미술관의 사업등과 가장 유사점이 보이는 사업임. 전시나 기획이 아르코 미술관 운영의 중심이 된다면, 아카이브 존속과 필요성에 관한 보다 면밀한 설명이 요구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비교적, 아르코 미술관의 사업목적과 적합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각예술을 의미함. 전시 중심인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짐. 세부사업의 경우, 재원분담의 적절성은 실험적인 시각예술이 지닌 특성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이 사업이 소수의, 실험적인 시각예술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단됨. 그런 이유로 지원방식은 무료화 즉 전액 지원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전체적으로 미술관의 운영이, 전시, 교육, 기획자 워크숍, 아카이브 운영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은 줄어듦.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이 외부 지원에 의한 것으로 여긴 탓인지는 몰라도,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임
- 인사미술공간 전시기획의 경우, 낮은 수준의 총 관객 수로 보아, 전시파급효과 제고 및 프로모션 노력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시 운영의 경우, 전시회 개최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시각예술 전문가들의 엄격한 평가에 의해서 기획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전시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시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것도 제안할 수 있음

[개선제안]

- 무엇보다도,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가 바람직한지를 적극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신진작가/기획자 워크샵 등 다른 사업의 유료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미술관의 전문성과 연계해서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실험적, 전문적 시각예술과 일반 관객의 연계점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는 나중에 성과지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아카이브 운영이 필요한지, 아카이브의 존재이유, 차별성의 유무 등, 전반적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 신진 기획자 워크숍 운영이 미술관 사업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이 명확하고 측정에 오차가 없어 비교가 용이한 편임. 그 내용은 미술관 이용자 수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것임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에 걸맞고, 이에 따른 오차가 거의 없는 편임. 성과지표에 관한 측정 산식이 관객의 수, 작품의 수용 기준 등에 의거해서 명확한 편임

[부정적 측면]

- 문제는 시각 예술의 전문성에 일반 관객의 수와 만족도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있음. 이용자 만족도에 있어서,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부족한 편임
- 결과지표에 있어서, 결과의 내용(시민의 예술이해력, 심미적 향상)에 관한 지표는 구체적이지 않은 편임

[개선제안]

-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이 우선시 됨.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그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지표의 내용, 그러니까 모든 모니터링 실적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이용자 수의 경우 객관적 자료와 가정에 근거하여 목표치가 설정되었으며, 내용이 명확한 편임. 전시 사업에 경우, 전시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시 내용을 조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성과제고에 관한 목표치 기준을 충분하게 제고함. 이는 구체적으로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로 표시됨

[부정적 측면]

- 도출된 잠재관람객의 규모와 이용자 수 목표치 간 관계가 불분명한 편임
- 관객을 일반 관객, 전문 관객으로 나누는 것은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음. 또한 연간 관람 회수와 목표수준을 연동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간 관람 목표 회수는 자의적 설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다른 미술관의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증가추이와의 비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 실적과 금년 목표치의 차이를 자연증가분과 노력에 의한 증가분으로 구분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는 성과지표를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미술관운영 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 상반기 집행률은 사업의 성격상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는 미술관 운영의 특성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터라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그럼에도 정부가 권장하는 분기별 집행계획이 준수되지 못함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사 미술공간의 경우 실사 시 소명됨

[개선제안]

- 미술관 운영의 경우, 사업과 예산집행의 일원화가 어려운 편이지만, 이를 위해서 전시 회수와 같은 사업의 축소화를 제안할 수 있음
- 전시와 사업의 프로그램이 매월 균등하게 시행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연초 보다는 가을 이후,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편임
- 예산 집행은 사업의 시행과 연계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계획은 사업프로그램의 계획 때부터 조정될 필요가 있음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미술관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다각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모니터링의 대상자도 외부 전문가, 사업 참여자(작가 등) 이용자 평가 등으로 구분해서 모니터링의 합리성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함
-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반관객과 전문 관객의 기준을 차등화하고, 이를 개별화해서 판단함. 이를 근거로 전시 기획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마련함
- 모니터링의 구체적 방법들은 외부 전문가, 담당 큐레이터, 공모전 기획자, 뮤지엄 매니저, 전시장 관객들로 차별화했고, 이를 통하여 전시평가, 전시 결과보고,

사업성과, 전시 만족도, 사업 만족도로 나누어 시행함. 이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실려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의 방법은 사후평가에 해당됨. 이러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함. 특히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샵이나 교육이 아닌, 아르코 미술관/인사미술공간의 전시사업의 경우, 전시 중 제기된 문제점이나 전시가 끝난 후에 지적된 문제점이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함
- 모니터링 결과 중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예: 인사미술공간 관람객 평가)

[개선제안]

- 지금까지 실시 한 모니터링 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 사후 모니터링만이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과 사업실행 과정 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 해결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사전 모니터링과 사업실행 중에 하는 과정 모니터링을 제안하며, 이 경우 즉각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안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미술관의 경우, 목표치 100% 이상 달성했다고 판단됨. 이는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것임

[부정적 측면]

- 위 두 가지 성과지표만을 보면, 성과부분에서 부정적 측면은 극히 적음
- 예시된 두 가지 성과지표는 매우 한정된 지표라고 할 수 있고, 미술관 전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성과지표가 단순한 편임. 이를 미술관 사업의 다양성에 비하여 협소한 편임

[개선제안]

- 각 사업별로 목표치 설정과 목표대비 실적 보고가 필요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적극적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긍정적 측면]

- 협찬을 통한 홍보로 예산을 절감한 점. 해외 미술관 등 시각미술 거점 기관과의 자료 교류 확대, 현장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고객을 세분화하여 특화된 전략 수립 노력함. 이는 적극적으로 관객을 전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충분하게 드러나게 함. 이는 구체적으로 기획 프로그램, 전시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협력 사업이라고 보여짐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행한 점. 외부 전문평가단 운영하여 연간 관객 수요 연구를 하고,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그 추이를 분석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전문 관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설문내용에 따라 고객만족도와 예술성 및 실험성 간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됨. 실제로 신진 작가 육성을 위한 워크숍이 미술관의 사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전문관객과 일반 관객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함.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일반 관객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편임
- 분기별 집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 및 이유는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 이는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② 현장 홍보 등 마케팅 확대

[긍정적 측면]

- 미술관의 경우, 전시에 관한 현장 홍보를 다각화한 노력이 인정됨

[부정적 측면]

- 이용자가 한정된 것을 보면, 홍보가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됨

③ 아르코미술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무엇보다도 실험적 시각예술에 중점을 두고, 사업 목적을 확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그러면서도 대학로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기금의 특성 때문에 여러 단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아쉬움

④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시행

[긍정적 측면]

- 미술관 측, 전문가 측, 수용자 측 등 다양한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 지표에 관한 지적은 현행 지표가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임. 만족도라는 것도 매우 모호한 기준임

⑤ 예산 계획에 따른 재원집행

[긍정적 측면]

-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전시 운영 사업은 정부의 정책처럼 분기별로 차등을 둘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결과부분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지만, 이를 문제삼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전문관객 만족도

[긍정적 측면]

- 전문 관객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관계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2년에 처음 실시한 터라, 이 만족도 검사의 내용은 미술관이 예술 창작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아울러 새로운 시각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했는가에 그 비중을 두고 있음. 그런 면에서 측정산식이 명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 내용의 중심이 작품의 성과, 생산과 소비의 과정, 생산과 수용의 과정 등에 관한 것보다는 수와 만족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매겨진 것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임. 전문가 판단의 경우, 전시가 시각예술계 담론 형성에 기여했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고, 일반 관객의 경우에는 단순히 만족도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 두 기준의 상호 비교되는 차이가 커서, 결과지표로써 반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목표 부여 편차 방식도 구체적이지 않은 편임. 전체적으로 보면, 특성화지표인 언론활용과 성과는 구체적이 않은 편임. 단기 전시인 경우, 이를 현대미술의 대중화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고 보여짐. 따라서 특성화 지표 가운데 성과부분은 모두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모니터링 지표의 확대가 가장 큰 개선 제안에 해당됨.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학적, 사회적 등 다양한 갈래로 그 내용을 달리, 새롭게 구성할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② 기획프로그램의 예술창작여건개선도

[긍정적 측면]

- 실험적 시각예술 분야는 미술 분야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속함. 이를 위한 전시 공간은 매우 중요하고, 그 가치가 인정됨. 아르코 미술관의 특수성은 여기에 있을 것임. 미술관의 기획 프로그램이 실험성과 국제성을 지향하는 바는 창작 여건 개선과 아울러 시각예술의 향수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사업목적과 전시의 연계성은 올바른 편임.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예술의 지평을 확대한 것은 미술관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판단됨. 이것을 측정하는 산식에 있어서도 전시, 자료, 관리 등을 구분해서 만족도를 판단함

[부정적 측면]

- 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미약한 편이라고 보여짐. 미술관의 기능, 역할, 전시 등, 앞서 언급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 이 부정적인 면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예술창작 여건 개선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장기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들이라, 단기 전시 사업을 전제로 개선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여짐. 전시의 교육적 가치, 공공적 기여도를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이에 속함. 특성화 지표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러한 판단은 관객 중심과 성과 중심에 너무 쏠려 있다고 보여짐

[개선제안]

- 이 부분은 자체 홍보와 더불어, 주변 장르와의 연계사업의 확충으로 더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미술, 그 자체로써 뿐만 아니라, 미술과 공연예술 등으로 확대하면,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고, 이런 경향이 오늘날 미술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변화된 모습과 어긋나지 않는 바가 될 것임

5. 개선과제

□ 계획

○ 미술관의 사업목적 재정립

- 미술관의 사업목적을 분명하게 재정립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것임. 실험적 시각 예술이라고 하지만, 매우 복합적인 사업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임. 건축에 관한 교육을 사업 목적에 넣는다면, 미술과 연계될 수 있는 다른 장르와의 복합 교육에 관한 사업도 가능할 것임. 미술과 다른 장르와의 복합현상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대학로 미술관이 이런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연예술과 연계하는 방향도 제안할 수 있음

○ 실험적 시각예술과 공연예술과의 연계

- 오늘날 미술은 미술관에만 전시된 채 있지 않는 것처럼, 미술은 미술 그 자체로써만 존속하고 있지 않음. 시각예술과 아르코의 여러 지원 사업 가운데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할 것임. 이는 장르의 성격보다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현재 미술관은 아카이브를 포함해서 정적임. 하나의 섬처럼 분리되어 있다고도 보여짐. 현대 시각예술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예술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은 많다고 보여짐

○ 전시 공간과 전시 일정의 효율성 확보

- 전시 일정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연중 전시일정표를 보면 특정 계절에 쏠려있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전시 기획을 위해서 보다 면밀하게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짐.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기획은 예산 집행 상, 한 해 전에 선행될 수 없지만, 매월 고르게 전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끝으로 전시의 파급효과에 관한 노력도 곁들여야 할 것임. 미술의 생산과 더불어 수용, 소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임.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미술과 주변 장르와의 복합 소통과 같은 행사를 제안해 볼 수 있음

□ 집행

○ 문화예술 공간연계사업 도출

- 미술, 공연예술이 문화예술 공간 단위 사업의 핵심 분야임. 그런데 이 두 분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들은 부재함. 이는 조직의 특성만큼이나 서로 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임. 미술관, 벽제의 공연예술 공간이 서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앞날의 예술경향과 어울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는 미술관과 인력개발원의 사업은 아무런 연계도 없고, 공동 작업을 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 두 기관을 하나로 엮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건축학교의 운영

- 이 사업의 취지는 고유하고, 긍정적임.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과 어긋나지도 않음. 다만 이 사업이 다수의 수혜자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는 숙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시각예술과 건축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어가는 시선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

○ 미술관 아카이브의 위상 제고

- 현재 아카이브는 매우 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미술관 지료가 전시 팜플렛의 수집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국립예술 자료원과의 기능에서 어떻게 유사·중복되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음. 독립적인 아카이브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카이브의 사용자 연구, 아카이브 내용물 공개, 아카이브 열람실의 이용 확대가 그 내용이 될 것임

□ 성과

○ 미술관 운영의 확대

- 미술관이 실험적 시각예술에 초점을 두는 터라, 일반 관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공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 일반 관객들을 위한 미술체험의 확대,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기회의 확충과 같은 서로 다른 목표가 통일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는 오늘날 미술관이 그림을 보는 공간만으로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로라는 지정적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미술관의 기능, 역할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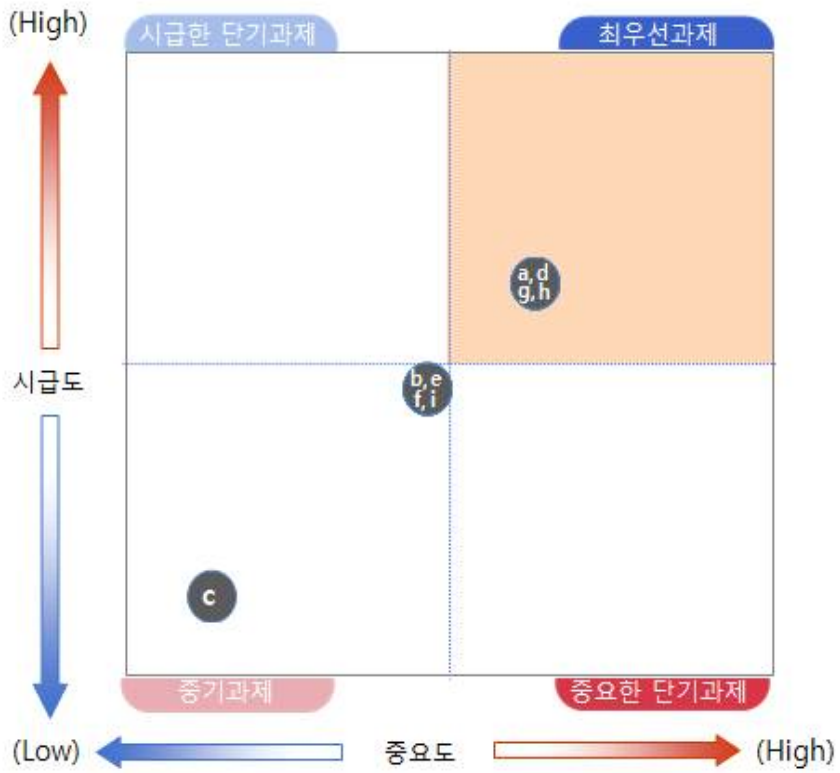
○ 미술관 공간 활용 활성화

- 예술가의 집 정원은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음. 미술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야외전시를 비롯한 사업들의 구상이 필요함.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공원이 마무리된다면, 미술관은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현재 미술관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안에 있지만, 다소 정적인 것이 사실임

○ 모니터링 지표 개선

- 모니터링의 경우, 각 사업 단위의 특성만큼 지표가 다양화해야 할 것임. 현재는 이용자 수, 만족도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교육의 경우에는 내적 성장보다는 현업의 기여도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밀할 필요가 있음. 시각예술의 미학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으로 확대해서, 미술작품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도 모니터링 지표 개선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미술관의 사업목적 재정립**		●	1
계획	b	실험적 시각예술과 공연예술과의 연계		●	5
계획	c	전시 공간과 전시 일정의 효율성 확보		●	8
집행	d	**문화예술 공간연계사업 도출**		●	1
집행	e	어린이 건축학교의 운영		●	5
집행	f	미술관 아카이브의 위상 제고		●	5
성과	g	**미술관 운영의 확대 (전시공간, 아카이브 포함)**	●	●	1
성과	h	**미술관 공간 활용 활성화**		●	1
성과	i	모니터링 지표 개선	●	●	5

2분과 [문화예술 공간운영]
세부사업

20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2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20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창작자 및 매개자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요구받는 필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연수 등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무대예술전문인력의 양성 및 차세대 창작예술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기반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7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2년도 1,423백만원

○ 사업규모

구분	예산	사업내용	참여자수	대상
무대예술전문교육	210백만원	교육프로그램 16회	480명	국내 활동 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223백만원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 8회	440명	국내 활동 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공연예술인큐베이션	570백만원	연극 5개, 희곡 5개, 무용 14개 작품 창작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24명	국내 활동 중인 신진예술가
찾아가는교육	23백만원	교육프로그램 2회	60명	국내 예술행정가 및 예술경영자 대상
지역커뮤니티예술체험	8백만원	나눔공연 2회	300명	문화소외지역주민
위탁협력교육	비재정 사업	문화예술교육 3~4회	150명	국내 문화외적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개발원운영	389백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	교육프로그램 및 개발원 시설 이용자

○ 지원대상 : 문화예술 창작자·매개자·향유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직접수행, 일부재원 민간부담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비고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129	973	-	-973	-100	문화예술공간운영→예술창조역량강화 단위사업간 이동(전출)
■ 무대예술전문교육	138	210	-	-210	-100	
■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344	223	-	-223	-100	
- ’10년 이월사업	48	-	-	-	-	
- ’11년 사업	296	-	-	-	-	
■ 공연예술인큐베이션	120	120	-	-120	-100	
■ 찾아가는교육	35	23	-	-23	-100	사업폐지
■ 지역커뮤니티예술체험	21	8		-8	-100	사업폐지
■ 위탁협력교육	-	-	-	-	-	비재정사업
■ 개발원시설관리운영	471	389		-389	-100	
□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450	450	-	-450	-100	
■ 인큐베이팅프로그램지원	450	450	-	-450	-100	차세대예술인력육성으로 이동 통합
총계	**1,579**	**1,423**	**0**	**-1,423**	**-100**	

※ 13년 예산 아래 표 참조

※ 2013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1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B/A(%)
계	1,681	1,470	1,644	174	11.8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577	497	878	381	76.7
공연예술	577	497	878	381	76.7
○ 예술인력재교육	1,104	973	766	-207	-21.3
예술인력개발원운영관리	463	389	412	23	5.9
무대예술전문교육	157	218	181	-37	-17.0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334	223	173	-50	-22.4
공연예술인큐베이터	118	120	이관	-120	이관
찾아가는교육	32	23	사업 폐지	-23	사업 폐지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단계

사업기본계획 수립	⇒	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시행 환류 및 내·외부사업 평가	⇒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운영 개선
○ 전년도까지 내외부 평가, 자문의견, 모니터링 결과, 민원 및 고객의 소리(VOC) 등 수렴의견 등 환류 ○ 사업목표, 추진방향 설정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사업 홍보		○ 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 및 전형 ○ 인큐베이팅 주관단체 선정 및 차세대예술가 공모선정 후 연중 운영 ○ 문화예술특화교육,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찾아가는 교육 및 위탁협력 교육 : 과정별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검토 환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검토 반영 ○ 내부사업평가 -문예진흥기금사업 자체평가 ○ 외부평가 -주무부처(문화부) 주관 문예진흥기금사업 등		○ 사업평가 결과 차기 사업계획 수립 등 환류 -중장기비전전략 설정 반영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연간사업계획반영 -세부사업별업무 개선 반영 -교육수료생 이력관리 및 현장진출 매개지원 반영

○ 기초사업별 사업추진 단계

사업명	추진 방식 및 절차
무대예술 전문교육 **국제공연 예술전문 가시리즈**	교육과정프로세스 교육준비: 자문회의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과정별 수요, 교수, 교안 등) → 수강생 모집 안내, 교육 접수(홈페이지 접수) 및 전형 → 프로그램 협의 / 예산 협의 / 교육장소 협의 → 프로그램 기획 / 예산 확정 / 교육장소 확정 교육운영: 교육 진행 및 설문 (강의, 심포지엄, 실기, 현장견학, 모니터링) 교육결과: 정산 및 결과보고 (평가 및 환류)

<table>
<tr><td>공연예술
인큐베이션</td><td>
<table>
<tr><td>○외부전문가 자문회의
-‘11년도 사업평가
-‘12년도 사업개선</td><td>○‘12년 기본계획 수립
-사업협의
-주관단체 선정
-위원회 보고</td><td>○‘12년 세부계획 수립
-워크숍(사업 주관단체)
-교육프로그램 수립
-일정 및 예산 확정</td></tr>
<tr><td>○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
-공통 및 직능교육
-멘토 운영
-미션 플레이 및 워크숍
-모니터링 등</td><td>○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교육 수요조사
-멘토 수요조사
-사업 안내
○멘토 선정</td><td>○수혜대상 공모 및 선정
-심사위원 선정
-공모 및 심사
-차세대 예술가 선정</td></tr>
<tr><td>○상반기 사업평가(워크숍)
-멘토 및 사업 주관단체
-차세대 예술가
-연극·무용 책심(예술위)</td><td>○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
-공통 및 직능교육
-멘토 운영
-쇼 케이스 추진
-현장공연 추진
-심사 및 사후 지원작 선정</td><td>○사업평가 및 성과보고 제출
-사업평가(내·외부 전문가 등)
-지원사업 정산 및 성과보고
-사업결과보고</td></tr>
</table>
</td></tr>
<tr><td>찾아가는
교육</td><td>
<table>
<tr><td>○찾아가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지역 공모</td><td>○교육 시행지역 선정 심의</td><td>○교육 시행지역 확정 및 사전현지와 교육 운영 협의</td></tr>
<tr><td>○평가결과 환류</td><td>○성과평가 및 성과보고</td><td>○찾아가는교육 프로그램시행(설문 등 모니터링 추진)</td></tr>
</table>
</td></tr>
<tr><td>지역
커뮤니티
예술체험</td><td>
<table>
<tr><td>○사업계획 준비 및 수립</td><td>○지역 문화소외계층 관련 기관, 단체 등 의견 수렵 및 협의</td><td>○프로그램 시행</td></tr>
<tr><td>○평가결과 환류</td><td>○종합성과 평가</td><td>○현장 모니터링</td></tr>
</table>
</td></tr>
<tr><td>위탁협력
교육</td><td>
<table>
<tr><td>○외부기관의 교육 위탁 의뢰 접수</td><td>○의탁 의뢰 교육검토</td><td>○교육기획(대상,내용,일정,장소,비용 등)후 위탁기관과 협의결정</td></tr>
<tr><td>○평가결과 환류</td><td>○성과평가 및 위탁기관 교육성과 보고</td><td>○교육프로그램 추진
(설문 등 모니터링 추진)</td></tr>
</table>
</td></tr>
</table>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이용자수(명)	목표	425	455	501	702	1,304	○ 예술인력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교육과정별 수강자 및 참가자 목표 정원의 합계	○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참가자 수 연간 집계 -자체 운영실적 보고서
	실적	419	380	604	953	1,425		
	달성도	98.6	83.5	120.6	135.8	109.3		
이용자만족도 (점)	목표	80.0	81.3	82.8	85.4	86.0	○ 경평의 고객만족 개선도 100점의 목표치인 85.4점을 상회하는 86점을 의욕적으로 목표로 설정 ○ '10년도 공공기관 전체 교육훈련업무유형 평균 85.8점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하므로 '12년까지 상대적 우위 수준인 86.0점을 달성	○ 경평에서 제시하는 고객만족개선도 산식 적용 ○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 점수
	실적	79.7	80.7	84.5	83.6	86.7		
	달성도	99.6	99.3	102.1	97.9	100.8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 교육목표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 ■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보완 ■ 예술교육분야의 수요예측 체계화 ■ 교육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 전사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CS Speed Up 추진을 통한 즉각적 피드백 추진 ■ '11년 무대예술전문인 재교육 프로그램 모듈개발 정책연구 용역 추진 및 '12년 온라인 문화예술 재교육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 용역 추진 ■ 입체적 교육 프로그램 모듈구성 운영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수준별 효과를 고려한 선정 방식 추진
국회・감사원 (2011년)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자 율평가 (2011년)	■ 유사성해소 등 사업계획 보완 - 내역사업의 유사성을 해소하기 위해 문예기금 내 인접한 단위사업으로 사업재조정 권고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고려된 내·외부 환경 변화 등 구체적 설정근거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개선 권고 - 사업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정근거를 통해 목표치를 도출하는 노력 필요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및 '미술관운영'을 사업 운영 목적에 인접한 단위사업인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로 '13년 사업을 재편하여 유사성 해소 - 문화예술공간운영 단위사업의 규모와 사업목적의 유사성 감안, '13년도부터 문화예술공간운영(단위사업)을 폐지하고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 (단일사업)으로 통합 추진 ■ 구체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목표 도출 - 내·외부 환경 변화 등을 고려 구체적 설정근거와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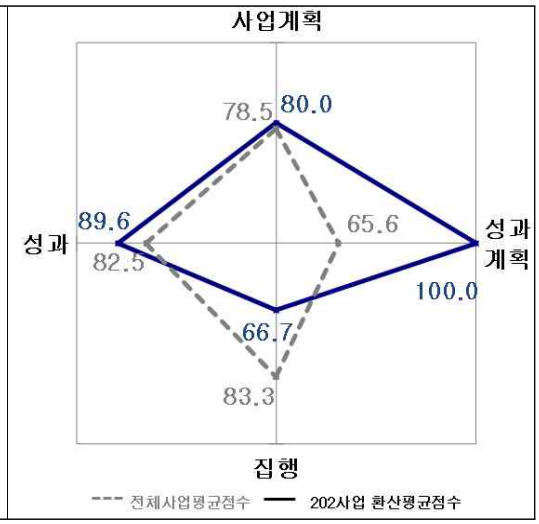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예술인력개발원운영」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0.0점, ‘성과계획’ 100.0점, ‘집행’ 66.7점, ‘성과’ 89.6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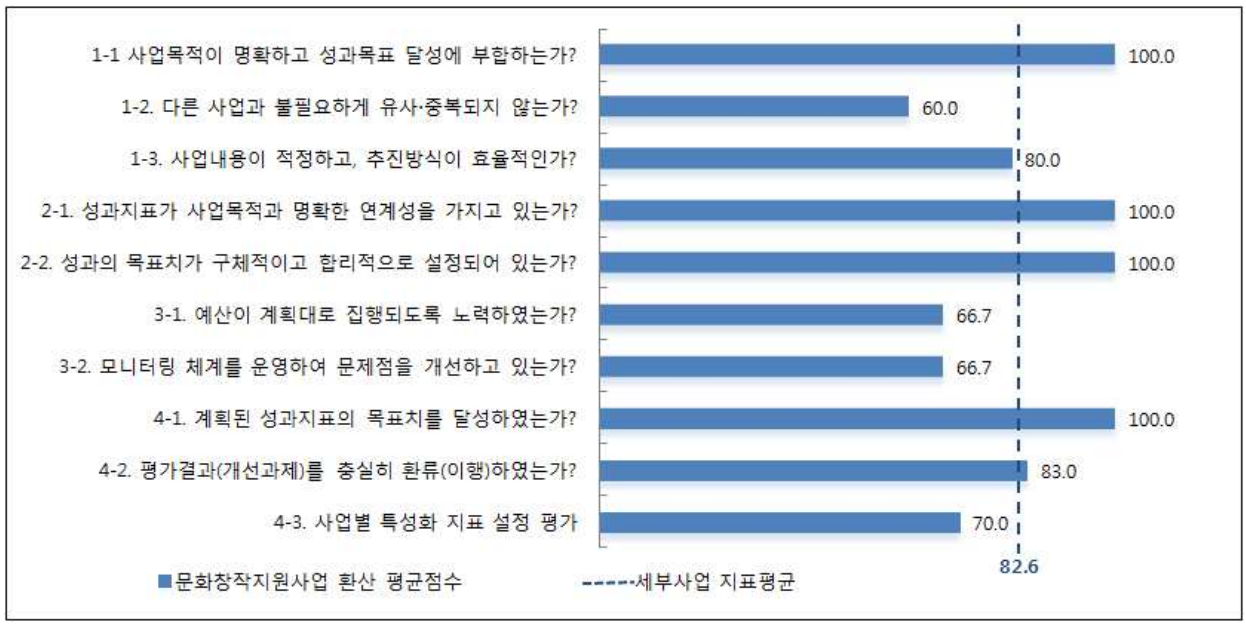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5), 성과계획(+34.4), 성과(+7.0)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16.7)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80.0
	1-2(5점)	3.0	6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5.0	100.0	100.0
	2-2(5점)	5.0	100.0	
집행	3-1(15점)	10.0	66.7	66.7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5.0	100.0	89.6
	4-2(10점)	8.3	83.0	
	4-3(10점)	7.0	7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예술인력개발원운영」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2.6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 항목 중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여기에 큰 몫을 한 것은 운영 프로그램의 집중화라고 할 수 있음.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현장 예술가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분명하게 할 것은 국제공연예술전문가 시리즈임. 미국 중심으로 공연예술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전용되어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찾아가는 교육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은 총 사업비 규모에 적절했고, 모니터링도 기획 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함. 그 결과는 차기년 프로그램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임

○ 성과목표에 있어서, 무대 예술인 전문교육과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그것들이 수요에 가닿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임. 그 부분은 다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었고, 기대 효과 면에서도 인재양성, 창의적 교육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 사업 목적이 구체적이며, 성과목표의 연계성도 분명한 편임. 개발원의 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상 재정지원 필요성이 절대적인 사업들임. 개발원의 사업은 예술가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임. 무대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조명, 음향 등), 국제 공연예술가를 초청하여 일정기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 공연예술의 신진예술가를 양성하는 인큐베이션 사업임. 그 외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체험 사업, 위탁 협력 사업이 있음
-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하면, 전문 인력 양성과 창작 여건 개선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이 사업목적, 성과목표에 해당됨. 인재양성과 창작 역량 강화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재교육을 위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사업 수혜대상이 한정적인 경향이 있음. 전문공연예술 분야의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터라,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 그 폭은 매우 줄어든 편임. 공연예술 인큐베이션 사업도 그 수혜 대상자들이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이 점은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소수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다수 일반 공연예술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을 겨냥할 수 있음
- 인력개발원의 경우, 공간 문제보다는 위치한 장소 문제가 교육사업의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벽제를 비롯해서 대학로 등 교육 장소를 이원화, 다원화 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음
- 인력개발은 강의 중심, 협업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강의 풀제, 전문가들을 두루 활용하는 방안도 덧붙이고자 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 사업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그 분야는 연극, 무대미술, 조명,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 가운데 실천 분야라고 할 수 있어,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각 사업의 경우, 무대전문예술가(조명, 음향)와 차세대 예술가 육성(안무가, 연출가, 극작가 등)은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현재 이 부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은 인력개발원이 유일함.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 프로그램은 전문예술답게 독창적이지만, 그 대상자들은 다수 중복될 경향이 있음. 수혜 대상이 다른 기관 사업의 경우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부정적임

[개선제안]

- 인력개발원 자문위원회 같은 구성체를 통하여, 오늘날 공연예술의 변화를 읽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먼저 예측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가능할 터임. 예컨대 미국 중심의 국제공연예술가전문가 시리즈는 공연예술 분야의 변화를 읽지 않은 채 고정되는 프로그램으로 여길 수 있음.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 세부 내역 사업의 적절한 편이고, 재원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짐.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지원방식도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됨
- 예술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옴. 지난 10년동안 공연예술분야 기초 교육에 집중했다면, 그 후에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음. 교육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연예술분야의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는 것인데, 개발원은 오늘날 공연예술 전문가의 필요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그리고 고급과정에 이르기 위하여 강의 내용을 전문화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공연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음. 앞으로 펼쳐질 공연예술 인력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리포터 조사와 같은 것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임

- 각 사업에 따른 재원분담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다만 다른 사업에 비하여 인큐베이터 사업의 재원 비중이 높은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 사업 방식은 무대미술의 경우는 재교육 중심이고, 공연예술인큐베이터 사업은 실천교육 중심임. 이들 사업이 단기사업이라 체계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개선제안]

- 공연예술 분야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이 우선이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임.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 프로그램에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예산운영면에서 이것이 어려울 듯함. 프로그램 안에 체계적인 장기프로그램도 몇 개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공연예술인큐베이터 사업이 구성 인원이 가장 많은 편임. 선발, 교육 내용, 평가 등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사업의 맨 끄트머리에 쓰이는 공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와 사업 목적은 분명한 편임. 그 이유는 성과지표가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일 것임. 사업목적은 특화된 재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차세대 예술인력의 양성인데, 이 부분은 장기간 교육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른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측정하는 산식도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에 따른 것으로 신뢰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내용이 이용자 만족도만을 계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

[개선제안]

- 인력개발원의 경우, 측정 산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만족도라는 것만으로는 성과지표의 명확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예컨대 교육효과의 파급내용,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표가 필요함. 인과성 부분에서 개선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현재 내용은 매우 모호한 편임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 교육사업이 중심인 터라, 그 성과 목표치를 단기간에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현재 목표치를 86% 정도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짐
- 동시에 성과제고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음. 목표치 설정은 내부 환경과 공연예술계의 요구에 따라 설정했고, 목표치는 이용자의 수와 만족도에 따라 설정되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내용은 이용자 수, 만족도만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일회적임. 보다 명확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내용,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교육 이전에 선행되고,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인력개발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과 같음

[개선제안]

- 성과지표의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를 훨씬 상회하는 깊이 있는 지표내용이 필요함. 가령, 교육자들의 교육이전 이후의 개량된 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임. 이를 위해서는 교육학적 평가 방법이 선행・참조되어야 할 것임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2012년 예산 집행률은 100%에 이르지 못했지만, 집행률이 96.4%임. 미집행금액은 집행과정에서 운영비를 절약한 부분으로 인정됨

[부정적 측면]

- 국제공연예술가 시리즈의 경우도, 국가를 다원화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임. 현재는 미국 중심이라고 보여짐. 다문화 중심주의 사회를 연계하면, 예산 집행은 좀 더 신축성 있게 실행될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인력개발원의 경우, 사업의 수혜자들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어디 까지가 전문가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이에 대한 기준 마련도 제안 사항이 될 수 있음. 교육프로그램이 의무 교육인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많은 이들이 수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음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모니터링의 대상자도 외부 전문가, 사업 참여자(작가 등) 이용자 평가 등으로 구분해서 모니터링의 합리성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함.
- 인력개발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의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음.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강의평가, 과정 평가, 운영 평가 등 단계별로 실시했고, 그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남.
- 또한 교육효과를 지속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등, 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내부,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 자문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그 결과 성과목표치는 높은 편(100.8%)임

[부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특성상, 모니터링의 결과를 교육내용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흡한 편임. 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드백 한 내용들을 구체화한 시도, 과정, 내용 들을 밝혀놓을 필요가 있음. 전문가 모니터링 가운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해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개선제안]

-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인 경우, 모니터링 내용을 달리하고, 특히 장기 교육의 경우, 모니터링 방법,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현재는 몇몇 교육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환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지역커뮤니티 예술 체험의 경우는 아예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경우도, 2012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이용자 만족도는 지금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86.7%는 다른 기관의 사업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임. '찾아가는 교육'이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일치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성과목표치의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현재 지표 내용 가운데, 품질 지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예술교육분야의 수요예측 체계화

[긍정적 측면]

-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음. 재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에 대한 연구(외부 용역 연구)를 하고 있음. 또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연예술계의 변화와 수요를 예측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의 환경에 비추어 교육 프로그램이 몇몇 부분에 한정된 바가 있는데, 이는 향후 예산증가, 인력개발원의 직원의 확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 달리 말하면 고착화된 프로그램(무대기술, 미술 전문교육 등)이 나머지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② 교육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긍정적 측면]

-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 선정방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짐. 전체적으로 수요 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수도 증가한 편임. 극장을 중심으로 한 무대예술 전문교육과 인큐베이터 사업은 현재 인력개발원 환경에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극장, 작업동 등이 교육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부정적 측면]

- 지원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지원자의 범위도 한정적임. 사실 인큐베이터 사업은 그리 새로운 사업이 아님. 창작 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인큐베이터 사업의 경우, 교육 대상자가 소수이다 보니, 그 선정 방식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음. 이 과정을 분명하게 개방하고, 교육과정의 기간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인력개발원 전체 공간의 활용도는 교육 사업의 일정에 비하여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인력개발원의 직원의 수, 역량에 비하여, 사업의 확충이 어려워 보이는데, 극장, 무대 작업동, 무대 장치동을 망라하는 전체적 교육 사업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보고서에서 나타난 인력개발원 가동률에 관한 부분으로, 앞으로 평가될 부분이기도 함

③ 교육목표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양질의 예술인력 양성)

[긍정적 측면]

- 무대예술 전문교육 과정은 무대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음향, 기술, 조명 등. 이는 인력개발원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국제 공연예술가 사업의 경우, 초청 인사가 한 국가로 한정되는 점은 오늘날 글로벌화 되는 국제 공연예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현재 이 사업의 경우, 4명의 인사가 초청되는 데, 비교적 많다고 여겨지는 점. 초청인원이 많다고 한다면, 이는 교육기간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뜻임. 전문가 교육을 지향한다면, 초청인원과 교육기간의 조율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④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보완

[긍정적 측면]

-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프로그램의 전문가, 수혜자등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점. 교육 사업에 비하여 모니터링의 수, 내용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주요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것으로 전체사업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 내용이 만족도와 참여 인원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모니터링에 너무 의존하면, 사업의 내용은 그만큼 축소될 수도 있을 것임. 모니터링 결과의 비중이 확대되면, 교육 내용의 독자성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임

⑤ 예산계획에 따른 재원 집행

[긍정적 측면]

- 비교적 적은 예산에 큰 효율을 낳고 있는 점, 운영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 인력개발원 예산에 비하여 사업의 규모는 큰 편임. 전체 교육장의 규모에 비하면 프로그램은 적은 편이고, 예산규모에 비하면 프로그램의 수는 많은 편임

[부정적 측면]

- 세부 단위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인큐베이션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점. 예컨대 공연준비과정에 관한 예산 부분. 인력개발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의 보충임. 전문 인원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음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기여도

[긍정적 측면]

- 인력개발원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점. 수혜대상자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2012년도 개선계획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고, 결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도 세부 사업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음. 사업별 성과지표 구성에 있어서도 각 사업별 변별력을 제고하려 함. 이를 위하여 국제적 단위 사업의 벤치마킹, 사업별 인과성을 진단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음. 앞으로 개발원 자체 성과지표 개발을 통하여 특성화 지표에 반영하려고 함

[부정적 측면]

- 그럼에도, 무대미술 교육은 전문적이되 의무적인 경향이 있고, 공연예술 인큐베이터는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고, 기타 찾아가는 교육 등은 인력개발원의 사업 내용에 맞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음. 단기적으로 예술 인력 양성 기여도, 현업 도움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음

[개선제안]

- 결국 프로그램은 수요예측을 얼마나 잘 하는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부분을 자문위원이나 현장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하는 것도 개선 제안에 도움이 될 것임
- 일정 기간 동안, 교육받은 이들을 재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업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현업도움도

[긍정적 측면]

- 한국 공연예술계에 배우, 연출, 무대미술 등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유지, 실행되는 곳은 인력개발원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사업내용에 있어서, 무대 예술전문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업 도움도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함. 이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산식으로, 교육대상자들과 함께 워크숍,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수요와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임. 공연예술 전문가 교육의 수혜자들이 교육 이전 혹은 이후에 어느 기간 안에 현업에 이르고 있는지는 현재의 지표로는 알 수가 없음. 지금까지 교육 이후에 현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한 결과도 구체적으로 실증된 바는 없어 보임 이 부분은 한국 공연예술계의 취업 사정과 맞물려 있어, 그리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그 기준과 판단이 명확할 필요는 있음

[개선제안]

- 교육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의 내용에 따라 유지되고, 그 결과가 마련될 수밖에 없음. 교육내용을 공개하고, 교육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국제 공연예술가 시리즈도 포함됨. 현재 구상중인 온라인 예술프로그램 개발도 이런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짐

5. 개선과제

□ 계획

○ 공연예술 인큐베이터사업 재규명

- 이 사업은 인력개발원 사업 가운데, 다른 기관과 유사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임. 국립극장도 지난해부터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두 사업에 관여하는 멘토들은 크게 다르지 않음. 물론 인력개발원의 경우가 보다 확장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연극, 무용 중심의 작가 양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잘 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함. 사업의 목적, 과정, 평가 등 처음부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바람직함

○ 국제공연예술가시리즈 국가별 초청 활성화

- 이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임. 한 동안 유럽 권의 예술가들이 초청되었고,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미국 중심의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강의와 실기를 맡음.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그 계기를 규명하고, 실천을 지속하려면, 전면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장르, 국가별 초청 예술가, 다른 문화와의 소통 등의 문제가 폭넓게 토의된다면 이 시리즈는 새로운 위상을 지닐 수 있을 것임. 동아시아 예술로 눈을 돌린다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지금 양태는 문화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

○ 찾아가는 교육사업 운영

- 이 사업은 지원기금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업이 인력개발원 사업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위탁의 경우인데, 인력개발원의 사업 취지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는 다른 교육사업의 연장선에서 가능한 찾아가는 교육형식의 사업을 예상할 수 있음

□ 집행

○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및 홍보강화

- 현행 교육프로그램을 미리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제안함. 예산상의 문제로, 교육 사업이 예상되는 경우가 드문데, 사업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개선과제로 제안함

□ 성과

○ 벽제 인력개발원 공간 활용

- 벽제 인력개발원은 먼 곳에 있기 보다는 관심 밖에 놓여있다고 여겨짐. 그 만큼 다양한 사업의 종류에 비하여 그 가치가 눈에 띠지 않음. 개발원은 이런 지정학적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큰 차원에서 찾아내야 할 것임. 문턱을 낮추고,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원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운영예산도 확대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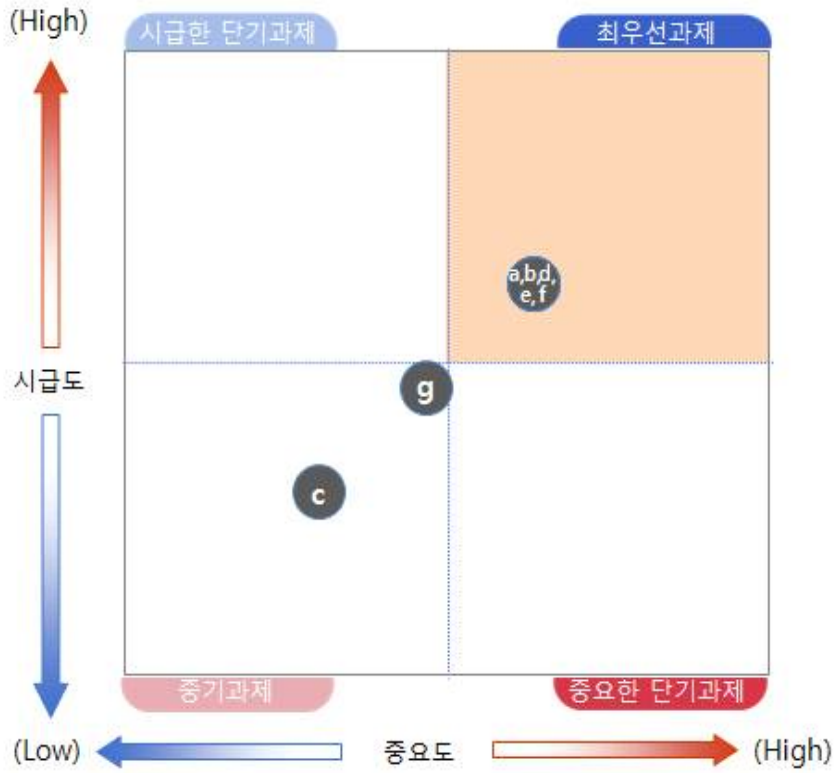
○ 교육 내용 전 과정 공개

- 이는 정보의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보여짐. 특히 인력개발원의 교육정보들은 더욱 자세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리고 수요대상자들을 널리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현재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 이를 토대로, 혹은 이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을 크게 주장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지표 개선

- 모니터링의 경우, 각 사업 단위의 특성만큼 지표가 다양화해야 할 것임. 현재는 이용자 수, 만족도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교육의 경우에는 내적 성장보다는 현업의 기여도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랜 시간과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는 터라, 보다 정밀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공연예술 인큐베이터사업 재규명**		●	1
계획	b	**국제공연예술가시리즈 국가별 초청 활성화**		●	1
계획	c	찾아가는 교육사업 운영		●	7
집행	d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및 홍보강화**		●	1
성과	e	**벽제 인력개발원 공간 활용**		●	1
성과	f	**교육 내용 전 과정 공개**		●	1
성과	g	모니터링 지표 개선	●	●	6

3분과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단위사업

[301]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3분과 단위사업 최종보고서

301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에 기여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574억원 ('11년까지 기 투자액* : 3,100억원)

○ 사업규모 : 문화바우처 등 8개 내역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읍·면단위 거주자, 아동·청소년, 군인, 재소자, 실직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소외지역과 계층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일부 매칭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10계획	'11계획(A)	'12요구(B)	증감 (B-A)	%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23,700	48,000	57,400	9,400	19.6
■ 문화바우처	5,000	24,500	34,300	9,800	40.0
■ 공연나눔	14,500	16,500	16,100	△400	△2.4
■ 문학나눔	2,000	4,000	4,000	0	0.0
■ 전시나눔	600	800	800	0	0.0
■ 창작나눔	1,600	2,200	2,200	0	0.0
□ 비목 (합계)	23,700	48,000	57,200	9,200	19.2
■ 인건비(110)	-	-	234	234	순증
■ 운영비(210)	-	-	452	452	순증
■ 여비(220)	-	-	9	9	순증
■ 업무추진비(240)	-	-	5	5	순증
■ 민간이전(320)	23,700	24,200	22,900	△1,300	△5.4
■ 자치단체이전(330)	-	23,800	33,600	9,800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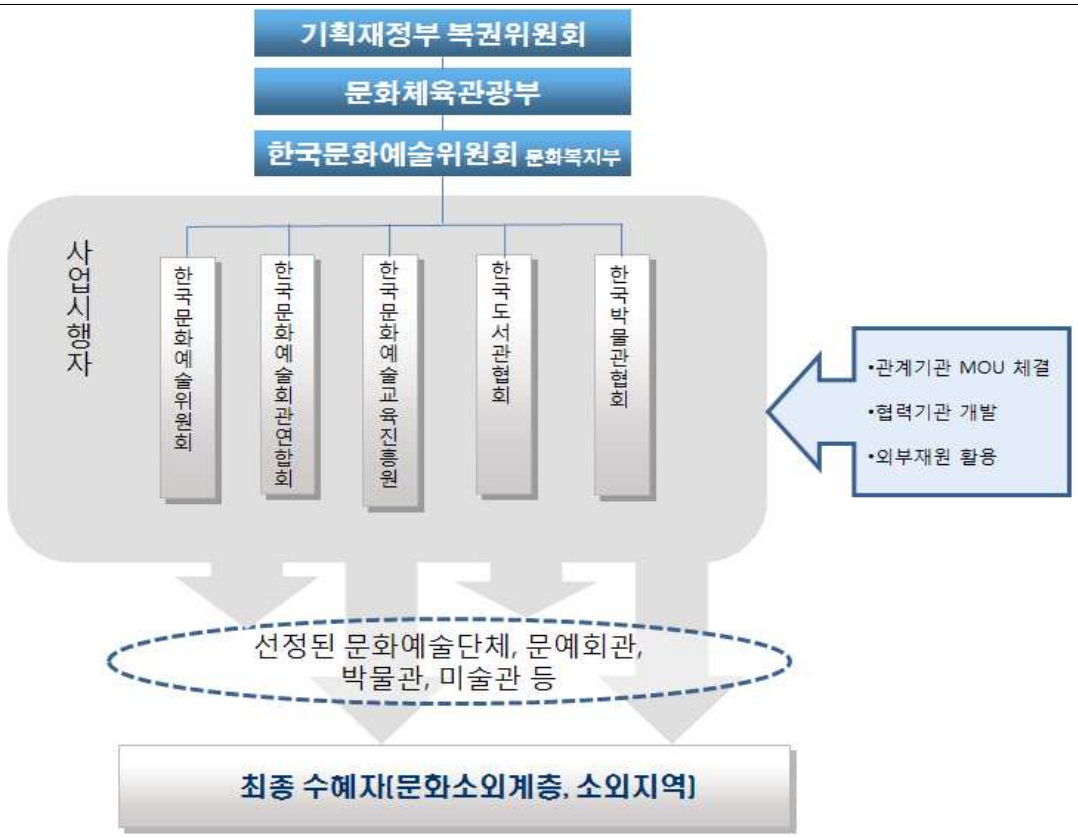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결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사업명	48,000	57,400	58,121	721	1.3
■ 문화바우처	24,500	34,300	34,946	646	1.9
■ 소외계층 문화순회	8,000	9,300	9,530	230	2.5
■ 사랑티켓	2,400	2,000	1,956	△44	△2.2
■ 전통나눔	1,300	0	0	0	-
■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4,800	4,800	4,704	△96	△2.0
■ 문학나눔	4,000	4,000	3,930	△70	△1.8
■ 공공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800	800	787	△13	△1.6
■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1,000	1,000	1,088	88	8.8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200	1,200	1,180	△20	△1.7
□ 세출예산비목					
○ 보수(101-01)		216		△216	△100.0
○ 기타직보수(110-02)			268	268	-
○ 일용임금(110-03)		18	18	0	0.0
○ 일반수용비(210-01)		449	1413	964	214.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4	2	100.0
○ 복리후생비(210-12)		1	1	0	0.0
○ 국내여비(220-01)		9	14	5	55.6
○ 사업추진비(240-01)		5	28	23	460.0
○ 민간경상보조(320)	24,200	23,100	22,775	△325	△1.4
○ 자치단체경상보조(330)	23,800	33,600	33,6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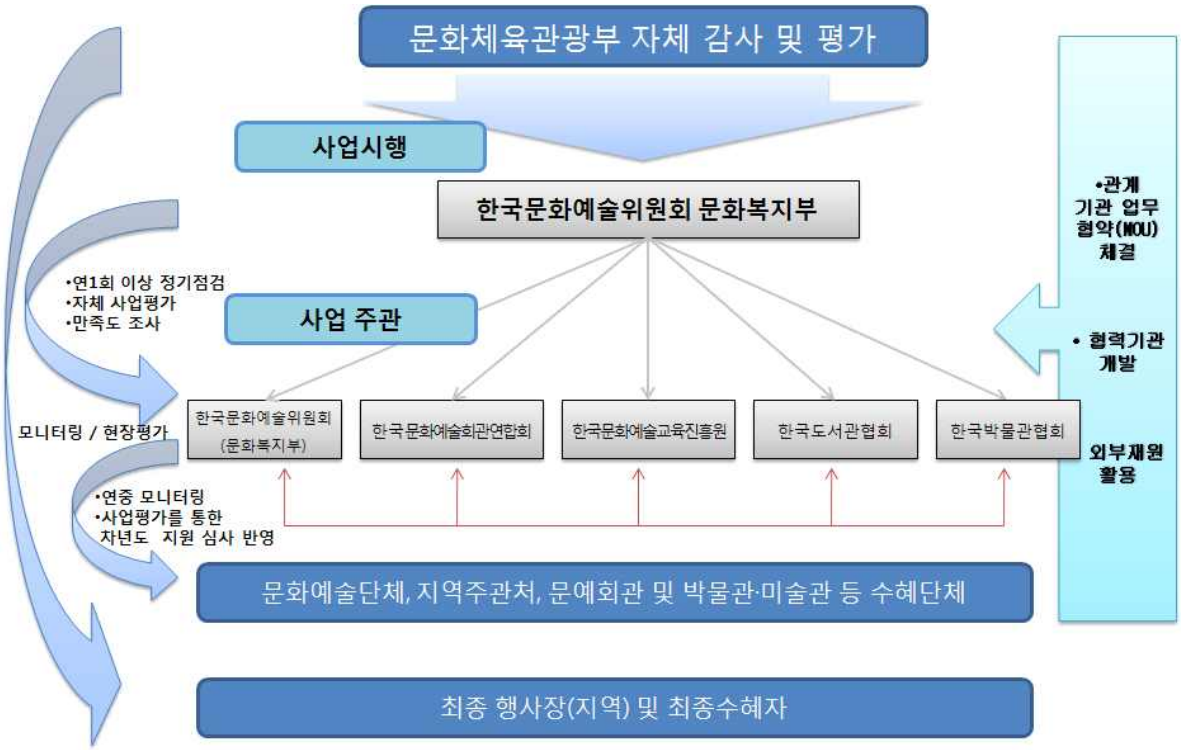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추진 체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복권기금 예술사업 기본계획 승인 - 복권기금 지원 - 복권기금 사업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 사업의 관리·감독· - 문예진흥기금평가(문화부사업 자체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운영 총괄(예산 집행 및 정산 취합·보고) - 사업집행과정의 점검·보고·현장 모니터링 - 세부사업 수행
각 사업 주관단체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세부 사업 수행 -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 예술단체 및 기관 선정・관리 - 사업 현장 모니터링
예술가/예술단체	-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 Sponsor	- 문화나눔사업 수요처 확보 - 재원 협조

○ 사업집행 및 책임관리 체계



정기 점검	ㅇ 사업추진 관련 서류철 점검 ㅇ 지원금 집행 내역 조사 및 가결산 점검 ㅇ 모니터링제도 및 사업점검 현황 검토
체계적인 모니터링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주관단체의 2단계 현장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사업 현장에 대한 만족도 점검 - 사업 현장에서의 홍보 노력 점검 - 최종 수혜자 반응 및 개선 사항 점검
총괄평가 및 만족도 조사	ㅇ 객관적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해 총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결과 차기년도 사업계획 반영
후속 조치 강화	ㅇ 연 1회 사업기관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 제도 결과 위반 및 조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차기년도 사업권 회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 및 동년도 개선사항 재점검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한다

○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출처)
수혜자 만족도 (점)	목표	82.4	84.4	86.8	87.5	88.0	○ 공공기관 고객만족개선도 평가방식을 준용하여 최고 목표인 100%이상 개선율 적용 ○ 2012년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생활속의예술활성화) 수혜자 만족도 목표치의 고객만족개선도 환산 목표치와 연계하여 목표치 수준을 세세부사업에 할당	○ 경영실적 평가 고객만족 개선도 산식 적용
	실적	82.9	85.5	85.2	86.9	88.0		
	달성도	100.6	101.3	98.2	99.3	100		
수혜자 수 (명)	목표	1,117,796	1,625,784	2,449,245	3,225,660	3,280,000	○ 세세부사업별 사업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값의 합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사업 성과 목표치의 합	○ 세세부사업별 사업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산식 적용
	실적	1,447,689	1,666,024	2,717,565	3,026,957	3,350,678		
	달성도	129.5	102.5	111.0	93.8	102.1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결산 예정처 (2011년)	■ 문화바우처 연도 중 지원내역 변경 부적절 - 이 사업 중 문화바우처 사업에서는 2011년 초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9월 중 계획을 변경하여 가구 및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와 같이 연도중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문화바우처 사업은 연도중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사업 개선을 추진하였음. '11년 9월 26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당초 가구당 5만원과 함께 청소년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이 후 ' 12년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11년 9월 사업대상을 확대한 기준을 언론보도와 전국 지역 일간지 공익광고, 공중파 방송공익광고, 지하철 모니터 광고, 전국 지자체와 주민센터, 지역 단위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하였음 ■ '12년은 연초부터 저소득층이 자주 방문하는 주민센터와 청소년 대상 초·중·고교 등 수혜자 대상 접점 홍보와 인지 제고를 강화하고 있음
국정감사 (2011년)	■ 문화바우처를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하고 있으나 예술소외계층까지 확대 해야 할 것임. 관계부처와 협의시 적극적으로 개진 필요(조윤선 의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을 진행함.
	■ 장애인예술창작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하며, 지역별로 균형 지원해야 함(최종원 의원)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의 사업 소재지 기준 서울 외 지역 지원금의 비율은 ' 11년도 49.7%에서 '12년도 52.2%로 증가하였으며, 심의 시 지역우대기준 적용함.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기자단 1기를 구성하여 SNS를 통해 지원사업의 현장 취재 기사를 배포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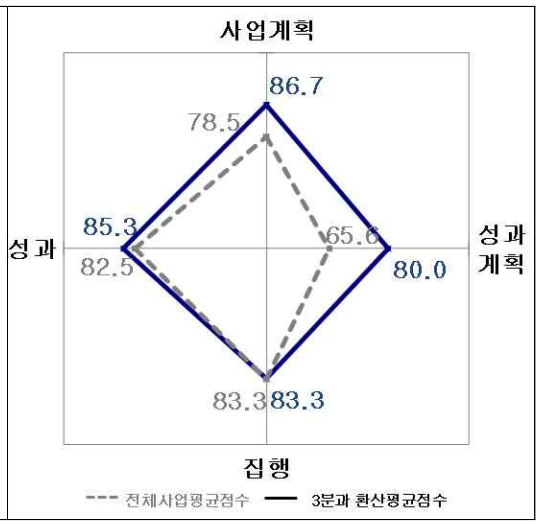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생활속의예술활성화(3분과 단위사업)」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6.7점, ‘성과계획’ 80.0점, ‘집행’ 83.3점, ‘성과’ 85.3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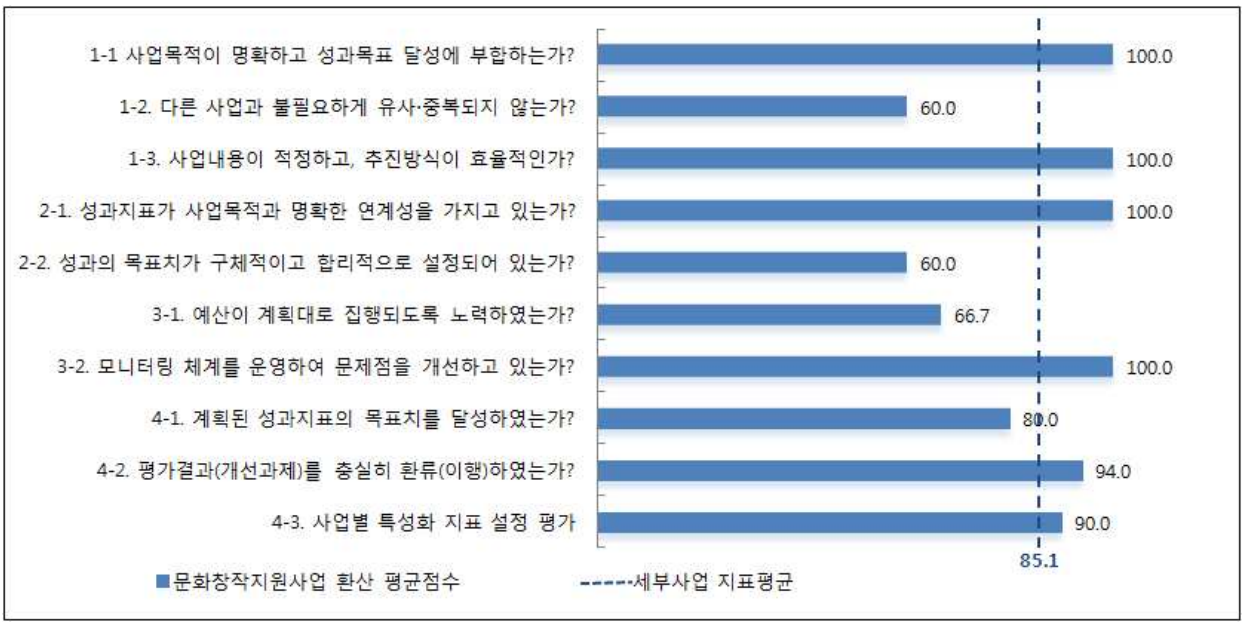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8.1), 성과계획(+14.4), 성과(+2.8)영역은 높게 평가되었고, 집행(+0.0)영역은 일치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86.7
	1-2(5점)	3.0	60.0	
	1-3(5점)	5.0	100.0	
성과계획	2-1(5점)	5.0	100.0	8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0.0	66.7	83.3
	3-2(15점)	15.0	100.0	
성과	4-1(25점)	20.0	80.0	85.3
	4-2(10점)	9.4	94.0	
	4-3(10점)	9.0	9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단위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 「생활속의예술활성화(3분과 단위사업)」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5.1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집행’ 항목 중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 대상자의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한 조직과의 협약 노력하고 있음. 성과측정을 위한 논리모델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목표달성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들과의 중복가능성 높으며, 운영주체의 다양성에 따른 통제 및 평가도 복잡함. 따라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사업의 통합과 유사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과의 협의조정기구 설치, 세부프로그램별 목표수준을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집행과 관련하여 배분사업 특성상 집행률 99.6% 수준은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함.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체계가 매우 훌륭함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는 미온적임. 따라서 지원단체 자격에 대한 사전 심의 강화와 모니터링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컨설팅 지원체계의 강화 필요함

○ 성과와 관련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획된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수혜자의 만족도도 높음. 개선과제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하였음. 사업별 특성화 지표설정도 타당성이 높음

○ 그러나 조사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따라서 지속적인 수요자 욕구조사를 겸한 바우처사업의 패널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문화여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변화 측정 강화와 지표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목적이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소외계층 문화 향수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의 목적이 일관성이 있고 시의성이 높음
- 세부사업별로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선별하기 위해 단계별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방식임
-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사업목적과 복권기금문화나눔 사업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공연, 전시, 도서지원 등의 사업은 관련성이 매우 높음.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소외계층의 지원은 복지성격이 강하고,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화격차도 더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 또한 복권기금의 취지에 비추어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을 기금사용의 정당화에 문제가 없음

[부정적 측면]

- 취약계층 문화복지체계 구축에서는 추진과제를 3가지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문화향수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수혜자 수에 대한 고려가 없음. 이에 대한 이유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문제해결과정(성과)에 대한 논리적 가설이 불분명함. 이로 인해 성과목표 달성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려움

[개선제안]

- 지원 금액을 고려한 개최행사 수, 수혜단체 등에 대한 유지 또는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순한 개최행사 수, 수혜단체 등을 평가지표로 하지 않고, 전체 지원예산을 대비한 개최행사 수, 수혜단체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할 필요성 있음
- 문화예술 향유의 질적인 측면 고려해야 함(문화예술기여도, 대인관계 향상, 자존감향상 등)
- 바우처사업의 패널조사가 필요함(예산 확보 필요)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대상자의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2012년 전통나눔사업과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통합하여 추진함
- 문학멘토사업통합 폐지하여 우수문화도서보급사업 확대함
- 문화바우처사업, 사랑티켓, 지방문예회관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명칭을 제외하고는 사업목적과 수혜대상에 있어서 확실히 차별화되는 사업이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차별성이 명확히 인정됨
- 특히,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과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의 경우에는 기준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르는 효율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다르고, 공연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둘 사이에 차별성이 없음
-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과 장애인 창착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약간의 차별성은 있으나 그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평가됨
- 다른 부처 및 지역 민간자원(예: 메세나 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개선제안]

- 중복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차별화된 다른 사업의 창출 필요함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함
- 문화예술위원회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함
- 문화복지위원회의 활성화 필요함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다양한 조직과의 협약, 연계 노력을 함
-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추진방식의 효율성 확인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행안부 담당자들과의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자체 평가에 반영함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체계를 마련함
- 세부사업들은 모두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한다는 근본취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의 다양성도 갖추고 있음
- 재원의 분담이 가능한 사업(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지방문예회관 등)의 경우에는 적절한 매칭 펀드가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음
- 사업 수혜대상의 선정에 대한 사업별 정의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예를 들면 사랑티켓의 경우 어르신 및 청소년), 현재의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현행의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자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모든 사업의 수요예측은 기본적으로 계량화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와 수요예측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운영주체의 다양성에 따른 통제 및 평가의 복잡성이 따름

[개선제안]

- 지자체별로 협력체계가 미흡한 곳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정이 필요함
- 지방비 매칭을 못 채우는 지자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부재원 유치 노력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논리모델이 체계적이며, 논리모델에서 추구하고 있는 측정 가능한 산출지표를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있음
- 예술사업의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면 측정지표의 설정은 매우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지표임

[부정적 측면]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기타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향유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인 측면의 고려 미흡함

[개선제안]

- 문화여가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 필요함
- 직면한 사회 환경 변화(예: 고실업, 고령화)에 대응하여 문화여가 지원 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목표치 설정근거가 명확함
- 고객만족도 평점지표가 기재부의 준거 틀에 맞추어 적절하게 기준을 잡음
- 사업목표의 선정은 문체부 성과관리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사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설정된 목표를 할당하여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음
- 세부사업별로도 구체적인 투입자원에 대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부정적 측면]

- 예산증액과 목표치 향상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며(예산증액 20%, 수혜자수 8.6%),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음
- 목표선정을 세부프로그램별로 정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평균화 경향으로 인해 성과달성에 대한 과잉포장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방어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한 경향이 높으며, 보다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예산과 연동하여 목표치 설정의 경우 예산이 동결되면 목표치 상향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임
- 개별사업 중 만족도 목표달성 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 전체만족도 100% 만족 못함

[개선제안]

- 더욱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재원출처의 다양성을 목표로 제시해야 함
- 단위사업의 평가근거 제시가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3분기까지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4분기에 와서 미집행 액이 발생함
- 100%를 맞출 수 없는 배분사업의 특성상 99.6%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

[부정적 측면]

- 재원 집행률 100% 미달성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문화소외지역및계층대상문화나눔	57,400	57,155	99.57%
소계	**57,400**	**57,155**	**99.57%**

- 사업운영관리비의 이월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사업선정포기로 인한 불용액은 조기에 대응하는 경우 추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개선제안]

- 상반기 집중적인 집행(91.4%)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함
- 사업포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 사업선정포기의 조기 대응하는 경우 추가사업자 선정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함
- 지원 단체의 자격에 대한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함
- 조사연구 지원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목표치 100% 이상 달성함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수혜자 만족도(점)	88	88	100.0%
수혜자 수(명)	3,280,000	3,350,678	102.2%
소계			101.1%

- 2012 모니터링을 체계화함
- 지역의 협력기관들과 함께 지역단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
- 서울의 콜센터에서 전국적인 모니터링 및 확인 작업을 하고 있음
- 각 세부프로그램별로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문화바우처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2012년 부정사용 및 지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려 했으나 모든 것을 체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지원 금액을 고려한 개최행사 수, 수혜단체 등에 대한 유지 내지는 확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랑 티켓과 같은 일부사업에서는 지원금의 중단이나 경고조치 등의 단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위반사례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선제안]

- 모니터링 결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 엄격하게 할 필요 있음
- 모니터링과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제시한 계량적인 목표치를 100% 달성하고 있고, 수혜자 수도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 종합만족도에서 재이용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등을 반영함
- 이러한 평가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방향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세부사업별로 보면 만족도와 수혜자 수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고, 총점의 결과는 평균화된 점수이므로 완전한 목표달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개선제안]

- 측정산식에 있어 각지표의 가중치의 차별적용이 필요함
- 목표치 설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세부사업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함
- 세부사업별 목표수준의 설정에 있어서 예산수준과 노력수준을 반영한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표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중장기적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과제 설정

[긍정적 측면]

-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13년도에 발표될 예정에 있음

[부정적 측면]

- 실행과제의 구체적 설정이 미흡함
- (안)에 나타난 실행과제의 구체성을 보다 높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면, ‘장애인 문화예술 정착증진이란 과제는 무엇을 해야 달성되는지’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미흡함

② 수혜자 선정관리(중복성) 강화

[긍정적 측면]

- 조사용역을 통해 수요자 및 수혜자 층의 분류와 세부사업별 적용을 하고 있음. 또한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기존의 인력과 재정으로 한계가 있음

③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긍정적 측면]

- 각 세부사업별 수혜대상자의 사용편의성을 재고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적절히 이행함

[부정적 측면]

-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욕구의 발견 노력이 필요함

④ 외부재원 활용률 확대방안 마련

[긍정적 측면]

- 외부재원 활용률이 높아지기는 하였음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외부재원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과 전략 전술이 미흡함

⑤ 성과지표의 다양화 (문화적인 삶의 질 측정)

[긍정적 측면]

- 용역을 통한 문화예술 활용 기여도라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음

[부정적 측면]

- 지적사항은 다양한 지표인데 개발지표는 단일지표임
- 문화예술 기여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이 존재함

⑥ 회계관리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상세화

[긍정적 측면]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으며, 매뉴얼화 하고 있음
- 매뉴얼의 구성이 구체적이고 실무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부정적 측면]

-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⑦ 문화소외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긍정적 측면]

-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을 이해 지역별 배분체계를 적절히 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연계사업 추진
- 농어촌 지역의 간이역사를 활용하여 공연을 추진함

[부정적 측면]

- 여전히 특정 지역과 특정 프로그램이 균등히 배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지역별 , 프로그램별 편차가 여전히 심함

⑧ 사업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Cross Check) 마련

[긍정적 측면]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기관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즉, 현장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자체 장기성과평가 모델의 개발 여부 불명확함

⑨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홍보방안 확대(어플리케이션 개발)

[긍정적 측면]

-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스마트폰 앱 개발이 미흡함— 그러나 개발예산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이며 환경적인 제약요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⑩ 소외계층접근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 강화

[긍정적 측면]

-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인 개선 강화에 노력하는 모습이 있음
- 수요처와의 MOU체결 필요함

[부정적 측면]

-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수준에서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수준이 매우 미약함
- 주요 협력단체인 복지기관의 위상과 대표성 확인이 필요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복권기금(사업) 인지도

[긍정적 측면]

- 현재의 복권기금 인지도와 문화예술기여도는 측정되어야 할 대상의 측면에서 적절한 지표라 평가됨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여전히 이 두 가지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완전히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지적사항의 문화향수, 문화적 민감성, 감수성, 생활 속의 예술, 문화적인 삶의 질에 대한 대표적 지표가 될 수 없음)
- 기여도의 측정은 여전히 만족도로 평가되므로 중복적 지표로 보임
- 조사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 영향 미 고려함

[개선제안]

-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혜기회제공과 실제수혜수준 및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성 있음
- 지표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② 문화예술 기여도

[긍정적 측면]

- 복권기금의 인지도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기여도는 96%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음

[개선제안]

- 세부프로그램별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비록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지라도 전략적인 방향설정 및 평가지표를 반영할 의지가 보여야 사업실행수준에서 지표를 높일 의미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사업의 통합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다르고, 공연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둘 사이에 차별성이 없음.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과 장애인 창착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약간의 차별성은 있으나 그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됨
- 이러한 사업들은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차별화된 다른 사업의 창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화복지위원회를 강화하여 사업의 통합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필요함

○ 민간 지원단체와의 협의조정기구 구성

- 문화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고 성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지자체 및 민간지원단체(예: 메세나 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도 유사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타 지원 단체의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중복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조정을 통해 역할 분담 혹은 특성화 사업에 집중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세부프로그램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강화 및 상향

- 예산증액과 목표치 향상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며(예산증액 20%, 수혜자 수 8.6%),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음
- 목표선정을 세부프로그램별로 정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평균화 경향으로 인해 성과달성에 대한 과잉포장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 예산과 연동하여 목표치 설정의 경우 예산이 동결되면 목표치 상향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임
-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방어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한 경향이 높으며, 보다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함

□ 집행

○ 사업자 자격에 대한 사전 심의 강화

- 재원집행률 목표 미달성의 사유가 사업자의 문제로 파악됨.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지역별, 사업자별 편차도 존재함
- 이에 따른 원인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 2012년 부정사용 및 지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하려 했으나 사랑티켓과 같은 일부사업에서는 지원금의 중단이나 경고조치 등의 단순조치를 취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따라서 국고지원사업의 사용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함을 교육을 통해 사전에 인식시키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 등도 고려해야 함

○ 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성과를 거둔 만큼, 위반사례가 왜 발생했는지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

○ 지속적인 수요자 욕구조사를 겸한 바우처사업의 패널데이터 확보

- 문화바우처 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욕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편성한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사업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문화욕구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례적인 수요자 욕구조사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함
- 나아가서 배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업성과의 추세를 파악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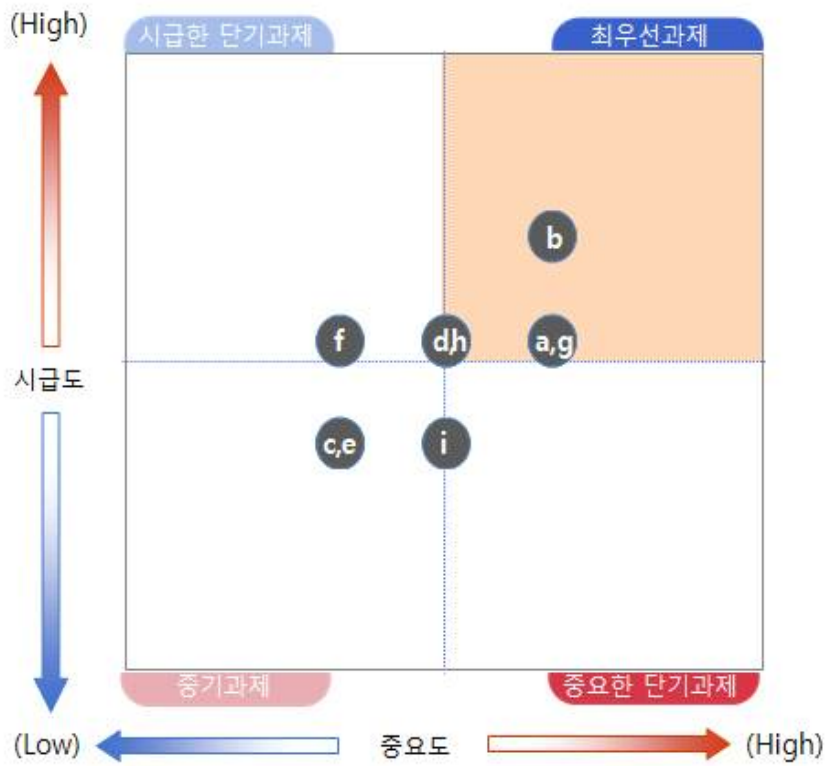
○ 문화여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변화 측정 강화

- 문화여가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궁극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실제로 외국에서는 문화여가 향유를 통해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증 감소,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등 사회 심리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여가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있음
- 따라서 성과측정에 있어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의 성과측정을 논리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지표로써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계획실천의 의지를 높이고 목표 달성의 동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사업의 통합**		●	2
계획	b	**민간 지원단체와의 협의조정기구 구성**	●	●	1
계획	c	세부프로그램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강화 및 상향	●	●	7
집행	d	사업자 자격에 대한 사전 심의 강화	●	●	4
집행	e	모니터링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	7
집행	f	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	6
성과	g	**지속적인수요자욕구조사를겸한바우처사업의패널데이터확보**		●	2
성과	h	문화여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변화 측정 강화		●	4
성과	i	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		●	6

4분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단위사업

[401] 지역문화 예술진흥

4분과 단위사업 최종보고서

401 지역문화예술진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6개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 기금배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 및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0,250백만원

○ 사업규모 : 전국 16개 광역시도 5,228개 사업

사업명		사업규모(개)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5,228(합계)
지역문예활동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4,909
	시,도 기획 지원	68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	9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6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68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9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1

○ 지원대상 :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1:1이상 매칭),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지원조건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자치단체경상보조	50%(1:1이상 매칭)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 주체 : 16개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0계획	'11계획(A)	'12요구(B)	증감(B-A)	%
□ 지역문화예술지원	22,650	20,250	20,250	0	0.0
■ 지역문예활동지원	10,800	10,800	9,890	△910	△8.4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6,800	6,300	7,390	1,090	17.3
- 시·도기획지원	4,000	3,500	1,100	△2,400	△68.6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0	1,000	700	△300	△30.0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0	0	700	700	순증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500	6,800	8,060	1,260	18.5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3,150	2,350	2,000	△350	△14.9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200	300	300	0	0.0
-지역문화협의체및협력관 운영	200	200	200	0	0.0
- 지역문화예술지원평가	-	100	100	0	0.0
□ 비목	22,650	20,250	20,250	0	0.0
■ 운영비(210)	0	100	142	42	42.0
■ 여비(220)	0	0	3	3	순증
■ 업무추진비(240)	0	0	5	5	순증
■ 민간이전(320)	200	200	200	0	0.0
■ 자치단체이전(330)	22,450	19,950	19,900	△50	△0.3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11 예산	' 12 예산(A)	' 13 예산(B)	증감(B-A)	%
□ 사업명					
■ 지역문예진흥	13,822.5	9,890	9,890*	0	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9,760.5	6,543.5			
시,도 기획 지원	1,752	1,426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	1,000	620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1,310	1,300.5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3,777.5	8,060	8,070	10	0.12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2,350	2,000	2,300	300	15
■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원	300	300	300	0	0
계	**20,250**	**20,250**	**20,560**	**310**	**1.53**

* 2012 지역문예진흥 세세부사업은 2013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통폐합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예술위원회, 외부전문기관	전년 16개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 사업성과 대내외 평가, 외부자문의견 반영, 모니터링결과 환류 및 내외부 환경분석
⬇	
예술위원회	2012년도 지역문예진흥사업 목표, 추진방향 설정, 2012년도 계획 수립 개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모니터링 계획, 외부평가단 등 자문단 구성

■ 사업 시행 추진

예술위원회 한지협	정책포럼, 한지협 총회, 정책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 컨설팅(사업설명)	
⬇		
시·도	지역별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비 확보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중앙문예진흥기금) 교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 ·시도기획지원, 지역문예진흥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지자체공연활성화지원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지원	
⬇		
시·도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지방비 매칭 후 ① 민간경상보조(→문화재단, 예술단체 등) ② 자치단체경상보조(→기초자치단체)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지역별 사업 시행	

■ 모니터링 및 평가

예술위원회 지역문화협력관	권역별 사업 모니터링, 자문 및 컨설팅, 문화사랑방, 정책토론, 연구조사, 민원 수렴, 사업관리
⬇	
예술위원회 외부 평가기관	예술위 상, 하반기 종합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기분좋은 QX,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부, 기획재정부 자율평가, 경영평가, PCSI(고객만족도 평가)

■ 평가 환류 및 개선

시·도	사업 추진상황보고, 성과 및 정산 보고 지역 자체 평가
⬇	
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중장기비전전략설정 반영 -중기재정운영계획 반영 -연간사업계획 반영 -세부사업별업무개선 및 고객서비스개선 반영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한다

○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고객만족도 (점)	목표		-	77.2	80.0	85.2	89.2	○ 기관의 PCSI조사 양호 등급인 85점을 세부사업별 최저목표치 설정하고 세부사업별 고객만족 개선도 100% 수준의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 기획재정부 PCSI조사 ○ 측정산식 : Σ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 산출 근거자료 : 기획재정부 PCSI조사 결과
	실적		75.0	72.1	84.2	87.8	93.9		
	달성도 (%)		-	93.4	105.2	103.1	105.2		
관람객수 (명)	목표	수도권	-	-	-	-	110,362	○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수도권은 목표 기준치의 110%, 비수도권은 120%로 의욕적 목표치 설정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산식 적용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체관람객 수 ○ 산출 근거자료 : 지자체성과보고서 * 2012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지역 간 격차
		비수도권	-	-	-	-	237,781		
	실적	수도권	-	-	-	100,329	142,592		
		비수도권	-	-	-	198,151	428,378		
	달성도 (%)	수도권	-	-	-	-	129		

								- 목표치 환산 평점 : 100.점 ㅇ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대표적 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관람객수를 핵심 성과지표(KPI)로 설정	
		비수도권	-	-	-	-	180		완화를 비교하여사업목적과 연계되도록 성과지표개선
지역 공연장 평균 가동률 (%)	목표	수도권	-	-	-	-	51.6	ㅇ 과거 3개년('09~'11) 실적 추세치 평균을 활용한 목표부여 평가방법 적용하되, 수도권은 목표기준치 110%, 비수도권은 120%로 의욕적 목표치 설정 ㅇ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수도권 목표치 환산평점 : 100점 -비수도권 목표치 환산평점 : 100점	ㅇ Σ 지역공연장 가동률/지역공연장수: 공연장 평균 가동률 ㅇ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산식 적용 ㅇ 산출 근거자료 : 지자체성과보고서
		비수도권	-	-	-	-	42.2		
	실적	수도권	-	55.1	55.1	30.7	62		
		비수도권	-	32.9	35.1	37.6	58		
	달성도 (%)	수도권	-	-	-	50.7	120		
		비수도권	-	-	-	97.4	137		

※ 2013.1.23일 현재까지 취합된 추정치, 3.8일경 최종보완 완료예정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 적 사 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계획] 수혜자 선정 기준의 세분화	ㅇ '13년 사업운영 지침 반영 - 지자체 및 광역문화재단이 사업수요에 근거, 사업 시행토록 함
	[계획] 합리적인(사업목적 지향적) 예산배분 기준 설정	ㅇ '13년 기금배분 기준 개선안 수립 - 유사 성격 지표 통합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표 강화
	[계획] 사업특성을 살린 성과지표(문화격차 해소 측정) 개발	ㅇ 2012년도 정책연구용역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을 통해 지표 개선작업 ㅇ '12년 10월 연구용역 결과 반영 사업 성과지표 확정 중
	[집행] 사업비 집행시기 집중현상 개선	ㅇ 정부 예산 조기집행 지침 준수 ㅇ 지자체 보조금 지급 요청시기 등을 고려 사업비 집중 집행 현상 개선
	[집행] 성과결과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	ㅇ 사업평가 체계 내실화 - '11년 평가결과 설명회 및 개선 워크숍 개최(권역별 1회) - 평가지표체계 개선방안 확정(평가 대상기관 협의) - 예술위원회(지역협력관) 평가 참여방안 수립
	[계획] 사업특성별 차별화된 지원제도 구축	ㅇ 질적 가치와 지역 브랜드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지원 심의 추진
	[계획] 성과위주의 사후지원방식 체계 도입	ㅇ 지자체 및 광역 문화재단 등 지역 여론 수렴(한지협 정책협력위원회 등) 회의 개최
	[계획]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합리성 확보	ㅇ 2012년도 정책연구용역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을 통해 지표 개선작업 ㅇ '12년 10월 연구용역 결과 반영 사업 성과지표 확정 중
	[계획] 실질적 성과를 반영한 구체적 목표치 설정	ㅇ 2012년도 정책연구용역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을 통해 지표 개선작업 ㅇ '12년 10월 연구용역 결과 반영 사업 성과지표 확정 중
	[계획] 공연예술상품의 특성을 살린 정성적 성과지표 개발	ㅇ 2012년도 정책연구용역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을 통해 지표 개선작업 ㅇ '12년 10월 연구용역 결과 반영 사업 성과지표 확정 중
	[집행] 사업비 집행시기 집중현상 개선	ㅇ 정부 예산 조기집행 지침 준수 ㅇ 지자체 보조금 지급 요청시기 등을 고려 사업비 집중 집행 현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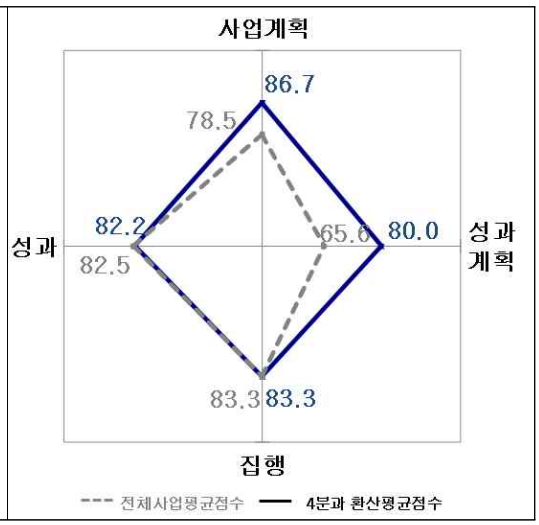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지역문화예술진흥(4분과 단위사업)」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6.7점, ‘성과계획’ 80.0점, ‘집행’ 83.3점, ‘성과’ 82.2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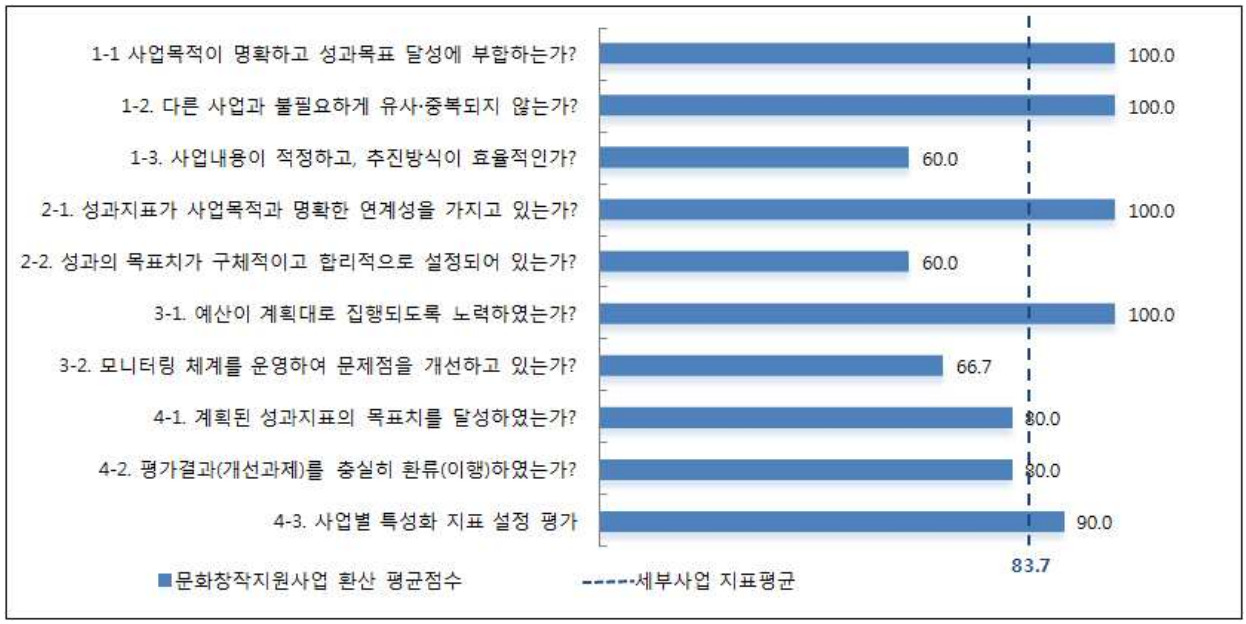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8.1), 성과계획(+14.4)영역은 높게 평가되었고, 집행(+0.0)영역은 일치, 성과(-0.3)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86.7
	1-2(5점)	5.0	100.0	
	1-3(5점)	3.0	60.0	
성과계획	2-1(5점)	5.0	100.0	8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82.2
	4-2(10점)	8.0	80.0	
	4-3(10점)	9.0	9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단위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지역문화예술진흥(4분과 단위사업)」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3.7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 항목 중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16개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의 기금 배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단체 역량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이에 실제적으로 지역협력관 제도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지표를 연동한 성과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이 쌓아짐과 아울러, 사업 개선을 위해 지역 문예진흥 중기전략 등 T/F 구성 운영 등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가장 중요한 재원 배분 등에 있어, 여전히 지역배분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지역격차 우선 또는 성과우선에 따라 세부사업별 성취도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사업목적과 과제의 연결 합리성 제고 및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을 보임

○ 이와 함께, 효율적 재정 집행과 성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재편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강화 등과 함께, 성과위주의 효율적 지원체계의 검토(예. 사후지원방식 등),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성과측정 등이 더 보강된다면, 더 많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본 사업은 16개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 기금배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 및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부분의 기금이 지역문예활동지원에 쓰이는 등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기반 창작활동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어, 사업목적에 현재의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문화 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성과목표로써 핵심 지역 고객의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객수,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리적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명확함
- 결론적으로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 평가에 대하여, 기준1에 대하여 사업을 통해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기준 2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점, 이에 대하여 공공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3개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역 현장과 밀착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핵심 지역 고객의 만족도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고객만족도), 지역 문화예술 창조인력들에 의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고(문화예술 관람객수)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의 기대효과와 예측결과를 미래 예측해 볼 때, 개선을 통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다소 있음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역문화협의체 운영의 경우 세부 사업시행 내용과 협의체운영의 목적이 일치하는지, 단순 정기모임의 성격이 짙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 또한,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뚜렷한 성과목표 및 달성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 평가지표가 투입대비 결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개선제안]

-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사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연결시켜보았을 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해당 목적에 크게 부합하는지, 개별단체지원에 그치는지 면밀히 사업목적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부가적인 성과지표 추가 등이 필요한 부분이며, 지역문화협의체 운영의 경우 해당 사업목적의 일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사업목적에 맞는 새로운 성과지표와 상대적 목표 책정에 따른 달성 부합 정도의 측정의 객관성 확보 필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투입대비 지표에 따른 결과지표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절한 평가지표 채택을 통해 투입대비 결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준의 가동률, 관람객수, 고객만족도 등 비교가능한 상대적 성과목표 책정 및 달성 및 개선 노력이 경주되는 과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지원은 1.53% 증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 전체 재정 증액 중에서도 상대적인 지역 격차해소 예산의 상대적 투입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지역간 문화격차는 단기간 해소될 수 없는 지속적 과제이며 신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등에서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재정지원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음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목적에 따라 기금의 효용성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중복성과 유사성은 크게 발견되지 않음
- 지역 협력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차별성이 돋보이며, 타 공모사업 등과도 유사성이 두드러지지 않음. 또한 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사업, 중복되는 사업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시행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으로써 민간 및 타 공공부문과 사업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음

- 또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등 각 지역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사업의 수혜자로서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타 사업과 중복되어 있지 않음
- 위원회에서 중앙 문예진흥기금을 지역에 배분하고, 지역 기금과 예산을 매칭하여 해당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어 사업수행주체가 타 사업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판단하여 평가해 볼 때, 기준1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르며, 기준 2에 의하여 볼 때, 사업 수혜대상이 다른 특성이 명확하며, 기준 3에 의건 사업 수행 주체가 다른 점이 분명하기에,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부정적 측면]

-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단, 문화예술위원회 집행 사업 중에서, 예술교육사업 등 수혜대상자가 지역인 경우 추진절차는 다를 수 있으나,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지역예술진흥사업과 성격이 유사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있음
- 또한, 거시적으로는 유사·중복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을 경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및 '시도기획지원사업' 등에 있어 사업의 성격 및 결과가 유사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거버넌스의 관계에서 놓고 보더라도, 현행 중앙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광역지자체의 추진사업, 광역지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등 사업과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유사·중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며, 협력사업의 발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또한, 기금이 아닌 광특회계 등 일반예산 추진사업의 경우에도 중복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문화재단과 지자체 사업편성 시 자율에 맡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선제안]

- 개별 문화재단 및 지자체 추진사업 중 내용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중복성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크로스 체크 등이 필요
-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 서비스의 이동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광역 문화재단의 기능 설정 및 운영 체계 구축에서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일원화 접근이 가능한 종합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급자 관점에서는 각기 다른 전달 경로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용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정책 서비스 체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단위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그러한 종합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또 구축해야 하는 지역문화정책 추진 주체는 광역 문화재단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단지 위탁사업의 시행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기능을 바꾸며 자체 역량강화를 꾀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예진흥기금과 광특회계의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 매칭 하여, 협력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전략성이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도 효율적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6항(지방문화예술기금으로의 출연) 및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 조례 등에 의거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으로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판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앙 문예진흥기금과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의 예산 매칭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내용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됨, 다만,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각 세부사업별로 수혜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어. 기대효과에 적절하게 기대됨

[부정적 측면]

-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문화역량 강화에 있는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분담은 현재의 문화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재원분담공식에 의해 분배되어야 함
- 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해 현재도 수도권 vs 비수도권간 차등적 재원분담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비율이 나오게 된 근거나 논리가 취약하여 매년 지역의견 수렴시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후지원 및 간접지원 등 지원방식 및 조건변경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체적으로, 사업수요예측이 신청건수에 기반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기반을 감안한다면, 신청건 수에 기반한 사업수요예측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예를 들어 지역의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량 있는 공연예술단체를 엄선, 상주(常駐)토록 하여 창작 작업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대표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듦
-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의 협력 및 네트워크 기여 정도 및 내용의 적절성 파악 또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사업별 일률적인 정액지원방식의 추진방식도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여짐
- 사업내용의 추진방식의 적정성과 효율성의 평가에 대하여 기준 1과 관련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기준 3에 대한 특성으로써 수혜대상자의 선정 적절성은 인정됨. 단, 적절하고 명확한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기준 2에 따른 재원분담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준 4와 관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식 및 조건 변경의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에 따른 기준 5관련 수요예측도 객관적인 기준의 미비로 인해 적절성을 논하기 어려움

[개선제안]

- 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해 수도권 vs 비수도권간 차등적 재원분담에 대한 기준 책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궁리하여, 적어도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계열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담 비율 근거나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적정한 사업수요 예측에 근거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재원배분공식이 마련되어야 함
- 예컨대 현재 지역문예활동지원은 서울을 16%로 고정시킨 후 서울 외 지역만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16%의 근거는 단순히 전년도 수치와 동일한 수치라고 제시되어 있음.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인 수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제 지원 금액은 16%선에서 이루어지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배분공식에 의해 해당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련해야 함
-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의 경우도 수요에 따라, 추진방식 변경을 검토해보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성과평가, 기금수요, 기금공급의 기금 배분 기준의 상대적인 비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대적 배분기준에 대해 기존의 사업 운용성과를 토대로 가중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차년도 사업에 적용하는 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중앙 수도권과 지역 비수도권 간의 격심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예술창작여건 개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수 및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이며, 문예진흥기금 지원과 시도의 문화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문예활동의 활성화는 이러한 성과지표의 달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격차 해소와 지역 창작여건 강화라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짐
- 이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예술창작여건 개선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설정된 ‘고객만족도, 지원프로그램 참여 관객 수, 공연장평균가동률’은 지역문예활동 활성화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정한 성과지표임
- 특히, 각 지표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고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어 측정산식 등이 명확하며 성과를 검증하는데 용이함
-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면, 기준 1과 관련,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기준 2와 관련,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준 3와 관련 성과지표의 정의와 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임에 따라, 기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다만,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뚜렷한 성과목표 및 달성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찾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평가지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평가지표가 투입대비 결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의 경우, 상대적인 목표치 없이 지난 3년간 추세치 평균 실적으로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자체 목표 설정에 대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러한 연유로 사업목적에 대한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평균 가동률의 경우, 연도별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특징에 따라 가동률 자체의 특성이 달라지게되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역의 요인들 이외에, 수요조건의 다양한 변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선제안]

-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는 결과지표로써 계량지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도별 변화정도나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성과지표로써의 대표성을 갖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관람객 수와 공연장 평균 가동률의 경우, 공공지원의 영향으로 인해 성과지표가 영향을 받는 비중이 시기별, 공연의 특성별, 수도권, 비수도권 특징별, 세대별 특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조사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표지표와 부가지표 등을 개발하고, 영향력 지수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평가지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지표 등을 개발하고, 지난 실적 대비 증가율 등 계산후의 목표치를 객관적으로 마련하여, 자체 목표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평균 가동률의 경우, 연도별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특징, 지역별, 세대별, 방문수요별 특징 등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에, 추세치 목표 설정이 아닌, 사업목적에 맞는 개선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책정과 달성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지원대상 만족도 지표의 경우 과거 3개년의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 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해 설정하여 다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 가능함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PCSI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 고객만족 개선도 산식을 적용해 설정함으로써, 고객만족도의 경우는 목표치가 합리적이고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2년 지역문화협력관 활동 방식 개선과 내실화를 통한 지역협력 활성화, 2012년 사업예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수도권(110%)과 비수도권(120%)으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 목표치의 설정과정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정했으며,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이는 서울에 대한 기금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업의 목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도 다소 적절하다고 보여짐

[부정적 측면]

- 다만,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사항과 유사하게 지역 공연장 평균가동률의 경우, 상대적인 목표치 없이 지난 3년간 추세치 평균 실적으로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자체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며, 합리성이 다소 결여된 측면이 있음
- 또한, 2012년 지역문화협력관 활동 방식 개선과 내실화를 통한 지역 협력 활성화, 2012년도 사업 예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최고목표치를 수도권은 110%, 비수도권은 120%로 설정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의지에 의해 설정한 목표치로써, 설정이 다소 작위적이거나,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보여짐
- 고객만족도 및 관람객수는 의욕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공연장평균 가동률의 경우 과거 실적 평균치에 근거하고 있어 목표치를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동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를 책정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기준들을 대입하여 살펴보았을 때, 기준1과 관련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고, 기준 3 관련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점은 인정됨
- 다만, 평가 기준2와 관련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소 안일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한 점이 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량적 증거를 제시해야함
- 특히,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의 경우, 상대적인 목표치 없이 지난 3년간 추세치 평균 실적으로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치 책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지난 3년간 또는 그 이상의 계획 대비 달성 비율에 대한 축적 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조지표 및 backup 자료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12년 지역문화 협력관 활동 방식 개선과 내실화를 통한 지역 협력 활성화, 2012년도 사업 예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최고목표치를 수도권은

110%, 비수도권은 120%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의욕보다는 역시 연도별 증가율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목표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달성 가능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역시, 고객만족도 및 관람객 수는 의욕적인 수준보다는 지난 근거 및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거 실적 평균치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고,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외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가 반영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변인들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책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 등 모든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은 계획대로 99.9% 집행하였으며, 노력이 경주된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지원금 교부는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16개 광역시도(재단)에 명확하게 재원이 전달되어 노력이 돋보임
- 재원 집행률이 100% 미만이나, 10년/11년 대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정부예산 조기집행 지침 준수로 집행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는 당초 집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예산의 집행계획에 의건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사업의 포기 없이 16개 광역시도 지원으로 집행이 완료된 점, 세부사업별 약간씩의 편차는 있지만, 2012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99.8%)를 제외하고 모두 100% 예산 집행이 된 등점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16개 광역시도(재단)에 명확하게 재원이 전달되었으며, 이는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으로 집행 노력에 만전을 기한 점이 인정됨
- 이에 예산 전용 등 목적 외 용도의 사용도 없으며, 집행의 문제(예산확정 통보시기)에 따라 개선방안의 시행여부로 인정됨

[부정적 측면]

- 재원 집행률 100% 미달성으로 당초 계획의 집행에 대해 노력 결과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 등급별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자면, 집행률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예산의 계획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달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정량적 성과 달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객관적 상황임
- 다만,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단순 예산의 집행률을 평가하는 현행 평가지표의 체계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단순 집행률의 기계적인 비율을 측정하여, 미집행률의 정성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세부 예산의 구성에서 배분 예산 뿐 아니라, 사업운영비 등도 혼재 되어 있음에 따라, 실제 예산의 집행률이 100% 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비의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집행노력이 미비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외, 익년도 중앙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 확정통보시기(2011.11.2) 늦어짐에 따라 지역 배정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개선제안]

- 집행률은 100% 미만이나, 제도개선 노력 및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이 경주된 것으로 보여짐
- 이에 정량지표를 감안하여, 예산의 계획대비 집행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및 집행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지,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위해 어떠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여부에 대한 정성정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단순 집행률의 기계적인 비율을 측정하여, 미집행률의 정성적인 부분만을 검토하지 않도록,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항목은 구분하여, 사업비의 달성 부분은 집행률을 최대한 반영하되, 사업운영비, 모니터링 예산 등 예산 절감 노력이 경주될 수 있는 부분은, 집행근거의 예산액에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던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가중치를 달리하도록 종합하는 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외, 추정 혹은 확정 가능 예산(가 내시)을 지역에 통보하는 시기를 앞 당겨 추진함으로써, 2012년도 사업관리에 노력한 점을 참조하여, 계속적으로 예산 확정통보시기에 상관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집행의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광역시도 지자체의 예산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임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외부 전문평가기관(기분좋은 QX,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가 평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의 정책토론회, 정책포럼 등을 통한 정책 사업 모니터링,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내부 워크숍, 정책 포럼 등을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여 차기년도 사업 지침 수립 및 추진 시 반영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엿보임
- 이와 같이,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평가, 과정평가 및 종합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정기적·사업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가 전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을 살려야 한다는 문제는 내년도 사업기획에 적절히 반영되었으며, 성과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한 성과로 보여짐

[부정적 측면]

- 다만, 사업목적상 관계자 워크숍 등의 경우 모니터링체계운영의 목적성과 다소 상이하며, 일부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정도의 구체성 정도를 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사랑방 등의 경우도 동일한 경우임. 체계의 활용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문제점 개선만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
- 그러나 비중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함
- 예컨대, 지역문예진흥사업중 일부 사업(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시도기획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이 없음
- 또한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함
- 지역의 가장 큰 갈등은 기금배분에 관한 것인데, 이는 사업의 기획적인 측면이지, 사업추진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에만 모니터링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함
- 또한 한지협 정책워크숍은 지역문화협의체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기금사업 자체를 모니터링 활동으로 제시할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평가 등급에 의거하여 정리를 해보자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문제의 일부만 해소한 측면이 있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개선제안]

- 기존 체계의 모니터링 체계 반영을 위한 연간 정기 모니터링 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 반영 및 정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관계자 워크숍 등의 경우 모니터링체계운영의 목적성과 다소 상이하거나, 세부 프로그램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별 주제와 목성성에 따라 관계자 워크숍, 모니터링 관계자 회의, 정책의견수렴회의, 문화사랑방 등 사업의 주제별 특성을 달리하여, 그룹별로 참가대상과 성과를 차별화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모니터링이라는 단순 그룹으로 묶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선 정도의 구체성 정도를 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 모니터링 사업 / 정책워크숍 등 운영지원 사업 / 구성체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 지역의 가장 큰 갈등은 기금배분에 관한 것인데, 기금 재원의 분배와 집행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균형과 성장), 사업의 성격(기초기반 구축, 특화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성과 창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과의 차이, 사업에 대한 수요변화 및 지역특성의 반영 등에 대한 연간 모니터링 체계를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연중 체크하고,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목표치 100% 이상 달성의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음
-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충분히 초과달성하였는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통해서도 관람객수의 경우, 수도권은 129.2%, 비수도권은 180.2%, 공연장 가동률의 경우 수도권은 102.2%, 비수도권은 137.4%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으로써, 당초 사업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지표들은 목표대비 성과지표의 적합성을 논할 때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측면에서는 계량지표로써 결과지표를 책정한 관계로 계획 대비 달성률이 완수되는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또한 고객 만족도의 경우는 PCSI 기준으로 예술위 전체적으로는 87.1점을 기록한데 대해서,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경우 93.9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관 내에서도 목표치 달성 및 관리가 매우 양호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는 세부적으로는 품질지수(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만족지수(사회품질, 전반적인 만족도, 요소만족), 성과지수(사회적 만족, 기관성과, 사회성과) 모두에서 90점을 넘는 만족도를 나타내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여짐

[부정적 측면]

- 목표치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목표치를 충분히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평가지표 2-2에 의거, 성과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2-2에서 '모든기준충족'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다소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실적치로 제시한 경우로 판단되기에, 이러한 점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다만, 목표치 달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상대적으로 예술위 사업들간의 상대비교에서도 양호하게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앞 평가지표 2-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목표치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 및 상대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책정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이기 때문임
- 고객만족도의 경우 PCSI와 상대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에 맞추어 목표치를 산출했지만, 관람객수와 공연장 평균 가동률의 경우, 기관의 정책적 지원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달성의 부분이 한계가 있음에, 이에 대해 목표치 달성에 대한 노력을 치하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목표를 임의적인 숫자인 110%와 120% 달성의 최고의욕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하고, 최상위 평점 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정량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지표의 성격을 갖는 의지적 특성을 그래도 반영함

[개선제안]

- 관람객수와 공연장가동률 경우 계획된 성과지표 수준을 면밀 재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는 목표치 산출근거 연동하여 숫자를 조정해야 함
- 예를 들어, 기준치(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중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고 득점구간을 두어 측정하고 있으나, 매우 임의적이고, 관람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변인들의 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이분법적 지역구분도 한계가 있으며, 수요적 조건과 공급적 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수요조건으로써는 공연장을 찾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의 인구현황 정보(방문가능지역 중심 인구 대비 정량적 가중치 적용), 과거 관람객들의 방문 행동 패턴(방문 빈도수, 방문이유, 방문 중 활동)을 분석, 적용하는 가중치 적용, 관람객들의 태도와 반응 (프로그램과 서비스 만족도, 선호도, 기대) 등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급조건 관련해서는 관람객 중심 양질의 프로그램 실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예. 공연의 대중성 및 동원 가능성에 대한 공연 등급별 기호도 가중치 적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수준을 고려하여 지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산정하는데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할 것임
- 이는 지역공연장의 가동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관람객수의 경우 수요자 중심 지표임에 비추어, 가동률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 공급자의 관리 측면에서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지표 대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수혜자 선정 기준의 세분화

[긍정적 측면]

- 지역수요와 욕구 부합 사업개발 노력 및 지원심의시 각 사업별 심사기준 차등 적용 등
- 지역별로 상이한 사업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예를 들어 VOC 수렴 강화 등을 통한 지역 고객의 만족도 향성을 위해 다양한 워크숍,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문화협력관 활동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컨설팅에 노력하였음. 이를 통해 지역수요 분석에 근거한 사업방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함이 인정됨
- 특히, 지역문화협력관은 사랑방 간담회,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 심의 등의 협력활동을 통해 지역별 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공연장 및 공연단체 여건,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연단체의 사업수요와 시도 및 문화재단의 사업수요 편차를 파악하려고 노력함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신청 대비 선정현황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함

[부정적 측면]

- 지적사항에 따른 사업 수혜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세분화하고 개별 사업성격을 정의한 후 어느 부분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 부분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소 미흡한 상황임
- 수혜자 선정 기준의 세분화는 사업기획단계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계획단계에서는 '지역문화협력관 및 지역 참여 활성화'라는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하였을 뿐, 수혜자 선정 기준 세분화는 지역현실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일부 단체의 경우 수요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영역에서 공유되고 있지는 못함
- 지역문화협력관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나,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수혜자 선정 기준의 세부화보다는 모니터링과 의견청취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선정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객관적인 분배기준으로의 연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여짐

② 합리적인 (사업목적 지향적) 예산배분 기준 설정

[긍정적 측면]

- 지역협력형사업을 종전 5개에서 2개로 대별하고, 시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별 예산 편성 체계로 배분기준을 조정하고 시도 자율에 맡기는 등 개선 노력을 꾀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지향 노력이 엿보임
- 합리적인 예산배분 기준 설정을 위하여 기금배분기준 설정 프로세스를 공론화하고 지역문예진흥사업 성과평가를 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이는 지역안배 또는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수혜자 선정 및 계획에 합리적인 사업수행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됨
- 이는 개선계획의 마련, 과제관리 및 모니터링, 개선과제의 이행 노력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사업시행을 지향하는 기준 설정 노력의 일환임
- 특히, 지자체의 문화예술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지방비 매칭 반영비중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2012년 5% 반영에서 ' 13년 20%로 반영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의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재원총량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많은 시행착오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산 배분의 기준 설정은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가장 적합한 관리방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음
- 합리적인 예산배분 기준 설정은 절차의 합리성보다는 객관적인 배분공식 마련 등이 주요한 것인데, 기금배분 기준안 공론화 결과, 예산 배분 기준은 각 시도별 지원 수요에 맞는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권장되어,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설정하라는 개선과제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기금 배분 시 '12년 기준 인구수 25%, 예술인수 10%, 문예활동건수 5%, 문예활동활성화 5% 등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세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 13년 배분기준에서는 인구수 30%로 조정하는 등 일관성이 미흡한 점이 나타나며, 객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임
- 합리적인 예산배분 기준 설정은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마련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상황에 맞추어 추가 인센티브 등을 책정하는 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수요조건과 함께, 공급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현행 시·도 재정의존도 및 매칭 정도의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보여지며,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비 서울 지역 등 지역구분의 기준에도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보임.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설정에 따라 목표치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연도별 평가하여 그룹 편입의 가변성을 꾀하는 안도 상정해 볼 수 있음

③ 사업비 집행시기 집중현상 개선

[긍정적 측면]

- 특정기간(공연성수기)에 집중된 사업비 집행일정을 시정하여, 사업비 집행 시기를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사업개시 1~3개월 전 교부, 집행)
- 정부예산 조기집행 지침준수를 통하여 특정기간 집중된 사업비 집행일정이 시정되었으며, 개선과제의 이행 노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1차(예술위원회) 지자체 교부 -> 2차 (광역자치단체) 사업 주관 단체 교부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고,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모니터링 및 사업관련 수시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점도 높이 살만함
- 시도에 대한 예산의 적기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예산 소요에 맞추어 특히, 상반기에 최대한 사업비를 집행토록 일괄지급 및 시스템에 입력을 강조하고, 이를 시행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음
- 이에 각 지역에서는 사업개시 1~3개월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점검 및 여유가 생겨 예산 집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짐

[부정적 측면]

- 이는 사업비 집행시기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책개발을 통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조치로써 문예위의 관리방법에 의한 것이 아님
- 즉 정부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집중은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어서 여전히 개선과제로 남음
- 실제, 예산은 재정지출을 미리 계획해 둔 것에 불과하여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 또는 시기 조정이 될 수도 있으며, 조기집행을 너무 강조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경쟁 및 지자체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의무적 사업추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후기 추가 지출 필요사업에 대한 예비예산의 조기 소진 등의 사례가 발생되어 예산이 때로는 낭비적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집행시기의 집중현상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정은 좋으나, 지역여건에 맞추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집중 지출 선배정하는 등의 모니터링과 유연적인 운영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역관련 예산 집행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견결집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연초에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④ 성과결과환류 및 모니터링체계의 내실화

[긍정적 측면]

- 협력관 모니터링 활동 성과평가결과가 사업에 환류 되도록 기금배분시 반영하고, 활동 빈도에 대한 보조지표로 협력관 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역문예진흥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추진방식을 체계화하고 지역사업 성과평가 결과 설명회를 추진하여 중앙-지역간 모니터링 공유를 위한 체계는 잘 수립되어 있음
- 특히, 시도별 예산배분에서 복잡하고, 중복하게 반영이 된다는 항목들을 단순하면서, 사업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피드백 기능을 보강하여, 전체 예산 중 20%를 성과 평가에 따른 배분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성공적인 결실로 보여짐
- 또한, 예술위원회의 나주 이전 시점에서 협력관 증원을 전체로 한 장기적인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갖고 있음이 바람직함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 체계 운영과 지역협력관의 상시 일반사업컨설팅 업무와는 여전히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구분이 필요한 상황임
- 모니터링 체계 운영에서 지역협력관의 모니터링 활동은 지역협력관의 상시 일반 사업컨설팅 업무와 구분이 모호하며, 사전평가와 과정평가, 종합평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포럼, 사랑방, 설명회, 의견수렴 등이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결과가 유사함에, 지역에서는 자칫하면, 중복되는 유사 모임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할 수도 있음
- 실제, 전국 13개 지역의 70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현재 상황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현실적인 성과결과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함
- 이를 이해 우수사례의 전파 및 벤치마킹, 자료의 공유 관련하여 1) 지역의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 (수용자 지향형) 2) 사업개선 목적의 공유, 사업설명회 및 결과 환류 (모니터링 및 사업개선형) 3) 관계자 커뮤니티의 연계성 강화 (포럼 및 사랑방 모임형)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별 목적성과 시행기준을 차별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⑤ 사업 특성을 살린 평가 지표 (문화격차 해소 측정) 개발

[긍정적 측면]

-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업무추진전략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워크숍, 포럼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사후지원방식의 검토 등 사업의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설문조사 추진 등)
- 또한, 지역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결과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 공유를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바람직함
- 역시, 중기 지역문예진흥 2.0 T/F를 통해 계속적 검토 개발 중으로 공감대 형성(워크숍), 지역 여론 수렴(설문조사 등), 자료조사, 분석 및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논리모델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T/F팀 등에서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개선과제에 대한 관리방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향후 긍정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다만, 사업 특성을 살린 평가 지표 (문화격차 해소 측정) 개발에 있어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논리모델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연구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사업별로 다양한 편차가 있는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대표성이 있는 평가지표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도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공급자 특성),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요자 특성),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나, 현재 방향성은 그러한 관리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못함
- 지표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지표개발의 초안에 대해서도 지역육성지원의 경우 ‘수상건수’, ‘평균창작작품수’, ‘지자체와의 협력건수(공동연구 및 작품 협력건수)’ 등 지표개발을 협의하는 한편, 시도기회지원의 경우는 ‘평균창작작품 수’, ‘지역특색 문화예술 발굴 건수’ 등을 논하고 있으나, 사업의 목적성과 사업의 특성반영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성과와 격차해소라는 목적 등에 따라 사업을 특성화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차별화하는 객관적인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격차 해소형 사업의 경우, 문화격차(소외지역) 해소 측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표를 지속 개발할 필요성이 큼

⑥ 사업특성별 차별화된 지원제도 구축

[긍정적 측면]

-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실시, 결과 환류, 추진방식의 전환 노력 등을 꾀하는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 또한, 내외부 장르별 책임심의위원을 구성하여 통합심의회의 진행하는 등 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관행적 지정방식을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질적 가치가 높은 유망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외부기관의 별도 위탁평가를 추진하여 '사업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평가의 추진(예술경영지원센터, 2012.3~2013.2)을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임
- 이는 예를 들어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평가점수의 평가등급화 등을 통해 평가의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목적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해 나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됨

[부정적 측면]

- 질적 가치가 높고 지역브랜드화에 유망한 사업들과 예술장르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예술인들의 요청에 의해 제안된 사업들과 구분, 차별화된 지원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
-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이는 관리방식 및 지원심의 노력, 평가결과의 환류 등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사업목적과 추진의 명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확립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 사업목적에 따라 '지역격차 해소형 사업'과 '성과 중심형사업' 등으로 사업의 목적성 특징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고, 사업목적별로 차별화된 지표를 개발하거나, 가중치를 달리하는 한편, 세부 지원 내용을 달리하여,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 중기 지역문예진흥 2.0 T/F를 통해 지역 2.0 시대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이라는 특징에 대해 지역사업특성을 살린 성과평가체계 및 환류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방향성과 차별성을 조속히 도출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⑦ 성과위주의 사후지원 방식 체계 도입

[긍정적 측면]

- 사후지원제도에 대한 지역검토의견 수렴 등 노력을 꾀하였으며,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정을 거침 (합동 워크숍, 정책협력위원회의 다양한 수렵 회의 등)
- 협력관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을 꾀하였으며 (중부, 영남, 호남) 설문조사 추진을 통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
- 평가환류를 통한 공모사업 진행 등 노력을 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파악함
- 성과평가강화를 위해 외부기관 별도 위탁평가를 추진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성과위주의 사후지원방식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 및 집행노력이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노력을 인정함
- 특히, 예술영영지원센터를 통해 문예진흥기금지원 예술행사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함

[부정적 측면]

- 실제적으로는 의견수렴 이외에 시범사업 등 실시통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시한 노력이 없어 미비한 점으로 보여짐
- 또한, 사후지원방식에 대한 지역의 반발로 사후지원방식체계를 도입하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도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선정방식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년도 사업에 대한 환류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사업에 한하는 것이며, 사업개선의 당초 취지(성과지향형 관리체계 마련)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임
- 공공지원의 목적이 최대한 기금 투입 대비 성과위주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성과창출을 통한 사후지원방식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는 한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간접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범 지역의 설정 및 일부 사업의 운용 등을 통해 성과를 본 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체적인 시행이 어려울 경우는 일부 재정에 대해(50%) 선지급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나머지 재정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모색해볼 필요 있음

⑧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합리성 확보

[긍정적 측면]

-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업무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최대한 경우
- 지역주민 참여확대지표 내실화 노력 및 고객만족도 제고 지표의 실효성 증대 노력 등
- 지역사업 성과제로를 위한 내부워크숍 추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내부인력들의 목표지향형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함
- 성과요인분석 용역 등 시행 결과 반영 노력 ; 2012년도 정책연구용역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 (2013. 3월 완료 예정)
-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논리모델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T/F팀 등에서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개선과제에 대한 관리방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임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연계가 표면적으로는 객관화된 산식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논리 모델 개발 및 합목적성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보이며, 프로그램 목표와 사업내용사이의 논리적 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당초 사업목적이 효율적인 기금 배분을 통해, 지역의 역량 및 향유권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것인지, 기금 지원에 따른 성과창출에 중심한 것인지 사업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차별화된 지표 적용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임에, 이에 대한 논리구조와 합리성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가 숙제라 할 수 있음
- 사업성과지표 확정이 연구용역에 따라, 201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및 목적과 지표간의 연계과정에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목적과는 달리 성과지표의 성과요인 분석에 그칠 우려가 있어, 결과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음

⑨ 실질적 성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긍정적 측면]

- 지원대상 예술인, 예술단체 등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 기관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워크샵을 추진하고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고객만족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산식 등을 참조하여 기관의 PCSI 목표치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최저목표치를 적용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목표치 산정에 만전을 기함
- 이는 과거 3개년의 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 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해 설정한 값으로, 다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 가능함
- 또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루트의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 목표치 설정을 제안함으로써, 사업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특히, 이를 위해 권역별 협력관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 반영 목표치의 설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보여짐
- 2012년 지역문화협력관 활동 방식 개선과 내실화를 통한 지역협력 활성화, 2012년 사업예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수도권(110%)과 비수도권(120%)으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에 의건, 목표치의 설정과정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정했음이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 전략의 구체적인 제시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한 목표수준의 설정이라기보다는 기존 목표의 단순한 조정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만족도 제고와 함께, 관람객 목표 상향 조정 등은 의지를 반영한 단순 목표치에 그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성과 달성전략의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의 경우, 상대적인 목표치 없이 지난 3년간 추세치 평균 실적으로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자체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며, 합리성이 다소 결여된 측면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업의 지역별 목표치산정 구분에 있어, 최고 목표치를 수도권은 110%, 비수도권은 120%로 설정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의지에 의해 설정한 목표치로써, 설정이 다소 작위적이거나,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보여져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음

⑩ 공연예술상품의 특성을 살린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업무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연예술 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성과지표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지표개발을 위하여 정성 신규지표 개선을 위한 내부워크숍을 추진하여, 기존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지표를 검토 중임
- 이에 기존의 관람객수와 고객 만족도 이외에 지역공연예술인식도 등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의 노력을 기울임
- 또한, 전문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를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특성화에 기반한 새로운 지표개발의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개선과제에 대한 관리방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짐
- 과제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도모를 위한 지표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지원을 받는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등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요인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고객 만족도 제고’를 도출하여 이러한 중간결과에 의거 정성지표 개발을 노력 해야 함

[부정적 측면]

- 신규지표의 평가 반영여부가 불명확하고,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화에 대한 당초목적 달성여부는 미지수임
- 정성지표는 평가자의 의견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 형식으로 복수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만족도, 관람객수, 극장 가동률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보조지표를 적어도 3개 이상 개발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특성화의 방향을 최대한 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공연 전문 인력의 조직체계, 공연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질적 평가지표 도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됨
- 단, 사업성과지표 확정이 연구용역에 따라, 201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사업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및 목적과 지표간의 연계과정에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목적과는 달라 정성지표가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음
- 연구용역의 경우, 정성적 평가지표의 개발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성과지표의 성과요인 분석에 그칠 우려가 있어, 결과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성지표 채택 여부 및 신규 정성지표 개발 여부도 미지수임

⑪ 사업특성에 기초한 독립된 모니터링체계 검토 및 일부 피드백 과정 재설계

[긍정적 측면]

- 사업적기 또는 조기집행 등 예산 집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드백과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임
- 성과평가 모니터링 추진방식을 체계화하고 지역사업 성과평가 결과 설명회를 추진하여 중앙-지역간 모니터링 공유를 위한 체계는 잘 수립되어 있음
- 특히, 지역협력관의 성실한 모니터링 활동 성과평가결과가 사업에 환류 되도록 기금배분시 반영하고, 활동 빈도에 대한 보조지표로 협력관 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은 사업특성에 기초한 모니터링 체계와 피드백과정의 완성을 위한 자체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또한, 내부적으로 지역문예진흥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추진방식을 체계화하고 지역사업 성과평가 결과 설명회를 추진하여 중앙-지역간 모니터링 공유를 위한 체계는 잘 수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그러나 세부사업별로 사업특성에 기초한 독립된 사업별 모니터링체계에 대한 과정 재설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기존에 있었던 체계에 대한 설명과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분해하여 세부흐름을 명시한 것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개선과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특히,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체계 운영과 지역협력관의 상시 일반사업컨설팅 업무와는 여전히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구분이 필요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성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의 구분을 면밀하게 하여 재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실제, 지역협력관의 경우, 전국 13개 지역의 70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현재 상황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현실적인 성과결과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용역 발주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지역문화협력관의 지역협력 활동 빈도

[긍정적 측면]

- 지역문화협력관의 지역협력 활동 빈도는 지역문화협력관의 지원심의-평가, 사업설명회, 모니터링, 컨설팅, 연구 및 교육활동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관련 단체 및 예술인의 서비스 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다소 의미 있음
- 이는 지역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효과적인 지역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자율지표로써,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에 의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로써 의미가 있음
- 지역협력 활동 빈도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를 부여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등급간 평가를 통하여 합리성과 명료성을 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2012년 경우, 128% 달성을 통해 지역현장 밀착활동의 빈도를 양적으로 계산, 반영함으로써 다소 의미가 있음

[부정적 측면]

- 앞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협력관의 활동 빈도는 의지에 따른 수치적 개념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화격차 완화를 측정하는 것이 사업목적에는 맞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활동빈도의 경우 목표치를 잡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달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기 어려움
- 지역문화협력관의 지역협력 활동 빈도 지표는 사업목적(지역문화격차 완화 및 지역문화예술역량제고)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러한 활동이 사업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함
- 또한 지역협력 활동빈도는 성과(outcome)일 수 없는 산출(output), 오히려 투입(input)에 가까운 지표로써, 결과지표로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지표의 적정성과 달성도를 살펴보자면,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과목표와 사업목적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런 특성에도 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제안]

- 지표 재검토에 따른 목표 달성도도 재검토 필요
- 현재 성과지표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공연예술 인식도(또는 만족도)등이 목적과 가장 연계된 활용가능한 결과지표임
- 목표달성도는 지표 적정성과 연계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에서 검토되고 있겠지만,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지역협력 활동 빈도는 투입(input)에 가까운 까닭으로, 결과 지표로써 지역문화협력관 활동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음
- 이를 굳이 성과지표로 활용하려면 지역문화 협력관 활동 만족도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고객만족도

[긍정적 측면]

- ‘지역의 창작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목적과 이를 위한 문예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고객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고객만족도’라는 특성화 지표 설정하여 전수조사 실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 본 지표는 고객만족도, 관람객수, 공연장평균가동률 등 계량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관람객의 만족도 등 공연의 질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고려하는 일환이라고 판단되는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지표는 지역문예진흥사업 중 단일사업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써 대표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지표라고 판단됨
- 신규지표임에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전체 고객 만족도 목표치인 89.2점으로 의욕적으로 설정하였으며, 91.9점으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는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며, 측정산식이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 측면]

- 만족도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지표로써 일견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별 특성화를 반영하기 위한 계량지표로써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경우 고객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타 사업과 달리 고객의 범위가 넓지 않고, 공연장상주단체의 특성에 따라 협의의 관람객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관람을 함에 따라, 만족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이는 잠재적 고객설정과 확대 개선의 노력이 함께 경주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지역문화예술창작기반 강화의 목적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만족도의 경우 또한, 계획 대비 달성이라는 기계적인 목표 달성도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지표와 어울려 보조지표 등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대표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개선제안]

- 2012년도 신규지표로써, 기존 성과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는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만족도 측정을 일부 사업에 적용해보고, 미비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정규지표로써 편입시켜, 적어도 3년 동안의 시행과정을 통해, 시계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고객만족도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고객만족도의 지수 향상도를 채택할 경우, 연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개선이 어려움에,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항목(70%)과 개선정도(30%) 등 비중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면 역시 좋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 고객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연장 상주단체의 특성에 따라 관람객과, 잠재적 고객설정을 통해 희망고객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측면 등 외연확장에 대한 노력을 지표의 한 부분으로 책정하고, 보조 지표화 하는 등의 노력이 곁들여지면 좋을 것으로 보여짐

3. 개선과제

□ 계획

○ 사업목적과 과제의 연결 합리성 제고 및 그에 따른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연계가 표면적으로는 객관화된 산식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논리 모델 개발 및 합목적성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보이며, 프로그램 목표와 사업내용사이의 논리적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치 설정에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당초 사업목적이 효율적인 기금 배분을 통해, 지역의 역량 및 향유권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것인지, 기금 지원에 따른 성과창출에 중심한 것인지 사업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차별화된 지표 적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임에, 이에 대한 논리구조와 합리성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하는 것이 숙제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업목적에 따라 ‘지역격차 해소형 사업’과 ‘성과 중심형사업’ 등으로 사업의 목적성 특징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고, 사업목적별로 차별화된 지표를 개발하거나, 가중치를 달리하는 한편, 세부 지원내용과 목표치를 달리하여,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중기 지역문예진흥 2.0 T/F를 통해 지역 2.0 시대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이라는 특징에 대해 지역사업특성을 살린 성과평가체계 및 환류 방안에 대해, 이에 대한 방향성과 차별성을 조속히 도출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세부사업별로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은 경우, 해당 목적에 크게 부합하는지, 개별단체지원에 그치는지 면밀히 사업목적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이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확인해봐야 함. 이를 위해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량적 증거를 제시해야함

- 특히,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의 경우, 상대적인 목표치 없이 지난 3년간 추세치 평균 실적으로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치 책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적어도 3년간 또는 그 이상의 계획 대비 달성 비율에 대한 축적 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조지표 및 backup 자료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12년 지역문화 협력관 활동 방식 개선과 내실화를 통한 지역 협력 활성화, 2012년도 사업 예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최고목표치를 수도권은 110%, 비수도권은 120%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의욕보다는 역시 연도별 증가율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목표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달성 가능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역시, 고객만족도 및 관람객 수는 의욕적인 수준보다는 지난 근거 및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거 실적 평균치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고,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외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가 반영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변인들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책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고객만족도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고객만족도의 지수 향상도를 채택할 경우, 연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개선이 어려운 까닭에,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항목(70%)과 개선정도(30%) 등 비중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면 역시 좋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 고객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연장 상주단체의 특성에 따라 관람객과, 잠재적 고객설정을 통해 희망고객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측면 등 외연확장에 대한 노력을 지표의 한 부분으로 책정하며, 보조지표화 하는 등의 노력이 곁들여지면 좋을 것으로 보여짐

○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와 상대적 목표 책정에 따른 달성 부합정도의 측정의 객관성 확보

-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의 책정이 납득할만한 성과창출의 기본이 됨. 특히 이는 공공재정지원(input)에 따른 지역격차해소 등 성과(output)로 이어지는 명백한 논리관계가 확보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특히,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투입대비 지표에 따른 결과지표가 연결되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절한 평가지표 채택을 통해 투입대비 결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람객 수와 공연장 평균 가동률의 경우, 공공지원의 영향으로 인해 성과지표가 영향을 받는 비중이 시기별, 공연의 특성별, 수도권, 비수도권 특징별, 세대별 특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조사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표지표와 부가지표 등을 개발하고, 영향력 지수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공연장의 거점 활성화를 위한 창작여건 향상 등의 경우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서의 평가지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지표 등을 개발하고, 지난 실적 대비 증가율 등 계산후의 목표치를 객관적으로 마련하여, 자체 목표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평균 가동률의 경우, 연도별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특징, 지역별, 세대별, 방문수요별 특징 등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에 정량지표를 감안하여, 예산의 계획대비 집행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및 집행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지,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위해 어떠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여부에 대한 정성정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성지표는 평가자의 의견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 형식으로 복수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만족도, 관람객수, 극장 가동률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보조지표를 적어도 3개 이상 개발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특성화의 방향을 최대한 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협력 활동 빈도는 투입(input)에 가까운 까닭으로, 지표로써, 결과지표로써 지역문화협력관 활동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굳이 성과지표로 활용하려면 지역문화협력관 활동 만족도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규지표의 추가는 평가 반영여부가 불명확하고,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화에 대한 당초목적 달성여부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함
- 예를 들어, 신규지표의 책정시는 기존 성과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는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만족도 측정을 일부 사업에 적용해보고, 미비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정규 지표로써 편입시키고, 적어도 3년 동안의 시행과정을 통해 시계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기준의 정합성 마련

-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준의 가동률, 관람객수, 고객만족도 등 비교가능한 상대적 성과목표 책정 및 달성 및 개선 노력이 경주되는 과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지역배분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함께, 적정한 사업수요 예측에 근거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재원배분공식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해 수도권 vs 비수도권간 차등적 재원분담에 대한 기준 책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궁리하여, 적어도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계열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담 비율 근거나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현재 지역문예활동지원은 서울을 16%로 고정시킨 후 서울 외 지역만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16%의 근거는 단순히 전년도 수치와 동일한 수치라고 제시되어 있음.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인 수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제 지원금액은 16%선에서 이루어지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배분공식에 의해 해당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성과평가, 기금수요, 기금공급의 기금 배분 기준의 상대적인 비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대적 배분기준에 대해 기존의 사업 운용성과를 토대로 가중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차년도 사업에 적용하는 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 집행

○ 수행과제의 내용의 정합성 및 세부목적에 따른 구분

- 사업집행과정에서 세부 수행과제가 기타과제와 사업목적이 유사하거나, 세부목적별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혼재되어 통합 수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함
- 예를 들어, 문화협의체 운영의 경우 해당 사업목적의 일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세부성과창출 시 해당 사업목적의 일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는 잘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목적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모니터링과 일반 협의체운영사업 등의 혼재)
- 기존 체계의 모니터링 체계 반영을 위한 연간 정기 모니터링 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 반영 및 정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관계자 워크숍 등의 경우 모니터링체계운영의 목적성과 다소 상이하거나, 세부 프로그램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세부사업별 주제와 목적성에 따라 관계자 워크숍, 모니터링 관계자 회의, 정책의견수렴회의, 문화사랑방 등 사업의 주제별 특성을 달리하여, 그룹별로 참가대상과 성과를 차별화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모니터링이라는 단순 그룹으로 묶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선 정도의 구체성 정도를 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 모니터링 사업 / 정책워크숍 등 운영지원 사업 / 구성체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 또한, 지역의 가장 큰 갈등은 기금배분에 관한 것인데, 기금 재원의 분배와 집행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균형과 성장), 사업의 성격(기초기반 구축, 특화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성과 창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과의 차이, 사업에 대한 수요변화 및 지역특성의 반영 등에 대한 연간 모니터링 체계를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연중 체크하고,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모니터링 체계 운영에서 지역협력관의 모니터링 활동은 지역협력관의 상시 일반 사업컨설팅 업무와 구분이 모호하며, 사전평가와 과정평가, 종합평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포럼, 사랑방, 설명회, 의견수렴 등이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결과가 유사함에, 지역에서는 자칫하면, 중복되는 유사 모임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할 수도 있음
- 실제, 전국 13개 지역의 70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현재 상황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현실적인 성과결과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함

- 이를 이해 우수사례의 전파 및 벤치마킹, 자료의 공유 관련하여 1) 지역의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 (수용자 지향형) 2) 사업개선 목적의 공유, 사업설명회 및 결과 환류 (모니터링 및 사업개선형) 3) 관계자 커뮤니티의 연계성 강화 (포럼 및 사랑방 모임형)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별 목적성과 시행기준을 차별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재편 고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집행 등 거버넌스의 관계에서 놓고 보더라도, 현행 중앙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광역지자체의 추진사업, 광역지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등 사업과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유사·중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며, 협력사업의 발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또한, 기금이 아닌 광특회계 등 일반예산 추진사업의 경우에도 중복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문화재단과 지자체 사업편성시 자율에 맡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별 문화재단 및 지자체 추진사업 중 내용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중복성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크로스 체크 등이 필요
-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 서비스의 이동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광역 문화재단의 기능 설정 및 운영 체계 구축에서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일원화 접근이 가능한 종합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단위의 원스톱 지원센터 개념)
- 공급자 관점에서는 각기 다른 전달 경로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용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정책 서비스 체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단위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그러한 종합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또 구축해야 하는 지역문화정책 추진 주체는 광역 문화재단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단지 위탁사업의 시행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기능을 바꾸며 자체 역량강화를 꾀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예진흥기금과 광특회계의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 매칭하여, 협력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전략성이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문화부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임

○ 예산 집행시기 조정의 유동성 확보

- 예산 집중집행시기의 조정은 일견 바람직할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적용이 불가피함으로써,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즉, 정부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집중의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조정원칙과 방침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부임
- 이는 사업비 집행시기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책개발을 통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조치로써 문예위의 관리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음
- 실제, 예산은 재정지출을 미리 계획해 둔 것에 불과하여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 또는 시기 조정이 될 수도 있으며, 조기집행을 너무 강조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경쟁 및 지자체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의무적 사업추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후기 추가 지출 필요사업에 대한 예비예산의 조기 소진 등의 사례가 발생되어 예산이 때로는 낭비적·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집행시기의 집중현상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맞추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집중 지출 선배정하는 등의 모니터링과 유연적인 운영이 성과 환류 등과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역관련 예산 집행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견결집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연초에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모니터링 부분)
- 또한, 단순 집행률의 기계적인 비율을 측정하여, 미집행률의 정성적인 부분만을 검토하지 않도록,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항목은 구분하여, 사업비의 달성 부분은 집행률을 최대한 반영하되, 사업운영비, 모니터링 예산 등 예산 절감 노력이 경주될 수 있는 부분은, 집행근거의 예산액에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던지, 이에 대해 집행관련 추가적인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가중치를 달리하도록 종합하는 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외, 추정 혹은 확정 가능 예산(가내시)을 지역에 통보하는 시기를 앞 당겨 추진함으로써, 2012년도 사업관리에 노력한 점을 참조하여, 계속적으로 예산 확정통보시기에 상관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집행의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광역시도 지자체의 예산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임

□ 성과

○ 우수 사례에 대한 발굴 및 인센티브, 언론 홍보 강화 등

- 지역협력관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 이를 통해, 담당지역에서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하여,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시상을 하거나, 전체 '지역문예진흥의 날(가칭)' 등의 종합 행사를 통해 격려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이는 언론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좋은 취지가 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 등의 사기진작에도 좋은 격려가 됨
- 이를 위해 문화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드시 행사에 참여하여 참가 및 격려를 하는 한편, 차년도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실제, 전국 13개 지역의 70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현재 지역협력관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상황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뿐 아니라, 현실적인 성과결과 환류 및 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에 대해서, 우수 사례의 전파를 통한 타 지역의 벤치마킹 효과도 우수하게 부각될 수 있음
- 이를 이해 우수사례의 전파 및 벤치마킹, 자료의 공유 관련하여 1) 지역의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 (지역-중앙간 홍보) 2) 사업개선 목적의 공유, 사업설명회 및 결과 환류 (지역간 홍보) 3) 관계자 커뮤니티의 연계성 강화 (지역내 홍보)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별 홍보 특성을 최대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대외 마케팅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성과위주의 사후지원방식 체계의 지속적 도입과 점검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지적되었던 사후지원방식 체계의 도입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역에서의 반발 등 문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도입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사후지원방식에 대한 지역의 반발로 사후지원방식체계를 도입하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도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일부 개선사항으로, 선정방식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년도 사업에 대한 환류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사업에 한하는 것이며, 사업개선의 당초 취지(성과지향형 관리체계 마련)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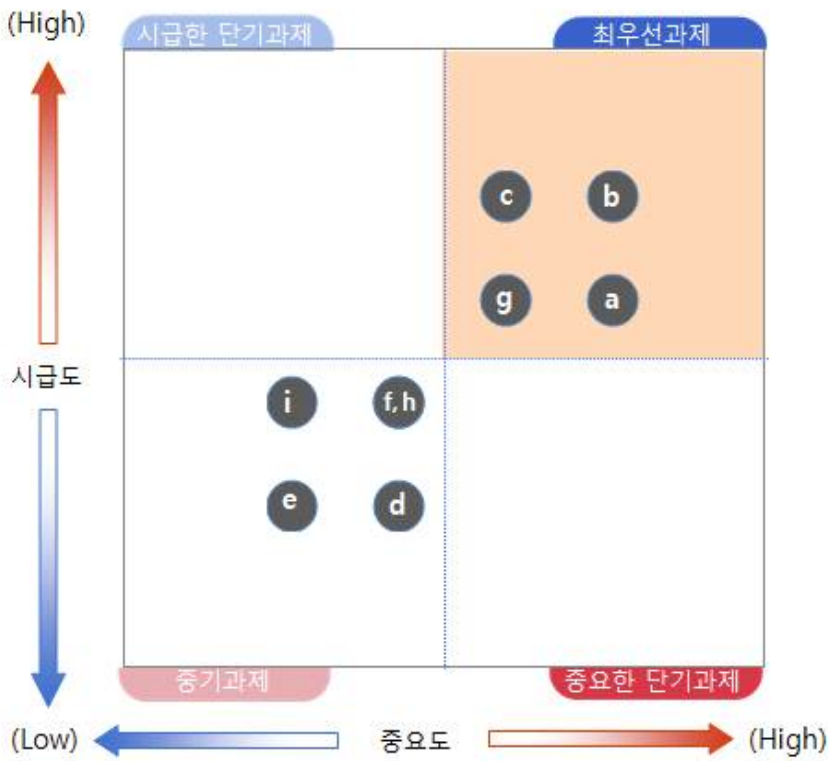
- 공공지원의 목적이 최대한 기금 투입 대비 성과위주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성과창출을 통한 사후지원방식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는 한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간접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시범 지역의 설정 및 일부 사업의 운용 등을 통해 성과를 본 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후지원방식의 전체적인 시행이 어려울 경우는 일부 재정지급에 대해(50%) 선지급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나머지 재정에 대해 차등지급하여 지역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모색해볼 필요 있음

○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성과측정

- 현재,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성과측정은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에 대해, 혼재되어 있는 상황과 함께, 객관적인 성과창출 원칙이 다소 부재한 상황임
- 지역별/사업별로 다양한 편차가 있는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대표성이 있는 평가지표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도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공급자 특성),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요자 특성),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나, 현재 방향성은 그러한 관리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못함
- 예를 들어, 관람객수와 공연장가동률 경우 수요조건의 고려보다는 공급조건의 고려에 의한 성과지표 책정 등이 우선되어 있는 바, 수요조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된 성과지표 수준을 면밀 재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는 목표치 산출근거 연동하여 숫자를 조정해야 할 것임
- 관람객수와 지역공연장의 가동률 경우, 수요자 중심 지표임에 비추어, 가동률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 공급자의 관리측면에서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지표 대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기준치(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고 득점구간을 두어 측정하고 있으나, 매우 임의적이고, 관람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변인들의 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이분법적 지역구분도 한계가 있으며, 수요적 조건과 공급적 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조건으로써는 공연장을 찾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의 인구현황 정보(방문가능지역 중심 인구 대비 정량적 가중치 적용), 과거 관람객들의 방문 행동 패턴(방문 빈도수, 방문이유, 방문 중 활동)을 분석, 적용하는 가중치 적용, 관람객들의 태도와 반응 (프로그램과 서비스 만족도, 선호도, 기대) 등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급조건 관련해서는 관람객 중심 양질의 프로그램 실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 (예. 공연의 대중성 및 동원 가능성에 대한 공연 등급별 기호도 가중치 적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수준을 고려하여 지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산정하는데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할 것임
- 이에 성과와 격차해소라는 목적 등에 따라 사업을 특성화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차별화하는 객관적인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격차 해소형 사업의 경우, 문화격차(소외지역) 해소 측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표를 지속 개발할 필요성이 큼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사업목적과 과제의 연결 합리성 제고 및 그에 따른 목표치 설정**	●	●	2
계 획	b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와 상대적 목표 책정에 따른 달성 부합정도 측정의 객관성 확보**	●	●	1
계 획	c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기준의 정합성 마련**		●	2
집 행	d	수행과제의 내용의 정합성 및 세부목적에 따른 구분		●	7
집 행	e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재편 고려		●	8
집 행	f	예산 집행시기 조정의 유동성 확보	●	●	5
성 과	g	**우수 사례에 대한 발굴 및 인센티브, 언론 홍보 강화 등**		●	4
성 과	h	성과위주의 사후지원방식 체계의 지속적 도입과 점검		●	5
성 과	i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성과측정	●	●	7

5분과 [예술의 사회적가치제고] 단위사업

[501]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

[502] 기초예술정책 연구조사사업

[503] 문화예술 사회공헌지원

[504] 공공 미술기반사업

5분과 단위사업 최종보고서

500 예술의 사회적가치제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홍보와 간행물 발간, 기부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정책 수립 관련 조사·연구 추진, 기업문화예술지원 활성화 등을 통한 문화예술 인식 제고 및 창작 여건 개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04억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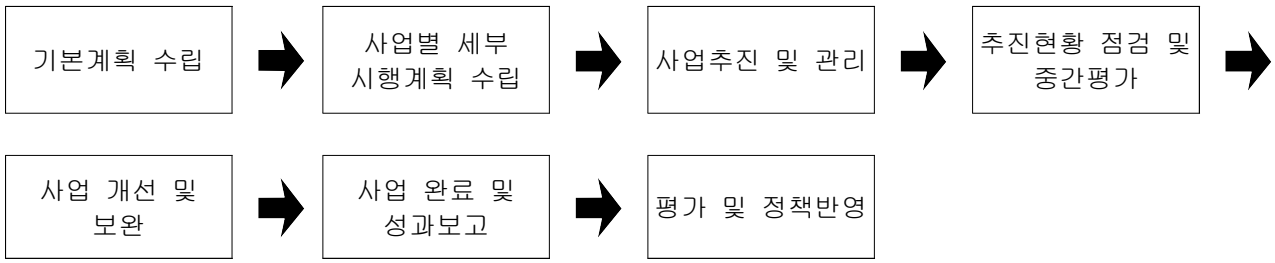
○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0 예산	'11 예산(A)	'12 예산(B)	증감(B-A)	%
□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16,144	18,100	10,402	△7,698	△42.5
■ 문화예술이미지 제고	16,144	18,100	10,402	△8,698	△42.5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 발간	874	702	674	△28	△4.0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701	551	461	△90	△16.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14,569	16,847	8,115	△8,732	△51.8
-공공미술기반사업			1,000	(신규)	(신규)

□ 세출예산비목	16,144	18,100	9,402	△8,698	△48.1
-일반수용비(210)	1,065	893	2,058	1,165	130.5
-여비(220)	48	48	45	△3	△6.3
-사업추진비(240)	12	12	24	12	100.0
-연구개발비(260)	450	300	300	-	-
-민간경상보조(320)	14,569	16,847	6,975	△9,872	△58.6

□ 사업추진 절차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예술창작 여건을 개선한다

○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07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기부금 사업 행정 서비스 만족도	목표	-	-	신규	75.0	78.0	81.2	○ 경영평가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 고객만족 개선도 100% 수준의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기부자/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PCSI조사 결과
	실적	-	-	-	77.5	79.1	81.4		
	달성도	-	-	-	103.3	101.4	100.2		
기부금 유치 실적 (백만원)	목표	75	82	94	106	112	174	○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 ○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00% 달성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연간 기부금액 집계 ○ 자료출처 :자체 결과보고서)
	실적	80	99	102	134	149	138.5		
	달성도	106.7	120.7	108.5	126.4	133.0	79.6		

※ 2012년도부터는 신설된 공공미술 기부금액을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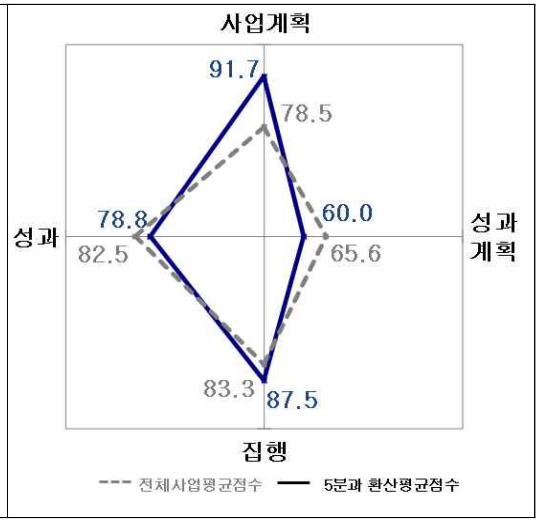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예술의 사회적가치제고(5분과 단위사업)」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91.7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7.5점, ‘성과’ 78.8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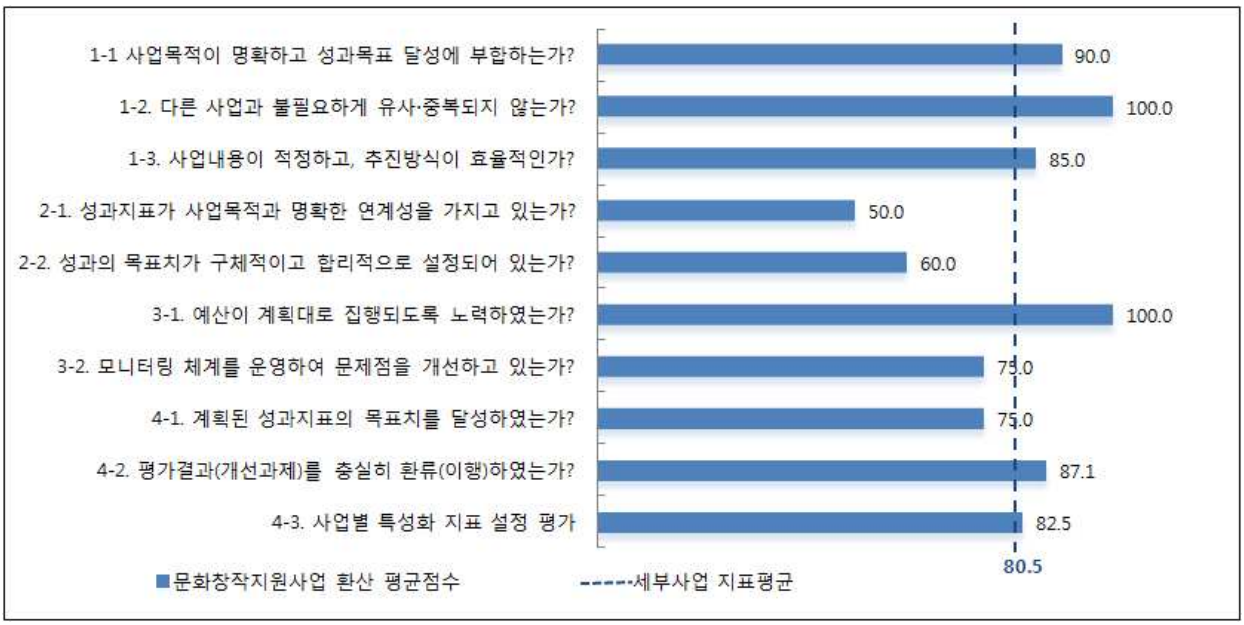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3.1), 집행(+4.2)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계획(-5.6), 성과(-3.7)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4.5	90.0	91.7
	1-2(5점)	5.0	100.0	
	1-3(5점)	4.3	85.0	
성과계획	2-1(5점)	2.5	5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7.5
	3-2(15점)	11.3	75.0	
성과	4-1(25점)	18.8	75.0	78.8
	4-2(10점)	8.7	87.1	
	4-3(10점)	8.3	82.5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단위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예술의 사회적가치제고(5분과 단위사업)」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0.5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며 5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은 예년에 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 목적 설정이 명료해지고, 사업 집행 단계에서 예산 집행률이 기준을 충족하여 전년도 “80.7점”보다 높은 “81.5점”(0.8점 상승)을 획득하였고, “우수” 등급을 유지함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에 대한 실적보고서 작성이 충실하여 성실하게 평가에 대응함으로써 실적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별로는 [501] 사업은 전년도 “74.8점”에서 11.5점이 상승한 “86.3점”으로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502] 사업은 전년보다 2.0점이 상승하였으나 등급은 “보통” 등급을 “유지”하였고, [503] 사업은 전년도 “89.9점”에서 7.9점이 하락한 “82.0점”을 획득하였으나 등급에서는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음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은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의 명료성, 사업 중복성이 없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추진 과정의 적정성도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 계획에 있어서는 성과 목표가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이 약하고, 성과 목표치 수준이 낮거나 산출방식이 단순히 전년 대비 실적으로 제시하거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은 사업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 높아서 기준을 충족하였고, 모니터링 체계 운영도 충실하여 80점 이상의 양호한 평가를 받음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은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성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 부족으로 인해 성과 결과의 평가에서도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 ‘성과 목표 및 목표치 설정’의 개선이 필요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에서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이 없으며,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추진 방식도 적정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세부사업마다 사업 목적에 대한 기술이 지난해보다 명료해짐
- 기관 전략 목표와 단위사업의 목적 사이의 연계성이 있음

[부정적 측면]

- 500사업의 사업명이 단위사업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501]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의 업무 분장에 따른 부서명으로는 적합하지만, 사업 목적을 반영한 제목으로써는 적절하지 않음 (‘발간’ 을 삭제)
- [503] 문화예술 사회공헌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명은 “문화예술계가 사회공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 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음
- [503] 사업의 하위 사업인 ‘예술나눔 기부활성화 사업’ 의 경우에도 ‘예술나눔’ 의 의미가 “예술을 고르게 나눈다” 는 의미(문화나눔의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등 의미 모호성이 있음
- 또한 [503] 사업은 ‘기부금 모금 및 예술 후원 활성화’ 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상 이질적인 ‘원로문예인 복지 지원 사업’ 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사업 목적을 기술하는 데서 명료성이 떨어짐

[개선제안]

- 500사업의 경우 단위사업 차원의 목적과 목표 설정, 그리고 그에 맞추어 세부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질적 성격의 사업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 제외 필요)
- 사업 내용 및 구성 체계를 정비한 후 그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업명을 붙여야 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전반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 사업이 많아서 사업 중복성은 없음
- [501] 홍보나 발간 사업, [502] 조사연구사업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분야임
- [503] 기부금 모금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원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에 해당하므로 중복성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에서의 예술 기부 활성화가 중첩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권장할 사항임
- [504] 공공미술 기반 사업 역시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써 지자체 등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 사업과의 중복성이 문제될 수 없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업 내용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적절함
- 501 사업은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 홍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홍보, 문예연감 등의 사업목적에 맞는 발간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502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 및 예술지원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사와 연구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 504 사업은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제고, 공공미술 DB 구축 및 운영, 공공미술 관련 역량 강화 사업, 공공미술 시범사업 등 사업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

[부정적 측면]

- 503 사업의 구성에서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사업은 사업의 내용상 이질적임

[개선제안]

- 503 사업 가운데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사업은 다른 분야로 이관 필요함
- 504 사업의 편제를 500 사업에서 다른 분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500 사업 전반적으로 결과지표로써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500 사업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설계에서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3을 불충족 함
- 501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단순 건수로 되어 있어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 502 사업과 504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성과목적 및 성과목표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고, 502 사업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고 있지 못함

[개선제안]

- 502 사업에서 예술 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확산 노력이 요구되겠으나, 경영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영활동에의 연구결과 활용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혹은 수정・보완)이 요구됨
- 504 사업에서는 공공미술 기금 조성액은 사업 목표라기보다 사업에 주어지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음.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이부서의 중심 활동은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활동이 되어야 할 것임. 지자체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가 전체 504 사업의 만족도를 대표할 수 없음. 따라서 504사업은 성과목적, 성과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신규 개발이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500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년도 추세치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목표치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달성 수준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 503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성과 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설정되었음

[부정적 측면]

- 503 사업을 제외한 500사업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서 사업 방식 개선 등 성과 제고 노력을 고려한 지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개선제안]

- 성과 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500 사업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됨
- 503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4.24%로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 예산의 미집행분이 아닌 기부활성화 회계상의 미집행액임. 원로문예인복지 지원 사업의 미집행분 역시 수혜 대상 예술인의 '작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501 사업의 98.31%, 504 사업의 99.20%는 100%에 가까운 높은 집행률이라 볼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500 사업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함
- 502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 91.92%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조사 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을 나타냄

[개선제안]

- 502 사업의 경우 대부분 용역 발주 사업으로 진행되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발주와 착수가 필요함
- 503 사업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기부금을 받아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 집행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501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협의체, 홍보 자문위원회, 발간물 편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502 사업의 경우에도 과제선정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504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미술 추진체계 관련 전문가 모니터링, 공공미술사업 운영자문위원회, 지자체 협의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을 운영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500 사업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체계 및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502 사업의 경우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의 모니터링이 부재함
- 504 사업의 경우 공공미술 참여 주체인 건축주, 미술인,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선제안]

- 502 사업의 경우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504 사업의 경우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외에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503 사업을 제외한 500 사업 전반적으로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함
- 503 사업의 경우 목표치 도달에는 실패했으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부건수의 증가’ 등 노력이 이루어졌음

[부정적 측면]

- 503 사업의 경우 기부금 유치실적 84.3%, 매칭 펀드 기업 지원 금액 96.2%의 실적으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음
- 501, 502, 504 사업의 경우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본 평가의 2-2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등급3’의 판정을 받음

[개선제안]

- 본 평가의 2-2 평가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성과 계획 단계에서 합리적이고 의욕적인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500 사업 전반적으로 볼 때 전년도 평가에서 제기된 모리터링 강화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개선 효과가 있었음
- 503 사업의 경우 개선과제로 제시된 신규 기부상품 활성화, 정보관리 강화, 기부금 성과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등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예술나무운동’의 시작은 그 상징적 성과라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 제시된 개선과제에 이행 정도는 일부 사업(503 사업)이나 일부과제(모니터링 강화)를 제외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501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와 연계한 홍보목표 설정이나 외부 수요자까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가 주로 연말에 이루어져 이행은 되었으나 2012년 사업에 반영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 관련 질적 성과 지표 개발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 개발을 시도한 것은 있으나 2013년 성과지표 설정으로 연결되지 못 하였음

- 502 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파급효과 측정은 연구결과 활용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보고서 논문인용 실적 등 3개 지표는 개발되었으나 실제 측정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함

[개선제안]

- 질적 성과지표 개발은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2013년도 성과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긍정적 측면]

- 사업별 특성화 지표는 각 사업별 자율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504 사업을 제외하고 500 사업 전반적으로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500 사업 전반적으로 특성화 지표 설정에서 해당 사업 내용을 포괄하는 지표가 아닌 보조적인 지표를 특성화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성과계획상의 성과지표와 사업별 특성화 지표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선제안]

- 사업별 특성화 지표도 사업 시작 전에 설정하여 성과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 계획

○ [500 사업] 전략 목표에 부응하는 질적 성과지표 개발

- 질적 성과지표 개발은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2013년도 성과계획에 반영 필요함

○ [500 사업] 사업명 개선

- 사업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명 수정 요망
- [500 사업]의 사업명인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부응하는 세부사업이 없는데도 사업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명을 사용하는 데서 성과 관리는 시작됨
- [503 사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지원'이라는 사업명도 문화예술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실제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 모금 활성화로 되어 있어 괴리가 있음
- [503 사업]의 '예술나눔'이라는 용어는 '예술에 대한 기부'보다는 '예술을 소외계층에 제공한다'는 '문화나눔'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새로운 사업명 개발 필요함

○ [501 사업] 사업 내용의 재구성

- 사업 내용을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홍보, ③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①은 기관 경영 전략과 연계한 사업, ②은 예술나무운동 등 주요 사업과 연계한 사업, ③은 한국현대예술 해외 소개 시리즈, 문예연감 발간 사업 등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간행물(웹진 아르코)의 기능도 홍보와 연계 속에서 재설정이 필요함

○ [501 사업] 용어 사용의 명료화

-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는 것'과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므로 평가보고서 작성시 개념과 표현의 명료화가 필요함

○ [502 사업]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개발

- 예술 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확산 노력이 요구되겠으나, 경영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영활동에의 연구결과 활용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혹은 수정·보완)이 요구됨
-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연구사업 및 보고서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503 사업] 기부금 모금 사업의 전략 목표 설정

- 예술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메세나협의회 등과 구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나가면서 사업 목적 및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503 사업] 전략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재설정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부금 모금 관련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성과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핵심 경영 목표하는 경우라면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예술계 및 사회 전체에 예술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한다면 성과지표 재설계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특성화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기부금 모금 건수'를 성과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504 사업] 성과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재설정

- 504 사업의 사업 내용과 성과목표를 포괄하면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 공공미술 DB 구축(2012년 13,500여 건), 공공미술 사업 관련 언론보도 건수(2012년 63건), 도시공원예술로 사업 워크숍 및 전시 참가자 수(2012년 1,973명) 등

○ [504 사업] 공공미술 기금 출연제도 홍보 강화

- 공공미술기금 출연액 확충과 관련하여 기금출연 제도 홍보 및 설명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집행

○ [502 사업] 연구과제 조기 착수 실현

-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체계 상 초기단계(수요조사 혹은 연구과제 선정)에서 연구 착수 및 최종보고 기간의 설정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기별 재원 집행률을 준수,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모든 과제가 상반기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함

※ 2012년 추진된 연구과제의 착수 시점이 6월 5개, 9월 1개, 12월 2개로 조기 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504 사업] 고객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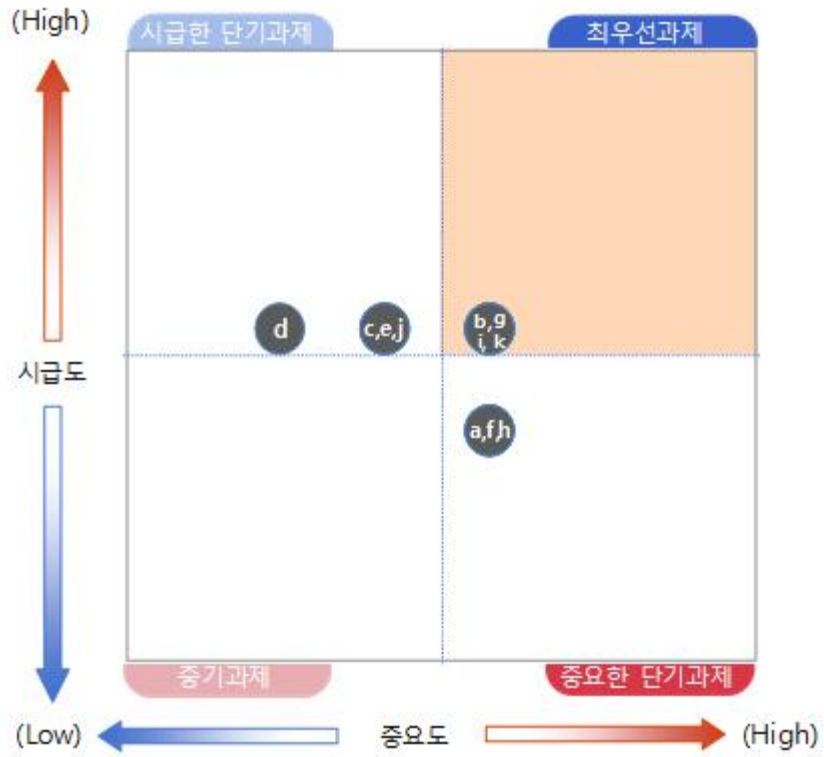
- 공공미술 참여 주체인 건축주, 미술인,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가 필요함

□ 성과

○ [500 사업]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성과계획서 반영

- 사업별 특성화 지표를 사업 시작 전에 설정하여 성과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500]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질적성과지표개발	●	●	3
계획	b	**[500] 사업명개선**		●	1
계획	c	[501 사업] 사업내용의재구성		●	3
계획	d	[501 사업] 용어사용의명료화		●	8
계획	e	[502 사업] 사업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개발		●	3
계획	f	**[503 사업] 기부금 모금사업의 전략목표설정**	●	●	3
계획	g	[504 사업] 성과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재설정		●	1
계획	h	**[504 사업] 공공미술기금출연제도 홍보강화**	●	●	3
집행	i	[502 사업] 연구과제조기착수실현		●	1
집행	j	**504 사업] 고객만족도조사확대추진**		●	3
성과	k	[500] 사업별 특성화 지표성과계획서 반영		●	1

5분과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세부사업

501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

5분과 세부 · 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501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일반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업 없음

○ 사업규모 : 767백만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및 단체, 일반 국민, 외국인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지원조건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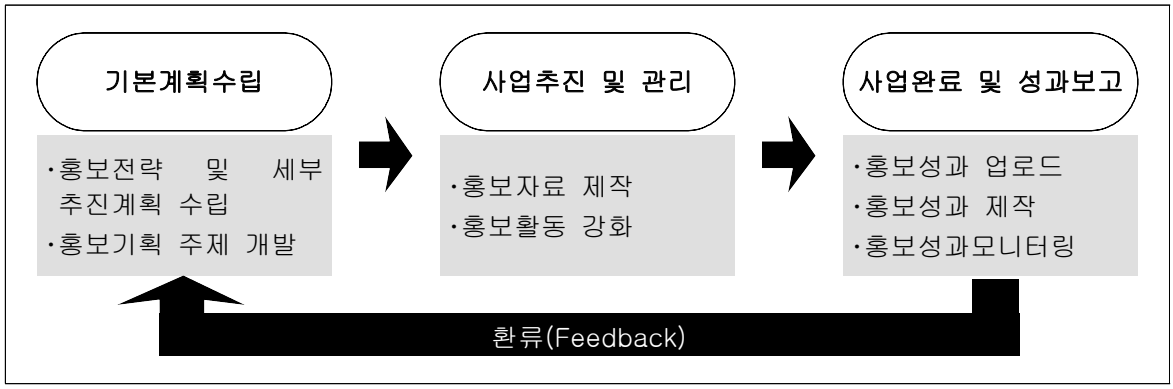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사업명	702	767	773	△ 34	-
■ 문화예술홍보	346	329	341	12	-
■ 문화예술간행물발간	356	438	432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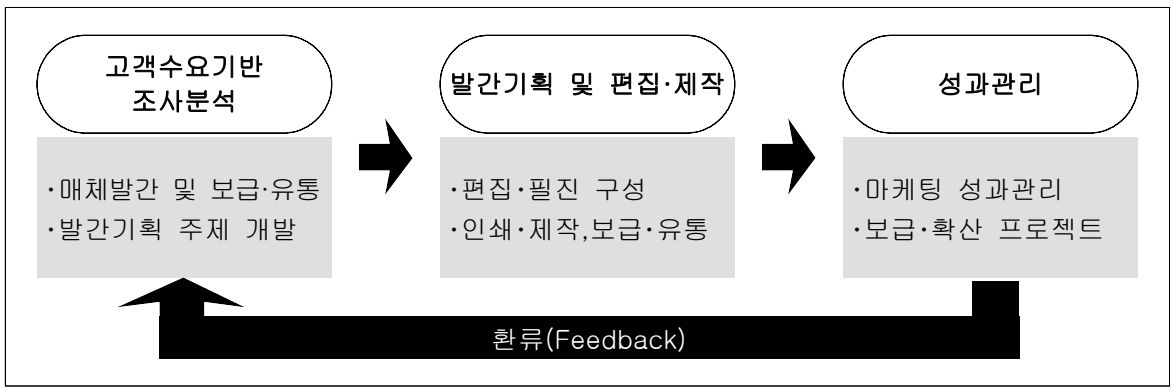
□ 사업추진 절차

○ 문화예술홍보



1 단계	Ⅰ. 기본계획 수립 ▪기관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홍보기획 주제 개발(홍보전략회의, 홍보자문위원회 등 진행)
2 단계	Ⅱ. 사업추진 및 관리 ▪위원회 지원사업을 내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 제작 (보도자료 및 기획기사, 인터뷰 자료 등) ▪언론사 홍보활동 강화(기자간담회, 문화부 출입기자 수시 미팅 등)
3 단계	Ⅲ.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홍보성과의 지속적인 업로드(홈페이지, 뉴스클리핑, 블로그 등) ▪홍보성과 인쇄·제작(브로슈어, 홍보동영상 등) ▪홍보성과 모니터링(홍보자문위원회, 홍보협의체)

○ 문화예술간행물발간



1 단계	Ⅰ. 고객 수요기반 조사분석 프로젝트 추진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 매체 발간 및 보급·유통 현황 조사분석 ▪발간기획 주제 개발(서베이, 리서치, 워크숍 등) ▪콘텐츠 구성 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2 단계	Ⅱ. 매체 발간 및 보급·유통 성과관리 프로젝트 추진 ▪매체 발간 마케팅 성과관리 조사분석(설문조사 등) ▪발간 기획 보급·확산 프로젝트(독후감, 저자와의 대화, 세미나, 포럼 등) ▪독자개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3 단계	Ⅲ. 발간 기획(안) 마련 및 편집·제작 ▪편집진, 필진 구성(기획비, 원고료 등) ▪인쇄·제작 및 보급·유통 등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언론보도 기사건수	목표	-	-	2,939	3,180	3,819	○ 과거 5개년('08~'12)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경영평가 목표부여 편차 평가방법을 적용, 목표치 산출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Σ (언론보도기사 건수) ○ 측정방법 :자체 집계 ○ 자료출처 :ARKO 자체결과 보고서
	실적	2,559	2,853	2,609	3,205	3,850		
	달성도(%)	-	-	89	101	101		
미디어 노출건수	목표	-	-	27	35	45	○ 과거 5개년('08~'12)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경영평가 목표부여 편차 평가방법을 적용, 목표치 산출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Σ (문화예술전문 방송프로그램+뉴스+보도 등 미디어 노출 건수) ○ 측정방법 :자체 집계 ○ 자료출처 :ARKO 자체결과 보고서
	실적	19	26	30	38	50		
	달성도(%)	-	-	111	109	111		
웹진 구독자수	목표	-	-	40,000	44,000	48,000	○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경영평가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10%의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Σ (웹진 구독자수 집계) ○ 측정방법 :자체집계 ○ 자료출처 :ERP시스템
	실적	-	-	40,876	44,020	54,790		
	달성도(%)	-	-	102	100	114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년)	■ 사업목표와 연계한 홍보목표 설정	■ 사업목표를 세분화하고 중점추진목표를 세워 구체적 홍보목표[우선순위] 설정필요 - 7대중점 추진과제등 기관 핵심사업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등 계획 - 언론, 방송등 온오프매체와 다각도 연계
	■ 한국현대예술해외소개시리즈의 파급효과 확대	■ 권별 주제에 따라 배포처 세분화 - Coexisting Differences : Women Artists in Contemporary Korean Art(한국현대여성작가)의 경우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 추가 배포 - 해외배급망(아마존)을 통한 판매 확대
	■ 질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	■ 노출건수[미디어게재건수 등]등 양적지표 뿐만 아니라 사업목표와 연관된 이슈발생/매체별 중요도 차등/risk management 등 질적 성과지표 개발
	■ 수요자까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	■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내/외부 차별화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기자간담회, 홍보자문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 외부 모니터링 확대 - 외부 모니터링을 위한 기자 네트워크 중점 관리 ■ 적절한 외부수요자 지속 관리 - 타깃별 차별화된 모니터링을 위한 현황 파악 - 문화예술에 관심도가 높은 고객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Ⅰ. 언론홍보 강화
- ㅇ 홍보이슈의 적극적 발굴 및 언론미팅, 홍보협의체 운영, 미디어 릴레이션 및 리스트 관리강화, 방송프로그램 노출, 주요사업과 연계된 기획기사, 칼럼/기고를 통한 기관 사업홍보 및 신뢰도 제고, 홍보 결과물 모니터링 및 전직원 공유

Ⅱ. 예술의 가치 확산
- ㅇ 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 ㅇ 예술에 대한 전반적 인지확대를 위한 채널 마련

Ⅲ. 홍보채널 및 툴 다양화
- ㅇ 대학생 서포터즈 컬처메신저 운영을 통한 다양한 홍보강화
- ㅇ 기관보유 컨텐츠 온/오프라인 활용 확대
- ㅇ 소셜미디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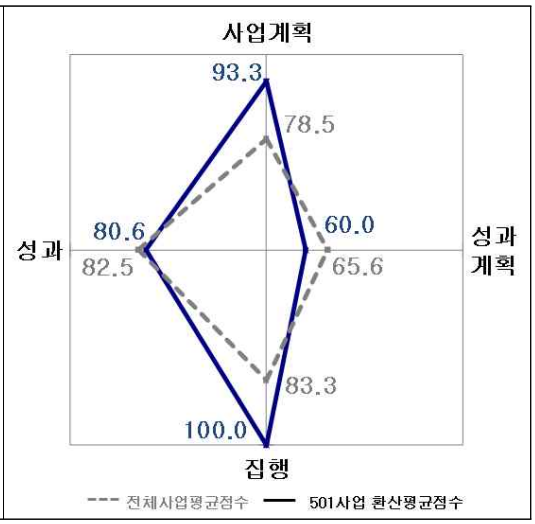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93.3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100.0점, ‘성과’ 80.6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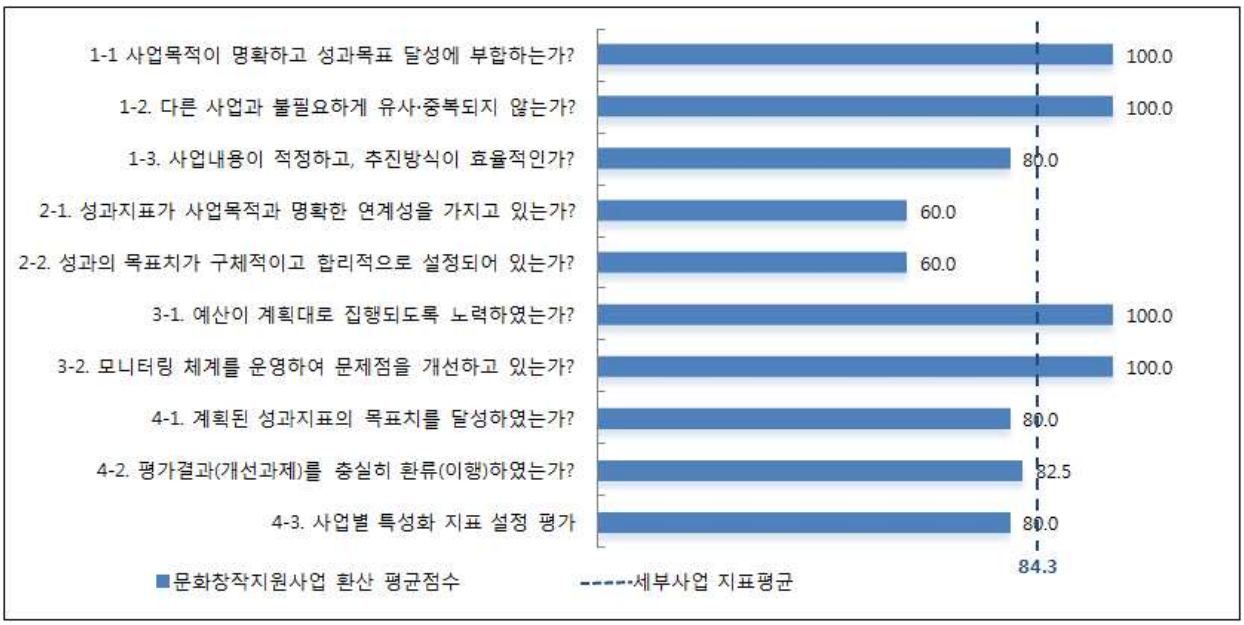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4.8), 집행(+16.7)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계획(-5.6), 성과(-2.0)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93.3
	1-2(5점)	5.0	10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100.0
	3-2(15점)	15.0	100.0	
성과	4-1(25점)	20.0	80.0	80.6
	4-2(10점)	8.3	82.5	
	4-3(10점)	8.0	8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4.3(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집행’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와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501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은 2012년도 평가 결과 “86.3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평가 결과 “74.8점”보다 11.5점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 등급도 전년도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하였음

○ 평가영역별로 보면 ‘집행’에서 30점 만점에 30점(100점 환산 100점)을 얻었고, ‘사업 계획’에서 15점 만점에 14점(100점 환산 93.3점)을 얻어 점수 상승폭이 컸고, ‘성과’에서도 45점 만점에 36.3점(100점 환산 80.6점)을 얻어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 다만 ‘성과계획’에서는 10만점에 6점(100점, 환산 60점)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개선 과제로는 하위 사업 내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홍보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대응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을 ‘일반’에 알린다는 것, 그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목적 설정이 명확함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및 전략체계 내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이 강함
- 사업목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은 필요하며, 재정투입 근거도 명확함

[부정적 측면]

- 사업대상자(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언론인, 행정가, 일반 국민 등)에 따라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관의 사업과 활동 홍보(또는 기관 홍보)와 ‘문화예술’ 홍보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므로 명료하게 구분하여 서술 필요
- 501사업은 ①아르코의 사업과 활동 홍보, ②한국 문화예술 홍보(발간)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어 서술 필요

[개선제안]

- 사업명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홍보와 발간 등 직무의 성격을 사업 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사업목적을 반영하여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한국 문화예술 홍보 사업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션과 관계가 깊은 사업으로써 고유성이 인정됨
- 또한 한국 문화예술 홍보는 어느 한 기관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중복성이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임
-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문예연감’의 경우 기초예술 통계자료집으로써 기초 자료축적이라는 차별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세부내역사업(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이 대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예술의 가치 확산이라는 사업목적 달성과 적정하게 연계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 홍보, 기관 사업 및 활동 홍보,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접사업이기에 자체 재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수혜대상 선정도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추진 방식은 아르코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경우 외부 기관(민간 출판사, 연구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문화예술 간행물발간 사업의 수요예측의 적절성과 문화예술홍보 사업의 경우 고정 사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수요예측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분석 틀을 통한 보완이 요구됨

[개선제안]

- 문화예술홍보 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내용을 기관 홍보, 기관 사업 홍보,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안 검토 요망
- 문화예술홍보 사업 수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의 변화 분석, 세분화 등 수요예측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요망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언론보도기사 건수, 미디어노출 건수 및 웹진구독자 수)는 사업내용을 적정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및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및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써 타당함
- 한국현대예술해외소개시리즈의 국내·외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국내 대형서점 및 아마존닷컴 판매 확대가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목표부여 표준편차 평가방법 적용 시 과거 실적치가 2-1 지표에서는 3년(2009~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2-2 지표에서는 5년(2007~2011년)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함
- 성과지표가 단순 건수로 측정되고 있어 언론매체 혹은 미디어의 파급효과를 고려지 못하고 있음
- 성과 측정 주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되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짐

[개선제안]

- 홍보사업의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인지도'를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외부 기관(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는 것'과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므로 평가보고서 작성 시 개념과 표현을 명확하게 하길 바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고 있음 (근거: 2012년도 부서업무 성과계획서)
- 목표부여 표준편차 평가방법(혹은 목표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점 100점 달성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통상적인 도달 수준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 목표치가 양적 목표치만 제시되고 있을 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통한 성과제고 노력이 목표치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음
- 목표부여 표준편차 평가방법 적용 시 과거 실적치가 2-1 지표에서는 3년(2009~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2-2 지표에서는 5년(2007~2011년)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함

[개선제안]

- 차기년도 목표치 설정 시 사업 목적이나 목표 등 질적 요소를 고려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홍보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나, 문화예술 간행물발간 사업은 경상비절감 등의 이유로 96.05% 달성에 그침
- 평균 집행률 98.31%로 결과는 100%에 미달이나 최근 3개년 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됨
- 분기별 집행률은 계획 대비 충실하게 이행됨

[부정적 측면]

- 사업 예산 767백만 원에서 13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률 100% 미달성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문화예술홍보	438	438	100.00%
문화예술간행물발간	329	316	96.05%
소계	**767**	**754**	**98.31%**

- 분기별 예산 집행률에서 계획 대비 실적은 양호하나 4/4분기에 집중되고 있음

[개선제안]

- 문화예술 홍보 사업과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사업을 구분하여 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 홍보 사업의 분기별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계획 수립 요망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ARKO 홍보협의체, ARKO 홍보 자문위원회, 한국현대예술 해외소개 시리즈 원어민 외부전문가 그룹 평가단 운영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 및 성과의 질(Quality) 제고를 위한 적정한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웹진 아르코 구독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사내용, 디자인 개선 등의 수요를 파악하였음
- 각 사업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음

[개선제안]

- 문화예술 홍보 사업과 문화예술 발간물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추진 체계 및 과정에서 모니터링의 결합 방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 작성이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언론보도기사 건수는 3,850건(100.8%), 미디어 노출 건수는 50건(111.1%), 웹진 구독자수는 54,790명(114.1%)으로 세 지표에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함

(단위 : 건, 명, %)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언론 보도기사 건수	3,819	3,850	100.8%
▪ 미디어 노출 건수	45	50	111.1%
▪ 웹진 구독자수	48,000	54,790	114.1%
소계			108.7%

[부정적 측면]

- 계획된 성과지표를 모두 100% 달성하였으나, 평가지표 2-2(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에서 ‘모든 기준 충족’에 부합되지 못하여 연계 평가에 따라 ‘등급2’로 판정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사업목표와 연계한 홍보목표 설정

[부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는 문화예술 홍보 사업과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 사업의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홍보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홍보 목표와 계획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적보고서에서는 두 사업의 ‘사업목적 명확화’라는 항목의 기술만 있고, 두 사업의 목표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홍보 사업의 경우 사업 목표와 연계한 홍보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 활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② 한국현대예술해외소개시리즈의 파급효과 확대

[긍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 한국현대예술해외 소개 시리즈의 발간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 배포처 확대, 시장 판매 추진, 아시아 작가 연수 프로그램 참여 작가 등 중점 배포 추진”을 제안하였는데, 2012년에 배포처 세분화 및 확대, 아마존닷컴 등 시장 판매, 아시아 작가 연수 프로그램 참여 작가 대상 배부 등이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③ 외부 수요자까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

[긍정적 측면]

- 외부 전문기관(문화리서치피오)을 통한 웹진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일정 노력이 투입됨
- 2차에 걸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홍보 사업과 관련한 외부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 “내부만이 아니라 독자나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독립된 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분석기법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웹진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조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종합적인 분석기법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로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함

④ 질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 “성과지표의 구성이 건수 위주로 되어 있으며, 성과의 질적 평가가 미흡” 하다는 평가 위에 “단순 목표치를 넘어 파급효과와 지속적인 부분을 동시에 적용” 한 “질적 차원의 성과 지표 개발” 을 제안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세부사업별 주요성공요인(CSF) 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POOL을 마련하였으며,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중에 있음

[부정적 측면]

- 외부 용역에 의한 결과가 2013년 성과계획에 반영되지는 못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국민체감도

[긍정적 측면]

-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국민체감도 조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홍보 사업의 국민체감도 결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 한국능률협회의 위탁하여 수행한 조사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높음
- 2011년도 실적인 52.5점을 유지하는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52.8점을 획득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가 501 사업 내용 전체를 적정하게 포괄하고 있지는 못함

[개선제안]

- 501사업의 특성을 고려 국민 체감도 조사와 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의 가중치 설정이 필요함

② 웹진구독자 만족도

[긍정적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리서치 피오에 의뢰하여 웹진 아르코의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성화지표로 활용함
- 501 사업의 하위 사업 가운데 하나인 웹진 발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써 적절함
- 만족도 조사 결과 80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는데 조사 결과 81.2점을 획득하여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웹진 아르코 구독자 만족도가 501 사업 내용 전체를 적정하게 포괄하고 있지는 못함

[개선제안]

- 501 사업의 특성을 고려 국민 체감도 조사와 웹진 만족도 조사의 가중치 설정 이 필요함

5. 개선과제

□ 계획

○ 세부 사업명 수정

-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이라는 사업명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홍보와 발간 등 직무의 성격을 그대로 사업 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목적을 보다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 필요함
- '문화예술 홍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또는 그 사업)를 홍보한다는 것과 한국의 문화예술을 홍보한다는 것은 의미 차원이 다름

○ 세부사업 내용의 재구성

- 사업 내용을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홍보, ③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①은 기관 경영 전략과 연계한 사업, ②는 예술나무운동 등 주요 사업과 연계한 사업, ③은 한국현대예술 해외 소개 시리즈, 문예연감 발간 사업 등으로 재구성 필요함
-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간행물(웹진 아르코)의 기능도 홍보와 연계 속에서 재설정 필요함

○ 문화예술 홍보 사업 수요 예측의 합리성 제고

- 문화예술 홍보 사업 수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의 변화 분석, 세분화 등 수요 예측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민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문화예술 홍보사업의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인지도'를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외부 전문기관(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 있음.
- 2011년 평가에서 제안된 개선과제 '외부 수요자까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의 연장선에서 추진

○ 용어 사용의 명료화

-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는 것’과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므로 평가보고서 작성 시 개념과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함

○ 질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

- 차기년도 목표치 설정 시 사업 목적이나 목표 등 질적 요소를 고려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2011년 평가에서 제안된 개선과제 ‘질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의 연장선에서 추진해야 함

□ 집행

○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사업별 분리 작성

- 문화예술 홍보 사업과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사업을 구분하여 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 홍보 사업의 분기별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계획 수립이 필요함

○ 3-2 지표 관련 모니터링 실적 보고서 사업별 분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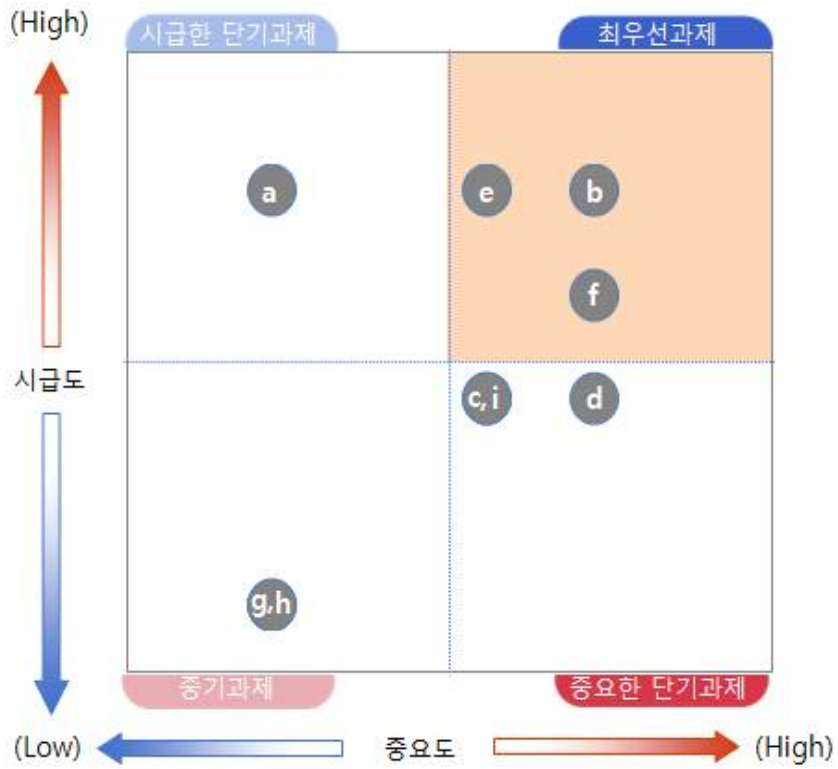
- 문화예술 홍보 사업과 문화예술 발간물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추진 체계 및 과정에서 모니터링의 결합 방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 작성이 필요함

□ 성과

○ 4-3 특성화 지표 가중치 부여

- 501사업의 특성을 고려 국민 체감도 조사와 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의 가중치 설정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세부사업명 수정		●	5
계획	b	**세부사업 내용의 재구성**		●	1
계획	c	문화예술홍보 수요 예측의 합리성 제고	●	●	5
계획	d	국민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	4
계획	e	**용어 사용의 명료화**		●	2
계획	f	**질적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	●	●	2
집행	g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사업별 분리 작성		●	7
집행	h	모니터링 실적 보고서 사업별 분리 작성		●	7
성과	i	특성화 지표 가중치 부여		●	5

5분과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세부사업

5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5분과 세부·기초사업별 최종보고서

502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현장에 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제1항 제6호

② 추진경위

- 문화예술진흥원(독임제)이 문화예술위원회(합의제)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제1항 제6호】

【참고】「문화예술진흥법」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기간 : 2006년~2012년(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520백만원

○ 사업규모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계획
일반수용비	160,800	연구결과 확산 활동, 사업 홍보 활동 관련 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600	연구보고서 발송비
임차료	10,000	연구결과 확산 활동 개최 시 장소 대여 비용 등
국내여비	9,000	연구추진 및 연구결과 확산과 관련된 국내 출장비용
국외여비	36,380	연구추진 및 연구결과 확산과 관련된 국외 출장비용
사업추진비	2,400	사업추진 관련 회의 및 연구결과 확산 추진 활동
연구개발비	300,000	정책연구용역비
계	**520,180**	

○ 지원대상 :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예술단체, 일반 시민 등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용역

○ 지원조건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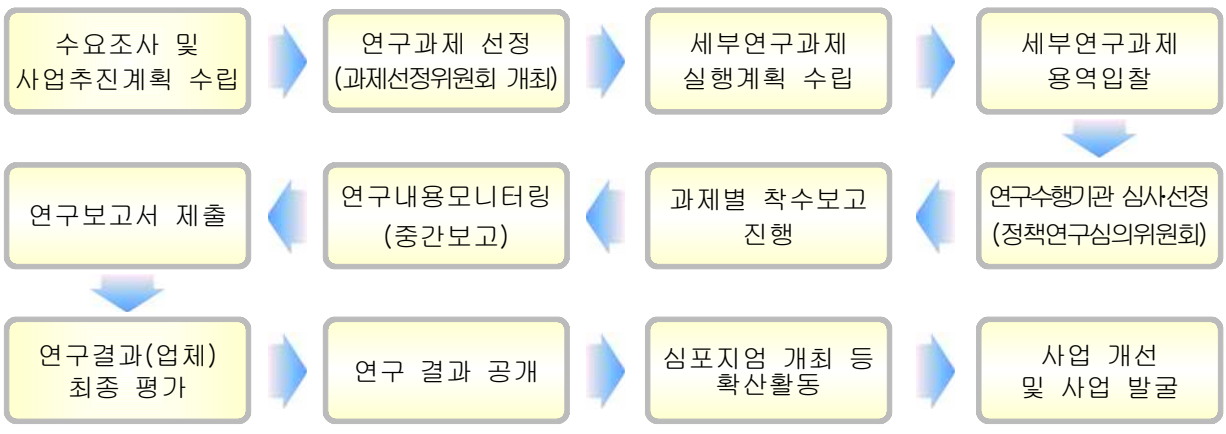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수행기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사업명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551	520	520	-	-

□ 사업추진 절차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 (건)	목표	-	20	30	33	50	○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10% 달성이라는 의욕적 목표치 설정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12년도 연구과제수 : 8건 - 최근 3년간 평균 연구과제수 : 6.7건 - 최근 2년간 과제별 평균 연구성과 확산노력 : 2.9회 ○ 연구성과 확산활동 정의 : 연구 주제 관련 심포지엄, 토론회, 좌담회 등 내외부 대상 연구결과 공유활동	○ 연구용역과제(건)×연구성과 확산활동(회) ○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산식 적용
	실적	-	17	30	45	56		
	달성도	-	85	100	150	112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 (건)	목표	-	-	-	3,150	3,308	○ 목표대실적 평가적용(목표설정 기준치 활용 과거 실적 부재) ○ 최근 3년간('08-'10) 연구용역과제 연간 평균 다운로드 횟수 2,994건의 5% 증가율 적용 ○ 기관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횟수 증감추이 관리를 통한 대외 활용도 측정 및 피드백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용역과제 다운로드 수 집계
	실적	-	-	-	3,152	3,770		
	달성도	-	-	-	-	114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table>
<tr><th>평가명(연도)</th><th>지적사항</th><th>개선사항(실적)</th></tr>
<tr><td rowspan="2">문화부평가
(2010년)</td><td>■ 예술위 경영활동과 관련된 연구 및 컨설팅이 주를 이룸</td><td>■ 이 사업은 예술지원정책의 전략 수립 및 조정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경영활동과 예술현장에 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업임. 따라서 기관 내 인력으로 자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관 여건 상 가능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입되는 자체 인력과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의 방향이 문화예술진흥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문화부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문화예술진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참조 : 예술위 경영 관련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액
<table>
<tr><th>구분</th><th>2010</th><th>2012</th><th>증감</th></tr>
<tr><td>집행액
(천원)</td><td>150,000</td><td>89,800</td><td>△60,200</td></tr>
<tr><td>비중
(%)</td><td>33.3%</td><td>29.9%</td><td>△3.4%</td></tr>
</table>
</td></tr>
<tr><td>■ 연구결과 활용률에 대한 지표 정의가 주관적인 요소 강함. 연구의 질적 평가가 필요</td><td>■ ‘연구결과활용률’ 지표는 연구의 질적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12년도 정책연구용역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개선 진행 추진
- 연구수행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기간 : ‘12.6~’12.12</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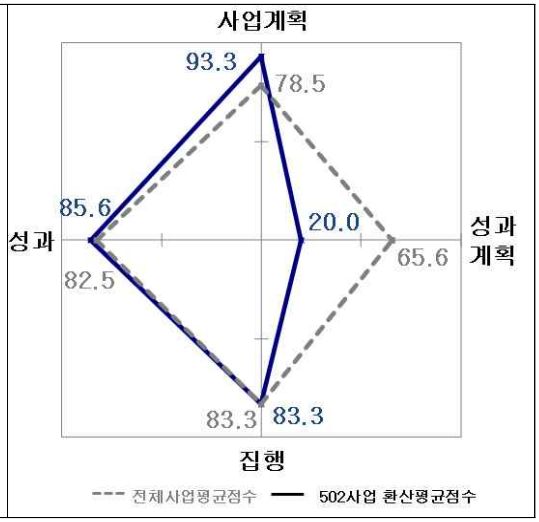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93.3점, ‘성과계획’ 20.0점, ‘집행’ 83.3점, ‘성과’ 85.6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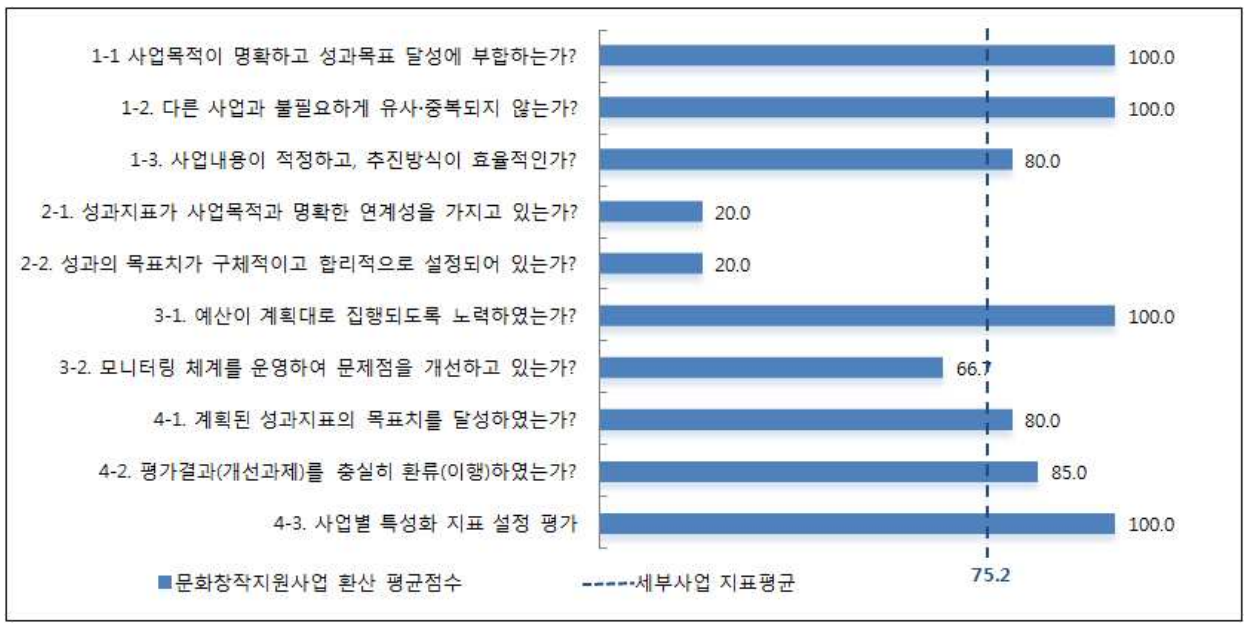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4.8), 성과(+3.0) 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0.0)영역은 일치, 성과계획(-45.6)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93.3
	1-2(5점)	5.0	10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1.0	20.0	20.0
	2-2(5점)	1.0	2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85.6
	4-2(10점)	8.5	85.0	
	4-3(10점)	10.0	10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5.2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성과’ 항목 중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이며 2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502 기초예술정책 연구조사] 사업은 2012년도 평가 결과 “79.5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평가 결과 “77.5점”보다 2.0점 상승하였으며, 평가 등급은 전년도 “보통”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 “보통”을 유지하였음

○ 평가영역별로 보면 ‘사업 계획’에서 15점 만점에 14점(100점 환산 93.3점)을 얻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과’에서도 45점 만점에 38.5점(100점 환산 85.6점)을 얻어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집행’에서 30점 만점에 25점(100점 환산 83.3점)을 얻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성과계획’에서는 10만점에 2점(100점 환산 20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개선 과제로는 평가 영역 가운데 성과지표 개발에 노력하여 ‘성과계획’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집행’ 영역에서는 연구 과제의 조기 착수에 주력한다면 차년도 평가에서는 ‘보통’에서 ‘우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이 사업은 기초예술분야 총괄 지원기구로써 연구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예술 정책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예술 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통해 사업목적(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현장에 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사이의 연계성이 강함
- 이 사업은 민간영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유사업으로서의 근거도 분명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 수행주체 및 수혜대상이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은 특히, 사업방식에서 ‘직접수행’보다는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외부 위탁 및 용역’이 대부분이라는 차별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기능은 중복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조사, 연구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없음
- 사업의 직접 수혜 대상인 연구기관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간접 수혜 대상으로서 예술계의 경우 중복이 문제되지 않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활동 및 예술현장에 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내역사업(‘예술정책연구조사’와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으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음
-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사업으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체 재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추진방식은 외부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연구기관 선정 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사업집행 추진체계는 사무처운영규정 및 용역 관련 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사업집행 흐름도의 출발점인 ‘연구과제 수요조사’는 내부 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연구과제 추진 성과 확산 노력과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의 정의 및 측정산식이 명확함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및 성과목적의 핵심내용 일부분만 반영하고 있음. 즉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은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성과지표(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지표로는 501 사업의 사업 목적인 ‘예술 지원 정책 연구 활성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토론회 등의 개최 실적은 조사연구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 실적이지 연구과제 성과 확산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없음

[개선제안]

- 예술 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확산 노력이 요구되겠으나, 경영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영활동에의 연구결과 활용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혹은 수정・보완)이 요구됨
-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연구사업 및 보고서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실제 수행된 조사연구 과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 등에 제한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고 있음 (근거: 2012년도 성과계획서)

[부정적 측면]

- 목표 부여 평가방법과 목표 대 실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치의 도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양적 성과지표 목표치만 제시되고 있을 뿐,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통한 성과제고 노력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음
- 최근 년도 실적 추세치를 활용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토론회 등을 무한히 양적으로 확대할 수도 없음

[개선제안]

- 연구과제 추진 성과 확산을 위해 토론회 등을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정책연구과제 및 수행업체 선정을 2개월 조기 추진하여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임
- 최근 3개 연도에서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즉 2010년 82.0%에서 2011년 83.8%로 상승한 후, 2012년에는 91.9%로 대폭 상승함. 예산 집행률이 100%에 미달하였으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평가하여 '등급2'로 판정함

[부정적 측면]

- 예산 집행률이 91.9%로 100%에 미달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예술정책연구조사	439	402	91.57%
연구성과활용및확산	81	76	93.83%
소계	**520**	**478**	**91.92%**

- 1/4분기 예산집행 계획 대비 실적 간 괴리도가 크며, 전체적으로 분기별 집행 계획을 준수하지 못함

(단위 : 백만원)

	계('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520	120	170	170	60
집행	478	2	127	185	164
잔액	42				

[개선제안]

-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체계 상 초기단계(수요조사 혹은 연구과제 선정)에서 연구 착수 및 최종보고 기간의 설정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기별 재원 집행률을 준수,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모든 과제가 상반기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함

※ 2012년 추진된 연구과제의 착수 시점이 6월 5개, 9월 1개, 12월 2개로 조기 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업체	연구기간	분기
2012-01호	국가 문화인적자원관리 방안 연구	(사)문화다움	2012.6~11	하반기
2012-02호	ARKO 비전 2020 설정 연구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2.6~2013.1	하반기
2012-03호	전사적 자료관리시스템(EDBMS)구축을 위한 핵심통계항목 개발 연구	문화리서치피오	2012.6~12	하반기
2012-04호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요인 분석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2.6~2013.1	하반기
2012-05호	온라인 문화예술 재교육 프로그램 타당성 연구	(주)아시아리서치 센터	2012.6~11	하반기
2012-06호	문화예술 나눔통계 Arts Giving Index 개발 연구	문화리서치피오	2012.9~2013.1	하반기
2012-07호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관련 증빙절차 개선방안	강남대학교 서희열교수	2012.12~2013.2	하반기
2012-08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정립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화정책학회	2012.12~2013.1	하반기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연구용역 과제별 내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연구내용의 완성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의 경우 연구진행 과정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투입하고 있음. 외주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연구사업의 경우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니터링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대부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해 연도 수행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 활용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제안]

-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 구체화 노력이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502 사업의 성과지표인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 노력과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에서 모두 목표치인 100%를 달성함
-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 노력에서는 50건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는데, 56건의 추진 실적을 올려 계획 대비 112.0%를 달성함
- 연구보고서 확산 노력에서는 3,308건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는데, 3,770건의 추진 실적을 올려 계획 대비 114.0%를 달성함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연구과제 추진성과 확산노력(건)	50	56	112.0%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실적(건)	3,308	3,770	114.0%
소계			**113.0%**

[부정적 측면]

- 계획된 성과지표를 모두 100% 달성하였으나, 평가지표 2-2(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에서 하나의 기준만 충족한 관계로 '등급3'으로 판정함
-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 가운데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개최가 특정 월(10월)에 집중되고 있음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질적 성과지표 개발

[긍정적 측면]

-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성과요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2개의 지표('연구결과의 부서 활용률'와 '연구결과 만족도')를 추가 도출함

※ 도출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성과지표	측정산식	특성
연구보고서의 활용도 제고	연구결과의 부서 활용률	(활용 연구보고서 건수/연구보고서건수)*100	정량
고객만족제고	연구결과만족도	연구결과에 대한 해당부서의 만족도 조사	정성

[부정적 측면]

- 지난해 평가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이용자 만족도’ 및 ‘실용적 연구’ 실행 여부를 평가하는 질적 지표를 개발하도록 제안하였는데, 도출된 지표에서 ‘연구보고서 이용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지표는 개발되었지만 2012년 평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음

②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화

[긍정적 측면]

- 심의위원회 강화 등 연구과제 선정 시 객관성 확보, 중간·최종보고 제도화 정착 등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화가 이루어짐

[부정적 측면]

-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었으나 12월에 착수된 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의 간격이 좁아 모니터링 결과 반영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③ 연구과제에 대한 파급효과 측정

[긍정적 측면]

- 파급효과 측정 보완을 위해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성과요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3개의 지표(‘연구결과의 부서 활용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보고서 논문인용 실적’)를 도출함
- ‘연구결과 활용도’ 결과를 4-3 특성화 지표에 반영함

[부정적 측면]

- ‘연구결과의 부서 활용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보고서 논문인용 실적’ 등 지표별 측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④ 연구과제 평가결과 환류

[긍정적 측면]

- 2012년도 연구과제 선정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 과제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였음
- 기본적으로 공개입찰로 진행하여 다양한 제안을 받고, 이를 외부전문가 2인(문화예술 관련 학계 전문가), 내부인사 2인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업체 선정

※ 연구업체 선정시 평가기준

내용평가					가격평가
용역과제의 이해도	연구수행기관 전문성	연구수행능력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관리 능력	문화예술 전문 인력 참여 여부	입찰가격 대비 추정가격
20%	15%	30%	15%	10%	10%

[부정적 측면]

- 평가제도는 체계화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 실적 및 2013년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연구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제시가 없음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연구결과 활용도

[긍정적 측면]

- 특성화 지표 '연구결과 활용도'는 사업 내용을 적정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사업목적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써 타당함
- 특성화지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부정적 측면]

- 연구 결과 활용도를 측정하는 산식이 분명하지 않고, 측정 결과 100%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개선제안]

- 각 과제 담당자에게 연구 결과 활용도를 조사할 때 사용할 양식의 개발 및 측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

② 청년소논문공모전을 통한 정책개발 대국민 참여도

[긍정적 측면]

- 특성화 지표 '청년소논문공모전을 통한 정책개발 대국민 참여도'는 사업내용을 적정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사업목적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써 타당함
- 지표정의, 측정산식뿐 아니라 측정방법도 명확하고 합리적임
- 2011년 공모건수 20건을 기준으로, 2012년 목표치를 22건으로 설정, 2012년 30건 달성으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5. 개선과제

□ 계획

○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개발

- 예술 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확산 노력이 요구되겠으나, 경영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영활동에의 연구결과 활용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혹은 수정·보완)이 요구됨
-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연구사업 및 보고서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도가 필요함

□ 집행

○ 연구과제 조기 착수 실현

-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체계 상 초기단계(수요조사 혹은 연구과제 선정)에서 연구 착수 및 최종보고 기간의 설정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기별 재원 집행률을 준수,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모든 과제가 상반기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함

※ 2012년 추진된 연구과제의 착수 시점이 6월 5개, 9월 1개, 12월 2개로 조기 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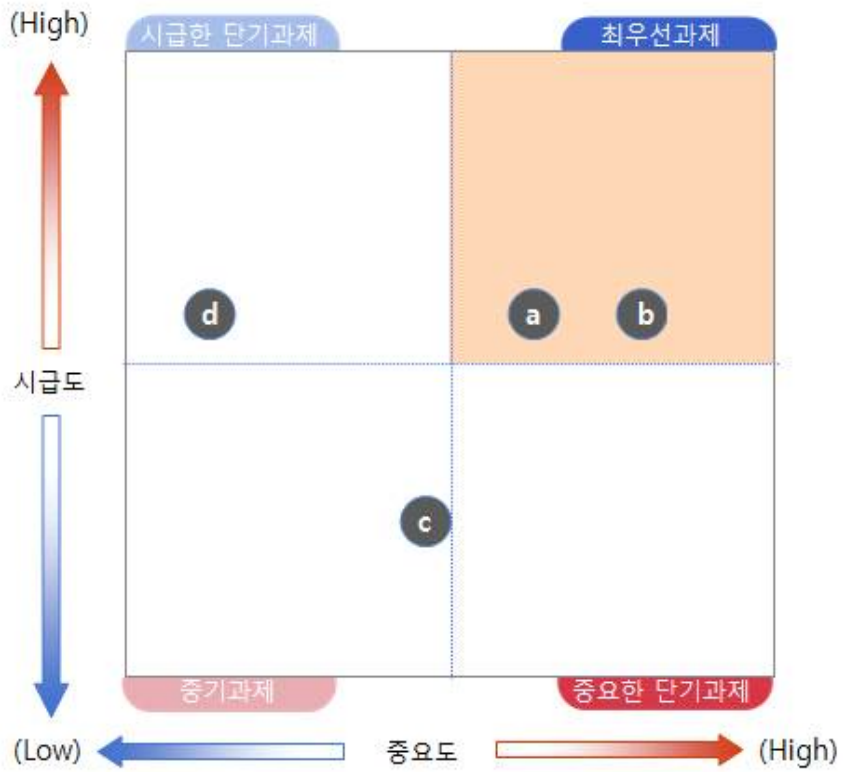
- 토론회 등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 구체화 노력이 필요함

□ 성과

○ 연구 과제 활용도 조사 양식 개발

- 각 과제 담당자에게 연구 결과 활용도를 조사할 때 사용할 양식의 개발 및 측정 기준 마련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 선 영 역	연 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 획	a	**사업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개발**	●	●	2
집 행	b	**연구과제 조기 착수 실현**		●	1
집 행	c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	●	3
성 과	d	연구 과제 활용도 조사 양식 개발		●	3

5분과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세부사업

5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503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술가치 인식 확대와 후원 분위기 조성을 통한 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의 균형 발전으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후원하는 사회문화 기반을 조성함

- 예술나눔기부활성화사업 : 민간지원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과 민간지원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기업 및 개인의 사회적 기여를 통한 공정사회와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함
- 기업과예술의 만남 지원 :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원로문화예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지원금을 지급,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예술인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196억원

○ 사업규모

- 예술나눔기부활성화사업

· 나눔포털구축, 예술가치 확산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및 '예술나무포럼' 추진, 예술나눔 브랜드 전략 수립, 크라우드펀딩 시행(11건/70백만 원 모금), 재능기부풀 구성·운영(75개 단체 참여), A&B 컨설팅 지원(23개 기업),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예술기부 인식확산 및 기반조성 사업 추진

· 기업(개인)의 기부를 통해 총 3,478건, 147억원 지원

- 기업과 예술의 만남

· 기업-예술단체 결연 104건(중소/중견 79건, 대기업 25건)

· 기업 지원금 총액 44억 원(매칭펀드 지원금 7억원 포함)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 원로문예인 총 38명(4명 작고), 250백만원 지원(생계비 월 60만원)

* '05년 이후 일몰제 사업 전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사업규모별 차등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사업명	16,847	19,614	8,093	△11,521	△58.7
■ 예술나눔기부활성화	15,545	18,340	6,841	△11,499	△62.7
■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1,000	1,000	1,000	-	-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302	274	252	△22	△8.0

□ 사업추진 절차

○ 예술나눔기부활성화(기부금사업)



○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기부금사업 행정서비스 만족도 (점)	목표	-	-	75.0	80.6	81.2	○ 경영평가 PCSI조사 산식 '고객만족 개선도' 적용 ○ 고객만족 개선도 100% 수준의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 기부자/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PCSI 조사 결과
	실적	-	-	77.8	79.1	81.4		
	달성도(%)	-	-	103.7	98.1	100.2		
기부금 유치실적 (백만원)	목표	8,200	9400	10,600	15,266	16,394	○ 전년도 실적을 기준치로 목표 부여 평가방법을 적용 ○ 최고 목표인 기준치의 100% 달성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연간 기부금액 집계 ○ 자료출처 :자체 결과보고서
	실적	9,948	10,236	13,435	14,903	13,823		
	달성도(%)	121.3	108.9	126.7	97.6	84.3		
매칭펀드 기업 지원금액(백만원)	목표	-	-	-	1,020	1,289	○ 과거 5개년 ('07~'11)실적 추세치를 활용한 목표부여 편차 평가방법 적용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 달성과 연동한 목표치 설정	○ 측정방법 :연간 지원금액 집계 ○ 자료출처 :주관단체 결과보고서
	실적	684	690	905	1,104	1,240		
	달성도(%)	-	-	-	108.2	96.2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평가명(연도)	지적사항	개선사항(실적)
문화부평가 (2011)	■ 신규기부상품 (일반기부금) 활성화	■ 고액 모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네이밍 기부, 기업체 현물기부, 월급 우수리(끝전) 기부, 사랑티켓 지원금액 기부 등 ■ 예술나무 운동과 연계한 기부 프로그램 개발로 본격적인 모금 활동 기반 강화 ■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소액 개인기부 활성화 - 참여 프로젝트 확대(7→11건) -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연계운동 추진 ■ 지속가능한 기업기부 유치를 위한 'Arts & Business 컨설팅 프로그램 시범 운영'으로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및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확대 유도(23개 기업)
	■ 정보관리 등 사업 관리기능 강화	■ 예술나무포털(www.artistree.or.kr)을 통한 예술나눔기부 관련 정보 및 사업의 통합 운영 관리 기반 마련 - 기부자, 수혜자 정보 통합관리 - 소액기부, 재능기부 등 기부참여 채널 확대 및 참여 편의성 제고 - 신청, 교부, 성과 단계의 기부금 사업 프로세스 간소화
	■ 기부금 성과에 대한 지속적 대외홍보 강화	■ 문화나눔포털, 각종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채널 상설화 및 다각화 ■ 예술나눔 브랜드 'ARTISTREE'를 중심으로 한 예술나무운동' 시행으로 홍보효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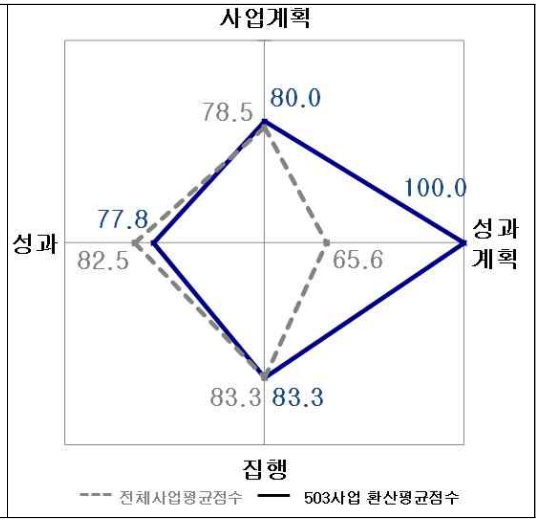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80.0점, '성과계획' 100.0점, '집행' 83.3점, '성과' 77.8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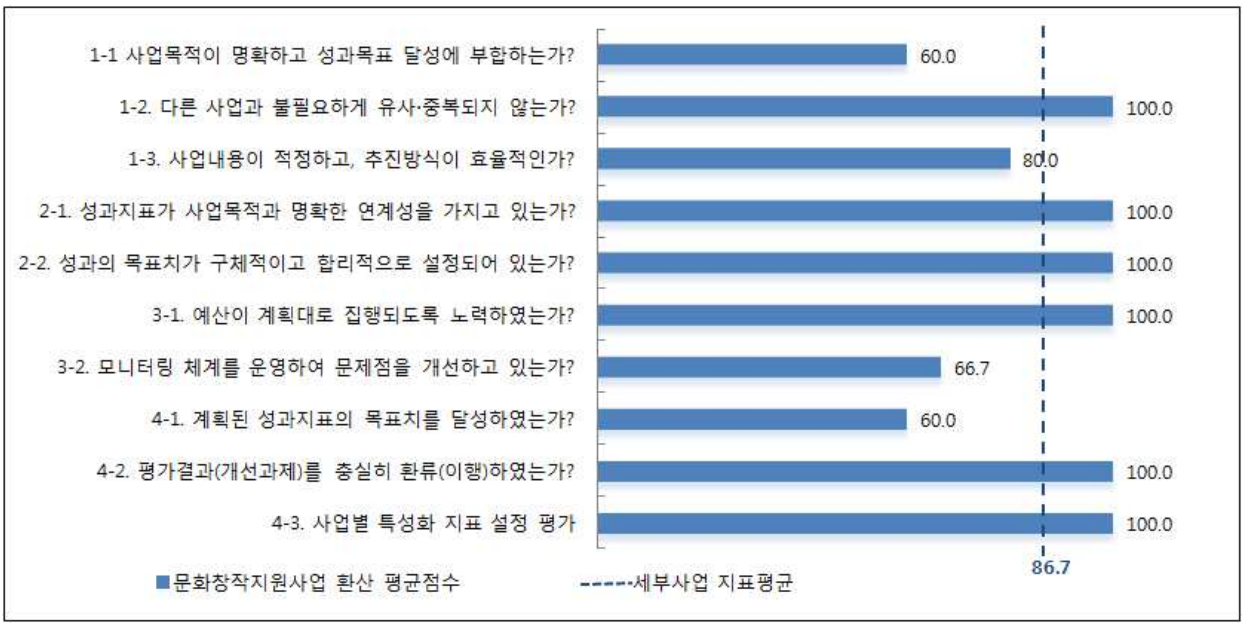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1.5), 성과계획(+34.4)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0.0)영역은 일치, 성과(-4.8)영역은 낮게 평가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3.0	60.0	80.0
	1-2(5점)	5.0	100.0	
	1-3(5점)	4.0	80.0	
성과계획	2-1(5점)	5.0	100.0	100.0
	2-2(5점)	5.0	10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15.0	60.0	77.8
	4-2(10점)	10.0	100.0	
	4-3(10점)	10.0	10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86.7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항목 중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성과’ 항목 중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와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와 ‘성과’ 항목 중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이며 6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503 문화예술 사회공헌 지원] 사업은 2012년도 평가 결과 “82.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평가 결과 “89.9점”보다 7.9점이 하락하였으나, 평가 등급은 전년도 “우수”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음

○ 평가영역별로 보면 ‘성과계획’에서 10만점에 10점(100점 환산 100점)을 얻어 만점을 받았고, ‘집행’에서 30점 만점에 25점(100점 환산 83.3점), ‘사업 계획’에서 15점 만점에 12점(100점 환산 80.0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성과’에서는 45점 만점에 35.0점(100점 환산 77.8점)을 얻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개선 과제로는 [503 사업]의 전략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성과지표상 기부금 조성액의 양적 확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장기 저성장 시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또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지원’이라는 사업 명을 사업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예술가치 인식 확대와 후원 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간기부 확대’를 통해 사업목적(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지원의 균형발전으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고 후원하는 사회문화 기반조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이 강함
- 사회문화기반 조성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 있는 투자가 요구되며, 정부재정지원은 필수적임

[부정적 측면]

- 사업을 통해 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세부내역사업 중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성이 떨어짐
- 사업명은 ‘문화예술 사회공헌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은 예술에 대한 기부금 모금사업(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개선제안]

- 사업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명 수정 요망

  * ‘예술나눔’이라는 용어는 ‘예술에 대한 기부’보다는 ‘예술을 소외계층에 제공한다’는 ‘문화나눔’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새로운 사업명 개발 필요함

- 원로문예인 복지 지원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고유사업으로 다른 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예술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개별 예술단체나 메세나협의회 등에서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상 중복으로 보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예술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공동 연대 활동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중복성의 문제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제안]

- 예술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메세나 협의회 등과 구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나가면서 사업 목적 및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세부사업인 ‘예술나눔 기부 활성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원로문예인 복지 지원’이 “예술가치 인식 확대와 후원 분위기 조성을 통한 예술 향유·후원 사회문화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목적과 적정하게 연계되어 있음
- 전반적인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특히,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의 경우 재원분담 및 사업추진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양호하고, 수요 예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인 사업 재원은 자체 사업비 투입이 바람직하며, 사업 방식에서 기업과 예술단체를 매개하는 방식도 적절함

[부정적 측면]

- ‘예술나눔 기부 활성화 사업’의 수요예측 시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 예측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법론이 구체적이지 못함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인 ‘기부금사업 행정서비스 만족도’, ‘기부금 유치 실적’, ‘매칭펀드 기업 지원액’은 ‘예술 향유·후원 사회문화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써 타당함
-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도 명확함

[부정적 측면]

- 매칭펀드 기업 지원금액의 결과지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함.(투입과 결과가 직접 연동되어 있음)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고 있음(근거: 2012년도 예술나눔부 업무계획서)
- 목표부여 평가방법(혹은 목표부여 표준편차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상 최상위 등급인 S등급 기준치 100%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예: 예술나무포털 구축 등)과 500만원 소액 지원구간 신설 등 성과제고 노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부정적 측면]

- 기부금사업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목표치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개선제안]

- 기부금 유치실적 목표치 설정 시 해당연도 경제성장률 등 경기전망 지표 고려해야 함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예산 집행률은 84.2%로 100% 미만이기는 하지만, 예술나눔기부활성화 사업의 경우 재원이 민간영역으로부터 기부에 의해 조성·집행되는 특수성이 존재(즉, 미 집행액은 정상 잔액이 아님)하며,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작고'라는 통제 불능 요소에 의한 불용액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투입되었음
- 예산 집행률이 100%에 현저히 못 미치는 84.24%에 불과하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2'로 판정함

[부정적 측면]

- 2012년도 예산 총 19,615백만 원에 대하여 84.2% 집행률을 보임
- 미집행 예산(15.8%)은 주로 예술나눔기부활성화 사업 중 기부금 사업(83.3% 집행률/ 172억 원 예산 중 141억 원 집행 후 30억 원 잔액 발생)에서 발생하였음

  * 이는 기부금 사업의 재원이 민간영역(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에 의해 조성, 집행되어 기부금 수입이 적을 경우 예산 집행액도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에 기인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예술나눔기부활성화	18,340	15,272	83.27%
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	1,000	1,000	100.00%
원로문예인복지지원	274	250	91.24%
소계	**19,614**	**16,522**	**84.24%**

- '예술나눔 기부 활성화 사업'의 경우 연말에 기부액이 집중된다면 연중 사업의 원활한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제안]

- 예술나눔기부활성화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상 직접수행사업과 기부금사업 영역을 구분, 기술하여 집행노력을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함
- 기부금 가운데 미집행액이나 원로예술인 미집행액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예를 들면 기부금 조성액 대비 집행률로 측정 기준을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운용하고 있음
- 사업성과 도출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 '예술나무 운동' 관련 발족식 기초위원회, 예술나무포럼 준비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였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경우 74개 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국내외 대규모 행사 등 기부금 사업 대외환경 악화로 성과지표 중 기부금 유치 실적과 매칭펀드 기업 지원금액의 계획 대비 성과가 비록 100%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예: 기부건수의 증가)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단순 기부신청 접수에 의한 전달자 역할을 탈피, 전년도인 2011년도에는 전담부서(예술나눔부)를 설치하여 기반조성 업무(포털, 네트워킹, 재능나눔, 홍보 등)를 추진해왔으며, 다양한 방식의 기부 프로그램 기획(크라우드펀딩, CMS정기기부 프로그램, 출판사 재고도서 현물기부 등) 및 '예술나무운동' 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부건수가 2011년 1,945건에서 2012년 3,4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세 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기부금 사업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목표치인 "81.2점"을 0.2점 초과한 "81.4점"(목표 대비 100.2%)을 획득하여 100% 달성함

[부정적 측면]

- 세 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기부금 유치 실적'과 '매칭펀드 기업 지원 금액'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 기부금사업 행정서비스 만족도(점)	81.2	81.4	100.2%
▪ 기부금 유치실적(백만원)	16,400	13,823	84.3%
▪ 매칭펀드 기업 지원금액(백만원)	1,289	1,240	96.2%
소계			93.6%

- 기부 건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가 있었음에도 기부금 유치 실적은 목표치 16,400백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823백만 원(목표 대비 84.3%)에 그침
- 매칭펀드 기업 지원 금액은 목표치 1,289백만 원에 근접한 1,240백만 원(목표 대비 96.2%)의 실적을 달성함
- 또한 기부금 유치실적이 4/4분기에 집중되고 있음

[개선제안]

- 전년대비 기부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액이 감소함. 따라서 기부건수와 유치액을 동시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예: 개인과 법인의 홍보전략 차별화 등) 마련이 필요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부금 모금 관련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성과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핵심 경영 목표하는 경우라면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예술계 및 사회 전체에 예술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한다면 성과지표 재설계가 필요함
- 또한 기부금 유치실적이 4/4분기에 집중되고 있어 연중 고른 기부금 유치 확대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분기별(혹은 월별)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① 신규기부상품(일반기부금) 활성화

[긍정적 측면]

- 고액 기획 모금 프로그램 개발·추진,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신규기부상품(일반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투입하였음
- 고액 기획 모금 프로그램 개발은 네이밍 기부, 기업체 현물기부, 월급 우수리(끝전) 기부, 사랑티켓 지원 금액 기부 등의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함
- 크라우드펀딩 참여 프로그램의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연계르 추진함
- 예술위원회 임직원 예술지원 기부금을 조성함 (76명 참여, 월 673,000원 기부(1년간))
- 지속가능한 기업기부 유치를 위한 ‘Arts & Business 컨설팅 프로그램 시범 운영’으로 유관 기관(단체)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및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을 확대하도록 유도함 (23개 기업)

[부정적 측면]

- 전년도 평가에서 신규기부상품 개발을 제안한 이유는 일반 기부금의 모금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대안 마련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2012년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모금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음

② 정보관리 등 사업관리기능 강화

[긍정적 측면]

- 예술나무포털 구축, 예술나눔기부 정보통계 조사 등을 통해 예술나눔 관련 정보 및 사업의 통합운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음
- 예술나무포털은 예술나무운동 안내 , 기부안내, 기부참여, 지원안내, 정보마당, 크라우드펀딩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기부처리 프로세스 편의성 제고, 기부자와 수혜자 간 연결기능 구축, 재능기부 시스템 기능 구축, 크라우드펀딩 운영 시스템 구축, 문화 나눔 활동 통계 및 관리기능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음

③ 기부금 성과에 대한 지속적 대외홍보 강화

[긍정적 측면]

- 예술나무운동의 성공적 런칭과 on/off line 홍보 및 언론홍보를 강화를 통한 국민체감도 증대 노력을 투입하였음

[부정적 측면]

- ‘501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발간’ 사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기부 건수(건)

[긍정적 측면]

- 특성화 지표 기부건수는 사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예술 향유・후원 사회문화 기반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써 타당함
- 지표정의, 측정산식 뿐 아니라 측정방법도 명확하고 합리적임
- 기부건수는 3,469건을 달성하여 특성화지표 목표치 2,706건을 크게 초과하여 100% 달성하였음

② 매칭펀드 참여 기업 만족도(점)

[부정적 측면]

- 매칭펀드 참여기업 만족도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이고 사업 자체가 안정기에 들어선 사업인데 목표치를 3(보통)~4(만족) 구간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개선제안]

- 차년도 매칭펀드 참여기업 만족도 목표치 설정 시 합리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5. 개선과제

□ 계획

○ 사업명 수정

- 사업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명 수정 요망
  * '예술나눔'이라는 용어는 '예술에 대한 기부'보다는 '예술을 소외계층에 제공한다'는 '문화나눔'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새로운 사업 명 개발이 필요함

○ 사업 내용의 재구성

- 원로문예인 복지 지원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부금 모금 사업의 전략 목표 설정

- 예술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메세나 협의회 등과 구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나가면서 사업 목적 및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상황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

- 기부금 유치실적 목표치 설정 시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등을 경기전망 지표에 고려해야 함

□ 집행

○ 예산 집행률 사업별 구분 작성

- 예술나눔 기부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상 직접수행사업과 기부금사업 영역을 구분, 기술하여 집행노력을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함

○ 기부금 사업의 예산 집행률 산출 방식 변경

- 기부금 가운데 미집행액이나 원로예술인 미집행액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
- 예를 들면 기부금 조성액 대비 집행률로 측정 기준을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성과

○ 전략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재설정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부금 모금 관련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성과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핵심 경영 목표하는 경우라면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예술계 및 사회 전체에 예술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한다면 성과지표 재설계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특성화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기부금 모금 건수'를 성과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기부 건수와 기부금 유치액 증가의 병행 전략 마련

- 전년대비 기부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액이 감소함
- 따라서 기부건수와 유치액을 동시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예: 개인과 법인의 홍보전략 차별화 등)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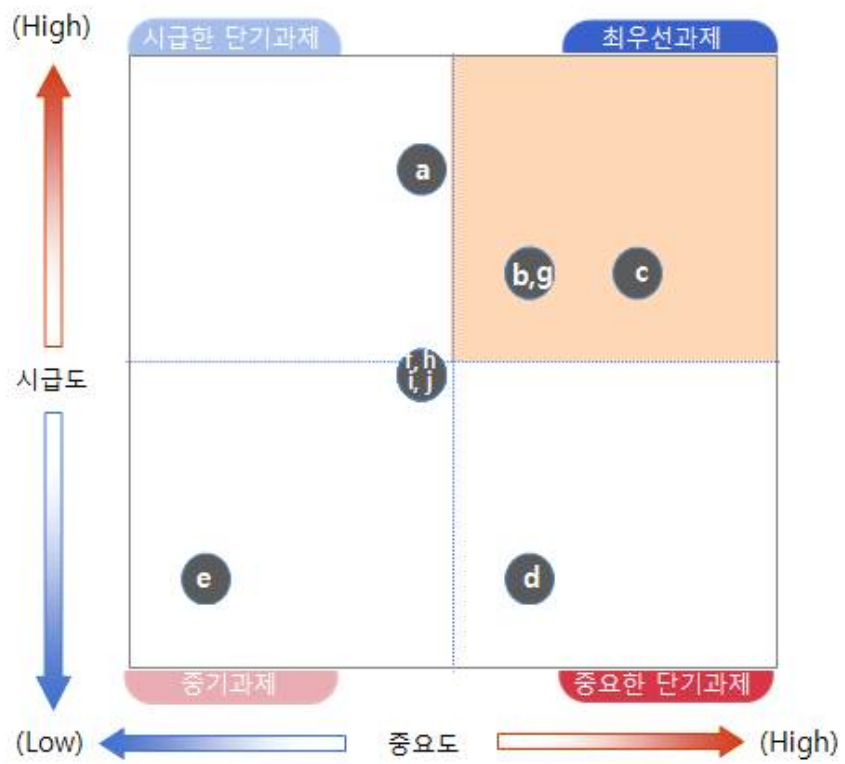
○ 기부금 유치 실적의 반기별 균형 실현

- 또한 기부금 유치실적이 4/4분기에 집중되고 있어 연중 고른 기부금 유치 확대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반기별(혹은 분기별이나 월별)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매칭 펀드 참여기업 만족도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차 년도 매칭 펀드 참여기업 만족도 목표치 설정 시 합리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 영역	연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사업명 수정		●	2
계획	b	**사업내용의 재구성**		●	2
계획	c	**기부금 모금 사업의 전략 목표 설정**		●	1
계획	d	경제상황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		●	7
집행	e	예산 집행률 사업별 구분 작성		●	8
집행	f	예산 집행률 산출 방식 변경		●	5
성과	g	**전략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재설정**		●	2
성과	h	기부 건수와 기부금 유치액 증가의 병행 전략 마련	●	●	5
성과	i	기부금 유치 실적의 반기별 균형 실현		●	5
성과	j	매칭펀드 참여기업 만족도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	5

5분과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세부사업

504 공공미술기반사업

504 공공미술기반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11.11.26 시행)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신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출연한 문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예술위 공공미술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ㅇ 공공미술 시범사업과 연구·교육·아카이브·홍보 등 기반사업 추진함으로써 국내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12년 ~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12년 10억원

ㅇ 사업규모

- 공공미술 시범사업(5억원) : 지자체와 협력하여 4건 추진, 마로니에공원대상 신진예술가 공공미술프로젝트 2건 등 추진

- 기반사업(5억원) : 연구 4건, 전문가 대상 교육 10회 및 공무원 대상 교육 2회 추진, 공공미술 포털사이트 구축,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및 선택적 기금제 홍보 등 5억 원 추진

ㅇ 지원대상 : 예술가, 예술단체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공공미술 시범사업<도시공원 예술로>는 사업기간이 2개년으로 2013년 지자체 예산 매칭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

ㅇ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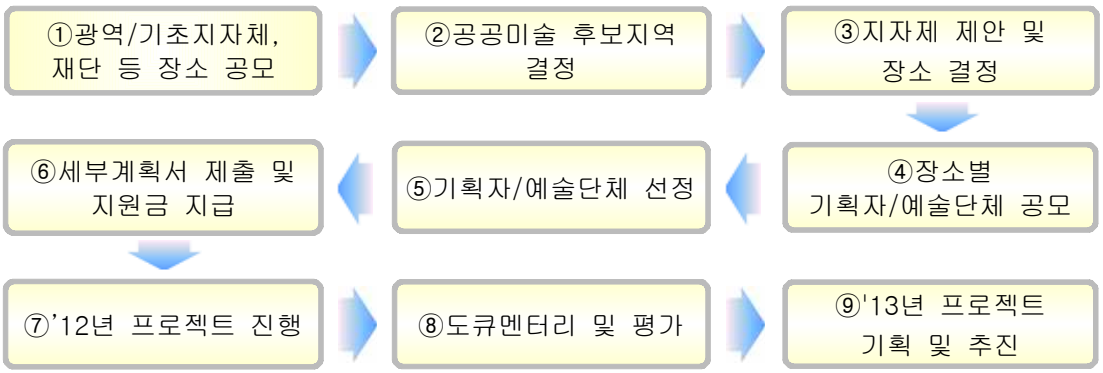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
□ 공공미술사업	-	1,000	1,000	-	-

□ 사업추진 절차

○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 공공미술 기반조성 사업 (연구, 교육, 아카이브, 홍보 등)



□ 성과관리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11	'12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공미술기금 출연액 (단위:억원)	목표	-	-	-	-	10	○최근 5개년 미술작품설치 평균금액(780억원), 기금출연가능성이 높은 근린생활시설비율(65%), 건축주 출연의향(20%) 등을 변수요인으로 고려함	○아르코 정보시스템(ERP)으로 관리되는 공공미술 출연금액
	실적	-	-	-	-	10.5		
	달성도(%)	-	-	-	-	105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	-	-	-	85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2012년 목표치 85점을 고려하여 설정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5점 리커트척도로 설문조사
	실적	-	-	-	-	86.6		
	달성도(%)	-	-	-	-	102		

□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실적

: 2012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참고 사항

○ 사업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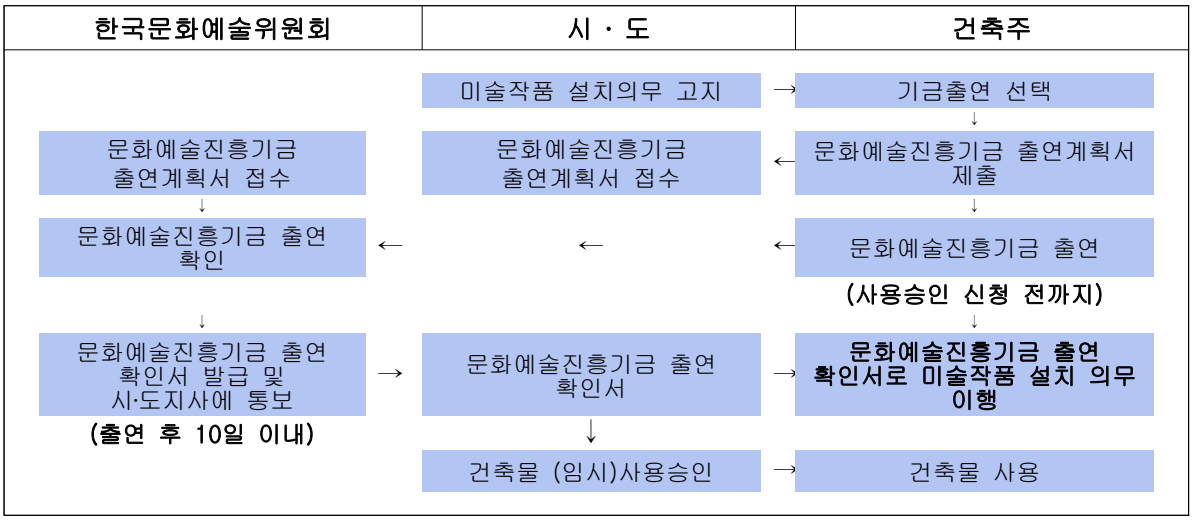
- '72.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 '72.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84. 7월 서울시 의무사항으로 조례제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95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00 미술장식 사용금액 비율 1%이하로 하향 조정
- '04 정부가 발표한 『새 예술정책:예술의 힘』에서 공공미술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계획 공포
- '09. 9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정부안) 입법예고
- '09. 9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공청회
- '10. 9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 '11. 3월 문방위 대안으로 법안통폐합 후, 국회 상임위 통과
- '11. 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대안) 법사위 통과
- '11. 4.2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 '11. 5.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대안) 공포
- '11.11.26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 도시환경 개선 및 예술창작 기획 확대를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의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혹은 증축할 때에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을 설치” 하는데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직접 설치 대신 “설치 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하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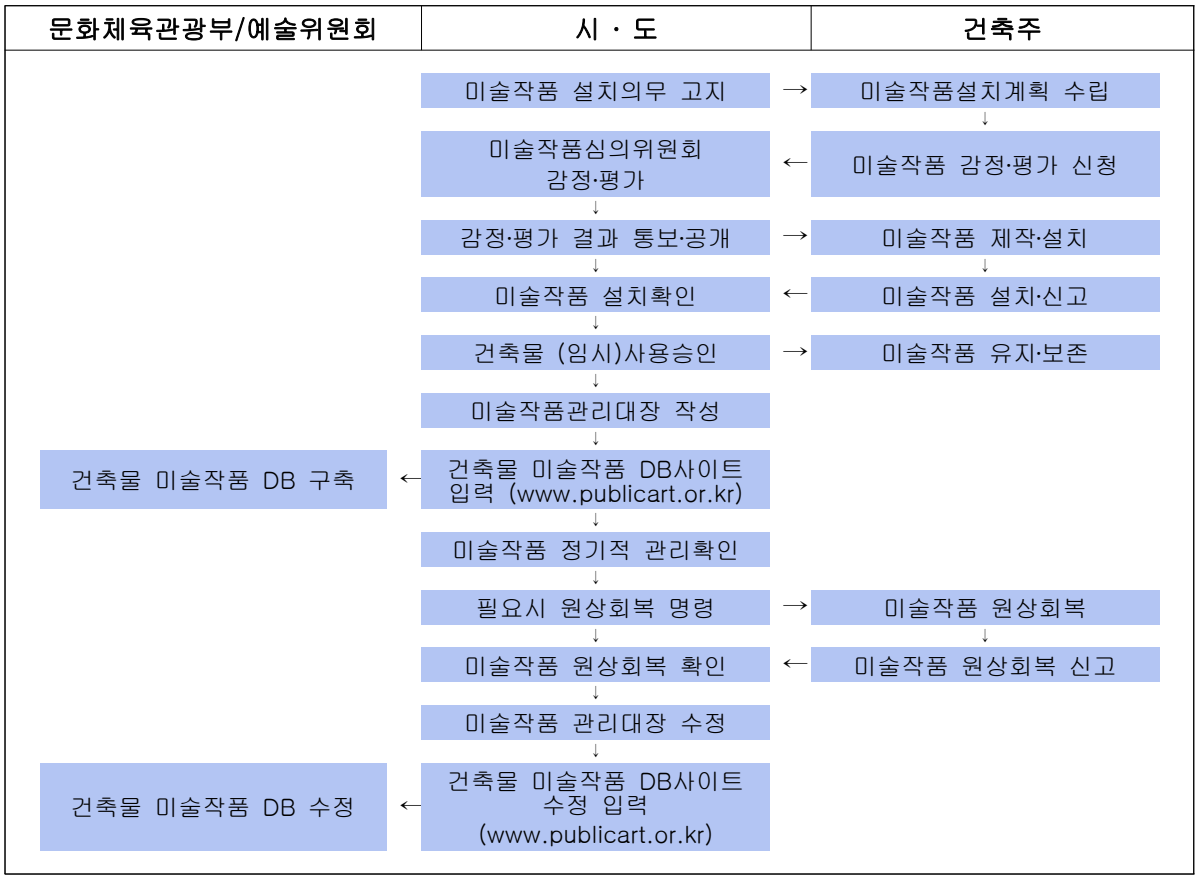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건수 및 금액 현황

년도	미술작품 설치건수	미술작품 설치금액
2007	1,229건	673억 원
2008	998건	751억 원
2009	831건	689억 원
2010	891건	928억 원
2011	791건	864억 원
누적 합계	12,936건	8,340억 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절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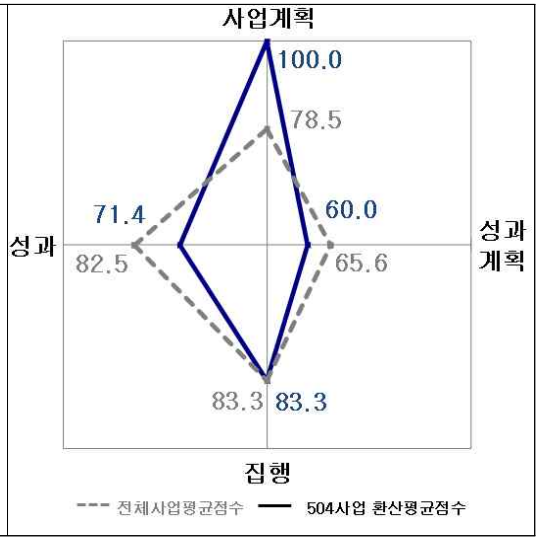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결과

○「공공미술기반사업」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4개 항목에서 ‘사업계획’ 100.0점, ‘성과계획’ 60.0점, ‘집행’ 83.3점, ‘성과’ 71.4점이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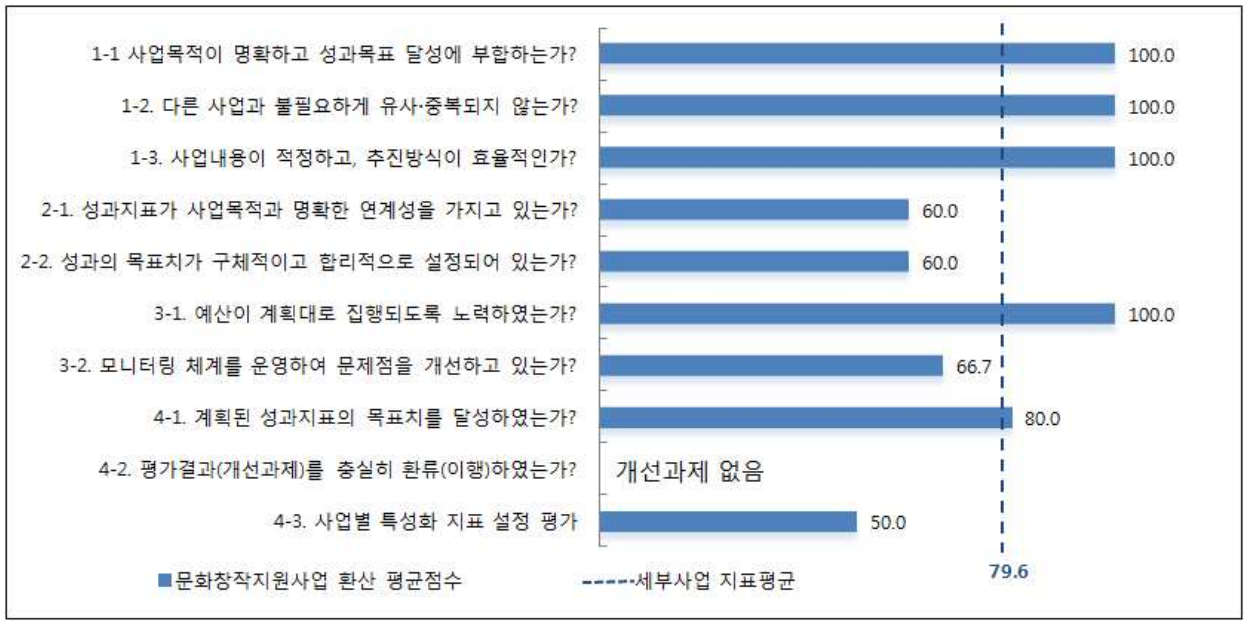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전체 사업평균 점수 대비 사업계획(+21.5)영역은 높게 평가된 반면, 집행(+0.0)영역은 일치되었고, 성과계획(-5.6), 성과(-11.1)영역은 낮게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획득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	
사업계획	1-1(5점)	5.0	100.0	100.0
	1-2(5점)	5.0	100.0	
	1-3(5점)	5.0	100.0	
성과계획	2-1(5점)	3.0	60.0	60.0
	2-2(5점)	3.0	60.0	
집행	3-1(15점)	15.0	100.0	83.3
	3-2(15점)	10.0	66.7	
성과	4-1(25점)	20.0	80.0	71.4
	4-2(10점)	개선과제 없음	개선과제 없음	
	4-3(10점)	5.0	50.0	



□ 세부 평가지표 결과

[해당 세부·기초사업 지표평균 대비 세부평가 지표점수 비교]



ㅇ「공공미술기반사업」의 10개 세부평가지표는 평균 79.6점(환산점수 기준)으로 산출됨

ㅇ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사업계획’ 항목 중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와 ‘집행’ 항목 중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이며 100.0점으로 평가됨

ㅇ 가장 낮게 평가된 지표는 ‘성과’ 항목 중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이며 50.0점으로 평가됨

3. 총평

○ [504 공공미술 기반사업]은 2012년도 평가 결과 “78.1점”을 획득하여 “보통”의 평가 등급을 받음

○ 평가영역별로 보면 ‘사업 계획’에서 15점 만점에 15점(100점 환산 100.0점)을 얻어 만점을 받았고, ‘집행’에서는 30점 만점에 25점(100점 환산 83.3점)을 얻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성과’에서는 45점 만점에 32.1점(100점 환산 71.4점)과 ‘성과계획’에서 10만점에 6점(100점 환산 60점)을 얻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개선 과제로는 사업 목적 및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공공미술 기금 출연 제도 시행이 출발 단계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4.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 계획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긍정적 측면]

- 건축물 미술장식과 관련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공공미술 기반 사업과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미술 전반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11.26.)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대신 조성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반으로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3대 성과목표(공공미술 인식제고 및 기반구축, 공공미술 추진 인적역량 강화, 한국형 공공미술모델 제시 등)를 통해 사업목적(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사업의 추진체계 마련과 국내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을 달성하고자 하는 연계성이 강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션 및 비전과의 연계성은 다소 약하나 예술 향유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연계성이 있음
- 공공미술사업의 본질적 성격상 공공재원 투입이 필요하고, 또한 이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임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긍정적 측면]

- 공공미술 기반사업의 세부내역사업(공공미술 시범사업과 기반사업)은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타 기관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자 등이 지역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에서 확대된 전국단위임
- 공공미술에 대한 프로젝트는 지자체 등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능이 특화되어 있음
- 직접 사업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 매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사업 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미술의 전반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있음
-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 다른 공공미술 사업과는 중복성 보다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긍정적 측면]

- 세부내역사업(기반사업과 공공미술 시범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사업의 추진체계 마련과 국내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과 적정하게 연계되어 있음
- 즉,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공미술 기반 구축사업, 공공미술 관련 인적 역량 강화 사업, 한국형 공공미술 모델 제시 사업(‘도시공원 예술로’, ‘혁신도시 공공미술 공동추진’) 등 공공미술의 질적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사업목적에 맞게 구성됨
- 각 사업에 효율적인 직접수행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재원분담, 협력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수혜대상자 선정이나 지원방식, 수요예측 등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성과지표별 답변
공공미술기금	계량	공공미술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재원 마련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음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계량	국내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인 공무원과 신진 예술가의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추진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임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 되어 있음

[부정적 측면]

-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의 경우 기반사업 중 전문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부내역사업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음
- 또한 표본이 전문가 교육생 26명으로 조사방법에 객관성이 부족함
- 공공미술 기금 조성액은 외부 재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투입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개선제안]

- 504 사업의 사업 내용과 성과목표를 포괄하면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 공공미술 DB 구축(2012년 13,500여 건), 공공미술 사업 관련 언론보도 건수(2012년 63건), 도시공원예술로 사업 워크숍 및 전시 참가자 수(2012년 1,973명) 등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긍정적 측면]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하고 있음 (근거: 2012년도 공공미술 사업 기본계획 및 성과계획서)
- 만족도 조사 85점도 의욕적인 목표치로 판정됨

[부정적 측면]

- 기금출연 제도 홍보 및 설명회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2009년도)에 실시된 기금출연 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신뢰성이 다소 떨어짐
-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가 자체 조사로 이루어져 신뢰성이 다소 떨어짐

[개선제안]

- 공공미술기금 출연액 확충과 관련하여 기금출연 제도 홍보 및 설명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집행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을 위한 일부 노력이 있었으며, 예산집행 상 표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투입되었음
- 재원 집행률이 100%에 미달하였으나 99.2%로 사실상 100% 집행이라 볼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예산 집행액이 992백만 원으로 예산액 1,000백만 원에 근접하는 99.2%를 달성하였지만, 100% 달성은 이루지 못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A)	결산(B)	집행률(B/A)
공공미술 사업 운영	1,000	992	99.20%
소계	**1,000**	**992**	**99.20%**

- 예산의 분기별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4/4분기에 집중되고 있음
- 공공미술 시범사업 예산 5억 중 1개 지자체와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1억 원이 서버교체 비용 목적으로 전용됨

[개선제안]

- 재원 집행실적을 세부내역사업(공공미술 시범사업, 기반사업) 별로 분리하여 보고할 필요성이 있음
- 분기별 재원 집행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설계가 필요함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긍정적 측면]

- 신규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하여 한시적·집중적인 전문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고, 계획-추진-평간 단계에서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또한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미술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
- 사업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미술 사업 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함

[부정적 측면]

-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점검 기회를 상실함
- 공공미술 시범사업의 시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함

[개선제안]

- 공공미술 참여 주체인 건축주, 미술인,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가 필요함

□ 성과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긍정적 측면]

- 공공미술 기금 출연액은 목표치 10억 원을 초과한 1,046,721,240원 조성을 달성함
-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는 목표치인 85점을 상회하는 86.6점을 획득함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공공미술 기금 출연액	10	10.5	105.00%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85	86.6	101.88%
소계			103.4%

[부정적 측면]

-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모두 100% 달성하였으나, 평가지표 2-2(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에서 '모든기준충족'에 부합되지 못하여 "등급3"으로 판정함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없음. (신규사업)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평가

① 시범사업 공정률

[긍정적 측면]

- 공공미술 시범사업은 2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1차 년도인 점을 고려하여 과정지표인 '공공미술 시범사업 공정률'을 지표로 설정함
-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이 비교적 명확하고 목표치 설정이 적정함

[부정적 측면]

- 2012년 시범사업 공정률이 20%로 목표치인 20%에 못 미침

[개선제안]

- 사업 계획단계에서 공정률 100% 기준으로 전체 공정을 제시한 후 연간 달성도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② 외부재원 유치액

[긍정적 측면]

- 외부 재원 유치액은 결과지표로써 시범사업의 추진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적정성이 있음

[부정적 측면]

- 외부재원 유치 대상이 지자체로 제한된 조건이므로 성과지표로써 한계가 있음
- 2012년 외부재원 유치금액은 408백만 원으로 목표치인 500백만 원의 81.6% 조성에 그침

5. 개선과제

□ 계획

○ 성과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재설정

- 사업 내용과 성과목표를 포괄하면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 공공미술 DB 구축(2012년 13,500여 건), 공공미술 사업 관련 언론보도 건수(2012년 63건), 도시공원예술로 사업 워크숍 및 전시 참가자 수(2012년 1,973명) 등

○ 공공미술 기금 출연제도 홍보 강화

- 공공미술기금 출연액 확충과 관련하여 기금출연 제도 홍보 및 설명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집행

○ 예산 집행 계획 사업별 분리 작성

- 재원 집행실적을 세부내역사업(공공미술 시범사업, 기반사업) 별로 분리하여 보고할 필요성이 있음
- 분기별 재원 집행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설계가 필요함

○ 고객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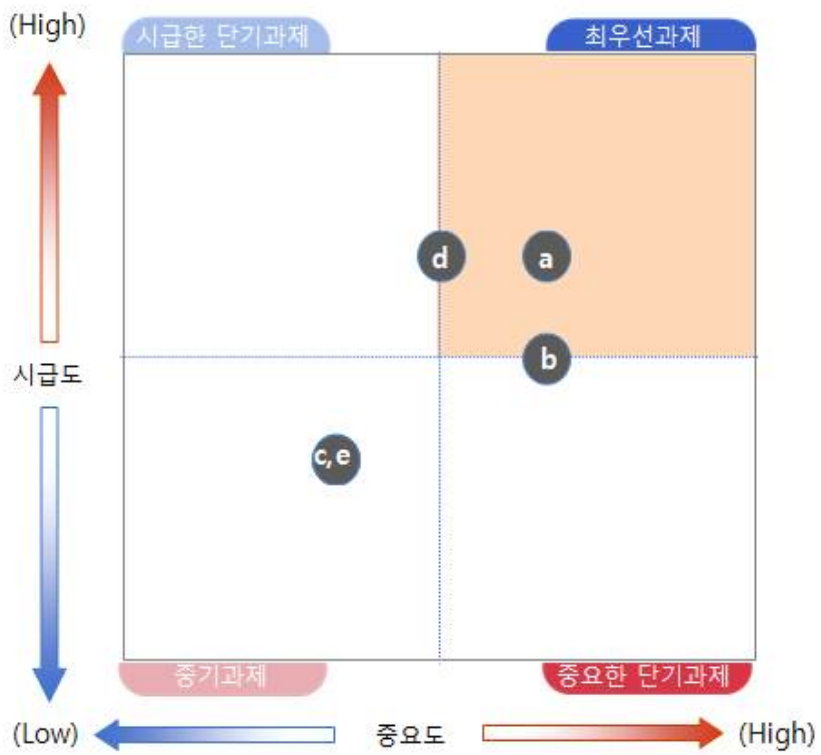
- 공공미술 참여 주체인 건축주, 미술인,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가 필요함

□ 성과

○ 시범사업 공정률 지표의 개선

- 사업 계획단계에서 공정률 100% 기준으로 전체 공정을 제시한 후 연간 달성도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6. 개선과제 우선순위



개선 영역	연번	개 선 과 제	2011	2012	우선 순위
계획	a	**성과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재설정**		●	1
계획	b	공공미술 기금 출연제도 홍보 강화		●	2
집행	c	예산 집행 계획 사업별 분리 작성		●	4
집행	d	고객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		●	2
성과	e	시범사업 공정률 지표의 개선		●	4

2012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발행인	유진룡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인쇄일	2013년 3월
발행일	2013년 3월
인쇄인	성광인쇄